

城南文化研究

(창 간 호)

성 남 문 화 원



향 토 문 화 연 구 소

사단법인 성남문화원 부설

— 차 레 —

⊕ 축 위호: 김 길 배 서예가 5

□ 창간사	성남의 뿌리를 찾아	이 창 열 소 창	11
□ 축 사	정신문화계승의 초석 ...	임 석 봉 시 장	13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 ...	손 영 태 식의회 의장	14
	지역발전을 위한 지침서 ...	오 세 응 국회의원위원장	15
	발전하는 문화도시	이 윤 수 국회의원	16

□ 연구논문 19

金 昌 煥	城南市の 地形環境 研究	21
朴 相 圭	城南地域의 地名性格 考察	41
	— 百濟語와 高句麗語의인 要素를 中心으로 —	
魚 順 英	民族文化宣揚에 관한 小考	83
李 亨 求	永昌大君 墓誌銘 發見과 永昌大君 略史	105
張 三 鉉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121
	— 墳墓를 中心으로 —	
全 寶 三	碧巖 覺性禪師의 生涯와 思想	175
韓 春 燮	城南 漢詩 同人(詩集)資料 考察	201

□ 작 답 회.....	243
--------------	-----

21세기를 바라보는 성남문화	245
-----------------------	-----

— 참석인 — (사회자: 한춘섭)

이 창 열	이 형 구	어 순 영	고 재 혁
리 재 범	박 상 규	전 보 삼	장 삼 현
김 창 환	윤 범 식	홍 성 룡	김 일 평

□ 부 록	289
-------------	-----

郷土文化研究所 運営規程(案)	291
-----------------------	-----

郷土文化研究所 沿革	295
------------------	-----

郷土文化研究所 研究委員 조직표	296
------------------------	-----

郷土文化研究委員 紹介	297
-------------------	-----

□ 화 보	299
-------------	-----

연구소의 이모저모	301
성남 고지도 안내	303

연 구 논 문

目 次

城南市の 地形環境 研究

金 昌 煥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 次 目 次 〕

- | | |
|--------------|------------|
| 1. 서 論 | 3) 關係적 위치 |
| 1) 연구목적 | 3. 지질과 지형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1) 지질 |
| 2. 성남시의 위치 | 2) 지형 |
| 1) 수리적 위치 | 4. 요약 및 결론 |
| 2) 지리적 위치 | |

1. 서 론

1) 연구목적

도시는 일종의 도시문화 저장소로서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활동이 비교적 좁은 면적 안에서 집약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도시는 외관적으로 도시의 상징인 도로, 방장, 공공건물 등 뚜렷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며 주로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거대한 집단정착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이러한 도시적 특성들은 각 도시별로 나타나는 상이한 지리적 요소들의 차이로 인하여 야기된다. 지리적 요소는 자연현상을 구성하는 자연적 요소와 인문현상을 구성하는 인문적 요소로 대별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의 특성을 구성하는 지리적 요소 중에서 특히 자연적 요소인 지형과 지질을 중심으로 하여 성남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성남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문헌에 의한 조사와 인용을 위주로 하였으며, 현지 답사도 병행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성남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어 자료가 빈약하며 애로가 많았으며, 지형관계는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0지형도(水原圖幅)를 이용하였다. 지질과 관련된 자료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발행 1:50,000 지질도(屯田圖幅)를 사용하였다.

인문적 요소에 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내용은 우선 지리적 성격을 띤 성남의 자연 중 특히 지형, 지질을 다루기로 한다.

1) 韓熙澤, 1978, 都市行政論, 法文社, p. 12.

2. 성남시의 위치

1)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란 지구 표면에 있어서 경도와 위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위치를 말한다.²⁾

성남시는 경도상으로 동경 127° 1' 17"~동경 127° 11' 22"에 위치하여 동서 간격이 약 10' 정도이다. 시의 중앙경선은 동경 127° 6' 20"이며, 국내적으로는 함경남도 장천·영흥,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평택, 충청남도 논산, 전라남도 보성, 국외적으로는 Siberia의 상가르(Sangar), 한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의 지린성(吉林省)을 거쳐 Philippines 동쪽의 필리핀 해구(Philippines trench), Indonesia의 티모르 섬(Timore Island) 동부 그리고 Australia의 그레이트 샌디 사막(Great Sandy Desert) 등이 성남시와 비슷한 경도에 위치하고 있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 19' 54"~북위 37° 23' 23"에 위치하여 남북 간격이 약 9' 정도이다. 이러한 성남시의 위도적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는 국내적으로 경기도 시흥, 강원도 정선·평창·동해시 등이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Algeria의 알제리(Alger), Greece의 아테네(Athini),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 남부와 산둥반도(山東半島),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미국 캔자스 주의 아칸소(Arkansas city)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머스(Portsmouth) 등이 있다. 시의 중앙위선은 북위 37° 24' 10"이다(표 1).

(표-1) 성남시의 사극(四極)

방 위	경 위 도	해 당 지 명
동	동경 127° 11' 22"	중원구 상대원동 산1번지
서	동경 127° 1' 17"	분당구 석운동 산20번지
남	북위 37° 19' 54"	분당구 구미동 산83번지
북	북위 37° 23' 23"	수정구 창곡동 산1번지

2) 鄭瑋鎬, 1993, 地理學辭典, 結成文化社, p. 360.

따라서 시의 중심부는 시의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동북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인 三坪洞이다.³⁾

2) 지리적 위치

성남시는 태백산맥의 칠령 부근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나온 팔주산맥 지역의 연장 지역에 위치하여 북동쪽의 검단산(黔丹山, 534.7m)과 청량산(淸涼山, 479.9m), 북서쪽의 인릉산(仁陵山, 326.5m), 서쪽의 청계산(淸溪山, 546m) 등에 의해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동쪽으로는 광주군과 하남시에 인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광주읍, 남동쪽으로는 광주군 오포면, 남쪽으로는 용인군 모현면과 수지면, 서쪽으로는 의왕시와 과천시,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강남구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성남시는 서울과의 연계가 매우 밀접하여 서울의 인구분산적 기능을 가진 위성 도시로서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당 심시가지가 형성된 것도 바로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결과로 생각된다.

3) 관계적 위치

성남시는 전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도로와 교통이 많이 변하고 발전해 온 지역이다. 1969년 개발 초기에는 서울 원호동의 광진교가 유일한 서울로의 관문으로 이용되어 오다 한남대교와 잠실대교가 개통됨으로써 광진교 노선은 폐지되고, 한남대교와 잠실대교를 통한 서울과의 도로 교통이 주요 교통수단이 되었다. 더욱이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판교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를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직행할 수 있게 되고, 경충국도가 확장 포장됨으로써 동부지방과의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교통수단은 1980년대 말까지는 여전히 서울강남고속터미널을 개통으로 성남시와 인접해 있는 곤지암 인터체인지를 이용한 전국 교통망이 형성되었고, 1991년의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교통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교통망이 형성

3) 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 성남시사, 성남시, p.67.

되었다. 더욱이 1994년 말 성남 지하철이 개통되고 분당 신시가지가 완전히 건설되면 전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는 교통여건을 가지면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가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⁴⁾

성남시는 수도 서울시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25km 거리에 있으며,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는 약 20km, 안양과는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다(그림 1)(표 2).



그림 1 성남의 도시 세력권도

4) 장재식, p.68~69.

[표-2] 전국 주요도시와 성남시 간의 거리

지 명	거 리(km)	지 명	거 리(km)	지 명	거 리(km)
강 물	251.5	광 주	311.5	논 산	375.8
대 구	288.3	대 권	180.7	부 산	435.2
서 산	193.2	안 녕	245.2	문 양	93.2
원 주	107.5	이 리	221.5	전 주	244.6
원 춘	183.7	세 천	128.8	원 안	72.8
청 주	192.3	충 주	109.4	대 려	350.0

3. 지질과 지형

1) 지 질

성남시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의 지질은 지체구조상 京畿地塊(Kyonggi Massif)에 해당된다. 경기지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선캄브리아(Pre-Cambrian) 시대의 순상지이며, 중국의 산둥지괴(山東地塊)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⁵⁾ 경기지괴를 구성하는 암석으로서는 화강암질 편마암·호상 편마암·반상면정질 편마암·석영-장석질 편마암·흑운모 편마암·흑운모-백운모 편암·석회질 편암·각섬암·규암 및 혼성 편마암 등이 있다.

이러한 경기지괴의 북서부에 놓여있는 성남시는 京畿 片麻岩 複合體(Kyonggi Gneiss Complex)로 알려진 지역 중의 하나로 대부분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편마암류는 주로 縞狀 黑雲母 片麻岩(Banded biotite gneiss)으로 구성되며, 그 밖에는 이 암체에 부분적으로 개재된 細粒質 片麻岩(fine-grained gneiss), 優白質 片麻岩(Leucocratic gneiss), 화강암질 편마암(granitic gneiss), 석회암(Limestone), 규암(Quartzite), 角閃岩(Amphibolite)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후기인 白堊紀(Cretaceous)에 소

5) 정갈호, 전계서,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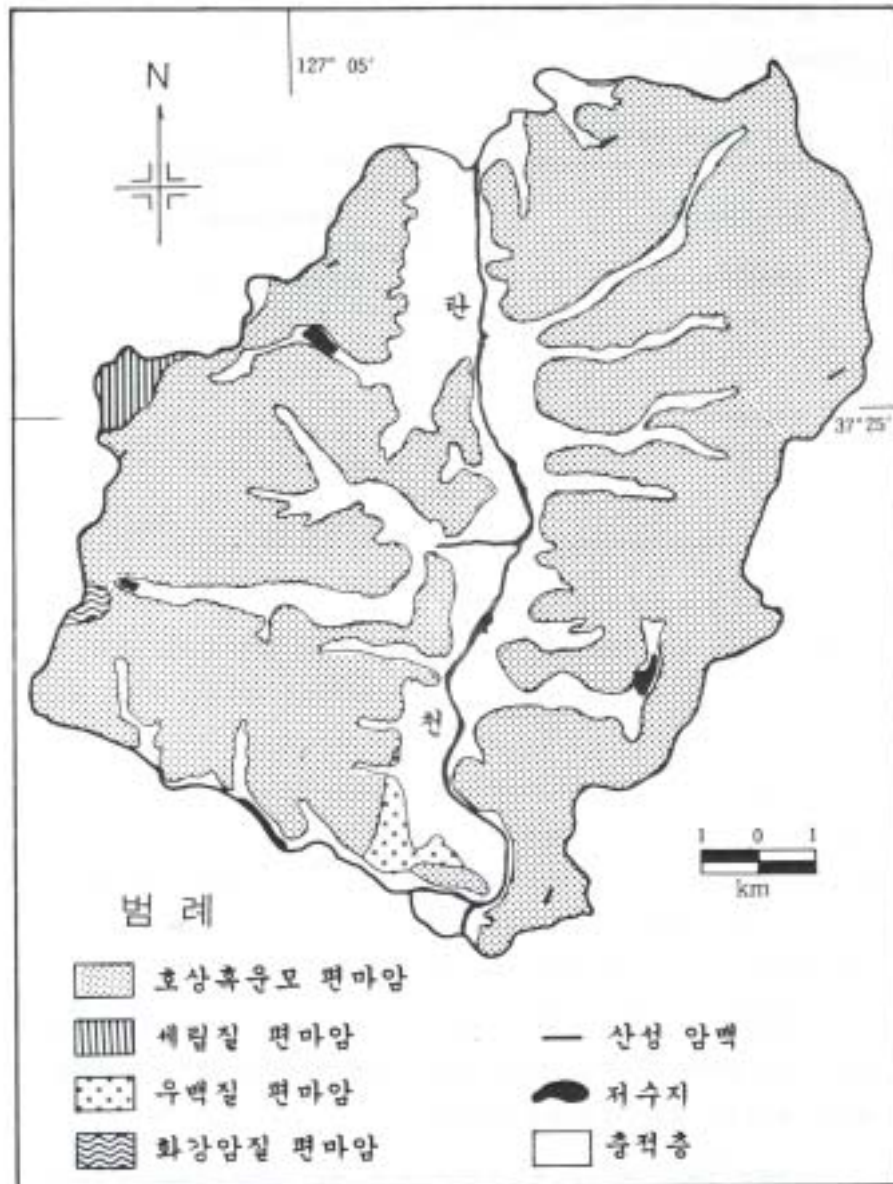


그림. 2 성남시 지질도

량의 酸性岩脈(Acidic dikes)이 이 암체들을 관입하였으며, 이들과 부정합으로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표 3).

(표-3) 성남시의 지질개요표

생 성 시 기	지 질
第 4 紀(Quaternary)	沖積層(Alluvium)
不 整 合(Unconformity)	
白堊紀(Cretaceous)	酸性岩脈(Acidic Dikes)
	貫 入(Intrusion)
先캄브리아紀 (Pre-Cambrian Period)	角閃岩(Amphibolite)
	珉岩(Quartzite)---雲母片岩(Mica Schist)
	石灰岩(Limestone)
	花崗岩質 片麻岩(Granitic Gneiss)
	淺白質 片麻岩(Leucocratic Gneiss)
	細粒質 片麻岩(Fine-grained Gneiss)
	縞狀 黑雲母 片麻岩(Banded Biotite Gneiss)

(1) 호상 흑운모 편마암

성남시 지질의 주요 구성암체인 호상 흑운모 편마암은 가장 오래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이 편마암체는 顯生永年의 다른 지층보다 고도의 변성정도, 조선누층군에 의해 부정합으로 피복된 것, 화강편마암계가 상원계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인다는 사실 등에 의해 始生代(Archeozoic)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경기 편마암 복합체의 연령은 대체로 8억~29억년 정도인 것으로 생각된다.⁶⁾ 성남시의 편마암의 연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암체의 연장부임에는 틀림없으므로 대략 위와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암석의 노두는 대부분 풍화되어 신선한 면을 보기 어렵지만, 대체로 편마구조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남시 북부와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선한 노두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 암체 중에 斑狀變晶이 함유된 부분은 상대원동 二輝 岩 부근과 석운동 발화산리 일대에 분포한다.

6) 洪勝昊, 李柄柱, 1982, 지질도폭설명서(1:50,000, 屯田圖報), 韓國動力資源研究所, p.3.

이 편마암의 片麻構造(Gneissosity)는 대체로 북북동 내지 북동동 주향 방향과 남동측의 중간 내지 높은 경사각을 보인다.

(2) 세립질 편마암

이 암석은 주로 세립질 石斑을 가지는 편마암이다. 이 편마암의 石斑을 지닌 채로 변상면정을 함유하여 毬球狀 片麻岩(Augir gneiss)을 이루는 것과 흑운모 함량 격간으로 우백질 편마암화하기도 한다.

岩相은 대체로 세립질 내지 중립질로서 기의 片狀 組織(Schistose fabric)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흑운모가 적어지서 석영과 장석만 남은 부분은 우백질로 나타난다. 구성광물로는 석영이 가장 많으며, 정장석·미사장석·사장석·흑운모 등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기타 소량의 광물들도 있다.

이 암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원동과 성남시 수정구 고동동의 경계가 되는 인공산 능선 중 저우리 부근과 정량산 능선 부근, 성남시 화선운동 부둣마를 근처에 분포한다.

(3) 우백질 편마암

우백질 편마암의 분포상은 불규칙하지만 그 範圍는 주위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의 것과 조화를 이룬다.

수원의 充數山 부근에서 포함된 호상 흑운모 편마암의 포획체 내의 편마구조는 분명히 절단되는 것이지만, 화강암질 편마암내에 그와 평행한 다른 열리가 형성된 것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는 호상 흑운모 편마암의 편마구조 형성 이후에 화강암질 편마암이 관입된 후 열리를 형성시킨 구조운동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⁷⁾

암상은 대부분 조립질 내지 巨晶質에 이르며, 편마구조는 희미하고 때로는 세상에 가깝다. 대부분 화강암질이다. 구성 광물은 석영·加里장석·사장석·흑운모·백운모·기타 불투명 광물 등이다.

분포 지역은 성남시 남서부에 해당되는 동원동과 금곡동의 일부 지역이다.

(4) 화강암질 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은 성남시와 의왕시의 경계를 이루는 鶴峴의 남부, 즉 국사봉과 바과

7) 상재서, p.8

산 중간 지대에서만 국부적으로 존재한다.

편마암 엽리는 희미한 곳이 많으며 주위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 조화를 이룬다. 이 편마암의 분포상은 매우 불규칙하지만 엽리는 주로 남동으로 경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의 접촉부는 점이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는 거의 괴상 또는 粒狀 變晶質(Granoblastic)조직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구성 광물은 석영·정장석·미사장석·사장석·흑운모·백운모·불투명 광물 등으로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 거의 유사하다.

(5) 산성 암맥

이들은 한국의 화성활동상으로 보아 대체로 백악기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암맥류는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를 불규칙하게 관입하였으며 주로 규장암이나 석영 반암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성남시에서는 창곡동 외곡동 마을과 길바터널 북쪽, 무원당 고개 부근의 골안사 일대, 철계산과 국사봉을 잇는 능선 중 545m 고지, 인룡산 정상 부근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6) 충적층

대규모 호상 흑운모 편마암에 필적할 만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암층은 성남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단층을 중심으로 한 양안 지역과 성남시와 용인군 수지구과의 경계를 이루는 동막천 유역에 분포한다. 하천변 저지대에서 이들의 층리는 대체로 수평에 가깝게 또는 기반암이 이루는 사면보다 완경사를 이룬다. 이 층은 제4기 이전의 암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였다. 구성암은 礫, 모래, 점토 등 채설물과 미량의 유기물 등으로 아직 미고결 상태로 놓여 있다.

(7) 기 타

성남시 국사봉 동측 능선에 소량 분포하나는 암체로서 석회암이 있다. 이 석회암은 주위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내에 소암체로서 포함되어 있다. 회색 결정질로서 구성광물은 주로 방해석이다.

8) 상세시, p.10.

새마을 지도자 중앙연수원에서 동쪽으로 0.8km 정도 떨어진 자점에 분포하는 규암은 주위의 호상 혹은 모편마암의 편마상 범리에 평행하게 개재되어 있다. 규암은 담백 내지 담황색을 띠는 세립질이며 대체로 괴상으로 보이지만 층리에 거의 평행한 엽리가 형성된 것도 있다. 주로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단산 정상 부근에는 소량의 암체인 각섬암이 분포한다. 이것은 주위의 호상 혹은 모편마암과 검정부에는 표토로 가리워져 잘 알 수 없으나 선명하게 접촉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아마도 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암석은 대체로 고기 관입암체로 인정되고 있다.²⁾ 암상은 암록색 세립질이며 편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구성광물은 각섬석, 사장석, 흑운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지 형

성남시의 지형은 黔丹山(534.7m)과 佛谷山(312.9m)을 잇는 동쪽의 소위 熊州산맥 지맥과 仁陵山(326.5m), 淸溪山(546m), 國恩峰(540m), 바라산(428m)을 잇는 서쪽의 능선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다. 분지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분지, U자형 분지, 하곡지 관통형 분지 등으로 구별된다. 성남시는 분지 중앙으로 단천이 관통하고 있어 전형적인 하곡지 관통형 분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성남시는 梅岾峰(277m), 영장산(193.6m) 등을 비롯하여 이름 없는 구릉들로 이루어진 구릉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당 신시가지나 성남시의 구시가지와 같은 택지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특징 중 하나인 고개가 많은 것도 이러한 구릉지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에서 발원하여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과 합류하여 성남시의 중앙부를 관통하며 흐르다가 서울특별시의 한강으로 유입되는 단천은 그 양안에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여 평야지대로 이용되고 있다.

(1) 海拔高度

성남시는 구릉지를 이루는 지형이기 때문에 해발고도별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인접



그림. 3 성남시 지형도

한 서울특별시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그 면적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표 4).

(표-4) 각 지역의 해발고도별 면적 비율

(단위: %)¹⁰⁾

해발 고도	성 남 시	서 울 시	경 기 도	광 주 군
20m 미만	0.86	34.91	13.53	2.34
20~40	14.57	25.28	10.96	3.77
41~60	15.78	11.78	9.91	5.45
61~80	11.52	6.31	9.06	7.20
81~100	9.64	4.16	8.13	7.08
101~120	8.30	3.01	6.75	7.26
121~140	6.96	2.26	5.75	7.17
141~160	5.86	1.75	4.86	7.50
161~180	5.01	1.44	4.08	7.68
181~200	4.14	1.23	3.57	6.71
201~250	7.36	2.36	6.62	13.01
251~300	4.19	1.62	4.86	9.58
301~350	2.33	1.12	3.36	6.44
351~400	1.53	0.96	2.43	4.16
401~450	0.98	0.69	1.69	2.59
451~500	0.62	0.47	1.20	1.45
500m 이상	0.36	0.68	3.22	0.80
계	100.0	100.0	100.0	100.0

즉, 20m 미만인 지역이 서울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34.91%인데 반해 성남시는 0.86%에 불과하다. 더욱이 거주 공간으로서 유리 선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100m 미만의 경우, 서울시가 82.44%인데 비해 성남시는 52.37% 정도이다. 이는 우리 성남시가 서울시에 비해 해발고도 상으로 비교적 높은 지역이 많아 개발에 약간의 불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해발고도별 면적 비율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불리한 형태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리 선택 지형을 유리 선택 지형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金永杓, 1983, 首都圈 地形地勢, 國土開發研究院, pp.3~12.

(2) 傾斜度

경사는 지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일정 거리에 대한 2점 간의 比高를 나타내는 점으로 기복량과 유사한 지표이지만 無次元量이라는 점이 다르다.¹¹⁾

성남시의 경사도를 면적 비율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5] 각 지역의 경사도별 면적 비율 (단위: %)¹²⁾

경 사 도	성 남 시	시 울 시	경 기 도	참 주 준
평 지	10.98	29.89	13.81	4.52
5° 미만	31.29	38.86	33.50	19.39
5°~10°	27.30	15.40	20.36	23.25
11°~15°	18.00	8.25	14.61	24.59
16°~20°	8.51	4.43	9.65	17.48
21°~25°	3.15	2.12	5.10	8.08
26°~30°	0.71	0.77	2.14	2.24
31°~35°	0.04	0.21	0.68	0.40
36°~40°	0.01	0.06	0.13	0.04
41°~45°	0.01	0.01	0.02	0.01
45° 이상	0.00	0.00	0.00	0.00
계	100.0	100.0	100.0	100.0

성남시는 평지를 비롯하여 5° 미만이 성남시 전체 면적의 42.27%를 차지하고 있다. A. Young에 의하면 5° 미만은 완만함(gentle)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Young이 moderate라고 정의한 5°~10°는 전체의 27.30%이다. 토지 이용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사각으로는 18° 미만을 들 수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약 96.8%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성남시의 개발이 단천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 개발되고 있지 않은 지역도 경제적 가치가 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1) 金昌煥, 1992, "韓國 南西地域의 丘陵地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p.4.

12) 金永杓, 農務書, pp.14~19.

13) A. Young, 1972, Slopes, Oliver & Boyd, p.173.

이에 반해 서울시는 평지가 29.8%로 성남시보다 그 비율이 높지만, 토지 이용상 경제적 가치의 한계점으로 인식되는 20° 미만의 경우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83%로 성남시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용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성남시의 토지이용의 극대화가 현실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경기도 전체의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각을 이루는 지역이 전체의 33.50%이며, 20° 미만이 전체의 91.93%로 성남시와 서울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 동부의 자연보전지역의 경사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6] 각 지역의 경사방향별 면적 비율

(단위: %)¹⁴⁾

경사 방향	성 남 시	서 울 시	경 기 도	평 주 군
평 지	0.76	2.80	1.27	1.63
동	12.17	13.38	12.92	13.93
북 동	11.52	11.59	11.43	13.25
북	13.10	10.26	10.61	11.30
북 서	12.39	12.93	12.60	12.64
서	13.13	14.90	14.13	12.78
남 서	11.54	12.16	12.75	11.77
남	13.61	9.99	11.69	10.96
남 동	11.78	11.99	12.61	11.95
계	100.0	100.0	100.0	100.0

성남시와 인접한 평주군의 경우를 살펴 보면, 평지가 4.52%에 불과하며,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는 20° 미만도 89.23%로 90%도 안되는 형편이며, 더욱이 이것의 한계 급간이라고 볼 수 있는 16°~20° 사이가 17.4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은 각 지역의 경사방향별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의하면 성남시는 거의 모든 경사방향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거주지 선정에 유리 요

14) 집계서, pp. 20~25.

인으로 작용하는 남 또는 남동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면적이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교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이며, 따라서 거주지 내지 각종 건물을 건축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해발고도와 경사도 종합

해발고도와 경사도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 표 7, 8, 9이다. 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토지이용상 경제적 가치의 한계가 되는 20° 미만인 동시에 해발고도 100m 이하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82.66%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큰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20° 미만인 동시에 해발고도 100m 이하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51.62%로 절반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비율이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의 극대화가 이 정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와 비교해서는 약간 높은 52.39%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토지 이용면에서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40~60m 정도의 낮은 구릉인 동시에 완만한 경사도인 5° 미만인 지역이 전체의 10.2%를 차지한다는 것은 성남시 지역개발에 매우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표-7] 서울시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별 면적 비율 (단위: %)

경사도 해발고도	평지	5°미만	5~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이상
20m 미만	21.00	13.14	0.70	0.07	0.01	0.00	0.00	0.00	0.00
20~40	5.07	17.20	2.71	0.27	0.04	0.00	0.00	0.00	0.00
41~60	0.25	6.66	4.04	0.76	0.06	0.01	0.00	0.00	0.00
61~80	0.05	1.95	2.99	1.14	0.17	0.01	0.00	0.00	0.00
81~100	0.02	0.77	1.85	1.16	0.32	0.04	0.00	0.00	0.00
101~120	0.01	0.38	1.18	1.00	0.36	0.08	0.01	0.00	0.00
121~140	0.00	0.22	0.75	0.80	0.37	0.10	0.01	0.00	0.00
141~160	0.00	0.11	0.48	0.66	0.37	0.10	0.03	0.00	0.00
161~180	0.00	0.05	0.30	0.53	0.38	0.14	0.03	0.01	0.00
181~200	0.00	0.06	0.25	0.43	0.31	0.14	0.04	0.00	0.00
201~250	0.00	0.09	0.36	0.70	0.70	0.34	0.12	0.03	0.01
251~300	0.00	0.06	0.20	0.43	0.48	0.32	0.09	0.03	0.00
301~350	0.00	0.03	0.11	0.24	0.36	0.26	0.09	0.03	0.00
351~400	0.00	0.03	0.09	0.20	0.29	0.22	0.09	0.02	0.01
401~450	0.00	0.01	0.04	0.12	0.20	0.11	0.08	0.03	0.01
451~500	0.00	0.00	0.05	0.08	0.11	0.13	0.08	0.02	0.01
500m 이상	0.00	0.03	0.07	0.10	0.13	0.13	0.13	0.05	0.03

[표-8] 경기도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별 면적 비율 (단위: %)

경사도 해발고도	평지	5°미만	5~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이상
20m 미만	6.00	6.78	0.66	0.08	0.01	0.00	0.00	0.00	0.00
20~40	2.15	6.68	1.73	0.33	0.06	0.01	0.00	0.00	0.00
41~60	1.31	5.51	2.31	0.62	0.14	0.03	0.00	0.00	0.00
61~80	0.87	4.58	2.45	0.88	0.23	0.05	0.01	0.00	0.00
81~100	0.57	3.57	2.41	1.13	0.30	0.08	0.02	0.00	0.00
101~120	0.34	2.41	2.16	1.24	0.46	0.12	0.03	0.01	0.00
121~140	0.14	1.69	1.88	1.28	0.56	0.15	0.03	0.01	0.00
141~160	0.08	1.05	1.57	1.28	0.62	0.20	0.50	0.01	0.00
161~180	0.05	0.65	1.27	1.18	0.65	0.21	0.05	0.01	0.00
181~200	0.01	0.40	1.01	1.12	0.69	0.25	0.07	0.01	0.00
201~250	0.01	0.49	1.50	2.05	0.59	0.71	0.21	0.05	0.01
251~300	0.01	0.27	0.81	1.37	1.36	0.73	0.25	0.06	0.01
301~350	0.00	0.12	0.44	0.87	0.97	0.64	0.26	0.07	0.01
351~400	0.00	0.07	0.27	0.55	0.69	0.53	0.24	0.07	0.01
401~450	0.00	0.04	0.15	0.34	0.47	0.40	0.20	0.07	0.01
451~500	0.00	0.03	0.09	0.21	0.32	0.30	0.17	0.06	0.01
500m 이상	0.00	0.06	0.21	0.46	0.75	0.81	0.60	0.26	0.07

[표-9] 성남시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별 면적 비율

(단위: %)

경사도 해발고도	평지	5°미만	5~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이상
20m 미만	0.69	0.15	0.02	0.00	0.00	0.00	0.00	0.00	0.00
20~40	7.60	6.42	0.50	0.05	0.00	0.00	0.00	0.00	0.00
41~60	2.24	10.20	3.02	0.31	0.02	0.00	0.00	0.00	0.00
61~80	0.27	5.85	4.44	0.91	0.05	0.00	0.00	0.00	0.00
81~100	0.06	3.26	4.51	1.57	0.22	0.03	0.00	0.00	0.00
101~120	0.05	1.96	3.84	2.09	0.35	0.02	0.00	0.00	0.00
121~140	0.02	1.21	2.95	2.14	0.60	0.05	0.00	0.00	0.00
141~160	0.01	0.68	2.16	2.09	0.76	0.15	0.00	0.00	0.00
161~180	0.01	0.45	1.73	1.91	0.81	0.09	0.00	0.00	0.00
181~200	0.01	0.23	1.12	1.71	0.67	0.19	0.00	0.00	0.00
201~250	0.02	0.45	1.72	2.47	1.89	0.67	0.12	0.00	0.00
251~300	0.00	0.20	0.72	1.26	1.26	0.61	0.14	0.00	0.00
301~350	0.00	0.10	0.26	0.70	0.61	0.48	0.15	0.02	0.00
351~400	0.00	0.05	0.16	0.32	0.43	0.41	0.16	0.00	0.00
401~450	0.00	0.04	0.07	0.21	0.32	0.24	0.08	0.02	0.00
451~500	0.00	0.01	0.04	0.18	0.22	0.14	0.03	0.00	0.01
500m 이상	0.00	0.03	0.05	0.09	0.10	0.06	0.03	0.00	0.00

(4) 하천

성남시의 하천은 경기도 용인군 구상면 동백리에서 발원하여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과 합류하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계를 이루며 한강으로 유입되는 炭川을 幹川으로 하여 총 50개의 하천(총연장 84,310km)이 존재한다(표. 10).

細川으로는 오야리장급에서 K-16 정문 앞까지 흐르는 폭 5m와 연장 2km의 오야리천을 비롯하여, 안산천·동자천·금토천·외동천·시흥천·삼거리천·갯넘어천·새마을천·쇠골천·굴안천·봉막천·장무리천·막골천·중간마루천·뒤루니천·정자천·수내천·율리천·안골천·이매천·별말천 등 총 22개가 있으며, 총 연장은 27,260m이다.

小川으로는 하폭 10m와 연장 3km의 야합천을 비롯하여, 향곡천·북우천·별고천·갈현천·도촌천·왜달천·삼거리천·앞계울천·앞내천·돌다리천·모내골천·귀내천·본말천·장무리천·뒤루니천·하산천 등 총 17개가 있으며, 총 연장은 27,550m이다.

中川으로는 하폭 40m와 동원동 동막골에서 금곡동까지 연장 2,600m의 동막천을 비롯하여, 분당천·여수천·대원천·상적천·금도천·운중천·공안천·금곡천·독정천·단대천 등 총 11개의 하천이 있으며, 총 연장은 29,500m에 달한다.

이들 세천, 소천, 중천들은 합류 또는 독립적으로 단천으로 유입되어 한강으로 흘러 가게 된다. 그러나 최근 분당 신시가지 건설 사업 및 지하철 공사 그리고 하천 복개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분당지역의 세천은 물론 소천 및 중천도 그 유로 내지 형태가 상당히 변형되고 있다.

[표-30] 성남시 하천 현황

하천의 종류		하천의 개수	하천의 총 길이(m)
細	川	22	27,200
小	川	17	27,550
中	川	11	29,500
합	계	50	84,250

4. 요약 및 결론

성남시의 특성을 구성하는 지리적 요소 중에서 특히 자연적 요소인 지형과 지질을 중심으로 하여 성남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성남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선 지리적 성격을 띤 성남의 자연 중 특히 지형, 지질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남시는 경도상으로 동경 127° 1' 17"~동경 127° 11' 22"에 위치하여 동서 간격이 약 10' 정도이다. 시의 중앙경선은 동경 127° 6' 20"이며, 위도상으로는 북위 37° 19' 54"~북위 37° 23' 23"에 위치하여 남북 간격이 약 9' 정도이다. 중앙위선은 북위 37° 24' 10"이다.

※ 경기저지의 북서부에 놓여있는 성남시는 京畿 片麻岩 複合體(Kyongsu Gneiss Complex)로 알려진 지역 중의 하나로 대부분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편마암류는

40 城南市の 地形環境 研究

주로 縞狀 黑雲母 片麻岩(Banded biotite gneiss)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남시의 지형은 동쪽의 광주산맥 지역과 서쪽의 능선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다. 성남시는 분지 중앙으로 탄천이 관통하고 있어 전형적인 하곡지 관통형 분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해발고도에 따른 면적 비율에 있어서 20m 미만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0.86%에 불과하다. 더욱이 거주 공간으로서 유리 선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100m 미만의 경우 52.37% 정도이다.

※ 성남시는 경지를 비롯하여 5° 미만이 성남시 전체 면적의 42.27%를 차지하고 있다. 5°~10°는 전체의 27.30%이다. 토지 이용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18° 미만의 경우 약 96.8%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성남시의 개발이 탄천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 개발되고 있지 않은 지역도 경제적 가치가 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성남시는 거의 모든 경사방향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 선형에 유리 요인으로 작용하는 남 또는 남동 방향으로 경사지 있는 면적이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 토지이용상 경제적 가치의 한계가 되는 20° 미만인 동시에 해발고도 100m 이하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52.39%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토지 이용면에서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40~60m 정도의 낮은 구릉인 동시에 완만한 경사도인 5° 미만인 지역이 전체의 10.2%를 차지한다는 것은 성남시 지역개발에 매우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성남시의 하천은 炭川을 幹川으로 하여 총 50개의 하천이 있으며, 총연장은 84,310m이다.

논 문

城南地域의 地名性格 考察

— 百濟語와 高句麗語的인 要素를 中心으로 —

朴 相 圭

(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말타이 언어 민족학 전공)

[차 례]

- | | |
|----------------------|-------------------|
| 1. 序 言 | (가) 百濟語的인 要素의 한 形 |
| 2. 本 論 | 態 |
| 2-1. 城南地域으로 묻는 이유 | (나) 高句麗語的인 要素의 形態 |
| 2-2. 城南地域의 地名이 갖는 의미 | — (滿洲語的인 要素도 |
| 와 중요성 | 포함해서) — |
| 2-3. 地名의 特性과 言語的인 現象 | 3. 結 語 |

I. 序 言

꿈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필자가 경원대학과 더불어서 인연을 맺어 성남시에 직장을 둔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실상 성남시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어서 공적이던 사적이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작년도에 성남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으며 올해는 성남시 문화원 소속의 향토문화 연구소 연구위원이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城南地域의 地名性格 考察’이라는 명제를 잡고서 城南地域의 지명을 통해서 이 地名이 안고 있는 特性과 言語的인 現象과 要素들을 개괄적이거나 본 논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함은 필자로서 뜻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필자는 그동안 城南地域에 너무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자료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現地에 field work를 통해서나마 부분적으로 이 지역의 地名的인 特性과 性格을 대략적이거나 분석한 셈이라고 하겠다.

言語란 生成하고 成長하면서 消滅의 운명을 안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言語 중에서도 天體名, 人名, 地名, 官職名, 神에 관한 名稱들은 좀처럼 쉽게 變化過程을 잘 겪지 않는 言語들이기 때문에 城南地域의 特性을 밝히는 데는 무엇보다도 地名을 모른다면 그 根源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地名研究의 重要性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 착안하여 이 地域의 地名의 性格을 가급적으로 究明하도록 힘썼다. 물론 地名研究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입장과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하겠지만 지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는 다만 百濟語와 滿洲語를 포함하는 高句麗語的인 要素를 중심으로 하였다. 차후에 新羅, 伽倻 및 기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2. 本 論

2-1. 城南地域으로 묶는 이유

城南의 地名을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城南에 關係되는 民俗, 言語, 歷史 등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城南地域'이라는 用語 내지 名稱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便當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城南地域은 ① 廣州郡의 일부지역으로 1964년 2월 24일 廣州郡 조례 제68호에 의하여 중부면에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1971년 9월 13일 경기도 조례 제470호에 따라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승격하여 중부면 성남출장소 지역과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을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성남시 조례 제70호에 의하여 洞制를 실시함에 따라서 돌마면의 갈현, 도촌, 용점, 여수, 오야소, 상담, 하담, 이매, 봉도, 양현, 둔서, 읍, 분점, 당우, 수내, 정자동 15개 리는 갈현, 도촌, 여수, 야담, 이매, 서현, 읍, 분당, 수내, 정자, 하대원의 11개 법정 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또한 낙생면의 삼가, 판교, 벽현, 보평, 궁내, 금곡, 구미, 석운, 원천, 동막, 대장, 산운, 중산운, 하산운의 14개리는 판교, 벽현, 삼평, 궁내, 금곡, 구미, 석운, 동원, 대장, 운중의 10개 법정 동으로 개편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왕면의 신촌, 오야, 심곡, 동자, 고산, 시흥, 둔전, 송현, 사촌, 둔토, 금현, 노상, 노하의 13개리는 신촌, 오야, 심곡, 고동, 시흥, 금토, 상직의 8개 법정동으로 통합개편되었다. 그리고 중부면의 상대원, 창곡, 북정, 단대, 탄, 수전의 6개리는 상대원, 창곡, 북정, 단대, 태평, 신흥, 은행, 성남, 중, 수전의 9개 법정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이래서 37개 법정동이 설립되고 18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그후 단대, 수전, 신흥, 태평, 은행, 상대원등이 각각 분동되었고, 1989년 5월 1일 은행3동이 양지동으로 단대2동이 금광동으로, 단대4동이 산성동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1989년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수정구와 중원구로 편제가 되고 다시 1991년 시 조례 제1152호에 의거하여 분당구가 신설되었다. 여기에서 城南이란 地名을 위해서 언급된 공식명칭이 있기 이전의 기록은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 동국여지승람' 광주목 樓亭조에 이문형(李文炯: ?~1466)이 한명회(韓明澮)가 지은 抽鰲亭에 이르러서 지었다는詩에 의하면 '華樓高臨漢水濱城南隔尺紅塵...'에서 '城南'이 보이고 또한 유상운(柳商運: 16전 1707)의 묘갈명에 '7월에 城南 옛집 栗洞에 갔다가...: 七月滿 城南舊第(栗洞)...'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城南이란 城의 南쪽을 持稱하는 方向을 말함인지 또는 地名으로 불리웠는지는 明確하지 않으나 자연 발생적으로 通稱하게 되었으리라 믿어진다.

또한 城南市는 區의 명칭을 만들 때도 省略稱을 사용하였던가 또는 개발도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例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정구(壽井區)의 명칭은 수진동(壽進洞)의 첫 音節인 수(壽)와 북정동(福井洞)의 중간 音節인 정(井)을 複合해서 만들어 낸 地名이고, 중원구(中院區)의 명칭도 중동(中洞)의 첫 音節인 중(中)과 상대원동(上大院洞)의 끝 音節인 원(院)이 複合되어서 만들어진 地名이고, 단지 분당구(盆唐區)만이 都市開發의 차원상에서 보았을 때 그대로 名稱을 살려서 그대로 불렀다고 보겠다. 이상의 사실들을 미루워 생각해 볼 때 城南市는 1964년부터 발달되기 시작한 人爲的인 도시이며, 또한 京畿道 廣州郡의 중부면,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등이 합쳐져서 새로운 新都市가 탄생된 관계로 '城南地域'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城南市는 現代의 副産物로서 가장 성급하게 만들어진 人爲的인 作品의 都市이기에 이 都市의 特性내지 性格을 正確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주변 地域을 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城南地域'이라는 名稱을 붙일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 셈이다.

2-2. 城南地域의 地名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城南市는 서울의 한강 하류에 인접한 도시이면서 수천 년의 과거와 역사가 아롱져진 유서 깊은 도시이다. 단지, '城南市'라는 固有地名 만이 最近에 와서 붙여졌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城南地域은 地理的으로는 韓半島의 가장 中心인 '한강'의 하류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어쩌면 한 나라의 서울인 도읍지로서 손색이 없을 여러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서도 볼 때 城南地域은 '서울'과도 거리가 매우 가깝고 이 地域의 가장 중앙에는 '남한산성'이 병풍처럼 이 地域을 둘러 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세를 통하여 여러 빼어난 굴곡진 산능선과 계곡 그리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화 트여진 여러 별관의 평야도 곁들여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따라서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야말로 '도읍지'로서 적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歷史적으로 보아 기원전 18년 백제의 도읍지가 하남 위례성 들리로 시초하여 신라때는 한산주로 다시 고려시대에는 광주로 명명되어 오다가 군 소속의 중부면 중앙에 위치한 남한산성의 서남쪽 기슭 여기저기에 취락지가 형성되어 해방 이후 그 명칭이 성남이라고 稱稱된 고장이 바로 이 '城南地域'이다.

또한 이 地域은 많은 역사적 변환점이 되기도 하였는 바 처음에는 百濟의 도읍지였던 하남 위례성이 이 부근이었으며, 또 한 때는 高句麗의 영토가 또는 新羅의 영토가 되었다가 統一新羅時代에는 완전히 新羅에 귀속되었으며, 그 다음 高麗를 거쳐 朝鮮期까지 이어 오는 동안 자연히 이 지역의 言語는 수천 變化, 變遷을 거듭해 왔을 터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筆者가 Altai 言語民族學을 專攻한지라 이러한 관점에서 이 地域이 갖는 言語的 特性을 地名을 통해서 研究하고자 함인데 이러한 이유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城南地域'은 '百濟' '新羅' '高句麗'의 領土가 한번 씩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地名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것이 이 地域이 갖는 言語의 重要的 意味라고 할 것이다.

2-4. 地名의 特性과 言語的인 現象

(가) 百濟語的인 要素의 한 形態

1. 내(川)

—《수정구 소재》—

例) ① 연내: 청계산 고산골서 발원하여 고동동과 식흥동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

② 달래내(月川):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금토동으로 흐르는 하천

—《분당구 소재》—

③ 오목내: 장트리 앞을 흐르는 개울, 연못처럼 깊게 오목하게 파였다. 장수 잃은 용마(龍馬)가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④ 먼내(邊川): 고향과 먼 개울.

(A) ‘-내’의 형태론적 성격

ㄱ) ‘내’는 원래는 Free morpheme에 해당된다. 그러나 上記의 地名語에서는 bound morpheme으로 使用되었다.

ㄴ) ‘내(川)’는 百濟語的인 性格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① 百濟의 古地名 속의 川(津, 浦)名을 예로 든다면,^②

石川, 邊川, 泗沘河, 七重河, 錦江, 白江, 白馬江, 古多津, 古省津, 私津, 生草津, 布津, 大王浦, 薪浦, 草浦, 鞋浦… 등과 같이 많은 地名이 있었음을 알 것이다.

② 또한 이러한 ‘川’은 當時 百濟時代에는 ‘내’라고 하였음을 다음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③

예:

i) 柳等池(버들못) (輿地卷32 金海都護府)

ii) 黃等川(누르등내) (輿地 卷 9 仁川條)

田) 柳寺川(버드내(버들내)(大田市 柳川洞)

③ 郡守熙는 그의 論文에서^④ nay(加乙奈)를 中世國語에서는 'nay'로서 그 意味는 Stream(내, 川)이라고 밝힌바 있었다.

(B) '내'의 의미론적 성격

ㄱ) 百濟時代에 있어서 '내'와 관련이 있는 地名語는 '川' '河' '江' '津' '浦' 등이다.

ㄴ) 오늘날 성남지역에서 볼 수 있는 地名語에서의 '내'는 '河川'(수정구의 경우), '개울'(분당구의 경우)로 나타내 지고 있는 형편이다.

ㄷ) 이상의 ㄱ)과 ㄴ)을 통해서 보면, 百濟時代의 '내'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漢字化하여서 使用된데 비해서 오늘날 성남지역에서는 '내'인 '河川'과 '개울'에 해당되는 '川'만이 쓰일 뿐이다.

ㄹ) 따라서 百濟時代의 '내'는 '川' '河' '江' '津' '浦'였고, 오늘날 城南地域의 '내'는 '河川'이나 '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ⅰ) 의미의 축소화 또는,

ⅱ) 의미의 경제성화(언어의 경제성과도 상당한 합일치가 된다고도 볼 수 있음) 또는

ⅲ) 의미의 分化性에서의 未分化性

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ㄲ) 결론적으로 '내'는 의미론적인 그 성격이 적어도 城南地域에서는 오늘날에 와서 '개울'로 나타내지며, 아마도 이것은 '넷가' 또는 '시넷가' '시넷물'과도 상통하는 의미로 봄이 옳을 듯 싶다.

2. 재

-《중원구 소재》-

例) ① 이비재(二拜峴): 광주읍 목현리(木峴里)로 이어지는 고개로 상대원 동쪽에 있는데, 광주장 보리가는 길로 되게 이황(李滉)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다가 이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넘고 보면 황성이 보이지 않

으므로 임금계신 한양쪽을 향해 두번 절하고 떠났다고 하여 이때제라 칭하게 되었다 한다.

② 태봉제 : 안골서 남쪽에 위치한 높은 봉

-《분당구 소재》-

③ 태제(台峴) : 공안과 오포면 신현리 사이의 수원장에 갈 때 다니던 고개

④ 망제 : 공안 아랫말과 백현동 새말 사이의 산등성이, 임진왜란 때 정자동 이진봉과 금곡동 송주골에서 군인들이 진을 치고 망(望)을 보던 곳이라 망제라고 한다.

⑤ 봉우제 : 웃말 서남쪽에 있는데 정자동 주민들이 구미동을 왕래할 때에 이용했던 해발 109.1m의 고개를 말함이다.

(A) ‘-제’의 형태론적 성격

ㄱ) ‘제’는 원래는 free morpheme에 해당이 되나 여기에서는 bound morpheme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ㄴ) ‘제(峴)’는 百濟語의인 性格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③)} 百濟地名에는 ‘城’을 ‘子兮’(조희>제)로 記錄된 곳도 있다.

例. 秋子兮郡 - 秋城郡(潭陽縣)

여기 ‘子兮’(조희)는 ‘제’의 古形인 것으로 看做된다고 하였다.

ㄷ) 百濟時代의 ‘제’에 해당되는 ‘峴’은 現在에도 城南地域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예 :

i) 이때제(二拜峴) : 광주읍 목현리(木峴里)에 소재(현재 중원구)

iii) 태제(台峴) : 광주군 오포면에 소재(현재 분당구)

(B) ‘-제’의 의미론적 성격

ㄱ) 百濟時代에 있어서 ‘-제’와 관련된 地名語는 ‘城’으로써 ‘峴’에 해당되는 것이다.

ㄴ) 오늘날 성남지역에서 볼 수 있는 地名語에서의 ‘-제’는 ‘峴’으로써 ‘고

- 개' 또는 '높은 봉우리' (중원구의 경우)의 '峯'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 '-제'는 '고개' '곶'(분당구의 경우)로 나타내지고 있는 형편이다.
- ㄷ) 이상의 ㄱ)과 ㄴ)을 통해서도 보면, 百濟時代의 '제'는 그 의미가 '城'에 해당되는 '峴'으로 漢字化해서 使用된데 비해서 오늘날 성남지역에서는 '제'가 '峴' '고개' '峯' '곶'로 쓰이고 있다.
- ㄹ) 따라서 百濟時代의 '제'는 '城' '峴'이었고, 오늘날 城南地域의 '제'는 '峴' '제' '고개' '峯' '곶'로 사용되는 것은,
- i) 의미의 다양화 또는
 - ii) 의미의 세분화 또는
 - iii) 의미의 未分化性的 分化性
- 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 ㄱ) 결론적으로 '-제'는 의미론적인 그 성격이 적어도 城南地域에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제' '峴' '고개' '峯' '곶'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城'의 뜻으로는 '南漢山城'의 '-城'이 있다고 하겠다.

{나} 高句麗語的인 要素의 한 形態
 -《滿洲語的인 要素도 포함해서》-

1. 곶

-《수정구 소재》-

- 例) ① 제 도 곶 : 서쪽 고산곶의 양지쪽 곶짜기. 토끼가 많았다고 한다.
 ② 세자곶고개 : 고산곶서 금토동으로 가는 고개
 ③ 오 동 곶 : 동자리 서북쪽 덕수이씨 산소를 지나서 삼척동으로 가는 길 뒤편 곶짜기
 ④ 읍 터 곶 : 고동리 주막거리와 동자리 사이의 곶짜기
 ⑤ 두 리 이 곶 : 내동서 서쪽으로 가다 동남향으로 있는 곶짜기

- ⑥ 터 골 : 북정동 장수장 뒤 집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화편과 사기그릇 조각이 출토된다.
- ⑦ 등 박 골 산 : 등박골과 솔고개에 걸쳐 있는 산. 정상에는 등 바위가 있다.
- ⑧ 샘 골 고 개 : 솔고개 옷말과 샘골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
- ⑨ 군양골(軍糧谷) : 큰 골 동쪽인데 전란때 軍糧米를 쌓았던 곳이다.
- ⑩ 부 처 산 골 : 등박골 내려오르 집너머 남쪽에 있는 골짜인데 부처가 있었다 한다.
- ⑪ 옷 터 골 : 수진궁 윗쪽에 있는 골짜기
- ⑫ 아랫 터 골 : 수진궁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 ⑬ 넓 은 골 : 긴골과 좁은골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약진로 아래 치하터 넓 위 조씨종산 일대이다.
- ⑭ 세 자 골 : 백제시대에 세자궁이 있어서 세자골이라고 한다. 간이골 세자궁터라는 곳(밭)에는 화편이 출토되고 있다. 또는 세집이 있어서 세집골이었는데 세자골로 변했다고도 한다.

—《중원구 소재》—

- 例) ⑮ 넓 본 데 골 : 이왕산 줄기로 능골 동쪽에 있는데 골짜기가 넓다하여 넓 본데 골이라고 함.
- ⑯ 산 소 골 : 야담동 중담과 중말·웅달말에 걸쳐 있는데 중말지역에는 경주이씨 선대묘가, 웅달말에는 고성이씨 선대묘가 많다.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⑰ 샛골(細谷) : 골짜기가 좁다하여 샛골이라 칭하는데 능골과 웅달말 사이에 있으면서 평산신씨 묘가 많다.
- ⑱ 절 골 : 사기막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절이 있다가 바뀌벌때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 ⑲ 뒷골(後谷) : 회전말 뒤에 있는 골짜기

-《분당구 소재》-

例) ㉑ 바 른 골 : 불곡산 줄기로 끝난 동쪽 산골.

㉒ 머리골소재 : 동원동 머내와 금곡동 셋터말을 왕래하는 고개.

㉓ 가실고개골 : 터재고개 밑으로 있으며 1989년 한양대 박물관 조사팀에 의해서 지석묘가 12기 발견되었다.

㉔ 미듬골고개 : 미듬골과 성내미의 중간에 있는 고개

㉕ 불당골(佛堂谷) : 신선바위 서쪽 예전에 절이 있었던 골짜기.

㉖ 셋골(間谷) : 장자골과 불당골 사이의 셋골.

㉗ 미듬골우물 : 미듬골 중앙에 있던 대동우물, 일명 미동골 우물로 폐정됨.

㉘ 옷 벌 골 : 학현 위에 있는 골짜기

㉙ 서편농안골 : 분당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

㉚ 큰 늘 안 골 : 전주이씨 세대의 묘가 있었으므로 큰농안골이라 칭한다.

㉛ 외 탁 골 산 : 물방앗거리 동쪽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에 절이 있었다고만 전해진다.

㉜ 갯 골 고 개 : 갯골과 안말사이에 있는 비포장의 소로길이다. 일명 안말 고개라 한다.

㉝ 탁골고개 : 이매동에서 야탑동 탁골로 넘어가는 고개

㉞ 삼천병마골(三千兵馬谷) : 이진봉 서쪽으로 안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자호란때의 鄭世規(1583~1661)장군의 격전지로 유명하다.

㉟ 장자골산(長子谷山) : 성덕산 지류로 장자골 남쪽에 있는 작은 산이다.

㊱ 거 무 래 골 : 아랫 죄루니 남쪽으로 현 남서울골프장이 위치한 곳

㊲ 앞 작 골 : 두벌 앞 중간말과 아랫죄루니 경계를 이루는 지역.

(A) ‘-골’의 형태론적 성격

ㄱ) ‘-골’은 원래는 free morpheme에 해당이 되나 여기에 있어서는 地名 接

尾語처럼 쓰였기 때문에 bound morpheme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ㄴ) '골(谷)'은 高句麗語의인 性格을 띄고 있으면서 또한 滿洲語의인 要素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古代 社會에 있어서 高句麗語를 사용하였던 種族과 滿洲語나 女真語를 사용하였던 部族들이 滿洲의 광활한 지역에서 아마도 同居同樂하였을 可能性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ㄷ) 高句麗時代의 '골'에 해당하는 地名에는 '溝溪'[kuru](城)의 縮約的인 '忽'[kol, kui, hol, kuru]이 多數 붙어 있다.^⑩ 그러한 例를 '東國郡縣沿革表'에 보이는 高句麗地名과 新羅景德王 16년에 改名된 것을 對照해 보이면 '忽'이 붙은 地名은 다음과 같다.

遼爾忽懸(爾一作彌, 一云首泥忽), 一峯城縣(坡州)

馬忽郡(一云 命旨) - 堅城郡(抱川)

首爾忽 - 茂城縣

買忽(一云木城) - 水城郡(水原)

上忽縣(一云 車忽) - 車城縣

奈兮忽 - 白城郡(安城)

加羅忽 - 江城郡(杆城郡)

所忽達 - 僧山縣

達忽 - 高城郡

이 외에도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 百濟條에는 압록강 이북에 存在 했었던 安東都護府에 屬속된 地名도 있다. 이는 總章2年 2월에 李勣과 男生 등이 中國式 地名의 개칭을 상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例) 燕子忽 - 節城

肖巴忽 - 豐夫城

仇次忽 - 新城州(或云 敦城)

波尸忽 - 耕城

非達忽 - 大豆山城

安寸忽 - 安市城(或云 九都城)

乃勿忽 - 鈴城

甲 忽 - 穴城

析 忽 - 銀城

史 忽 - 似城

등등으로 보여서 高句麗 地名에는 '忽'이 한결같이 '城'으로 改稱되고 있다.

己) 이러한 '忽[kol, kul, hol, kuru]'이 오늘날 城南地域에서는 '-골' '-굴', '고개' '-터골' '-골산' '-산골' '-골(谷)' '-고개골' '-골 우물' '-별골' '-굴산' '-골 고개' '-골산(谷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ii)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보면 高句麗語인 '忽'인 '城'은 'kol, kul, hol, kuru'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城南地域에서는,

i) 高句麗語인 '忽'이 原型 그대로 '-골' [kol]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ii) 또한 '골'이 '이'라는 '처소격조사'와 결합하면서 音韻變化를 일으켜서 '고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kol'+ 'e'라고 할 수 있으니, 이 때 'kol'의 語尾인 '-l'이 'e'와 부딪히면서 '-l'이 'k'로 變化한 셈이 된다. 말하자면 'l>k'化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驛前 앞'에서 '前'과 '앞'과는 同義語가 중첩이 된 경우처럼 '-골, 고개'의 형태도 同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iii) '-터골' 역시 '-터'는 Altai諸語에서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te'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te'에서 語頭自音인 't'가 탈락되어서 한국어에서는 'e'가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격조사'가 된 듯하다. 따라서 '-터골'은 Altai諸語인 滿洲語와 高句麗語의 合成된 語彙이다.

iv) ‘-골산’은 역시 ‘-골’인 ‘忽’의 ‘城’과 ‘산’인 ‘山’과의 複合語이다. 즉 ‘골’도 ‘谷’인 ‘山’이며, ‘산’도 ‘山’이어서 ‘-골 고개’와 同一한 類型이다. 특히 城南地域을 가장 代表할 만큼 유명한 ‘南溪山城’도 역시 같은 類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山’인 ‘忽’과 ‘城’인 ‘忽’은 同一한 意味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v) ‘-산 골’ 역시 ‘-골 산’과 같은 類型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言行의 습관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 즉 ‘산골’이나 ‘골산’이나 ‘漢字語+高句麗語’이나 ‘高句麗語+漢字語’이나 그 當時 사람들의 습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vi) ‘-골’이 ‘谷’임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地名的인 要素를 城南地域에서도 알 수 있었다.

(例) 谷城(全南)

이러한 예에서는 ‘谷’과 ‘城’이 관음을 알 수 있게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谷’ ‘城’ ‘忽’은 地名을(山系統)타나냄도 알 수 있었다.

vii) ‘-벌 골’은 이 城南地域에서 찾을 수 있는 獨特한 경우임을 알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⑦

㉑ ‘벌’은 新羅地名으로 볼 수 있다.

㉒ 특히 ‘火’ ‘伐’ ‘弗’은 新羅地名의 代表的인 것으로 ‘불’[pwl] [bwl]音이며

㉓ 이러한 例로는 推火郡 - 密城郡의 對稱으로 보아 ‘火’[pwl, bwl]은 ‘城’ 또는 ‘市邑’의 普通名詞이었고, 이것이 각 固有地名에 接尾된 것으로 믿어지는데 다시 ‘東國郡縣沿革表’의 新羅地名은,
徐羅伐 - 廣州
比火縣 - 安康縣
毛火縣(一作 蚊伐) - 臨關郡
退化縣 - 義昌郡(興海郡)

奴斯火縣 - 慈仁縣
 古骨火國 - 臨川縣
 史丁火縣 - 新寧縣
 甲火良谷縣 - 機張縣
 推火伊 - 密城郡(密陽府)
 西火縣 - 尚樂縣(靈山縣)
 達句火縣 - 大丘縣(大丘府)
 古火縣 - 花園縣
 沙伐州 - 尙州
 音里火縣 - 青驪縣
 屈火縣 - 曲城郡

以上の 예에서 '火'인 [pwl] [bwl]은 新羅地名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별골'은 新羅地名語와 高句麗地名의 合成語를 알 수 있을 것이다.

vii) '-굴산'에서는 '-굴'의 [kul]은 [kol]의 變異形態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例를 우리는 많은 方言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에 이런 實例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ix) '-굴 고개' 역시 '-굴'은 vii)에서 설명하였으며, '-고개' 역시도 ii)에서 설명하였다.

(B) 골[kol]의 比較言語學的인 한 方法

-〈한국의 方言과 北方諸語를 통해서〉-

골[kol]이 일반적으로 '깊은 구멍' 또는 '굴짜기' '고랑이'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⑤ 또한 中世語에서는 谷, 洞의 의미로 쓰였으며, 方言에서도 '谷地'의 뜻으로 쓰였다.

또한 'kol'은 滿洲語의 'hollo'(谷)과도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술후출도 그의 著書에서³⁹⁾ 高句麗의 忽은 만주어 holo(谷)와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어의 '골'에 해당된다. 이렇듯 현재 우리말에서 두루 쓰이는 이들 地名이 그 당시에는 高句麗에선 'holo'(국어-골(谷, 洞)만 쓰이고, 新羅에서는 '벌' 계통만 쓰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골'[kol]은 韓國語에 있어서 高句麗語, 그리고 各 方言 및 滿洲語와의 關係로 문제점을 풀어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方法은 筆者가 한번은 제기한 적도 있었다.⁴⁰⁾ 그러면 筆者의 과거 論文을 引用하면서 '골'[kol]에 대해 어떠한 語學的인 關係들이 얹혀 있는가를 찾아 보기로 하였다.

Kol(Kol, Kol) : holo(만주어)

㉔ 方言에서 나타나는 Kol, Kol의 變異形態와 意味⁴¹⁾

㉕ 골짜기[Kol¹ tʃagi] : 두 골 사이에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좁은 곳[지형].

곡지(谷地), a Valley

㉖ 골[고어] : 골곡(谷)(訓蒙上 : 3, 類合上 : 5)

㉗ 고 : 큰짜기[Ko:l¹ tʃagi] : 고흥지방

㉘ 골[Kol] : 남해지방

㉙ 골짜기[Kol² tʃagi] : 영암지방

㉚ 골짜[Kol³ tʃak] : 구례, 강진, 화순, 함평, 영암, 고흥지방

㉛ 골짜기[Kol⁴ tʃagi] : 순천, 구례, 완도, 울주, 충무, 거제, 하동, 창녕, 제주시, 대동, 강동(평남) 지역

㉜ 골짜이[Kol⁵ tʃei] : 사천지역

㉝ 골창[Kol⁶ tʃan] : 완도지역

㉞ 꼬랑[⁷ Koran] : 하동지역

㉟ 꼬 : 큰짜리[⁸ Koil¹ tʃagi] : 여수지역

㊱ 골짜기[⁹ Kol¹ tʃagi] : 순천, 진상, 광주, 장성, 담양, 거창, 함양, 진양, 남해, 하동, 거제지역

- ㉓ 골짜기[¹Kol-¹tʃagi] : 광양, 나주, 구례, 곡성, 보성, 거창, 함양, 산청, 함평, 양산, 김해지역
- ㉔ 골차기[¹Kol-tʃagi] : 구례(화계면)지역
- ㉕ 골착[¹Kol-tʃak] : 순천, 광양, 담양, 보성지역
- ㉖ 골창[¹Kol-tʃaŋ] : 진도, 하동지역
- ㉗ 골채기[¹Kol-tʃeigi] : 구례(화계면)
- ㉘ 또랑[¹toran] : 함평지역
- ㉙ 方言에서 Kol, ¹Kol과 蓋然性이 있을 形態와 義味
- ① 구덩이[Kudŋi] : 땅이 움푹하고 깊게 파인 곳, 갯(坑) hallow
 - ② 굳[고어] 굳깅(坑) (訓蒙下 17) (釋諸九:14)
 - ③ 구대이[Kudziŋ] : 예산, 구례지역
 - ④ 구더기[Kudagi] : 포항, 충무지역
 - ⑤ 구더이[Kudai] : 안동지역
 - ⑥ 구더이[Kudagi] : 영주, 봉화, 영덕, 청소, 안동, 문경, 익성, 남해, 청주, 괴산, 단양, 예산, 부여, 대천, 김제, 홍천, 충성, 제주, 평양, 진상, 완도, 순천, 구례, 곡성, 진도, 영암, 함평 지역.
 - ⑦ 구 : 더이[Kuidagi] : 여수지역
 - ⑧ 구덕[Kudak] : 진주, 사천, 거제, 남해, 충무, 구례, 광양지역
 - ⑨ 구 : 덕[Ku:daŋi] : 여수지역
 - ⑩ 구덩[Kudŋ] : 구례(외곡리) 지역
 - ⑪ 구대이[Kudei] :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영덕, 경주, 문경, 예천, 군위, 영천, 청송, 진주, 호산, 삼척지역.
 - ⑫ 구 : 대이[Ku:dei] : 안동지역
 - ⑬ 구대이[Kudei:] : 단양지역
 - ⑭ 구대이[Kudegi] : 울진, 선산, 청주, 영동, 부여, 논산, 청양, 서산, 당진, 조치원, 천안, 무주, 전주, 군산, 김제, 부안, 정읍, 순창, 남원,

임실, 진안, 장계, 장성, 담양, 나주, 광주, 영광, 함평, 목포, 해남, 고흥, 순천, 진도, 장흥, 영암, 강진, 화순, 보성, 광양, 곡성, 구례, 여수, 정선, 원성, 횡성, 제주지역

- ⑮ 구데 : 이[Kude:ŋi] : 순천지역
- ⑯ 구데이[Kudeŋi] : 포항, 경주, 구례(외곡리), 곡성, 강진, 진상, 광양지역
- ⑰ 구되기[Kudɔgi] : 창녕지역
- ⑱ 구두기[Kudugi] : 사천지역
- ⑲ 구두 : 이[Kudu:ŋi] : 밀양지역
- ㉑ 구뒤이[Kudwii] : 왜관지역
- ㉒ 구뒤 : 이[Kudwi:ŋi] : 밀양지역
- ㉓ 구디[Kudii] : 왜관, 군위지역
- ㉔ 구디[Kudii] : 진양, 영동지역
- ㉕ 구디 : [Kudi:] : 울진, 영덕, 청송, 경주, 영천, 예천, 문경, 창녕지역
- ㉖ 구디기[Kudigi] : 양산, 충무, 김해, 밀양, 창원지역
- ㉗ 구디기이[Kudigigi] : 마산, 합천지역
- ㉘ 구디이[Kudii] : 포항, 경산, 영천, 대구, 예천, 산청, 진주, 울주지역
- ㉙ 구디이[Kudiŋi] : 경주, 군위, 상주, 상주, 청송, 고령, 울산 영동지역
- ㉚ 구디리[Kudiri] : 포항, 경주, 문경, 창녕, 합천, 거창, 함양지역
- ㉛ 구딩이[Kudŋŋi] : 괴산지역
- ㉜ 구멍[Kuməŋ] : 여수지역
- ㉝ 구시[Kusi] : 남해지역
- ㉞ 굼티기[Kumt'igi] : 청도지역
- ㉟ 굼디[Kuŋdi] : 문경지역
- ㊱ 그대이[Kide:ŋi] : 구례지역
- ㊲ 꼬랑[¹ Korəŋ] : 이리지역
- ㊳ 꾸덕[¹ Kudak] : 하동지역

- ㉔ 두 : tu : mbeŋ] : 여수지역
- ㉕ 둥벙[tu : mbeŋ] : 순천, 광양지역
- ㉖ 물꾸덩[mul-¹ kudaŋ] : 하동, 남해지역
- ㉗ 물꾸덩[mul-¹ kudaŋ] : 하동지역
- ㉘ 웅덩이[Uŋdaŋi] : 청주, 연풍, 괴산, 보은, 영동, 제천, 예산지역
- ㉙ 웅대이[uŋdei] : 문경, 제천지역
- ㉚ 웅대이[uŋdaŋi] : 충주, 청양, 홍성, 서산, 당진, 영월, 정선지역
- ㉛ 웅대피[uŋdaŋi] : 김천지역
- ㉜ 웅디 : [uŋdi:] : 포항, 경주, 김천, 문경지역
- ㉝ 웅다이[uŋdaŋi] : 포항지역
- ㉞ 方言에서 Kol, ¹Kol과 蓋然性이 있을 形態와 義味¹³⁾
- ① 구례[Kure] : 땅이나 바위가 껴서 깊숙하게 들어간 곳, a tunnel, 窟은굴기
라 <月譯序 : 24>
- ② 고래[Kore] : 안동, 울진, 영양, 영덕, 포항, 경주, 문경, 김천, 함천, 기창,
함양, 산청, 진주, 사천, 거제, 조치원 등외 지역
- ③ 고래 : [Kore] : 부산, 창녕지역
- ④ 고래 : [Kore] : 양산지역
- ⑤ 광[Kwaŋ] : 화순지역
- ⑥ 구들목[Kudul-mok] : 당진지역
- ⑦ 구들목[Kudul-muk] : 무주지역
- ⑧ 구들배[kudul-² pe] : 삼척, 호산지역
- ⑨ 구들배[Kudul-² pi] : 괴산지역
- ⑩ 구들장[Kudul-tjaŋ] : 제천, 평창, 원성, 홍천, 춘천지역
- ⑪ 구들짱[Kudul-¹ tjaŋ] : 무주, 괴산, 당진지역
- ⑫ 구들[Kudil] : 청주, 연풍, 단양지역
- ⑬ 구들배[Kudil-¹ pe] : 도계지역

- ⑭ 구들장[Kudil-tʃaŋ] : 도계, 청주, 대천지역
- ⑮ 구들방[Kudil-tʃaŋ] : 청양지역
- ⑯ 구 : ㄱ[Ku:l] : 마산지역
- ⑰ 구래[Korɛ] : 성주, 충무, 제천, 청양지역
- ⑱ 구래 : [Kore] : 경주, 감천지역
- ⑲ 구래 : [Kore:] : 밀양, 양산지역
- ⑳ 구리이 : [Kurii:] : 문경지역
- ㉑ 구우 : ㄱ[Kuu:l] : 밀양지역
- ㉒ 굴[Kul] : 울산지역
- ㉓ 굴뜩[Kul-tuk] : 조치원 지역
- ㉔ 굴래[Kullɛ] : 영주, 봉화, 청송, 영원, 경산, 대구, 의성지역
- ㉕ 굴래[kulle] : 고성, 군위지역
- ㉖ 꼬래[ʔ Korɛ] : 문경지역
- ㉗ 꼬래[ʔ Korɛ:] : 부산지역
- ㉘ 꾸 : ㄱ[ʔ Ku:l] : 김해지역
- ㉙ 나무창[namu-tʃ'aŋ] : 광양지역
- ㉚ 마구[magu] : 완도지역
- ㉛ 마구관[magu-ʔ kan] : 창흥지역
- ㉜ 미주바루[middʒu-baʔ ku] : 상주지역
- ㉝ 미주바끼[middʒu-baʔ ki] : 상주지역
- ㉞ 방고래[paŋ-gorɛ] : 울진, 원성, 횡성, 홍원지역
- ㉟ 방꼬래[paŋ-korɛ] : 안동, 포항지역
- ㊱ 영개[ɕŋgɛ] : 상주지역
- ㊲ 이닝개[iningɛ] :
- ㊳ 이닝기[iningi] : 왜관, 군위지역
- ㊴ 양기[ingi] : 상주지역

㉑ 하칸[ha¹kan] : 광주, 구례지역

㉒ 하청[haŋ¹aŋ] : 단양, 나주, 보성, 고흥, 함평, 해남, 영암지역

㉓ 하청계[haŋ¹aŋ-gje] : 진도지역

以上の ㉑, ㉒, ㉓에서 볼 수 있었던 方言의 各各 形態와 Kol(골), (Kol, ¹Kol)과의 言語的 關係를 어떻게 說明하고 또한 그것이 滿洲語 holo(谷)와는 어떻게 어학적으로 說明할 수 있는가를 나뉘므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㉑ Kol, ¹Kol의 方言에서의 變異形態

㉔ Kol(골) : Kol(고어) (詞彙上 : 3, 類上 : 5)

㉕ 同音, 同形態, 同義味이다.

㉖ 原始共通祖語의 再構形은 KVi形이며

㉗ KVi > KVi ~ KVi이다.³⁰⁾

㉘ 따라서 Kol과 中世國語 Kol은 同形態이다.

㉙ Kol(골) : Ko:l - ¹tjagi(고:근짜기)

㉚ 두 形態의 stem은 Kol이며

㉛ -¹tjagi는 Kol에 添加된 語尾라고 보겠다.

㉜ 따라서 原始共通祖語의 再構形은 KVi形이며

㉝ KVi > KVi ~ KVi로 變化했다.

㉞ Kol(골) : ¹korag(꼬랑)

㉟ 두 形態의 stem을 Kol ~ Kor이며

㊱ ¹Korag은 Kor + ag

㊲ Kor은 stem이며 -ag은 添加된 語尾라 하겠다

㊳ ¹Kor은 Kor의 硬音化로 볼이 옮은 것이며

㊴ 또한 ¹Korag의 添加語尾 -ag은 ¹torag의 -ag과 機能이 同一하다고 보겠다.

㊵ 따라서 Kol과 ¹Korag의 祖語再構形은 KVi ~ KVi形으로 stem이 同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㉔ Kol(골) : ¹Kol-²tjak(골짜) : ¹Kol-tjagi(골차기) : ¹Kol-tjak(골작)

㉕ Kol, ¹Kol-²tjak, ¹Kol-tjagi, ¹Kol-tjak의 stem은 Kol이다.

㉖ -²tjak, -tj'ak은 Kol에 붙은 添加語尾이며

㉗ ¹Kol은 Kol의 硬音化이며

㉘ ¹Kol-²tjak, ¹Kol-tj'agi, ¹Kol-tj'ak은 Kol의 硬音化된 變異形態이며

㉙ -²tjak, -tj'agi, -tj'ak의 基本形은 tj'ak인 것 같다.

㉚ 따라서 위의 4形態의 共通祖語는 KVi~KVr이며 이것은 KVi形에서 變化한 形態라고 보겠다.

㉛ Kol(골) : ¹toran(또랑)

㉜ Kol은 KVi>KVi~KVr의 變遷으로 볼 수 있다.

㉝ ¹toran은 tor+an으로 分析이 可能하며

㉞ tor은 stem이며 an은 添加語尾임을 알 수 있으며

㉟ tor의 祖語再構形은 tVr이라 볼 수 있으니

㊱ 그 이유는 'tar'이 산을 意味하는 古代 Turkey語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며, 高句麗語에서는 '達'이 '山' '高' '城'과 關聯이 있음을 익히 알기 때문이며, 또한 '忽'과 '谷'과도 關聯이 있음도 역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㊲ 따라서 Kol과 toran의 硬音化의 形態 ¹toran은 同意味 異形態임을 알 수 있으며, kol과 ¹toran은 意味論적으로 볼 때 '谷' '達' '山' '城' '忽' '高' 등과 關聯을 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以上の ㉔, ㉕, ㉖, ㉗, 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kol, ko:l-²tjagi, ¹tjagi, ¹Koran ¹Kol-²tjak, ¹Kol-tj'agi, ¹Kol-²tj'ak, ¹toran의 形態에서 共通祖語를 再構成하면 'Kol'形 즉 'KVi~KVr'形이 될 것이며 '-²tjagi' '-an' '-²tjak' '-tj'agi' '-tj'ak' '-an'의 形態는 'Kol'의 硬音化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¹toran의 形態는 'toran'의 硬音化現象이며 祖語再構形은 tor의 'tVi~tVr'形으로 古代 Turkey語의 'tar'와 比較가 된다. 그리고 이 'tVi~tVr'의 祖語形態는 'KVi~KVr'의 祖語形態와는 意

味論적인 측면에서 關係를 살펴 볼 수 있겠는데 共通意味를 例로 들면 ‘達’ ‘山’ ‘谷’ ‘城’ ‘高’ 等이다.

㉠ kol, ¹Kol의 方言에서의 變異形態

㉡. kol(골) : 군, kut(고어) (訓蒙下 17) (釋譜九:14)

㉢ kol의 共通祖語再構形은 'KVr~KVr'形이며

㉣ 위 'KVl~KVr'은 KVt形에서 變遷되었다고 본다면

㉤ 군(Kut)을 KVt形으로 表記할 수 있기 때문에

㉥ Kol의 前代 形態가 바로 kut임을 알 수 있겠고

㉦ 따라서 kol : kut의 關係는 通時的 關係로 說明할 수 있기 때문에

㉧ kol : kut은 同根語 同義味임일 알 수 있겠다.

㉢ Kol(골) : Kudagi(구더기), Kudak(구덕), 구당(kudag)

㉣ Kol의 共通祖語形 'KVl~KVr'

㉤ Kudagi, Kudak, Kudag을 分析해 본다면,

㉥ kud+agi, Kud은 Stem, -agi는 添加語尾이고

㉦ Kud+ak, Kud은 Stem, -ak은 添加語尾이고

㉧ Kud+ag, Kud은 Stem, -ag은 添加語尾이고

따라서 Kudagi, Kudak, Kudag의 stem은 'Kud'이며 'agi' '-ak' '-ag'은 添加語尾이다.

㉨ stem인 'Kud'은 'Kut'으로 옮겨 쓸 수 있으므로,

㉩ -d:-t와 關係는,

㉪ d : 開口度 0度로 잇몸소리요.

t : 開口度 0度로 잇몸소리며

d : 可聽度 2度이며

t : 可聽度 1度이다.

따라서

Kutagi : Kudagi, 즉 Kutagi→Kutagi?Kud+agi(有聲音化)

Kutək : Kudək, 즉 Kutək→Kutək>Kud+ək(有聲音化)

Kutəŋ : Kudəŋ, 즉 Kutək→Kutəŋ>Kud+əŋ(有聲音化)

의 關係는 有聲音化로

㉔ 결론적으로,

Kol의 祖語再構形은 KVi~KVr形이며

Kudagi, Kudək, Kudəŋ의 祖語再構形은 KVt形이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도식화한다면,

KVt> $\left\{ \begin{array}{l} \text{KVi~KVr形인 Kol系語形態로 發展化} \\ \text{KVt+suffix形} \left\{ \begin{array}{l} [-agi] [-dək] \\ [-dəŋ] \cdots \cdots \text{etc}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㉕ Kol(꼴) : 구태이(kudei), 구되기(Kudəgi), 구두기(kudugi), 구디(Kudi)

㉖ kudei, kudəgi, kudugi, kudi를 分析해 본다면

① kud+ei, kud(stem), -ei(添加語尾)

② kud+əgi, kud(stem), -əgi(添加語尾)

③ kud+ugi, kud(stem), -ugi(添加語尾)

④ kud+i, kud(stem), -i(添加語尾)

㉗ stem인 'kud'은 'kut'으로 對替할 수 있으므로,

kutei : kudei, 즉 kutei→kutei>kud+ei(有聲音化)

kutəgi : kudəgi, 즉 kutəgi→kutəgi+kud+əgi(有聲音化)

kutugi : kudugi, 즉 kutugi>kud+ugi(有聲音化)

kuti : kudi, 즉 kuti→kuti>kud+i(有聲音化)

이상의 關係로 볼 때,

○ kudei : 祖語再構形 kut+添加語尾 -ei>kudei(有聲音化現象) 語尾의 變異形態로 -agi, -ək, əŋ,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kudəgi : 祖語再構形 kut+添加語尾 -əgi>kudəgi(有聲音化現象) 語尾의 變異形態로 -əpi, -ei:, -eipi, -əpi, -u:ŋi, -wü, -wi:ŋi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kudugi : 祖語再構形 kut + 添加語尾 -ugi > kudugi (有聲音化現象) 語尾의 變異形態로 -igi, -i 등도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 kudi : 祖語再構形 kut + 添加語尾 -i > kudi (有聲音化現象) 語尾의 變異形態로 -i:, -iggi, 등도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㉔ 결론적으로, kol의 祖語再構形은 KVi~KVr形이나 이것은 kvI形에서 變遷되었을 可能性이 큼을 알 것이며, 또한 kudei, kudōgi, kudugi, kudi의 祖語再構形은 kvI形이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도식화한다면,

KVt >
{

 KVi~KVr形인 Kol系 語形態로 發展化
 KVt+suffix形 {

 {-ai} {-ōgi}
 {-ugi} {-i}

}
}

㉕ kol(골) : 구멍[kuməŋ], 구서(kusi), 포랑(¹korəŋ), 꾸덕(¹kudək), 굴티기(kumt'igi)

㉖ kuməŋ, kusi, ¹korəŋ, ¹kudək을 分析해 본다면

- ① kum + aŋ, kum(stem), -aŋ(添加語尾)
- ② kut + ai, kut(stem), -ai(添加語尾)
- ③ kor + aŋ, kor(stem), -aŋ(添加語尾)
- ④ kud + ək, kud(stem), -ək(添加語尾)
- ⑤ kum + t'igi, kum(stem), -t'igi(添加語尾)

㉗ stem인 kum과 kor의 關係

① -m: -t: -r의 關係는

㉘ m : 開口度 2度

: 可聽度 4度

t : 開口度 0度

: 可聽度 0度

r : 開口度 3度

：可聽度 5度

⑤ 開口度の 順位로는

t:m:r이며

⑥ 可聽의 順位로도

t:m:r이나

④ ⑤, ⑥의 경우에서 우리가 共通的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開口度の인 측면이나 可聽度の인 측면에서 볼 때 t>m과 t>r로 變化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⑦ 따라서 m:t:r 關係를 圖式化한다면

t > $\begin{cases} >r \\ >m \end{cases}$

으로 表示할 수 있을 것이다.

⑧ ⑦⑧을 통해서 보면 stem인 kum, kut, kor은 kut>kum과 kut>kor임을 알 수 있겠다.

⑨ 결론적으로

kol의 祖語再構形은 KVt~KVr形이며 이것은 KVt形에서 變遷되었음도 앞에서 밝혔고 kuməŋ, kusi, kusi, ¹korəŋ, Kudak, kumt'igi의 祖語再構形은 KVt形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圖式化한다면,

KVt $\begin{cases} \text{KVt} \sim \text{KVr形은 kol系로 變化} \\ \text{KVt} > \text{KVm形} + \{-əŋ\} (\text{suffix 形態添加}) > \text{kuməŋ} \\ \text{KVt} > \text{KVt形} + \{-si\} (\text{suffix 形態添加}) > \text{kusi} \\ (\text{이 때의 's'는 'ss'나 'cr'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음을 간접으로 시사함을 알 것이다.}) \\ \text{KVt} + \text{KVr形} + \{-əŋ\} (\text{suffix 形態添加}) > ¹\text{kurəŋ} \\ \text{KVt} > \text{KVt形} + \{-ək\} (\text{suffix 形態添加}) > \text{kudek} (\text{有聲音化現象}) \\ \text{KVt} > \text{KVm形} + \{-t'i\} + \{-gi\} (\text{suffix 形態添加}) > \text{kumt'igi} \end{cases}$

㉠ kol(굴) : 물꾸덩(mul-⁷ kudəŋ), 툼벵(tumbəŋ), 웅दै(ungdei)

㉡ mul-⁷ kudəŋ, tumbəŋ, ungdei를 分析해 본다면,

① mul-⁷ kudəŋ : mul+kud+{-əŋ}(添加語尾)

mul(stem)

kud(stem) : ① 實辭의 虛辭化에 依해서 mul-⁷ kudəŋ
이 되었을 蓋然性이 크며 또는,

② mul-⁷ kudəŋ을 mul(名詞)+kuəŋ(名
詞)의 合成語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② ungdei : ung(stem)+{-dei}(添加語尾)

㉢ stem인 mul과 kud인 tum과 ung의 關係

① kol : kud은 共通祖語가 KVt形이며

② kol : mul : tum : ung의 關係는 意味論的인 측면에서 볼 때 同系語
義를 갖었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런 面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kol : mul-⁷ kudəŋ : tumbəŋ : ungdei는 同系語義의 蓋然性이 큰
異形態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좀 더 確固한 論證
이 필요로 한다.

㉣ 결론적으로

kol, mul-⁷ kudəŋ, tumbəŋ, ungdei는, 또 다른 疑問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
는 데 아마도 初期言語에서 본다면 kol, mul-⁷ kudəŋ, tumbəŋ, ungdei는 서
로 名義 相異한 部族語이었을 可能性이 커 보이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獨
立된 方言으로만 殘存하고 있을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kol, ¹kol의 方言에서의 變異形態

㉠ kol(굴) : 구래(kure) : 고래(kore) : 구들목(kudul-muk) : 구들(kudil) : 구
들랑(kudil-⁷ tjaŋ)

㉡ kure, kore, kudul-muk, kudil, kudil-⁷ tjaŋ을 分析하면,

- ① kure : kur + {-e} (添加語尾)
- ② kore : kor + {-e} (添加語尾)
- ③ kudul-muk : kuk + ul (添加語尾) + muk (實辭의 虛辭化된 語尾)
 muk : mura (물) (琉球語)
 mui (森) (琉球語)

여기에서 muk : mura : mui의 關係는 比較言語學的인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共通祖語를 再構해 본다면, mVc形일 것으로 推定이 되나 琉球語인 경우 mura, mui는 mVc의 開音節化로 볼이 타당하여 이런 形象들은 諺(中世韓國語)·syam을 日本語에서는 sima, 神을 韓國語에서는 kam(금)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日本語에서는 kamu, kami라고 하는 것과 同次元의 문제이다. 따라서 '-muk'는 實辭의 虛辭化된 語尾이며, 實辭였을 때의 形態의 祖語形은 mVc였을 것이며, 이 mVc形의 變遷은, mVt > mVr > mVk인 muk로 變遷을 可能性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의 의미도 '물' '森'의 뜻이 포함되었을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 ④ kudil : kud + {-il} + (添加語尾)
- ⑤ kudil-² tjaŋ : kud + {-il} + [² tjaŋ] (添加語尾)
- ㉔ stem인 kur, kor, kud의 關係에서는
 - ① kur, kor, kud의 共通祖語의 再構形은 KVt形이며, 이 形態를 'kud'에서 찾을 수 있고, 이 'kud'形은 아마도 'KVt'形態의 有聲音化로 볼이 타당할 것이다.
 - ② 또한 kur, kor, kud의 形態에서 가장 古形態는 'kud'일 것이며 'kur'과 'kor'은 'KVr'이라는 形態의 各各異形態로 볼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KVt의 有聲音化形인 KVd形이 'kud'이며 여기에서 發達된 變異形이 'kur'이나 'kor'로 보인다.
- ㉕ 결론적으로

kor, kure, korz, kudul-muk, kudil, kudil-⁷tjaŋ의 共通祖語再構形은 KVi形이며 'kud-'形은 KVi形이며 有聲音化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kvt > — kol인 경우 : kvt ~ kvr形으로
- kure인 경우 : kvt > kvi ~ kvr + e > kvre형인 'kure'이며 이런 現象은 'kvt'形에서의 閉音節化로 봄이 타당하다.
- korz인 경우 : kvt > kvi ~ kvr + z > kvrt 形인 'korz'이며 이런 現象은 'KVi'形의 閉音節化로 볼 수 있으며, 'kure'와의 關係는 各各 變異形態로 간주될 수 있겠다.
- kudil인 경우 : kvt > kvd(有聲音化) + il > kvdil形인 'kudil'이며 -i > -d는 語末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語學的인 現象이다.
- kudul-muk 경우 : kvt > kvd(有聲音化) + ul > kvdul 形인 'kudul'이며 여기에서 '-muk'은 'kvt'形의 同系的 義味인 琉球語 'mura' 'muyi'의 共通祖語라고 볼 수 있는 'mvi'의 變遷形인 'muk'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kudul-muk'은 合成語임이 타당한 見解이다.
- kudil-⁷tjaŋ인 경우 : kvt > kvd(有聲音化) + il > kvdil形인 'kudil'이며 여기에서 '-⁷tjaŋ'은 앞으로도 研究할 수 있는 좋은 資料로만 남기고 여기서 省略하기로 한다.

⑤ kol(골) : 굴(kul) : 구래(kure) : 구리이(kurii) : 꼬래(⁷korz)

㉑ kul, kure, kure, kurii, ⁷korz를 分析하면

- ① kul : kul + $\emptyset$
- ② kur + {-ε} (添加語尾)
- ③ kurii : kur + {-ii} (添加語尾)
- ④ ¹korε : kor + {-ε} (添加語尾) > korε의 경음화 > ¹korε

㉔ stem인 kul, kur, kor의 關係에서는

- ① kul, kur, kor의 共通祖語의 再構形은 역시 kvr형이며, 이 kvr형에서 kvr形으로 變遷하였으며, 위의 'kul-' 'kur-' 'kor-'의 形으로 異形態를 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② 아마도 'kul-' 'kur-' 'kor-'의 stem에서 先代의 語彙形態로서는 'kor'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理由로서는 kvr의 祖語에서 'kol'로 變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kor'의 變異形態가 'kul-' 'kur-'임이 분명하다고 보겠다.

㉕ 결론적으로

kol, kul, kurε, kurii, ¹korε, kurii, ¹korε의 共通祖語再構形은 kvr形이며, 위의 事項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kvrt > — kol : kvrt > kvl ~ kvr의 典型的인 形態의 하나다
 kul : kvrt > kvl ~ kvr의 典型的인 形態에서의 異形態로 볼 수 있을 것이다.
 kurε : kvrt > kvr + ε > kvrε (開音節化)形인 'kure'이다
 kurii : kvrt > kvr + ii > kvrii形인 'kurii'이며 이것은 kvr形에서 본다면 長母音의 開音節化現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¹korε : kvrt > kvr > kvrε形인 '¹korε'인데 여기에서다가 경음화현상이 添加되어서 '¹korε'가 되었다고 보겠다.

㉖ kol(골) : 나무장(mamu-tj'ag) : 이닝기(iningi) : 허청계(hetj'ag-gje)

㉗ namu-tj'ag, iningi, hetj'ag-gje의 分析은

- ① namu-tj'ap : nam+u+tjap, stem은 'nam-'
 ② iningi : in+in+gi, stem은 'in-'
 ③ hat'tj'ap-gje : hat+ap+gje, stem은 'hat-'이다.
 ㉔ stem인 nam, in, hat의 語學的, 關係에서는,
 ① 形態論的인 측면에서 보면 'nam-' 'in-' 'hat-'의 共通的인 關係를 규명하기란 상당한 問題點이 내포되어 있다.
 ② 아마도 이들 語彙인 'namu-tj'ap' 'iningi' 'hat'tj'ap-gje'는 서로 相異한 異部族들의 言語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혀 다른 形態들이 現在까지 發達되어 왔다고 하겠다.
 ③ 그러나 形態論的으로는 發生年代나 發生部族名稱이 各各 相異하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共通의 意味가 '谷'과 關係가 있기 때문에 意味論的으로는 어떤 關係가 있으리라 推定할 수 있겠으며 이 問題는 次後로 마무리로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複合的인 言語的 事實들을 유추해야 하기 때문이다.

[2]. 以上과 같이 ㉔의 ㉔(a)(b)(c)(d)(e)

㉔의 ㉔(a)(b)(c)(d)(e)

㉔의 ㉔(a)(b)(c)를 통해서 谷(谷, kol)系의 方言을 포함하는 여러 語學的 事實들을 살펴 볼 수 있는 한 많은 부분들을 나열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重要的 事實들을 事項 別로 要約하다면

첫째, 'kol'과 kol(古語), ko : l-tjagi, 'korap, 'kol-tjak, 'kol-tj'agi, 'kol-tjak, 'torap에서

- ㉔ 'kvl~kvr'形이 共通祖語再構形이라는 共通點이며
 ㉔ 'kvl~kvr'形은 아마도 'kvl'形에서 變化되었을 可能性을 豫見해 준다는 점이며
 ㉔ '-tjagi' '-ap' '-tjak' 'tjagi' '-tjak'은 아마도 'kvl~kvr'形에 添加語尾가 덧붙

여전 것으로 생각 될 수 있겠다.

㉔ 'ko:l' 'kor-' 'kol-'은 'kol'의 長母音化와 硬音化現象으로 볼 수 있겠다.

㉕ 여기에서 'toran'은 그 祖語再構形이 'tvt'形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 tvt形이 tvr形으로 變遷되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㉖ 바로 'tvt>tvr'形에 해당되는 例로서는 'tar'(古代 Turkey語)이 있으며 그 意味는 '達' '高' '山' '谷' '城'이다.

동제, 'kol'과 kut(古語), kudagi, kudak, kudag, kudei, kudagi, kudi, kumag, kusi, 'kudak, kumt'igi, mul-' kudag, tumbag, ugdei에서

㉗ 'kol~kvr'形이 共通祖語再構形이며

㉘ 아마도 위의 形은 kvt形에서 變遷되었을 可能性이 크며

㉙ 이러한 形態를 證明해 줄 수 있는 形이 바로 'kut'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㉚ '-agi' '-ak' '-ag' '-ei' '-agi' '-ugi' '-i' '-ag' '-ak' '-t' 'igi' '-kudag' '-bag'을 아마도 'kvl~kvr'形에 添加語尾가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다.

㉛ 또한 'kum-'의 形態는 'kvt>kvw'에서 본다면 'kut>kum'으로 變遷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㉜ 또한 'mul-' kudag'에서는 'mul'rhk' kudag'의 合成語임을 말할 수도 있겠고 다른 면에서는 '- kudag'을 實辭의 虛辭化로 본다면 당연히 '- kudag'의 祖語再構形을 'kvt'形으로 보고서 '-ag'를 添加語尾로 보아야 할 것이다.

㉝ 'tumbag' 'ugdei'의 語學的인 문제는 여러 各度에서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tumbag' 'ugdei'라는 語彙와 kvt系의 語彙와의 關係는 '各各 相異한 部族語이었을 可能性이 커 보이면서 現在에 있어서는 獨立된 方言으로만 殘存하고 있을 可能性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tumbag' 'ugdei'은 'kvt'系의 語彙들과 形態的으로는 差異가 있으나 意味는 同一系 語彙이기 때문에 諸語學的인 事實로 볼 때 蓋然性이 큰 異形態들이며 또한 古代 諸部族語들이 後代에 들어와서 各各 獨立된 方言으로 存立

할 可能性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셋째, *kol'rbk kure, kore, kudul-muk, kudil, kudil-'tjaŋ, kul kure, kurii, *kore, mamu-tj'ag, iningi, hatj'ag-gje에서

- ㉑ 'kvl~kvr'形이 共通祖語再構形이며
 - ㉒ *kud-'sms kvt>kvd(有聲音化)變化에서 'kvd'形인 'kud-'일 뿐이다.
 - ㉓ 그러므로 'kud-'系の 語彙는 'kvr'系の 語彙인 'kor-'系이나 또는 'kur-'系 語彙보다도 先代の 言語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㉔ '-e' '-e' '-ul' '-muk' 'il' '-tjaŋ' '-ii' '-tj'ag' '-gi' '-gje'은 添加語尾로 봄이 옳을 것이다.
 - ㉕ 또한 'mamu-tjaŋ' '-u-', '-tj'ag' 'iningi' 'hatj'ag-gje'에서는 mamu-tj'ag은 nam-u-tj'agdau -u-, -tj'ag 역시 添加語尾로 볼 수 있으며 iningi에서는 inin-gi와 in-in-gi중에서 어느 形態가 보다 效果的으로 分析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며, hatj'ag-gje에서도 hatj'ag-gje로 分析하여 -gje는 添加語尾로 봄이 옳을 듯하다.
 - ㉖ 'namu-tj'ag' 'iningi' 'hatj'ag-gje'의 語學的인 문제는 'kvl'語系와 어떤 關聯性を 內含하고 있느냐가 關鍵이 되겠는데 이런 問題는 우리에게 어떤 推論을 낳는다. 아마도 namu-tj'ag, iningi, hatj'ag-gje는 서로 相異한 部族들이 言語일 可能性이 크며 그래서 各各 獨立되 채 現在까지 變遷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方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㉗ 上記와 같은 事實로 미루어서 생각하면 많은 現在의 方言들이 過去에 있어서는 異部族 間的 固有한 言語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語彙들이 通時的인 觀點에서 볼 때 一部單語들은 그 生命력을 잃어 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一部는 現在까지 그 生命력을 갖고 많은 變化를 겪었을 것이라.
- 筆者는 첫째의 ㉑~㉕까지 둘째의 ㉑~㉔까지 셋째의 ㉑~㉔를 통해서 kvt系 語彙와 kvt系 語彙와 形態는 다르지만 意味가 同系語彙인 몇몇 形態를 '韓國方言

辭典'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kvt系の 祖語에서 變遷된 語彙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方言들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 語彙들은 아래와 같다.

- ① kol (古語, 訓蒙上: 3, 類聲上: 5)
- ② kol-tj'ak (구례, 강진, 화순, 함평, 영암, 고흥지역)
- ③ ko:l-tjagi (고흥지역)
- ④ ^hkoran (하동지역)
- ⑤ ^hkol-tjak (순천, 광양, 담양, 보성지역)
- ⑥ ^hkol-tjagi (구례(화계면)지역)
- ⑦ ^hkol-tj'ak (순천, 광양, 담양, 보성지역)
- ⑧ kut (古語訓蒙下 17, 釋譜九: 14)
- ⑨ kudagi (포항, 충무지역)
- ⑩ kudak (전주, 사천, 거제, 남해, 충무, 구례, ...등)
- ⑪ kudən (구례(외곡리), 하동지역)
- ⑫ kudei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영덕, 경주, ...등)
- ⑬ kudagi (창녕지역)
- ⑭ kudugi (사천지역)
- ⑮ kudi (진양, 영동지역)
- ⑯ kuman (여수지역)
- ⑰ kusi (남해지역)
- ⑱ ^hkoran (이리지역)
- ⑲ ^hkrdak (하동지역)
- ⑳ kumt'agi (청도지역)
- ㉑ mul-^hkudən (하동, 남해지역)
- ㉒ tumbən (수원, 광양지역)
- ㉓ ugdei (문경, 제천지역)

- ㉑ kure (月釋序: 24)
 ㉒ korɛ (안동, 울진, 영양, 영덕, 포항, 경주, 문경 ... 등)
 ㉓ kudul-muk (무주지역)
 ㉔ kudɛl (청주, 연풍, 단양지역)
 ㉕ kudɛl-⁷tjaŋ (청주지역)
 ㉖ kui (울산지역)
 ㉗ kure (성주, 충무, 제천, 청양지역)
 ㉘ kuril (문경지역)
 ㉙ ⁷kore (문경지역)
 ㉚ namu-tj'aŋ (광양지역)
 ㉛ iningi (해관, 군위지역)
 ㉜ hoŋ⁷əŋ-gje (전도지역)

둘째, ㉑~㉜까지의 語彙들은 대체적으로 共通祖語再構形이 kvt形이며

셋째, 그 밖의 몇몇 語彙들은 異形態의인 同義語이며

넷째, 위의 kvt系 語彙들은 滿洲語의 hol(谷)와 對應關係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그러한 이유는 Altaï諸語에서는 語頭子音에 있어서 h:k:g는 對應關係가 있다는 점은 先代의 諸學者에 의해 밝혀졌듯이 이런 점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hollo의 祖語形態를 다음을 통해서 밝혀 볼 수 있겠다.

㉑ hollo는 hol+l+o인 可能性이 더 커 보이며

㉒ hol:stem이며

㉓ -l-: 添加語尾인데, 여기에서는 'hol'이 stem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母音 '-o'의 사이에 '-l'을 添加시켜서 發音상의 확실성을 기하였기 '-lo'로 分節音化現象을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㉔ 따라서 'hollo'의 祖語再構形態는 stem인 'hol'에서 볼 때의 'hvt'系の 形態일 蓋然性이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로서는,

- ㉑ 語頭의 子音은 그 形態대로 'h'일 것이며
 - ㉒ 語中의 母音은 vowel의 略字인 'v'일 것이며
 - ㉓ 'hol'의 語尾인 '-l'은 앞에서 言及했듯이 '-r'과 同系의 間隔의 度이기 때
문에 -l>-r 또는 -l로 表示할 수 있어서
 - ㉔ 'hol'의 祖語再構形은 'hvt'이다.
 - ㉕ 때문에 'kvt'語系의 祖語形態와 'hvt'語系의 祖語形態를 比較하여 본다면
 - ㉑ 語頭子音 k:h는 Altai諸語에서는 對應關係를 이루고 있다.
 - ㉒ 'kvt'와 'kvi'의 關係는 相互間의 同根語同意味의 可能性을 생각하게 한다.
 - ㉖ 따라서 우리는 本稿에서 kol語系와 hollo語系의 쓰임을 大別할 수 있게 된
셈이 된다. 말하자면 'kvt'語系를 祖語로 삼든 'kol'語系의 語彙와 方言들은
高句麗語 系統의 語彙이며, 이 單語들은 添加語尾가 붙고 또 붙어서 새로운
語彙로 變했으며 오늘날은 全國적으로 널리 散在된 '山' '谷' 語彙의 代表的
인 指稱이 된 셈이다.
- 또한 'hvt'語彙들 祖語로 삼는 'hollo'語系의 語彙와 方言들은 오늘날 滿洲地
方에서는 널리 散在될 수 있는 指稱이지만 現在로서는 그 方面에 field work
를 할 수 없는 關係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hollo'라는 語彙 自體가 滿洲
語인만큼 물론 滿洲地域의 곳곳에는 '山' '谷'語彙의 指稱에 많이 쓰일 것이
다. 아마도 그 옛날 古代의 滿洲地域의 地名語 中에서는 高句麗系語나 滿洲
一通古斯(Manchu-Tungus)語系語나 뒤섞여서 同時に 使用되었을 可能性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㉗ 오늘날 위와 같이 '山' '谷' 語彙의 地名語 中에서 특히 'kol'과 'kol-'의 語彙
는 北方的 要素인 高句麗語와 滿洲一通古斯語의 要素가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친 것들이며, 이런 現象은 그 옛날 막강했던 北方的 要素들을 지금 다시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以上에서 처럼 '-골[kol]'에 대한 比較言語學的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筆者가 可能한 주의 깊게 살펴 보려고 했던 점을 나열하면

- (i) 高句麗語인 '골[kol]'은 滿洲語의 'hollo'와 比較言語學的인 차원에서 보면 同一系 共通祖語를 가졌다는 것을 규명했으며
- (ii) 오늘날 '골짜기' '골짜' '골짜기' '골창' ... '골짜기' '골짜' ... '구덩이' '구덩이' '구더기' '구데이' ... '고래' '구들목' '구들장' '골' ... 등의 어휘들과 '골[kol]'과의 語學的 關係를 규명했으며,
- (iii) 따라서 城南地域에서 보이고 있는 '골' '-골 고개' '-고개 골' '-별골' '-골산' '-골 고개' '-골산'의 형태들은 모두 (i)(ii)와 關聯되어 있음도 결국은 입증되어 가는 셈이었다.

따라서 高句麗語인 '골[kol]'은 現代에 와서는 수 많은 形態로 多樣화된 語形으로 變化된 地名에서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城南地域에서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C) '-골'의 의미론적 성격

- ㄱ) 高句麗時代에 있어서 '골[kol]'은 그 意味 '城'이었던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買忽(一云木城) - 水城郡(水原)'에서도 보면 '골[kol]'은 '忽'으로 表記되면서 뜻은 '城'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ㄴ) 오늘날 성남지역에서의 '골[kol]'은 '골(谷)' '고개(谷)' '골고개(谷谷)' '고개골(谷谷)' '별골(野谷)' '골산(谷山)' '골고개(谷谷)' '골산(谷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本稿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 (i) 高句麗語인 '忽'인 '골[kol]'이 오늘날 城南地域에서는 매우 규칙적으로 거의 原型이 可能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地域에서는 [kol]에 대한

[kol-tʃ'ak] [ko:l-tʃ'agi] [tʃ'agi] [koran] [kol-tʃ'ak] [kol-tʃ'agi]
 [kol-tʃ'ak] [kut] [kudagi] [kudak] [kudag] [kudei] [kudagi] [kudugi]
 [kudi] [kumag] [kusi] [koran] [kudak] [kumt'agi] [tumbag] [kure]

[kore] [kudul-muk] [kudsil] [kui] [kure] [ˈkore]

등에서 치릴 '-tʰak' '-tʰagi' '-ag' '-tʰak' 'tʰagi' '-agi' '-ək' '-ei' '-ɜgi' '-ugi' '-i' ...등의 語尾가 첨가되어서 다양하게 地名이 발달되었다고 본다면 城南地域에서는 原型인 '골[kol]'과 變異形態의 한 語形인 '굴[kul]'의 兩形이 보이고 있으며, 그 意味는 '谷'으로 同一하다. 또한 위와 같이 이 城南地域에서는 語尾의 添加現象이 거의 地名語에서는 보이지 않음이 특징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골고개(谷谷)' '고개 골(谷谷)' '별골(野谷)' '골산(谷山)' '굴고개(谷谷)' '굴산(谷山)'과 같은 중첩된 어휘들이 이 地域에 남아 있는 흔적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ii) 高句麗時代에 있어서 '忽[kol]'은 그 意味가 '城'이었지만 오늘날 城南地域에서는 '谷' '城'으로 쓰이고 있으며, '成'의 경우는 '山'과 合成되어서 '南漢山城'이라는 地名이 있으며 특히 城南地域에 있어서는 '野' '山' '谷'과 어울려서 중첩된 의미로서의 '忽'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 ① 言語의 經濟性에 의한 意味 확대, 또는
- ② 言語의 보수성과 제약성, 또는
- ③ 三國時代에 있어서 오늘날 城南地域은 처음은 百濟의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後에는 高句麗, 新羅에 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地名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高句麗語의인 변에서도 '城'이 '谷'으로 쓰이면서 '山' '野'와도 合成되어 그 意味가 보다 具體化 되었을 것이다.

3. 結 語

筆者는 本稿에서 城南地域의 地名에 대한 考察을 百濟語와 滿洲語를 포함하는

高句麗語的인 要素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물론 극히 단편적이며 제한된 각도에서 보았다. 시간상의 제약과 공간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겠지만 筆者의 努力이 부족하였고, 城南의 地域에 대한 관찰도 역부족이었음을 자인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대로 筆者는 城南市의 자료와 몇 번에 걸친 현지 답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아 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城南地域의 地名에 있어서 百濟語와 高句麗語的인 要素와 그 意味를 결론 삼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 百濟語的인 要素와 그 意味

(1) 形 態

㉠ 내(川) : ① 百濟時代 nay(내) <加乙奈>

② 中世韓國語 nay(내음)

③ 百濟時代 nay와 關聯된 地名의 漢字語는, 川, 河, 江, 津, 浦를 찾을 수 있다.

④ 오늘날 城南地域에서는 '내, 개울'로 쓰이고 있다.

㉡ 제(峴) : ① 百濟時代에서 볼때

子旁(子訃)>제로 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따라서 百濟時代에는 '峴'에 해당되는 말로는 '제'가 있었을 것이다.

③ 中世韓國語에서는 '제'는 '城'을 의미한다.

(2) 意 味

㉠ 내(川) : 百濟時代에 비해서 오늘날 城南地域의 '내'의 의미는 '개울'과 같은 '小川'을 의미 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意味의 축소화, 經濟性化, 未分性化라고 하겠다.

㉡ 제(峴) : 百濟時代에 비해서 오늘날 城南地域의 '제'는 '峴' '峯' '고개' '굴'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意味의 多樣化, 細分化, 分化性化라고 볼 수 있겠다.

(B) 高句麗語의인 要素와 그 意味

(1) 形態

㉔ 골(谷): ① 高句麗時代 '골[kol]'은 '城'으로서 滿洲語의 hollo(谷)와 比較된다.

② 中世韓國語 '골[kol]'은 '洞·谷'

③ 形態論의인 측면에서 볼 때

골[kol]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比較言語의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골[kol]은 語尾가 많이 添加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④ 오늘날 城南地域에서는 '골' '골 고개' '터골' '골산' '산골' '고개골' '벌골' '골산' '골고개' '골산'로 쓰이고 있다.

(2) 意味

㉔ 골(谷): 高句麗時代에 비해서 오늘날 城南地域의 '골'의 의미는 '단어의 중첩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의미의 경제성과 내지 보수성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筆者는 城南地域의 地名에 대한 部分的 考察로서 끝을 맺기로 하였으며 此後 다른 要素와 分析의 科學化를 期하여 이 分野에 더 考察할 것을 다짐하면서 同學後學의 비판을 기다려본다.

註

- ① 城南市誌, p. 1811 참조. 城南市史編纂委員會 1993, 성남, 한국.
- ② 都守熙, 百濟語研究 p. 30, 弘文閣 1984.
- ③ 都守熙, 上揭書 p. 62, 弘文閣 1984.
- ④ 都守熙, 上揭書 p. 28(朝鮮學報 제98집)
- ⑤ 國語方言學, 韓國方言學會編 p. 68, 1973, 서울.
- ⑥ 國語方言學, 上揭書 p. 67, 1973, 서울.
- ⑦ 韓國方言學, 上揭書 p. 66, 1973, 서울.
- ⑧ 이희승, 국어사전, 민중서관 1963, p. 113, 서울.
- ⑨ 金亨奎, 國語史概要, 一潮閣, p. 30, 1975, 서울.
- ⑩ 朴根主, “山·谷”語系 語彙에 對한 比較 言語學的 考察, 忠南大學校 文科大學 國語國文學科 1990, 大田.
- ⑪ 崔鶴根, 國語方言辭典, 玄文社 pp. 63~4, 1977, 서울.
- ⑫ 崔鶴根, 上揭書 pp. 64~65.
- ⑬ 崔鶴根, 上揭書 pp. 65~66.
- ⑭ Nicholas poppe, Ural-Altaiische bibliothek,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1965.

民族文化宣揚에 관한 小考

魚 順 英

(성남문화원 이사)

[차 례]

- | | |
|---------------------|----------------|
| I. 서 론 | 4. 기타 예술 |
| 1. 문제의 제기 | IV. 민족예술 선양 방안 |
| 2. 연구목적과 범위 | 1. 교육을 통한 선양 |
| II. 민족문화의 특성과 현재 위치 | 1) 전통음악 교육 |
| 1. 개 념 | 2) 線의 미술교육 |
| 2. 민족문화의 특성 | 3) 시조의 생활화 |
| 3. 민족문화의 현 위치 | 4) 주제성 있는 교육 |
| III. 민족예술의 현 상황 | 2. 사회교육 |
| 1. 문 학 | V. 결 론 |
| 2. 음 악 | 1. 요 약 |
| 3. 미 술 | 2. 제 언 |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몇년 전에 모(某) 텔레비전에서 일부 부유층의 외국산 제품 선호 경향을 취재한 일이 있는데, 과연 집안 장식·가구 등이 온통 값비싼 수입 제품 투성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물론 속옷과 양말까지 외국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장난감과 학용품들도 그러했다.

취재하던 기자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도대체 국산품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하나가 있다.”며 들여보인 것은 욕실에서 쓰는 플라스틱 물빠가지였다. 그 프로그램 방영 후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고 개탄하였지만, 지금이라고 사정이 더 나아진 게 없는 듯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여러 시청자들에게 자기네 재산을 자랑하듯 외기양양한 그 철딱서니 없는 사람에게 많은 이들이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꼈으리라. 아마도 그녀는 혈통과 이름과 피부색도 외국제로 바꾸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지 모른다. 얼굴만 한국인이라고 한국 사람일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왜냐 하면 사람은 문화적 존재로서 그 정신과 사상이 한국적이지 않다면 절대로 한국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 외국과 우리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앞에 언급된 여자는 어느편을 들까? 생각해 보면 끔찍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던가? 6. 25전쟁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본주의가 뭇지, 공산주의가 뭇지도 잘 알지 못한 채 동족끼리 싸웠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는 속담도 있지만, ‘사람을 위한 이념이냐, 이념을 위한 사람이냐’의 구별도 미처 하지 못하고 동족의 가슴에 흉을 쏘았다. 형제자매가 갈라지고 오손도손 식구처럼 살던 동네 사람도 뿔뿔히 눈으로

처단하였다. 가히 '제 정신이 아닌' 시기가 있었다. 그것이 모두 '올바른 정신'을 상실한 탓이었다.

요즘도 그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층 우려되는 점은 비행청소년의 상당수가 죄의식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뻔뻔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잘못인지' 정말로 모르는' 윤리부재의 인생관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선악에의 판단력은 대개 유년시절 이전에 형성되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의 정신 상황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 못되었다. 아니, 정신문화의 위기라고 할이 적절하다 하겠다.

세계적 상황은 우리를 안이하게 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동서의 이념대립이 무너지고 바야흐로 경제전쟁의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대국에 종속되면 몇 시절의 식민지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제 정신만 차리면 산다."하였다. 그 정신이 바로 민족 주체성이다.

불과 몇달 전에도 우리 국민은 깊은 좌절감을 맛본 적이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여코 막겠다는 '쌀시장 개방 불가 방침'이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는가? 우루과이라운드와 협상에 따라 앞으로 외국 제품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올게 뻔하다. 그런데 어디 상품뿐이라? 문화와 교육의 개방이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는 '제 정신차리는 것' 즉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에 대한 재확인과 선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줄 안다. 필자는 우리의 문화적 상황이 위기라는 진단 아래 이의 타개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과 범위

본고는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을 진단하고, 일반 국민들이 민족문화를 재인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으로써, 목하 문화전쟁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국제 상황에서 조국의 선진국으로의 도약 조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학자도 아니고 원래 천학비재하여 전문적인 논문을 쓸만한 실력이 아니므로, 다만 한 사람의 예술계 종사자로서의 입장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문화의 현상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II. 민족문화의 특성과 현재 위치

1. 개념

‘민족’을 규정하려면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나아가 인류의 기원에서 갈래를 더듬어 나와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은 고고학·문화인류학·생물인류학·언어학 및 이와 관련된 근접 학문들을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¹⁾ 하듯이, 근접 학문들의 연구 결과가 종합되어야 총체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말로, 한국의 문화 현실에서 ‘민족’이란 말을 쓸 때는 다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민족은 하나의 조상을 가진 單一血緣共同體라는 확신을 갖는다. 둘째, 한반도를 중심으로 상주하여온 地域共同體이며, 셋째는 석기시대에서부터 비롯하여 장구한 역사를 지닌 文化共同體이다. 넷째는 歷史共同體이고, 다섯째, 言語共同體로 인식된다. 또한 한민족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략… 한국인에게 민족주의는 안으로는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 내실의 자각이며, 밖으로는 생존권의 각성을 의미한다.”²⁾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문화’에 대한 개념에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

1) 이흥규, 한민족의 뿌리, 《한민족》(서울: 敎文社, 1989), 창간호, p. 7.

2) 윤이홍, 한민족의 전통과 과제(서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987), pp. 16~17.

음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다. “문화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내는 전과정의 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을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다.”³⁾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로 구분해 쓰고 있으며, 문화를 ‘생활 양식’으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를 ‘정신적 생활 양식’으로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이로써 ‘민족문화’를 본고에서는 ‘장구한 역사를 공유한 배달 거리의 정신적 생활 양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민족문화의 특성

우리 민족문화의 성격에 대해 일찍이 조지훈은 자연환경과 민족문화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적하고 “한국의 자연환경이 주는 기본 성격은 兩面性이다. 해양적 이면서 대륙적인 그 반도적 성격이다. ...이러한 특질은 문화적 환경에다 ‘주변성’과 ‘중심성’이라는 특질을 주었다. ...예거한 해양성과 대륙성은 우리 민족에게 ‘평화성’과 ‘격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 구성요소를 주었다.(중략)

이 평화성과 격정성은 우리의 문화에 ‘낙천성’과 ‘감상성’으로 각기 표현되었다. 우리 예술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성격은 ‘꿈’과 ‘슬픔’으로 나타났다.(중략)

정치적 환경의 특질은 적응성과 보수성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민족문화에 있어서 기동성과 강인성으로 나타난다. 때와 자리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면서도, 어떠한 역경에서도 주체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성질, 이것이 우리 예술에 나타날 때에는 ‘멋’과 ‘근기’가 된다.(중략)

또한 문화적 환경의 특질로 예거된 ‘주변성’과 ‘중심성’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의 깊이와 받아들이는 것을 동화하고 개조하는 성질로 표현된다. 이것이 문화에 있어서 ‘감수성’과 ‘조형성’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예술에 나타나는

3) 권경수, 문화의 이해(서울: 일지사, 1994), p. 7.

것을 우리는 '은근'과 '땀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자 한다.(중략)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민족성은 그 강력한 양면성을 지양하고 조화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⁴⁾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우리 민족성은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것을 포용하고 적응하면서도 우리에게 맞게 개조하는 창조성이 있다 하겠다. 즉 주체성을 중심으로 지니되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소화하여 재창조하는 특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와 예술에서는 '땀과 끈기' '은근과 땀땀'으로 표현된다는 의미다.

3. 민족문화의 현 위치

전술한 '문제의 제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는 주체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신경정신과외사 이동식 박사는 '한국인의 민족신경증'⁵⁾이라 진단하고 "주체성이란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의 상태다. 따라서 일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독립을 뜻하며 동시에 자유를 뜻한다. ...남이 내 언동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되,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는다. 남의 생각도 나의 선택의 자료가 될 뿐이다."⁶⁾ 하여 개인주체성의 상태를 살펴하였다.

또한 민족신경증에 대해서 "그 원인은 외부의 힘으로 분단되었고, 우리의 주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참모습을 찾기 전에는 진정한 자주독립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성과 근대화는 달성될 수 없다. 참모습을 되찾으려면 민족의 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용어리는 고려 이후에 내려오는 사대노예근성이다. 일본승태·미국승태·서양문명에 현혹되어서 나타나는 전통을 망각한 서양승태, 이태을모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

4) 조지훈, 한국문화사 서설(서울: 탐구당, 1968), pp. 10~20.

5) 《문화비평》, 192. 7.

6) 《학생연구》, 1967. 8.

등등이다.”⁷⁾고 지적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는 “일제 교육의 중독자들이 일제가 우리 민족을 열구히 식민으로 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한 ‘주체성 말살’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해방 이후에도 계속 나라의 지도급 인사로 남아 있었던 탓이다. 또한 해방 후에는 외국문물과 서양종교를 맹신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의 정립을 저해하는 망국적 사대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탓이다.”⁸⁾고 역사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사람은 모두 제 잘난 멋에 산다.”는 속담도 있거니와, 스스로 ‘나는 못났다’는 ‘자기 부정’의 모습은 비단 개인의 정신적 질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사회적 고질병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Ⅲ. 민족예술의 현 상황

1. 문 학

우리의 문학은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으로 大別할 수 있고, 이 양자는 역사적으로 전통의 繼起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구획이 있다.”⁹⁾

그 이유로 조지훈은 민족의 고유문자가 15세기에 비롯된데다가, 그 사용이 원시되었고, 현대문학은 그 출발점이 계몽문학·평민문학에 있었으므로 갑오경장 이후 한국어의 재건과 순화와 본격적 창조가 이루어진 배경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시를 중하게 여기고 소설을 천시한 풍토였기에 문학이 제한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으나, 민족 정서와 우리 말의 구성에 적합한 시조가

7) 위의 책.

8)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서울: 사림원, 1979), pp. 24~27.

9) 조지훈, 앞의 책, p. 167.

활성화되고 있지 못할은 못내 아쉬운 일이다. 물론 김소월의 시라든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이 연구에 회자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층이 생일에 선사하는 시집은 거의 서양 시인의 것이 많다.

선조들은 시조를 생활화하여 자연·사랑·충효·이별 등을 자연스레 3·4조로 표현하였는데, 요즘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문학의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조지훈의 지적대로 우리 문학사의 특수성 때문에 전통성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시조의 멋이 사장되고 있는 현상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문학의 정의에 대해 박완서는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한 적이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자에 의한 소산은 모두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선 인류 문화에도 자랄스런 ‘한글’이 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최후의 人造文字요, 文字史上 최고로 발달된 지극히 과학적이고 편리한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프랑스에 갔을 때 어느 학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양철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한자와 일본어도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한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중국과 일본은 여러번 방문했다는 그는 한국은 잠시 들른 적이 있다면서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권이 아니냐?”고 단정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신문을 보니까 순 한자 투성이니, 중국 문화에 속한 나라 아니냐?”는 얘기였다.

그래서 필자는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한자를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일본 또한 중국 문화에 속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였더니, “일본이 비록 한자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일본 고유의 일본문화가 분명히 있다.”고 대답하며, 한국에는 고유문화가 없지 않느냐는 투의 평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화의 기본 척도는 말과 글인데, 고유의 글을 지니고 있다면 일단 문화가 높은 민족이 아니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프랑스는 이탈리아 문화권에 속한다. 왜냐 하면 옛 로마 글자인 라틴어에서 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이 파생되었으니, 결국 이탈리아 문화

에 예속된 나라를 아니냐?”고 반문하였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사과하는 것이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시의 혀 모양을 따서 제정되었으며, 어떠한 말이라도 24자로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어린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알다시피 한자는 선사시대의 큰나라 시대에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이기에 원시적이므로, 그 수효도 엄청나게 많아서, 중국인들도 ‘우리는 한자 때문에 망한다’고 개탄할 정도 아니냐? 과연 어느 민족이 선진문화의 글을 창조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는 큰 흥미를 보이며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지 글자도 외국 문자 선호 경향이 심하여, 길거리의 간판을 보아도 온통 영어 문자 부성이고, 건축 용어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에는 일본 용어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것 또한 주체성이 결여된 사대주의의 산물이다.

2. 음 악

아마도 음악처럼 8. 15 해방 이후에 철저히 쇠퇴한 전통예술도 없으리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노래판에선 외려 아리랑, 양산도타령 등의 민요가 자주 불리워졌는데, 요즘은 거의 우리 전통 민요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듣는 노래는 대부분 미국의 팝송이다.

“성악의 기원은 언어의 기원과 합치하고 …언어의 성질이 다르면 가요의 성질을 다르게 하고, 가요의 성질이 다르면 旋法(Modus)와 音律의 相違를 가져온다.”¹⁰⁾ 하여,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는 음악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밝혔고, “가야국의 가실왕은 중국 악기를 보고 12현의 가야금을 창제케 한 다음 ‘나라 말이 다르거늘 음악이 어찌 또한 같을 수 있으랴’하고, 당시 樂師 우복에게 명하여 12곡을 지었다.”¹¹⁾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음악은 본디 우리 땅에서 형성된 民衆인 俗樂. 삼국시대부터 수

10) 조지훈, 위의 책, p. 154.

11) 조지훈, 위의 책, p. 155-156.

입된 중국음악인 唐樂. 고려 이후 송나라에서 유입되어 조정의 의례에 쓰이는 雅樂으로 三別할 수 있다.¹²⁾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한국의 음악에 그치지 않고 동양의 음악이라 해야 하며, 동양음악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한국음악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중국·일본의 전문가들은 말한다.¹³⁾

이렇게 한국음악이 동양음악의 精華로 남아 있음은 한갓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동양문화를 위해서도 다행스런 일이라고 조지훈은 덧붙였다. 이렇게 전통이 깊고 풍성한 음악이 외래사조에 대한 사대주의적 자세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특히 8. 15해방 이후 물밀듯 쏟아져 들어온 미국 문물을 맹신하여 전통문화가 말살되다시피 하였다. 국민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노래 중에 '송아지'가 있는데, 그 가사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닭알네'로 되어 있다. 필자는 그래도 도시에서 자랐는데, 도대체 얼룩소를 본 적이 없었다. 주변의 소는 모두 한우인 '누렁소'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서울왔을 때 창경원에 있던 동물원에 가서야 '얼룩소'를 볼 수 있었다. 하긴, 얼마나 우리 땅에 얼룩소가 귀했으면 동물원에서 일부러 키우고 있었을까? 생전 보지도 못한 미국 쫓소 노래를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부르고 있었으니, 외국의 교육식민지 정책에 놀아났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비단 가사뿐만 아니라 곡에 있어서도 철저히 서양음계에 물들어, 고유의 음계가 지니는 유장하고 굽곡 있는 가락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가히 문화식민지 정책을 탈피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3. 미 술

민족미술에 있어서 단연 걸출한 세계적 작품은 석굴암이라 할 수 있다. 석굴암

12) 조지훈, 위의 책, p. 158.

13) 조지훈, 위의 책, pp. 158~159.

본존불에 대해 조지훈은 “모든 조각의 정연한 배열 위에 이들을 통제하는 본존 불은 불만엄숙하고 온화자비한 점에서 불상표정의 最高神品이요, 그 기술의 완벽 상태는 지금까지 보존된 동양미술사상 동시대의 최고 정점이다.”¹⁴⁾ 하여 ‘기교’에 있어 완벽함을 그 특징으로 들었다.

또한 “佛像의 모델은 신라인이다. 인도·중국·일본의 어느 불상보다도 특이하고 원만한 그 풍모는 지금의 정상도 남녀의 얼굴과 같다.”¹⁵⁾고 불상의 얼굴을 한국 화해낸 신라인의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인도에서는 원래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숭배하는 행위가 없었으나, 알렉산더대왕의 인도 침공 이후 그리스의 미술이 전파되었고,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인 간다라에서 불교철학과 그리스미술이 융합된 ‘간다라 미술’이 창출되었다. 이 간다라 미술이 중국과 한국에도 전파되어 중국의 둔황석굴·용문석굴과 경주 석굴암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佛·菩薩 중에서 ‘미륵보살’을 선호한 특징을 삼국 궁극의 보이고 있다. 또한 미륵보살상 중에서도 특히 半跏思惟像이 많은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보 83호와 78호를 들 수 있다. …보살상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로서의 근엄한 모습을 살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중생이 요구하는 바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상세히 전해주고 있다.”¹⁷⁾고 성격을 규정하며, 그 상호가 당시 소년의 얼굴을 모델로 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온화한 미소에 친근감을 주는 불상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삼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정복민을 고독에서 구원해 주는”¹⁸⁾ 의미가 있었다. 즉 당시 혼란스런 시대상에 걸맞는 구

14) 조지훈, 위의 책, p. 143.

15) 조지훈, 위의 책, p. 144.

16)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불교문화사(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7), pp. 43~48.

17) 홍춘식, 한국의 불교미술(서울: 대원정사, 1988), pp. 110~112.

18) 전국역사교사모임,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서울: 푸른나무, 1992), pp. 77~78.

원의 표정을 친근하게 조성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예술품인 청자에 대하여 조지훈은 “중국의 유장한 패기와 일본의 가벼운 慘利의 중간에서, 밝고 소박하고 꾸밈없는 곳에 그 특징과 매혹이 있다. 청자는 헛된 완상물이 아니라 그 당시 생활 용도에 적합하여, 미감과 실용이 융합되어 완비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미의 궁극이상이 아닐 수 없다.”¹⁹⁾고 극찬하였다.

“한국미술의 특징은 자연주의로서, 인공적인 것에 대한 기피가 현저하며, 無念·無想이나 즉흥적인 영감에서 이루어지는 無作為 자연적 창조성이 존중되고 있다.”²⁰⁾는 입장에서 보면 조지훈이 “구속 속에 획득한 영혼의 자유가 자연스런 線을 통해 생활에 침투한 것이 한국미술”²¹⁾이라는 평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이러한 독특한 민족미술의 전통은 문학·음악과는 달리 대중화가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긴 하지만, 실용적 역할에서는 아직 개발해야 할 부문으로 남아 있다. 요즘은 단순히 공산품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므로, 자연히 디자인이나 포장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시절이다. 즉 미술적 요소가 시장을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옷만 하더라도 ‘피에르 가르뎅’의 패션이 고가로 팔리고, 핸드백·라이터·만년필 등은 물론, 자동차까지도 디자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독창적인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세계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고, 유명 업체의 하청 공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래서는 한계가 있다. 사실 미술적 창조 영역은 무한대로 넓혀 있다. 요즘 이런 사실에 눈뜨고 전통 미감에 바탕한 새로운 시도가 행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패션상품이라면 무조건 서양의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19) 조지훈, 앞의 책, pp. 147~148.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기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미술” p. 612.

21) 조지훈, 앞의 책, p. 149.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패션상품들도 한국적인 감각을 살린 고유상표로 국제적 명성을 얻어 서양의 유명상표 제품과 당당히 겨루고 있다.

피혁소품전문상표인 (주)기호상사의 '가파치(CAPACCI)'가 그 중의 하나인데, 순수한 우리말의 '갯바치'를 영어식으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색깔면에서 화려함보다는 검정색과 자연미를 느끼게 하는 브라운 계열이 주조를 이뤄, 단순하고 절제된 색감을 주고 있다. 가파치 제품은 92년 1백억원, 지난해 1백 25억 동 태년 20% 이상의 매출액 신장을 기록했고, 수출규모도 8개국에 연간 2백만 달러에 이르며, 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27개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²²⁾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용미술인 디자인과 포장에 있어서 우리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전통미술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최근 외국인과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선물용으로 자개로 만든 브로치·목걸이 등 악세서리가 인기다. 전통공예 현대화 작업의 한 예라 하겠다. 이것은 나전칠기를 하고 남은 파편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다 악세서리로 개발하게 되었다는 이철용 씨로부터 시작되었는데, 91년말부터 조금씩 몇몇 사람들이 외국에 선물용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 인연이 되어, 일본·프랑스·러시아 등지의 바이어로부터 구입문의가 들어왔다. 이씨는 자개에 대한 외국인들의 좋은 반응에 자신감을 얻어 공방을 악세서리 주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개를 흔한 것으로 취급.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인의 시각이 우리 전통공예의 맥이 끊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³⁾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전통미술의 현 상황은 문학·음악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엔 아직 많았다고 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것을 하찮게 여기는 주체성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이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22) 동아일보, 1994. 1. 17, p. 7.

23) 중앙일보, 1994. 3. 12, p. 9.

4. 기타 예술

문학·음악·미술외에도 전통예술에는 치용무 등을 비롯한 무용과 탈춤 등의 연극도 있지만, 아직은 무형문화재로서 명맥이 보존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와 같은 호응은 못 받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서술 대상인 서민사회의 문화현상을 점검해 보면, 가장 심각한 현실은 '놀이문화'가 빈약하다는 실정이다. 특히 가족놀이의 부재현상은 국민정서를 삭막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신장에 온천을 찾았던李明 씨는 연휴 때의 일만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나온다. 오랫동안 두 친구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한李明씨는 가족여행을 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 남자 3명만 한 방에 모여 고스톱을 치느라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 바람에 부인들은 자녀들과 열방에서 TV를 본 것이 나들이 때 한 일의 전부였다. 예초 두 가족만 여행을 가려 했으나 '고스톱 정원'이 안돼 한 가족을 추가로 끌어들인 게 화근이었다.

현대 사회문제연구소가 몇해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가활동 형태를 보면 TV시청이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독서 20%, 음악감상 13%, 가족놀이 8.9%, 집안일 5.4%, 잠자기 3.4%였다. 이중 가족놀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함께 놀아주는 것이나 고스톱 등이 대부분이어서, 여가를 보내는 일에 활력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²⁴⁾

요런데 생활의 '멋'이 결여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각박해졌는지도 모른다. 전통적으로 정초에는 율놀이·연날리기를 비롯, 대보름에는 널뛰기·쥐불놀이가 있었고, 단오에는 그네뛰기, 한가위에는 달맞이 놀이와 장강술래가 있어 생활을 풍요롭게 했다.

"놀이 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정신적

24) 동아일보사, 한국인 진단(서울:동아일보사, 1991), pp. 20~22.

·육체적 긴장을 해소하고 내일의 활력을 재생하는 놀이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외면한 채, 쾌락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방법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이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인 풍류가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신라시대 최치원은 기록하길 “우리 배달 나라에 현묘(玄妙)한 길(道)이 있는데, 이것을 풍월도(風月道 또는 風流道)라 한다.”²⁶⁾ 이러한 풍류도는 면면히 ‘풍류’라는 용어를 통해 전해졌고, 이어령은 이를 ‘신바람 문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과 놀이가 대립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신바람이 나면 ‘일하는 게 노는 것’의 경지에 도달하여, 어느 민족에게서도 볼 수 없는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때가 빠지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농요와 어부가를 부르고,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밤길을 걸으면서도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동네 사람과 어울리면 어깨를 들썩이며 솜사탕 한바탕을 놀릴 줄 알았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주자는 연재가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미국서 활동하는 동안에 혹시 한국 사람이기에 불리한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 고마워요.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한국인만큼 음악적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 없더군요.”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의 이 풍류적 소질이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 속에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 남과 여, 일과 휴식, 사장과 노동자 등의 대립관념 속에 제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즉 너와 나를 구분하는 갈등구조 속에서 잠재능력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항상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남편’ 등으로 표현해 왔지, ‘내 나라, 내 집, 내 남편’으로는 말하지 아니 했었다. 바로 그 ‘우리’의 문화가 재조명될 때, 생활문화인 놀이가 활성화되리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전통정서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어 보임이 작금의 현실이다.

25) 동아일보사, 위의 책, p. 23.

IV. 민속예술 선양 방안

1. 교육을 통한 선양

1) 전통음악 교육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년이 바침 '국악의 해'인데, 전시 효과를 노린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유치원 때부터 민요와 국악 악기를 배우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근자에 들어 청년층에 '우리 것을 알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음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 단적인 예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가 공전의 호응을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은 이러한 문화 현상의 밑바닥에 흐르는 민심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소위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짓눌러오던 '보리고개'를 벗어났고, 한국인들은 한국문화를 맛보기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다. 대학마다 사물놀이패가 생김도 우연이 아니다. 어찌 이런 열망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서양음악만 교육할 것인가?

음악은 곧 정서다. 너와 나를 가르는 이원적(二元的) 사상을 지닌 서양음악으로 세뇌(?)된 사람들이 가득 찬 사회는 인정이 메마르고 이기주의적 탐욕이 관을 쳐서 살벌한 분위기를 띠게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과응보다. 미칠듯한 디스코도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유연하고 여유있는 민족음악 정서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한국인의 윤리와 멋을 바탕으로 세계성도 겸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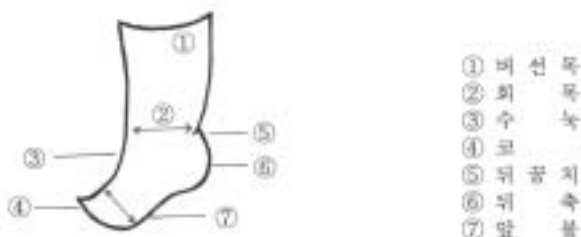
8. 15해방 이후 왜곡된 사대주의적 음악교육이 우리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었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듬뿍 담겨 있는 민요와 가야금·풍소·대금 등이 이제부터라도 널리 보급된다면, 우리 사회는 점차 주체성을 지니면서도 풍요로운, 한결 살맛나는 장소로 바뀌리라는 것은 필자만의 지나친 욕심일까?

2) 線의 미술교육

필자도 미술교육을 한 적이 있지만,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미술학원의 교육이

지나치게 색과 형태에 치중되어 있다. 가장 멋있고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미적 깊이가 있는 선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다. 우리 전통미술의 특징 중의 하나가 선인데, 그저 외국식 미술교육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비선을 만물에도 우리 선조들은 선으로써 세계에 유례없는 실용적인 필수품을 창조하여 사용하였다.

지금도 열대지방을 제외하고는 양말을 안 신는 인류는 드물겠지만, 우리네처럼 선만을 써서 발의 모습을 멋있게 형상화한 예는 없다. 즉 4개의 선으로 표현하는데, 실용성에 있어서도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 그러한 미적 소질을 우리는 되살리는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세계 속의 한국미를 드날려야 할 것이다.

3) 시조의 생활화

조선조만 하더라도 공부쯤 했다 하면 의례히 시를 읊었다. 과거의 시험문제에도 시로써 답안을 작성하였고, “서당 개 3년이면 시를 읊는다.”는 속담처럼 시는 곧 배운 자의 생활문화였다. 시는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공자의 말씀대로 ‘삿됨이 없는’ 심성을 체험케하여 삶을 풍요롭게 한다. 물론 현재의 교육상황이 ‘대학입시’라는 족쇄에 물려서 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詩, 특히 민족의 정형시인 시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통시가인 ‘단가’와 ‘테구’가 여전히 국민들의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음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저 배급주의·개인주의에 폭 젖어 날로 흠뻑해져가는 일부 청소년들을 볼 때

한층 詩心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보들레르나 랭보의 시는 줄줄 외우면서도 시조 한편 못외우는 왜곡된 문학교육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4) 주체성 있는 교육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지금 교육시킨다고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잘못된 교육시킨 결과로 우리는 어떤 모습과 부딪치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이제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교육을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요즘 한자교육부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나라는 동아시아문화권에 속해 있고, 국제화를 위해서도 한자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또한 한글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의 우리 문헌이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 문화를 알기 위해서도 한자해독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에도 공감의 간다. 그러나 우리 한글부터 철저히 알고난 다음에 한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중심을 세우지 않고 주변 것만 익히는 어리석은 행위를 또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2. 사회교육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것 중에 메스컴을 뱉 수 없다. 이른바 대량전달매체의 영향력은 가히 가공할만한 것이어서, 대통령에서부터 코흘리개 어린이까지 영향을 받고 산다. 글자 그대로 메스컴은 '무관의 제왕'이라는 별칭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싫든 좋든 사회교육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다. 근자에 '씨름'을 부각시켜 전국민의 스포츠로 정착시킨 게 그 좋은 예다. 바로 이 메스컴이 민족문화 선양에 앞장 서야 한다. 이는 언론이 사회의 꿈이라는 존재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외국 프로그램 배척기를 되풀이한다거나, 제작비를 줄이려고 외국만화를 계속 상영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시청률이나 구독부수를 늘이는 일에도 물론 전력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장 부족한 요소를 채워주는 역할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소명이 아니던가. 존 함은 들렸지만, 아직도 민족문화에 대한 소제는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그것을 별궁 함은 물론 새롭게 창출하는 문화의 첨병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V. 결 론

1. 요 약

사람은 사람답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교육자는 교육자답고, 예술인은 예술인다운 것이 삶의 제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탈만 썼지, 짐승보다 못한 놈' 식의 문제가 생긴다. 개인의 문제는 내면의 영역이기에 제3자가 원가알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구성원이면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필자는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병폐는 한국인답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서 파생된다고 진단한다.

물질적 성장은 하였으나, 속은 주체성 없고 국적도 없는 허수아비라면 지나친 흑담일까? 하지만 필자의 견해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본다. 정신이 바르면 행위가 바르고, 중심이 잡혀 있으면 어떤 환경도 주체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분명히 한국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토양 위에서 남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세계가 국제화로 치달는다고 하지만 뿌리 얇은 나무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원리가 자주 증명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한 예술인의 시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 신앙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전술한 조지훈의 민족문화 특성은 한 마디로 반도적 환경 위에 형성된 '수용성

과 주체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근자 우리의 모습은 '수용성'에 치중하여 '주체성'을 상실함으로써 균형이 깨진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주체성 확립이 현하의 과제라 하겠다. 윤이흥 또한 "한국인에게 민족주의는 안으로는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 내질의 자각이며, 밖으로는 생존권의 각성을 의미한다." 함은 시의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문제는 주체성, 즉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 내질의 자각인데, 이것이 예술로 나타날 때는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멋과 끈기, 은근과 땀땀'으로 표현된다 하였다.(전술 민족 문화의 특성)

따라서 중심성·주체성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되살려야 할 부분은 바로 '끈기'와 '땀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민족예술의 선양을 위해서는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끈기'와 '땀땀'의 소질을 일깨워야 하겠다. 필자는 '땀땀'을 '야무진 완벽성'이라고 이해하거나, 실로 우리 상품이든 예술품이든 뒷마무리가 소홀한 버릇은 시급히 고쳐야 한다.

어설픈 적당주의는 멋도 은근도 아니다. 눈에 안보이는 곳까지 철저히 정성을 들이는 완벽주의가 되살려져야 한다.

문학에 있어서 민족정형시의 재조명, 한글에 대한 철저한 습득, 민요의 부활, 繡의 미술 선양, 현대적 놀이문화의 창출이 민족문화선양에의 길이라 하겠다.

2. 제 언

전술한 대로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선양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메스컴과 각종 문화기관의 역할 또한 효과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족문화선양이라는 거창한 명제는 어느 한 개인이 언급하기에는 역부족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면 결국은 전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1978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신홍도시로서의 척박한 여건을

극복하며 1980년 설립된 '성남문화원'의 역할은 민족문화선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⁷⁾ 비단 성남시뿐이라. 방방곡곡에 문화단체가 설립되고, 문화적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국 문화인들과 연계하여 문화선진국 도약에 전력한다면 머지않아 눈부신 성과를 보리라 전망한다. 성남시가 신흥도시로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젊은 도시로서의 활기와 재기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문화전원지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7)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경기도 : 성남시, 1993), pp. 1552~1553.

논 문

永昌大君 墓誌銘 발견과 永昌大君 略史

李 亨 求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차 례] —

- | | |
|--------------|---------------------------|
| I. 발굴장소 및 경위 | IV. 光海朝 癸丑獄事와
永昌大君의 죽음 |
| II. 묘지명 원문 | |
| III. 묘지명 해석 | |

I. 발굴장소 및 경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평3동 4911번지 앞 골목(원래 영창대군묘가 위치하였던 장소임)에서 도시가스관 가설공사중 발견되었다. 신고인은 정상용씨(수정구 대평3동 29동장)였다. 영창대군 묘지명의 재료는 대리석이고 크기는 '가로 76cm × 세로 107cm × 두께 20cm'이다. 글은 인조때 우의정을 지낸 申欽이 짓고, 글씨는 金千齡이 天啓 3년(1623) 8월에 썼다.

II. 묘지명 원문

永昌大君墓誌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

事監春秋館事臣申欽製 進

永昌大君薨禍之十有一年閏十月十一日。將改定次禮 永昌大君行錄 命臣欽銘墓幽堂臣謹據而登其一二叙之。曰 公諱의 宣祖昭敬大王之子。母□ 昭聖貞懿王大妃金氏。次萬曆丙午二月初五日薨于慶運宮正寢。生有異質在□懷日朝 兩宮君只朝 中宮□不豫者竟日逮 宣廟遠和扶杖而行。公攀援奉引。不忍離側 善廟恒稱其得於天者獨厚云。宣廟禮葬公時三歲輒號咷哀慕觀者愍之。 神識異常嬉遊□□□沖決□□縫綵襄公□□□□樂曰 罕縫也聞次 先王所嘗御者爲式 先王已不能□□□□—□□□□□改之故曰 先王在天吾是次拜闕 王子有次享 穆陵陛下者公聞之既然曰吾亦何富拜先陵也。悲泣不已宮人歡謂公曰若當冀 慈壽無疆。公忻然 慈□難 慈殿親授孝經讀已成誦通其義七八歲智量類長者癸丑亦作。宮中諱其事。公嘗□□隱痛不稱。亦自悶嘿而已。是年五月恒自語曰。九天有命。屆七月朔公問侍者此去二十一日□□□晝夜乎。人莫測其意果於是日遷公于江華。 嗣之其告 玆矣異哉遷之七閏月甲寅正月二十日不淑。嗚呼。癸丑□□□言哉赫巨爾繼慈慈慈欲得次反之者□戈甲 宣廟大漸興鄭仁弘謀

投疏問親 □□□□□其奸竊之 未幾 宮車晏駕 爾瞻得志 益逞憾務 宜廟子孫殆盡又令死□上變覆公家□□公 公纔八歲矣, 遂張其熱天之誦幽廢□□母后者十年所而 邦命重新。人紀復叙首時公策□□誌之者亦可見天道之有定也, 夫銘曰,

有孩而孤。宜考之道弱未就傳, 于懷弗離而賊之忍, 貨是爲奇。實甘而心默紀滅釋。乾坤大革, 日月下垂, 愍幽昭枉勅貞厥儀封奇蹟貞, 庶慰 □慈 過者其式百祀早降。

天啓三一年 八月 日

異姓六寸幼學金千齡 書。

2. 묘지명 해석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臣 申欽이 지어 올린다.

永昌大君이 禍를 당한지 十一年이 되던 閏十月 十一日에 장차 禮式에 따라 改葬하려고 하면서 永昌大君의 行錄을 (갖추어) 臣 申欽에게 命하여 墓誌銘을 지으라 하였다. 臣은 삼가 행복을 갖추어 한 두가지 요점을 간추려 서술한다.

公의 諱는 희이니 宣祖昭敬大王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昭聖貞懿王大妃 金氏이고, 萬曆 丙午年 二月 五일에 慶運宮正寢에서 탄생하였다. 태어나면서 남다른 재질이 있었다. ……宣祖에서 몸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거동을 할 때면 公에서 잘 붙들어 받들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宣祖에서 항상 일련기를 하늘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두터이 여겼다. 宣祖가 禮式에 따라 公의 官爵을 줄 때, 나이가 겨우 三歲였지만 크게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니 보는 이들이 그를 가엾게 여겼다. ……先王에서 하늘에 계시므로 내가 이 때문에 절한다고 하였다. 王子가 穆陵陛下에서 進獻할 수 있게 됨에, 公이 이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어려 先陵에 전을 할 수 있으리오. 하고 끊임 없이 슬피 울었다. 寡人들이 희롱하여 公에게 말하기를 만약 통을 맛보면 어머니의 壽가 무궁해 진다고 하자, 公이 기뻐하며…….

慈殿(어머님)께서 친히 孝敬을 가르쳐 주심에, 읽으면 외워 버리고 그 내용을

완히 통달하였으니, 七八歲 때에 智謀의 度量이 어른과 같았다.

癸丑年 변란이 일어나자 궁중에서는 그 사실을 숨겼는데, 卽이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마음속으로 애통해 하고 불안해 하면서도 말 못할 뿐이었다. 이 해 五月에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九天(하늘)에 命이 있다”하고, 七月朔이 되자 公이 시종하는 사람에게 묻기를 “지금부터 二月 一日까지 몇 晝夜를 지내는가?” 하니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릴 수 없었다. 과연 이 날에 公을 강화도에 옮겨 幽閉시켰으니, (하늘이 미리) 정조를 알린 것이다. 얼마나 괴이한가. 公을 강화도에 옮겨 [七個月이 지난 甲寅年 正月 二十日] 죽었으니, 아! 癸丑…… 말하는가?

賊臣 李爾瞻은 원한이 쌓여 틈을 엿보고 모반하려는 자로 …… 宣祖 때부터 차츰 鄭仁弘과 도모하여 投疏하고 친한 이를 이간하여 …… 얼마 만되어 宣祖가 죽자 李爾瞻이 뜻을 얻어 더욱더 恨을 품고 宣祖 子孫들을 다 죽였다. 또 …… 公이 겨우 八歲였다. 드디어 하늘을 사르는 불을 놓아 幽廢시켜 母後하게 한 지 十年이 되자, 나라의 命이 다시 새로워지고 사람의 기강도 다시 바로 잡게 되면서, 먼저 公의 원한을 풀게 되고, (표지명을 쓰게 되니) 또한 天道가 有定함을 보겠도다. 銘에 이르기까지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나 선조의 아들이로다.

어려 스승에게 취학하지도 못했고, 종안을 벗어나지도 못했도다.

적신들이 저지른 심리는 재물을 기이하게 이긴 것이다.

실로 재물을 달게 여기는 마음은 기강을 무너뜨리고 彝倫도 폐멸시킨다네.

乾坤이 크게 뒤바뀌어 해와 달이 비취주게 되었으니,

幽廢됨을 가련히 여겨 잘못을 밝히서 勅命으로 그 儀를 바로 잡았다.

大君으로 奉하고 들에 飢하노니 (어머니 마음도) 위포될 것이다.

이 곳을 지나는 이는 공경할 것이며, 영원토록 제사 지내는 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天啓 三年(仁祖 元年, 一六二三) 八月 日

異姓 六寸 幼學 金千齡書

Ⅳ. 光海朝 癸丑獄事와 永昌大君의 죽음

(1)

광해조 永昌大君은 당시 정권주도자인 北人이나 光海君 개인의 정권유지를 위한 희생양이었다. 당시 광해군이나 복인은 시각부터 나름대로의 약점을 지니고 있었으니, 광해군은 적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복인정권은 정치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했다는 점에서였다. 이들은 그러한 약점을 만회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의 옥사(임해군옥사, 김직재옥사, 계축옥사, 인목대비폐위사건)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옥사 중에서도 癸丑獄事는 영창대군을 몰아내는 빌미가 되었던 사건이었으며, 나아가 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까지 폐위시켜 그들만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지나친 옥사의 연속은 오히려 이들 집단을 타락한 정권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영창대군을 죽인지 근 10년만에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영창대군은 1606년(선조 39) 선조의 정비인 仁穆大妃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서자인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던 때였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에 왕조의 위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난지인 평양에서 세자로 책봉되었고, 반면 영창대군은 전쟁이 끝난 후 선조가 새로 맞아들인 인목왕후에게서 적손으로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로 보아 일찌기 분란이 예측될 수도 있었다. 더욱이 선조는 새로 태어난 적자를 총애하고 세자에게는 관심을 끌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정쟁의 혼란을 부채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의 중신들도 두 패로 갈라져 외론이 빈번하던 중, 선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광해군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어서 영창대군을 옹호하던 무리들이 제거되고 나중에는 대군마저 죽게 되었다. 4년 후에는 인목대비도 폐위되었으니, 이같은 사건은 이미 예정되었던 것처럼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영이라도 하듯이 계축년

변란이 일어났을 때, 어린 나이인 영창대군 스스로가 五月에는 “九天(하늘)에 숨이 있다”하고, 또 七月朔이 되어서는 시종드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二十一日까지 몇 晝夜를 지내는가?”라고 하여 스스로가 이미 천명을 다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영창대군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재질을 지녔다고 한다. 국왕 선조는 그를 특별히 총애하여 항상 그의 곁에 데리고 있었다고 하며, 3세가 되던 해에는 그에게 관작이 내려졌다. 점차 벼운 바를 능히 일찍 익혀 孝敬의 禮를 다하였고, 7, 8세 때에는 도량이 어른과 같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광해군 5년(1613) 8월에 겨우 8세의 나이로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고, 이듬해 정월에 강화부사 鄭沆에 의하여 중살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 겨우 9세였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고 전한다.

(2)

광해군대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정의 일은 北人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정척이 좌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광해군 자신은 후인들에 의해 ‘廢主’로 지칭되고 말았다. 이 시기 조정에서는 鄭仁弘, 李爾瞻 등 북인의 영수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하여 정권이 주도되었고, 그 외의 세력들은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광해군이 등극하면서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즉위시 북인이 아니면서도 명망이 높았던 李元翼, 李恒福, 李德馨 등의 인물을 3정승으로 기용하였지만, 이들이 정승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정국은 鄭仁弘, 李爾瞻들에게 농단되어 가고 있었다. 이덕형, 이항복 등의 名士들은 金梯男(인목대비 父)의 처벌, 영창대군의 처벌 등을 반대하다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니, 후에는 대북인들의 권세가 되고 말았다.

일찍이 선조에게는 아들 열 넷이 있었다. 처음 왕비였던 懿仁王后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돌아갔고, 慈嬪金氏가 맏이인 임해군과 둘째인 광해군을 낳았다. 그리

고 나머지 열 셋째까지는 모두 후궁의 소생이었고, 끝으로 늦게 계비 仁穆大妃에게서 永昌大君을 얻었다.

宗室의 상황이 이러하였기에 광해군 자신의 입장에서조차 언제든지 자신의 왕권을 넘볼 수 있었던 臨海君, 永昌大君, 기타 왕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요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위험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史家들은 광해군이 당시의 대북정권에 대해 농단되었다고 결론짓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가 주위에 있던 대북 조신들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등용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동기를 살해하고 모후를 폐위시킨 것은 인물상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며, 특히 조신조와 같이 孝를 지상으로 하는 유교국가에서 불효란 죄목을 쓰고 있었기에 오래도록 정권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3)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옥사는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광해군 원년(1609)에 임해군이 살해되고, 이어서 광해군 4년(1612)에는 김쪽재가 역모죄로 사형을 당하였다. 이 두 사건은 명창대군의 살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명창대군의 살해사건은 광해군 5년(1613)에 일어난 이른 바 七庶之獄에서 비롯되었다. 철서지옥은 이 당시 소양강을 무대로 詩酒를 즐기던 7名(朴應犀, 선조대 영의정 朴淳의 서자·陰祥甲, 전 목사 徐益의 서자·沈右英, 沈鎰의 서자·朴致毅, 平壤功臣 朴忠侃의 서자·李耕俊, 북병사를 지낸 李濟臣의 서자·서업 許弘仁)의 서출들이 역모사건에 가담했다고 몰려 화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이들이 명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인목대비로 하여금 수렴청정을 하도록 사건에 모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의는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과 합의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이이첨 등의 계교에 따른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광해군 5년(1613) 3월 문경새재에서 상인을 죽이고 銀 수백냥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약탈을 주도한 이는 徐洋甲과 朴應輝였는데, 처음 이 사건을 처리한 포도청에서는 보통의 강도사건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때 이이첨 등이 포도대장 韓希吉, 鄭沆 등과 모의하여 박응서에게 “이러이러하게 진술하면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큰 공을 세울 수 있다.”고 꾀어 그로 하여금 “장차 큰 일을 일으키려고 식량과 기계를 준비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도록 하였고, 또한 1608년부터 명나라 사신을 저격하여 사죄혼관을 약기시키고 군자금을 비축하고 무사를 모아 사죄를 도모하려 하였으며, 성사된 뒤에는 영장대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변제하였다. 또한 서양감의 경우는 처음에는 그들의 심문에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누이에게 가혹한 刑權을 가하였고, 그래도 반역을 부정하자, 어머니와 누이 이외에도 그의 처와 첩까지 잡아들여 심하게 고문하기에 이르렀다. 할 수 없이 서양감은 “수장자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계남이며 대비도 모의에 가담하였다”고 자복하고 말았다. 이들의도 사건에 연좌된 서열들은 내다수가 불복한 죄로 죽었고, 박치희는 도망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의 의도가 반역을 도모한 것이 아니었고, 정확히 7명의 서열들이 합심하여 이 일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7명의 서열들이 대개는 大家의 자제들로서 許均, 李士浩 및 金長生의 서제 慶福 등과 사귀면서 스스로를 竹林七賢, 江邊七友라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시주를 일삼았다고 전하는데, 이는 세인들 특히 당시의 양반들에게 끌려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이첨 등은 이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역모로 위장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이 국문 받을 때에 꼭 7명으로 한정되거나, 7명만 더 주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옥사는 박응서, 서양감을 비롯한 몇 명의 서열들이 역술하게 처벌받은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이 사건에는 서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조정의 신하들도 이 사건과 연루되었는데, 이들은 종성관권 경협, 신희, 박동량, 한준겸, 이정구, 김상헌, 황신 등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주도한 이이첨 등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목대비와 아버지 金僖男과 영창대군이었으며, 이들의 의도는 영창대군 및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은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처음 康子들의 獄이 알려진 것은 광해군 5년 4월 25일이었는데, 10여일 지난 후 사간원에서 의 啓를 시작으로 연흥부원군 김제남에 대한 처벌논의가 일어났으며, 같은 날 지평 鄭好寬에 의해서 영창대군 의의 처벌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후 김제남과 영창대군의 처벌을 주장하는 啓請은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달하는 형식도 처음에는 왕의 측근들에 의해서 주장되다가 후에는 점차 조정의 신료들에게서, 성균관 유생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실제로 영창대군의 처벌논의에 있어서 처음에는 대사간 이지환, 사간 최동식, 지평 정효관 등과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 왕의 측근에 있는 연관 및 연론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다음에는 대신과 2품이상의 관원들이 함께 계를 올렸으며, 5월 말경에는 성균관의 생원, 진사들이 공동으로 의논하여 이위정을 소두로 삼아, 상소하기에 이르렀다.

대신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영창대군에 대해 “그가 비록 어리고 아는 것이 없다고는 하나 이미 역적의 입에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기로 했다는 설이 나온 이상, 이같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명을 지니고 있는 한 순간이라도 궁중에 편안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제남에 대해서는 “그가 서양감 등의 괴수로 서양감을 시켜 비밀스러운 계책을 꾀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대신들의 입장은 영창대군이나 김제남에게 正罪를 가하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왕은 김제남에 대해서는, 일찍잡치 과격명을 내렸으나, 영창대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가 혈육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신하들의 주청을 거절하고, 또한 “賊徒가 설령 그를 옹립하려는 계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대군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점차 반대하던 감도가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신하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하여 김제남은 그해 5월 26일에 위리안치시키도록 전교가 내려졌고, 영창

대군에 대해서는 처음, 관작만을 박탈했다가 5월 29일에는 廢庶人이라는 전교가 내려졌다. 그리고 다시 조신들은 김제남에 대해서 그에 대한 正刑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영창대군에 대해서도 伏誅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왕은 다시 그 달 말일에 김제남에게 사사를 명령하였고, 영창대군의 일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다가 나중에(6월 21일) 그를 편가로 내려 보내도록 하였다.

결국 몇 명의 서자들이 도적질로 잡힌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영창대군을 몰아내고, 주위의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의 경우는 왕의 同氣이면서도, 선조의 적자였기 때문에 왕의 입장으로서도 쉽게 주살할 수는 없는 형이어서, 주위의 인물들이 거의 제거된 이후에도 미결로 남게 되었고, 영창대군을 처벌하려는 대신들의 주장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8월 2일에 이르러 그를 강화도로 안치했으나, 이 때 그의 나이 겨우 8세였다. 그는 이듬해 2월 강화부사 鄭沆에 의하여 죽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복인들이 정권을 좌우하는 중에도 김제남이나 영창대군의 일에 대하여 반대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李德馨, 李恒福, 李廷龜, 郭再祐, 정촌 등이었으며, 특히 李德馨과 李恒福의 반대는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이이첨의 무리들과 근본적으로 당색을 같이 하지 아니한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들의 행위가 옳지 못함을 알고 계속된 대북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사직 상소를 올려 그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으로 이들은 후인들에 의하여 명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4)

광해군 6년(1614), 왕에게 최대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영창대군이 제거되었으나, 조정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이는 바로 인목대비에 대한 처리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영창대군이 죽었더라도 그들에게는 인목대비가 아직 결끄러운 존재였고, 더구나 애초에 영창대군을 처리할 때, 인목대비도 함께 처리할 것을

논의한 이상, 그를 처리하자는 논의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사실 명창대군이 죽은 후, 당분간 인목대비에 대한 논의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8년(1616) 가을부터 폐모론이 다시 성하게 일어났다. 이때 폐모론자들은 폐위의 근거를 삼고, 폐모론을 자극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인 김제남을 추형하여 그의 시체를 시장에 걸어 내 놓은 일을 자행하기도 했다. 대비를 폐위하자는 주장 및 상소는 앞서 영창대군의 때보다 더 극렬하였다. 광해군의 입장에서 영창대군은 그의 형제이나 대비는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광해군으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결정이 인륜의 도리상,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대신들로서는 더욱 폐모론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 해 8월에 경상도 유학 서선 등이 “역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폐모론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듬해 2월 25일에는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 金閔夏 등이 소를 올려 대비의 열가지 죄를 논하여 존호를 삭고 조정의 화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백관이 收議하여(관원은 전임자를 합하여 930명 참석, 종실이 130명 참석) 대비의 폐위를 적극 주장하였다.

이 때, 대비의 폐위에 반대하고 나선 이는 李恒福과 영의정 奇自獻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후까지 폐하는 너무 심한 일”이라고 극언하였는데, 이러한 이들의 입장은 결국 역적인 대비를 옹호한 것으로 인식되어, 모두 위리안치되고 밧았으니, 이해 12월에 이항복은 복형으로, 기자현은 김주로 각각 떠나게 되었다. 이후에 이들 두 인물이 제거되고서는 거칠 것 없이 폐모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광해군 10년(1618), 1월에 이르러서는 날마다 백관은 세 번 아뢰고, 종실은 두 번 아뢰고, 양사는 세 번 아뢰고, 육당은 두 번 차자를 올리고, 성균관과 사학은 두 번 소를 올렸다 한다. 이는 조선조에서 가히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만큼 끈질긴 주청이었다. 이러한 무위기에 광해군은 한 달을 이기지 못하고 모후의 폐위를 결정하게 되었다. 결국 이해 1월 말에 인목대비는 작호를 삭탈당하고 그가 거주하는 慶運宮은 西宮으로 칭하게 되었다. 수 년을 끌던 조정의 혼란이 일단 마무리 되었다.

결국 계축년에 일어난 소위 칠서지옥은 영창대군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4년 후에는 인목대비 폐위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광해조에 정권에 전횡하였던 대북일파에 의해서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을 두고 일반적으로 광해군이 대북정권에 휘둘린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나, 사실은 광해군 자신도 그의 왕위 유지를 위하여 이들의 입장을 수긍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후에 영창대군신도비를 작성한 신흠은 “예로부터 제왕가가 그 종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끝세의 어린 아이로서 법도를 범하는 일은 일찌기 듣지도 못하였다”고 할 만큼, 당시 대북일파와 광해군의 도덕성은 타락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처리한 이들은 후에 도리어 인조반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조반정 후 이미 죽은 영창대군은 인목대비와 함께 복각되었다.



영창대군 묘지명 전면



묘지명 전문(타본)

有二女曰張適平市令曰李昂俱有四男二女曰孝男安峽縣監其次延興公其次忠里信男俱夭女曰南挺華僉知曰李鴻延興公出後於從祖安遂後有一男曰俊男縣監韓崇健有二男曰伯厚繕工正曰仲厚進士鄭善復有一女曰趙宇倫縣監孝男有一男曰瑾衛率延興公有三男二女長棟清州牧使於公之神道暨石實經紀而董理之卒乎有成其亦靈聞承宗不遺於孝者耶次珪十四登進士次瑄幼女長沈挺世縣監次即王大妃誕生貞明公主永昌大君瑾珠俱有子女而幼公之世然矣得譜而名世

象村先生集 卷之二十八

十三

者蘿菴先生累傳而公始大又三傳而延興公益大克鍾沙麓之祥豈非積善之慶足以委祉垂裕繩絕不窮也耶銘曰

上公之缺者年之壽既享其遐又享于後萬生任如毋臨一國惟善有報公之食之龜趺螭首墓道增華文追作銘刻示無訛

永昌大君神道碑銘

萬曆戊申宣祖大王疾大漸惟時賊臣爾瞻啖鄭仁弘投疏始備禍端未幾宣廟晏駕爾瞻遂煽飛箝動內外聽起獄及癸丑禍大熾括慈殿為可廢

永昌大君為逆謀時永昌纔八歲矣遷之江華逼殺之幽 慈殿于西宮者十年天紀蠹蝕民彘滅絕迨不能立國乃於天啓三年三月十二日 上因天人之會克靖內難復 母后位賜永昌爵 命有司改定且惟所以景跡垂後雪其誣枉者樹諸神道 命臣欽紀之臣謹稽首奉讀 王大妃殿下所降行錄曰嗚呼冤哉自古帝王家地逼讒生間有不能全其宗姓者而未聞以八歲稚齒而扞文罔者也嗚呼冤哉公諱璣 宣祖大王之子母曰 昭聖貞懿王大妃金氏萬曆丙午生公鍾質甚異與凡兒殊在母懷

集村先生集

卷之二十八

十四

恒日朝 兩殿或只朝 中宮則色不豫者竟日逮宣祖大王建豫扶杖而行公在側周旋 宣廟奇愛之 宣廟賓天哀號以踊觀者莫不悲之稍解語能盡孝敬之節語及 先王纍然變容聞 王子以祭穆陵往者公慨然以慕慕下宮中以亥日佩綵囊公令婢侍縫之俄忽不樂罷之問其故曰聞以先王所御者為式 先王已不能御吾曷忍佩也一日公北面跪拜曰 先王在天吾是以作禮耳宮人知公克孝以其難概之曰若當冀 慈殿聖壽無疆公即嘗之性又聰明讀書輒成誦於書法不學而能矣

丑之變宮中鼎沸公察識之深自隱痛而懼傷 慈
殿之意不色憂只默然而已恒自言曰九天有命屈
七月朔間侍者曰遣幾日有二十一日乎宮中見公
靈慧莫測其意果於是日遭禍人尤異之癸亥某月
某日葬于某地某向之原天固有定理無不復白日
重明於黃道至痛普滌於九泉噫斯可以觀 聖德
矣銘曰

非公之禍邦運之屯寬哲恩貤厚壤同春臣拜稽首
銘此牲石哀榮之俱觀者其戚

仁嬪金氏神道碑銘并序

象村先生集

卷之十八

主

仁嬪金氏既卒之十一年我 殿下受命踐阼越石
年丁卯 命樹麗牲之石於仁嬪墓道 敕臣申欽
叙之臣欽謹拜手稽首而言曰若稽金氏自出水原
考曰漢佑司憲府監察妣曰李氏忠義衛孝誠之女
嘉靖乙卯二月甲午生嬪稟有淑質典倫類殊婉婉
觀穆已著於弄瓦之日雖為游戲不違女則表姊李
氏為 明廟後宮取養于宮中時年十四 仁順王
后一見輒異之屬 宣祖大王備後庭嬪自受內職
益兢兢飭已承上以敬蒞下以恕居寵而畏臨事而
謹令問徽赫壺闈之中為式焉萬曆癸酉 賜號淑

永昌大君 雜記 卷之十八 仁嬪金氏神道碑銘 (象村先生集) 申欽撰 十四年刊

논 문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 墳墓를 中心으로 —

張 三 鉉

(경원전문대학교수)

[차 례]

I. 머리 말

II. 城南의 人物

III. 城南의 主要姓氏

IV. 城南의 姓氏와 名人

V. 맺 는 말

참고문헌

I. 머 리 말

성남지역엔 누가 언제부터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개발되기 이전의 성남지역은 廣州郡의 일부로 산골짜기마다 한 姓氏가 世居하여 온 同族部落이 대부분이었으며 순후한 인심과 미풍양속의 전통이 있는 마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와 도시개발에 따라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도 파괴되고 매몰되어버린 것이 대부분이다. 조상을 존모하고 조상의 유품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건설업자에게 있어선 걸림돌이 될 뿐이요 귀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古家나 古木이나 古塚이 있어서 벌당을 짓지 못한다면 밭도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요, 조상에서 후손으로 계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남지역의 옛 조상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남긴 정신적·물질적, 유형적·무형적 유산들을 관심 밖의 일로 소홀히 하거나 지나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은 전통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용성도 없고 별 것도 아닌 선사시대의 인공이 가해진 깨진 돌맹이와 녹슬은 칼이나 화편 등을 발굴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도 드물다.

성남의 옛 민물을 찾는 일에 대하여도 실속 없는 허망한 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얼굴도 못본 祖上을 모시는, 1년에 한 두 번 있는 의식(제사)도 쓸데 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대개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성남시는 서울의 천막촌이 집단 이주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여온, 전국 各地人의 집합도시로 인식하여 뿌리도 없고 역사도 없으며 전통도 없는 오합지졸의 도시로 알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 백년전에 배포한 자나 이주한 자의 후손들이 集姓村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세거성씨의 족보나 마을의 생활풍습이나 후손들에 의하여 구전되는 전설에 의하여 대들어 볼 수 있다.

성남 향토문화의 주인공이었던 옛 선조들은 성남에 근거를 두고 주거지 근거리에 무덤을 만들고 장사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도로와 교통수단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옛날임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생각은 더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주거지가 성남지역이라 하더라도 근접한 광주·경안·용인·수원 등지에 묘를 쓴 경우도 있고, 보다 수백리 밖에도 묘를 쓴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확증할 길이 없다. 또 세월이 급변하여도 민족정신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성남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지표조사가 없었고 보존되고 수호되어야 할 곳이 파괴되고 매몰된데 대한 당국의 실수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분당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정서적 측면은 도화시되고 그지 어떻게 해야 여러 동의 아파트를 세울 것인가에만 집착되었다. 하기가 건축·건설·토목을 담당한 부처나 그런 업자에게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노령의 세대는 세상을 달리하고, 도시화는 가속화 되고, 가치관도 변하고, 역사와 전통은 빛을 잃어가고, 정신적·인간적 가치는 멀어지고, 물질적 가치는 살충하고, 민족 정기도 흐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성남 인물조사의 목적은,

첫째, 성남 인물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고,

둘째, 성남 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생활의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굴하는데 있으며,

셋째,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뿌리도 없고 역사도 없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남시라는 의식을 바꾸어 놓는데 있다.

본 조사 대상의 인물은

첫째, 성남지역 내에 묘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둘째, 품계를 받거나 관직을 가졌던 남자와

셋째, 품계나 관직이 없더라도 사회에 귀감이 되는 忠孝를 실천한 人物과

넷째, 묘의 소재는 알 수 없어도 성남지역 사람으로 문헌에 밝혀진 인물로 하

었다.

다섯째, 시대적으로는 고려 말기에서 부터 조선 말기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여섯째, 조사인물에 대하여는 성명·生卒·본관·자·호·父名·관직·포장 모범등만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본 조사는 1993년 12월 1일부터 1994년 2월 15일 까지 하였으며, 주로 邑誌의 세거설씨와 족보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성남지역의 名人의 자손이 타지역으로 이거한 경우와 표지를 다른 곳에 쓴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에 대하여는 차기 다른 각도에서 연구할 과제로 미루었다.

II. 城南의 人物

各 世居姓氏別 族譜에서 성남시에 소재한 墓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 品階나 官職을 가진 人名은 모두 651名이다. 이들을 區別·洞別·門中別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하여 보았으나, 첫째 상당수가 성남지역은 분명하나 그동안 행정구역의 동폐합과 지명의 변화로 동명의 구분이 어렵고 둘째, 성남인물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본 인명들의 참고 활용도를 고려하여 記錄의 차례를 「가 나 다」 순으로 정하였다.

姜 老(1438~1474) 舊州人, 字는 少之, 諱의 1남, 생원·문과, 성균관 대사성 (북정동)

姜 栢齡 舊州人, 濱의 1남, 진사, 봉렬대부 典設司別提 (북정동)

姜 演 舊州人, 熙臣의 5남, 생원, 강동현감 (북정동)

姜聖益(1706~1758) 舊州人, 樸의 1남,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孝友, 유림 重望. (금광동)

姜叔淮 舊州人, 진사, 남원부사·濟用監正 (북정동)

姜 璵(1820~1884) 晉州人. 호는 古歎堂. 鎮華의 子, 閔魯行·金正喜 문인 <북정동>

姜 隱 晉州人. 자는 之顯. 호는 格齋. 天命의 1남, 牧隱의 門人, 官職 동지밀직사경 수문전 학사 <북정동>

姜 諤 晉州人. 자는 子悟. 廷俊의 1남, 肅靖대부 첨지중추부사 <북정동>

姜熙臣(?~1519) 晉州人. 자는 士光. 호는 默庵. 叔淮의 1남. 진사, 절원부사(증) 이조참의. 碭文은 閔箕가 짓고 金龜는 썼다고 전함 <북정동>

高奉遠 濟州人. 자는 敬道. 仁和의 2남, 五衛將을 역임 <동원동>

高永德(1770~?) 濟州人. 자는 汝拱. 元吉의 1남, (증)가선대부 한성좌윤 <동원동>

姜廷俊 晉州人. 栢齡의 1남, 肅靖대부 첨지중추부사 <북정동>

姜天命 晉州人. 元吉의 1남, 고려조의 예의관서·성균관 대제학, 정헌대부, 碭文은 李家源 撰 <북정동>

姜 緯(1685~?) 晉州人. 자는 文卿. 碩望의 2남, (증) 통훈대부 사복정 <북정동>

姜 誥 晉州人. 隱의 1남, 肅憲대부 중부사 少尹 <북정동>

高元詰 晉州人. 光于의 1남, (증) 공조참의 <동원동>

高仁和(1816~?) 濟州人. 永德의 3남, 肅靖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동원동>

權 懷(1579~1655) 安東人. 자는 省吾. 호는 淸溪. 微의 5남, 명평현령(증) 좌승지. 碭文은 현손 權胤이 지음 <금토동>

權 佶 安東人. 攀의 1남, 肅憲대부 도사(증) 승정원 좌승지 <금토동>

權 礎(?~1568), 安東人. 자는 聖甫. 愚의 1남, 趙光祖의 門人, 忠祿위 부사 & (증) 이조판서, 추가로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諡號는 忠定, 花城君 <금토동>

權 兢(1527~1607) 安東人. 자는 壽翁. 靖의 1남, 어모장군 行 忠祿위 대호군 <금토동>

權得己(1570~1622) 安東人, 자는 重之, 호는 曉晦. 克禮의 子, 文科, 고산도관방(증) 이조참판, 墓誌는 沈之漸이 짓고 墓誌은 許篈가 지었다. 저서로 曉晦集·然松雜記가 있다. 공주 도산서원에 제향(금곡동)

權 攀(1419~1472) 安東人, 자는 子龍, 호는 無盡亭, 蹤의 子, 文科, 예조참판, 시호는 安襄, 花山君, 有賜碑文(금토동)

權 炳 安東人, 자는 士正, 鼓의 4남, 중훈대부 호조정랑(금토동)

權 授 安東人, 자는 天卿, 호는 雷谷, 현감, 孝子(금토동)

權 訖 安東人, 得己의 2남, 송라관방(금곡동)

權 愚 安東人, 자는 希顔, 佖의 1남, 원주목사(증) 대사헌, 永嘉君(금토동)

權 仍 安東人, 暉의 2남, 司襄判官(증) 승지(금토동)

權 諱 安東人, 得己의 1남, 함창현감(금곡동)

權 拈(1573~?) 安東人, 자는 靜吾, 호는 東里, 微의 4남, 사마·문과, 가선대부 형조참판(금토동)

權 微(1538~1598) 安東人, 자는 而遠, 호는 松庵, 璜의 3남, 공조판서(증) 영의정, 시호는 貞翼, 碑文은 宋時烈이 짓고 謚狀은 李景奭이 지음(금토동)

權 愼(1571~1633) 安東人, 자는 子誠, 鼓의 2남, 明川府使, 청백리, 위원·정평에 송덕비가 있고, 有碑文·行狀(금토동)

權 恰(1563~1638) 安東人, 자는 正夫, 微의 2남, 현감(금토동)

金 璿 延安人, 麟趾의 子, 의금부 도사(양지동)

金光業 順天人, 璿의 3남, 병절교위(관교동)

金克俊(1761~1818) 順天人, 자는 時麟, 趾祥의 1남, 武科, 선전관(여수동)

金魯奎(1764~?) 慶州人, 승정원 과승지(상적동)

金大熙 金海人, 통정대부(북정동)

金德模(1701~1774) 光山人, 자는 潤甫, 華壽의 子, 원지중추부사(성남시)

金得遇(1729~?) 光山人, 자는 夢興, 德模의 3남, 武科, 營將(증) 승정원 과승지(금정동)

- 金洛叙(1766~1820) 光山人, 자는 仲瑞, 得遇의 子, (증) 호조참관 (금광동)
- 金 澤(1602~1619) 光山人, 자는 澄甫, 호는 易安堂, 宣務郎 (창곡동)
- 金萬成(1631~1680) 光山人, 자는 中集, 字仁의 2남, 전사, 호조정랑 (금광동)
- 金事結 延安人, 양양부사 (양지동)
- 金嗣源 順天人, 자는 孝甫, 文科, 동훈대부 行 尙衣院正 (증) 가선대부 병조참관 (관교동)
- 金嗣鼎 安東人, 주의 系子(生父 稿), 茂山도호부사 겸 무산전 병마도원절제사 (이매동)
- 金相魯 光山人, 陸承, 洛叙의 1남, 첨지중추부사 (금광동)
- 金商集(1828~?) 慶州人, 俊喜의 子, 오위장 (상적동)
- 金世德(1481~1520) 光山人, 殷의 子, 鄭光弼의 문인, 司馬, 乙巳禍 (금광동)
- 金 壽(1660~1720) 光山人, 자는 巨山, 萬翼의 3남, 司馬·文科, 서강원 文學 (금광동)
- 金壽宗 順天人, 白湖의 子, 돈녕교위 (관교동)
- 金順成(1429~1481) 光山人, 자는 景純, 萃의 子, 성원, 평양서윤, 有蘭文 (창곡동)
- 金 鐘(1624~1699) 順天人, 자는 士守, 衡弼의 系子(生父 洪弼), 孝子 (여수동)
- 金若時(1335~1406) 光山人, 호는 陰村, 鼎의 3남, 사마·文科, 직제학 (증) 조선, 자헌대부 이조판서, 시호는 忠定, 蘭文 李穆, 有行狀, (금광동)
- 金 讓(?~1585) 光山人, 자는 彦謙, 世德의 子, 사마, 삼가원령 (증) 호조참관 (창곡동)
- 金 丙 順天人, 자는 宗子, 日新의 子, 전사 (관교동)
- 金彦國 順天人, 자는 士義, 白漢의 2남, 어보장군 行 총파위 부호군 (여수동)
- 金 璉 安東人, 嗣鼎의 1남, 통덕랑 (이매동)
- 金允灌 順天人, 嗣源의 5남, 숙천부사 (관교동)

金允濟 順天人, 자는 子舟, 嗣源의 1남, 武科, 가선대부 평안병사, 부총관 <관교동>

金允濯 順天人, 嗣源의 2남, 통정대부 합천군수·윤진현령, 함진파관매 殉節 <여수동>

金翼輔 安東人, 璉의 1남, 통정대부 <이매동>

金日新 順天人, 자는 子進, 光業의 子, 병절교위 <관교동>

金白淵 順天人, 允濯의 1남, 통훈대부 문화현감 <관교동>

金白漢 順天人, 允濯의 3남, 부호군 <여수동>

金白滿 順天人, 允濟의 1남, 통훈대부 군자감 관관 <관교동>

金 櫛(1531~?) 順天人, 壽宗의 1남, 진사, 조선대부 강동현령 <관교동>

金在九(1858~1894) 光山人, 자는 道淳, 箕輿의 子, 武科司果 <창곡동>

金在麟(1828~1893) 光山人, 2는 士公, 義敎의 子, 통사랑, 선공감역 <단대리>

金在燮(1867~1928) 光山人, 자는 振玉, 箕三의 4남, 武科, 司果 <금광동>

金在榮(1861~1895) 光山人, 자는 允一, 箕三의 3남, 武科, 尙正 <금광동>

金 節 光山人, 若時의 2남, 현감 <금광동>

金濟元 金海人, 자는 彌福, 淑鉉의 1남, 忠衛參奉 <구미동>

金濟春 金海人, 國鉉의 1남, 절충장군 <구미동>

金 碩 安東人, 允厚의 2남, 武科, 防禦使, 有誌石 <이매동>

金俊喜(1798~?) 慶州人, 魯奎의 子, 호조참의 동지의금부사 <상적동>

金止男(1559~1679) 光山人, 자는 子定, 호는 龍溪, 讓의 孫子, 사마시, 청풍군수, 闕文은 金字亨이 지음 <창곡동>

金盡國 金海人, 자는 得男, 希鍵의 1남, 가선대부 <금곡동>

金 萃 光山人, 若時의 1남, 사마시, 知祥原郡事, 有行狀 <금광동>

金 礪(1453~1503) 光山人, 자는 殷佐, 順成의 子, 사마시 <금광동>

金 鎬(1621~1701) 順天人, 자는 士宗, 弘弼의 1남,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 孝子 <여수동>

- 金 湜 延安人, 文科, 예조참판 (양지동)
- 南景文 宜寧人, 在의 1남, 봉정대부行 병조의랑 (증) 영의정 (수전동)
- 南啓夏 宜寧人, 자는 養伯, 호는 龜峰, 임지충주부사, 詩人 (대평동)
- 南公轍(1760~1840) 宜寧人, 자는 元平, 호는 思穎, 有容의 子, 文科, 영의정, 시호는 文獻, 文章, 글씨로 유명, 저서로 金陵集·歸隱堂集·穎翁續稿·고려 명신전 등 (금토동)
- 南 瑄(1536~1576) 宜寧人, 자는 伯獻, 應雲의 1남, 관관 (성남시)
- 南純元(1809~1890) 宜寧人, 자는 稚略, 공조참판 (금토동)
- 南 堊(1648~1714) 宜寧人, 자는 公望, 泳의 1남, 어모장군 (증) 호조참판, 의령군 (대평동)
- 南大佑 宜寧人, 자는 重卿, 延慶의 子, 좌랑 (증) 영의정, 宜寧府院君 (성남시)
- 南斗龜(1588~1622) 宜寧人, 상원군수 (성남시)
- 南斗燧(1590~1634) 宜寧人, 자는 叔璣, 諱의 3남, 忠義衛 (낙생면)
- 南斗樞(1605~1682) 宜寧人, 자는 子君, 以吉의 子, 宗廟令 (탄리)
- 南勉教(1774~1845) 宜寧人, 자는 景黃, 履慶의 2남, 司馬試, 순흥부사 (낙생면·遂雲峴)
- 南 忭(1454~1499) 宜寧人, 자는 叔懼, 僞의 子, 진사, 석녕군수 (증) 병조참판, 錫銘은 金安國 撰 (대평동)
- 南保身 宜寧人, 총과위 부호군 (대평동)
- 南相穆(1876~1908) 宜寧人, 자는 文一, 抗日義兵將·육중병사, 건국포장 추서 (하산운동)
- 南相星(1632~1700) 宜寧人, 자는 子卿, 斗綱의 子, 부호군 (증) 호조참판 (대평동)
- 南瑞雲 宜寧人, 자는 政淑, 첨지 (여수동)
- 南世健(1484~1552) 宜寧人, 자는 伯順, 忭의 6남, 예조참판, 嘉碑文은 金黃榮 撰 (성남시)

南世彦 宜寧人, 자는 子彦, 忒의 7남, 인권부사, 碑文은 10대손 南啓熙 撰 〈성남시〉

南世雄 宜寧人, 자는 國幹, 忒의 1남, 司馬·武科·文科, 병조참판 〈성남시〉

南世準(1478~1533) 宜寧人, 자는 正卿, 忒의 4남, 貢生·文科, 이조참판 〈성남시〉

南世珍(1654~1729) 宜寧人, 자는 君玉, 文科, 병조참의 〈도촌동〉

南世則 宜寧人, 자는 季仲, 忒의 5남, 병절교위 〈성남시〉

南世秤 宜寧人, 忒의 3남, 안성군수 (증) 이조판서 〈성남시〉

南世衡 宜寧人, 忒의 2남, 부사 〈성남시〉

南世興 宜寧人, 자는 益章, 부사 〈도촌동〉

南 楫(1469~1501) 宜寧人, 자는 始之, 晦의 3남, 삭녕군수 〈여수동〉

南壽民(1484~1569) 宜寧人, 자는 可封, 司馬·文科, 동지중추부사 〈태평동〉

南延慶(1513~ ?) 宜寧人, 자는 士吉, 世秤의 1남, 한림과랑 〈성남시〉

南衍明(1706~1774) 宜寧人, 五鼎의 3남 동지중추부사 〈사송동〉

南五薰(1643~1719) 宜寧人, 순흥부사 〈사송동〉

南 璉(1546~1581) 宜寧人, 자는 子獻, 應雲의 4남, 군자주부 (증) 참판 〈성남시〉

南 鎰(1552~1597) 宜寧人, 자는 時望, 應龍의 2남, 나주목사 (증) 좌의정, 宜川府院君, 임진왜란 때에 貢生, 旌閭, 碑文 徐明善 撰 〈성남시〉

南有容(1698~1773) 宜寧人, 자는 德載, 호는 雷淵, 清記의 子, 李穡의 門人, 文科, 형조판서 (증) 영의정, 시호는 文清, 저서 雷淵集 30권 〈용동〉

南 崙(1517~ ?) 宜寧人, 教錫의 子, 부호군 〈여수동〉

南應年 宜寧人, 世健의 3남, 관상감정 (증) 호조참의 〈성남시〉

南應老(1509~1558) 宜寧人, 자는 頤叟, 世準의 子, 군수 〈성남시〉

南應龍(1514~1553) 宜寧人, 자는 景霖, 호는 二樂堂, 世健의 2남, 공조참의 〈성남시〉

32 城南的世居姓氏与人物考

張獻(1848~1914) 宜寧人, 자는 聖邦, 府使 (금보통)

鄭華(1543~1615) 宜寧人, 자는 國實. 應老의 2남. 가선대부 (성남시)

朝陽獻(1769~1821) 宜寧人, 자는 文雨, 호는 宜齋, 司馬. 춘천부사 (증) 대
· 有文集 (음독)

南 俊 宜寧人, 簡의 子, 사헌부 감찰 (증) 호조참판, 碑文 8대손 南翼 撰 (성
[사])

南重澤 宜寧人, 諱사 (증) 호조참판 (성남시)

南重河 宜寧人, 만호 (성남시)

南昌元(1850~?) 宜寧人. 자는 敬錫, 첨지중추부사 <윤동>

南天驥(1650~1738) 宜寧人, 자는 雲閣. 兩星의 2남. 동지중추부사. <하산문동>

南忠世(? ~ 1504) 宜寧人, 孝溫의 子, 사복시정 (관교동)

南 樞(1539~1596) 宜寧人, 자는 叔南, 應雲의 3남, 통천군수 <성남시>

南 偶 宜寧人, 習의 2남, 내성시 부정 (증) 호조참의, 南文은 南舜民 저음 (성 남시)

南商星(1627~1693) 宜寧人. 자는 子輔, 斗燦의 子, 선교당 (낙생 후원동)

南弘壽 宜寧人, 부호군 〈대명통〉

南 璡 宜寧人, 호는 菊史, 應龍의 1남, 宗廟大夫 司畜署別提 (단리)

南孝元(1454~1521) 宜寧人. 자는 居仁, 梧의 子, 사마시, 水使(증) 참판(태평통)

南熙壽 宜寧人, 영종만호 (태평동)

盧 瓊 長淵人, 孝恭의 1남, 종원부 권설 <북정동>

盧孝祐 長淵人, 대제학 龜山의 3남, 자헌대부 한성판윤 고양현감, 有蘭文(복정동)

孟萬章(1666~1727) 新昌人, 修瑞의 1남. 가선대부 行 執中장군 용양위 부호군
(문장동)

孟頫欽(1429~ ?) 新昌人. 繼曾의 1남, 武科, 가정대부 建功將軍 虎貞衛 總

동정대부 (증) 호조판서 (성남시)

南人, 자는 士男, 世彦의 子 가선대부 관찰사 겸 순찰사

南

(1587) 宜寧人, 자는 致遠, 호는 菊窓, 世健의 1남, 文科, 예조판

書 權正達 撰, 글씨로 유명 한대 서화당경덕비와 환산대침비의 글씨를

(성남시)

南應井(1522~1577) 宜寧人, 자는 文仲, 世則의 子, 무사직 (성남시)

南以聖(1558~1636) 宜寧人, 자는 益明, 珩의 1남, 함양군수 (성남시)

南以興(1576~1627) 宜寧人, 자는 士豪, 호는 城隱, 瑜의 1남, 武科, 평안병사, (증) 좌의정, 호안사에 안주성서 殉節, 시호는 忠莊, 宜森府院君 (대령동)

南益補(1737~1780) 宜寧人, 자는 司遠, 營의 5남, 武科, 무사 (독정리)

南益述 宜寧人, 자는 允中, 露-동정대부 (성남시)

南益範(1710~1792) 宜寧人, 자는 德遠, 蟻의 子, 첨지중추부사 (상대원동 사기막골)

南益華(1667~1733) 宜寧人, 자는 平淑, 榮의 1남, 가선대부 원곡부사 (성남시 읍촌)

南麟憲(1748~1824) 宜寧人, 자는 仁瑞, 돈녕부 도정 (증) 이조참판 (율동)

南廷國 宜寧人, 자는 景周, 동정대부 (관교동)

南正倫(1737~1805) 宜寧人, 자는 剛汝, 益裕의 2남, 武科, 동정대부 군수 (탄리)

南廷愚(1860~1928) 宜寧人, 자는 愛明, 武科, 군수 (사솔동)

南挺經(1537~ ?) 宜寧人, 자는 國聲, 應老의 1남, 칼방 (증) 승경원 좌승지, 외직에 불궁복 死, 陸間, 金祐基 錫文 撰 (성남시)

南挺芝(1552~1598) 宜寧人, 자는 伯馨, 應井의 1남, 병절교위 (성남시)

南廷鶴(1819~ ?) 宜寧人, 자는 松斐, 勉教의 1남, 司馬, 상주목사·승지 (운중동)

호군, 新昌君, 有表石 (분당동)

孟修瑞(1641~1708) 新昌人, 世顯의 1남, 가선대부 어모장군 동지중추부사 (분당동 香木谷)

孟孝述(1863~1886) 新昌人, 자는 武善, 호는 東隱. 胤諱의 系子, 生父 賢諱, 통사랑 선공감역 (분당동)

睦君慶 泗川人, 직제학 俊平의 子, 중원대부, 興威衛 大護軍 (상적동)

睦孫儉 泗川人, 진사 忠達의 子, 호조참판 道恭(1389)의 父, 韓虎衛 郎將 (상적동)

閔德鉉(정축~병오) 麗興人, 武科, 司樂 (사송동)

朴性九 密陽人, 자는 性萬, 時令의 1남, 五衛將 (도촌동 大齊谷)

朴性煥 密陽人, 자는 三藝, 惠來의 1남, 통정대부 (대제곡)

朴時烈 密陽人, 자는 八孫, 聖煥의 1남, 가선대부 (도촌동)

朴時令 密陽人, 자는 八龍, 聖煥의 2남, 동지중추부사 (돌마면 대제곡)

朴興九(乙未~?) 密陽人, 자는 聖祿, 時烈의 1남, 통덕랑 (대제곡)

方 恂 溫陽人, 호는 晚松堂, 彦暉의 1남, 文科, 예조참의, 시호는 文毅 (단리)

方有良 溫陽人, 호는 普通, 恂의 3남 鄭夢周의 門人, 상주목사 (상대원동)

宋大顯(1862~1926) 礪山人, 자는 仁嶽, 善會의 1남, 敎官 (상대원동)

宋 擇(1524~1564) 礪山人, 자는 卓爾, 호는 琴軒, 末璫의 1남, 성원·진사 중성부사 (증)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상대원동)

宋末璫(1507~1570) 礪山人, 자는 彦圭, 壽의 3남, 진사, 양원현령 (증) 이조참판, 孫 言信이 立碑 (상대원동)

宋孟環 礪山人, 壽의 1남, 武科, 오위도총부 부총관 (하대원동)

宋文吉(1582~1677) 礪山人, 자는 在茲, 호는 相村, 毅의 1남, 司馬, 사헌부감찰 (증) 이조참의 (상대원동)

宋性吉(1602~1637) 礪山人, 자는 子善, 驥의 4남, 진사, 형능참봉

宋 壽(1470~1518) 礪山人, 자는 善叟, 胤殷의 1남, 진사, 정주목사 (증) 병조

참관 〈하대원동〉

宋叔環 礪山人, 자는 仲圭, 壽의 2남, 생원, 통훈대부 안성군수, 왕자사부 (하대원동)

宋言慎(1542~1612) 礪山人, 자는 慕尤, 호는 愷奉, 諱의 2남, 退溪의 門人, 文科 별조판서, 시호는 榮襄, 行狀은 柳誥이 짓고 신도비명은 姜百年이 관하였으며 諡狀은 尹勳이 撰하였다. 지서로 菴峰集이 있다. 〈상대원동〉

宋維四(1630~1671) 礪山人, 자는 張之, 相繼의 1남, 생원, 선공감역. 〈상대원동〉

宋 謙(1575~ ?) 礪山人, 자는 光甫, 希聖의 1남, 진사, 통훈대부 돈녕부 판관 (증) 사헌부 집의 〈하대원동〉

宋在顯(1865~ ?) 礪山人, 자는 鳳叔, 善會의 2남, 武科, 선전관 〈대원동〉

宋 鑾(1564~1643) 礪山人, 자는 晉甫, 호는 省庵, 言慎의 系子, 生父는 承緒, 文科, 충청감사, 行狀은 壬相元이 짓고 神道碑銘은 尹淳이 지었다. 〈상대원동〉

宋贊會(1849~ ?) 礪山人, 覺勉의 3남, 武科,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대원동〉

宋必顯(1884~ ?) 礪山人, 자는 慶叔, 贊會의 1남, 군부 참위 〈대원동〉

宋行吉(1595~ ~) 礪山人, 자는 汝五, 駿의 2남, 文科, 평안도 掌試도사 〈단대리〉

宋彙敏(1731~1795) 礪山人, 자는 汝訥, 淵의 1남, 장수현감 〈상대원동〉

宋希聖(1543~ ?) 礪山人, 자는 汝賢, 叔環의 系子, 生父는 淵, 진사,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하대원동〉

申敬一(1551~ ?) 平山人, 壽의 1남, 생원, 용인현령 〈대왕 도성현〉

申恭一(1560~1664) 平山人, 자는 商甫, 黯의 1남 武科, 都總 〈사충동 섬골〉

申命稷 平山人, 愼의 子, 통덕랑 〈삼평동 보평〉

申 愼(1576~1644) 平山人, 자는 子和, 敬一의 1남, 同部 주부 〈삼평동 보평〉

申 鍾(1638~1708) 平山人, 자는 公舉, 命稷의 2남, 조봉대부 〈삼평동〉

沈宜晉(1782~1844) 靑松人, 자는 景昭, 能烈의 子, 사마시, 사도첨정 (증) 이

조관서, 有遺稿, 碑文은 金炳學이 지음 〈야담동〉

沈承澤 靑松人, 자는 樞敬, 宜禧의 子, 文科 예조판서 〈야담동〉

安光沃 順興人, 瑋의 6남, 副司果 〈단대동〉

安 玖 (? ~ 1441) 順興人, 從約의 1男, 文科, 통훈대부 관군자감사 (증) 가정대부 의정부 좌참찬, 墓誌는 安永時 撰, 銘文은 金齊漢 撰, 尹用九 書 〈율동〉

安名世 (1518 ~ 1548) 順興人, 자는 景應, 瑋의 子, 文科, 예문관 집현 (증) 통훈대부 홍문관 직제학, 銘銘은 金孝元 撰 〈심곡동〉

安瑞國 (1545 ~ ?) 順興人, 珽의 3남, 생원, 평강현감 〈율동〉

安知歸 順興人, 玖의 1男, 진사, 文科, 가선대부 전주부윤 (증) 의정부 좌참성, 墓誌 閔丙承 撰 〈율동〉

安 挺 (1494 ~ 1570) 順興人, 자는 挺然, 호는 竹窓, 處善의 1남, 生원·文科, 성균관 전직, 碑文 韓護·許崱 撰 〈율동〉

安處善, 順興人, 瑋의 系子, 生원 文科, 병조좌랑 〈율동〉

安處直, 順興人, 瑋의 1남, 府使 〈율동〉

安 瑋 (1445 ~ 1515) 順興人, 자는 子瑋, 知歸의 3남, 진사·文科, 공조판서, 神道碑文 李若 撰 〈율동 영장산〉

安 璿 (1425 ~ 1503) 順興人, 자는 可獻, 知歸의 1男, 진사·文科, 공조참판, 行狀 朴聞 撰 〈율동 望月洞〉

梁 淵 (1485 ~ 1542) 南原人, 자는 巨淵, 호는 雪鶴, 瑋의 3남, 文科 승정대부 좌찬성 겸 의금부사, 神道碑文 閔齊仁 撰 〈상대원동 望德山 梁店洞〉

吳達權 (1605 ~ 1658) 海州人, 자는 士仲, 允誠의 6남, 從仕郎 (증) 호조참판 〈대장동〉

吳達政 (1595 ~ 1629) 海州人, 자는 士正, 允誠의 1남, (증) 승정원 좌승지 〈대장동〉

吳命斗 (1716 ~ 1795) 海州人, 達俊의 1남, 통덕랑 〈대장동〉

吳命始 (1673 ~ 1734) 海州人, 자는 伊老, 達錫의 1남, 司馬, 통훈대부 의금부도

사 (대장동)

吳遂雄(1665~1716) 海州人, 자는 莫伯, 道弘의 3남, 통정대부 전주목사 (대장동)

吳遂俊(1680~ ?) 海州人, 자는 秀伯, 道弘의 5남, 절충장군 行 용양위 부사과 (대장동)

吳遂協(1669~ ?) 海州人, 자는 和伯, 道弘의 4남, 선전판 (대장동)

吳允誠(1570~1618) 海州人, 자는 汝忱, 호는 月谷, 希文의 子, 成運의 門人, 司馬, 산음현감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墓誌 韓晚裕 撰, 文集 1권 (대장동 月谷)

龍龜碩(1728~1797) 洪川人, 世沆의 1男, (증) 통정대부 (상적동)

龍德顏(1728~1797) 洪川人, 자는 子厚, 處泓의 1남, (증) 통정대부 (상적동)

龍世沆, 洪川人, 자는 範維 鎬康의 1남, (증) 통정대부 (상적동)

龍永鱗(1532~1594) 洪川人, 世禔의 子, (증) 가선대부 (상적동)

龍友鱗(1585~1612) 洪川人, 雲의 1남, 精社原從功臣, 어모장군 行 용양위 부사과 (광주 東午)

龍誼生(1629~1712) 洪川人, 達英의 1남, (증) 통정대부 (상적동 木谷)

龍倬珠(1748~1812) 洪川人, 龜顏의 1남, 절충장군 行 충좌위 蝦島僉使 (상적동)

龍處泓(1614~1673) 洪川人, 자는 汝潛, 友鱗의 1남, 감역 동훈대부 (광주 東牛)

龍鎬康(1660~1732) 洪川人, 誼生의 1남, 조봉대부 참례원정 (수전동)

龍鎬仁(1685~1756) 洪川人, 誼生의 3남, (증) 동훈대부 (수전동)

元景夏(1698~1761) 原州人, 자는 章伯, 호는 蒼霞, 命龜의 1남, 文科 이조판서 (증) 영의정, 시호는 忠文, 墓誌 元義孫 撰 (사송동)

元繼孫(1733~1772) 原州人, 자는 子承, 호는 換凡齋, 景祚의 孫子, 生父 景夏, 진사, 서흥현감, 墓誌 黃景源 撰, 有遺稿 (사송동)

元錫五(1747~1799) 原州人, 자는 極敍, 在嵒의 1남, 武科, 자헌대부 한성관윤
(사충동 松岷)

元世鳳(1811~1879) 原州人, 자는 淵永, 호는 芝山, 錫圭의 1남, 통덕랑 (사충
동)

元世昌(1773~1830) 原州人, 자는 國獻, 錫五의 1남, 武科, 통정대부 평해군수
(사충동)

元鳳宗, 原州人, 孟康의 1남, 성균생원 (증) 이조참판 (북정동)

元以坤, 原州人, 蓋의 2남, 현릉참봉 (북정동)

元義孫(1726~1793) 原州人, 자는 子方, 호는 慕窩, 景游의 系子, 生父 景夏,
文科, 대사헌정, 墓碑文 黃景源 撰 (사충동)

元在誠(1772~1821) 原州人, 자는 汝實, 義孫의 3남, 武科, 통정대부 보령현감
(사충동)

元在行(1767~1853) 原州人, 자는 建中, 호는 彌菴, 義孫의 1남, 통덕랑, 有遺
稿 (사충동)

元貞常(1817~1890) 原州人, 자는 聖心, 世昌의 1남, 개무시장 (사충동)

元 集(1507~1566) 原州人, 자는 浩然, 鳳宗의 1남, 진사·文科, 연안부사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북정동)

柳景明(1574~1637) 晉州人, 자는 西敬, 錫輔의 2남, 수운관관 정사공신,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음동)

柳季閑(1383~1445) 文化人, 자는 叔行, 寬의 3남, 생원 文科, 형조판서, 시호
는 安齋, 神道碑銘 成九鍾 撰 (북정동)

柳 隣 文化人, 자는 明仲 季閑의 1남, 진사·文科 병조참판 (북정동)

柳錫祚(1667~1690) 晉州人, 자는 士昌, 之發의 1남, (증) 사복시정 (이매동)

柳從善(1519~1578) 晉州人, 자는 擇仲, 호는 謙齋, 柔의 3남, 진사·文科, 통정
대부 호조참의 홍문관직제학, 墓誌 李濟臣 撰 (음동)

柳終孫 文化人, 晦의 系子, 사복시정 (증) 좌찬성 (북정동)

柳之發(1633~1705) 晉州人. 자는 起之. 호는 陶隱·石村. 琳의 3남. 문과, 도승지. 慕園 尹趾完 撰 〈이대동〉

尹 穉(1589~1650) 南原人. 자는 景式. 衡彦의 1남. 상의원 직장 〈금토동〉

尹慶元(1560~ ?) 漆原人. 자는 善館. 卓然의 1남. 동훈대부 한성부 庶尹(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시호는 忠莊. 漆坪君. 旌閭. 행장 尹鍾國 撰. 謚狀 洪良浩 撰 〈하대원동〉

尹敬之(1604~1659) 海平人. 자는 惟一. 晦의 3남. 종헌현감 〈북정동〉

尹璧基(1586~1636) 漆原人. 자는 啓初. 慶元의 1남. 동훈대부 한성부 판관(증) 동정대부 별초참의 〈하대원동〉

尹克新(1527~1587) 南原人. 자는 伯修. 淮의 子. 진사·文科. 홍문관 응교(증) 승정대부 의정부 좌참성 〈금토동 금현〉

尹古元(1562~1534) 漆原人. 자는 敬勝. 卓然의 2남. 文科. 조봉대부 예문관감열 겸 춘추관 記事官 〈하대원동〉

尹 職(1551~1612) 南原人. 자는 汝升. 호는 竹窓. 克新의 2남. 진사·文科. 자헌대부 공조판서. 시호는 孝貞. 行狀 李漢. 神道碑銘 睦萬中. 謚狀 蔡濟恭. 表石陰記 權楚憲 書 〈금토동〉

尹 伊(1502~1576) 漆原人. 자는 莘叟. 文亨의 2남. 동훈대부 行司醢署令(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龜原府院君. 墓誌 尹昌諱 撰 〈하대원동〉

尹以壽(1642~1702) 南原人. 자는 仁老. 林의 1남. 현감 〈금토동 月午川〉

尹而烈(1765~1821) 海平人. 자는 渭老. 翼東의 1남. 武科. 東道參軍 〈북정동〉

尹載五(1750~1809) 漆原人. 자는 剛中. 衡國의 1남. 동훈대부 行 河陽현감 〈하대원동〉

尹在鎔(1876~1971) 南原人. 謚名 在元. 자는 致長. 漢燮의 子. 창일애국지사 〈금토동〉

尹鼎弼(1619~1656) 漆原人. 자는 南卿. 璧基의 子. 동덕랑 〈하대원동〉

尹卓然(1538~1594) 漆原人. 자는 尙中. 호는 重湖. 伊의 1남. 退溪의 門人. 文

科, 정헌대부 호조판서, 漆溪君, 行狀 李塾, 신도碑銘 南龍翼 撰, 文集二卷 〈하대원동〉

尹湯弼(1614~1652) 漆原人, 자는 湯卿, 應基의 1남, 어모장군 용양위 부사과 〈하대원동〉

尹衡東(1749~1816) 海平人, 자는 聖平, 得泰의 4남, 武科, 통정대부 무산부사 〈북정동〉

尹衡彦(1571~1631) 南原人, 자는 應聖, 호는 檜園, 暉의 1남, 진사·文科, 평양 서운 (증)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금도동〉

尹衡哲(1577~1631) 南原人, 자는 應明, 暉의 2남, 진사, 호조좌랑 (증) 사헌부 김의

尹喜元, 漆原人, 자는 公度, 卓然의 3남, 忠武衛 副司勇, 墓銘 趙綱 撰 〈하대원동〉

李 衍(1558~1616) 全州人, 清臣의 2남, 현감 (증) 승정원 좌승지 〈여수동〉

李 侃(1523~1584) 延安人, 和仲, 公升의 1남, 고성군수 (증) 이조참판 〈관교동〉

李 畿(1516~1583) 蔚溪人, 軾의 1남, 생원·文科, 가의대부 사헌부 대사헌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대장동〉

李 岡(1333~1368) 固城人, 자는 思卑, 호는 平齋, 堧의 4남, 文科, 전현판 대제학 (증) 태평보국승독대부 의정부 좌의정, 시호 文敬, 서예로 유명, 〈도촌동 중말〉

李 健(1471~ ?) 全州人, 자는 允錫, 惇의 4남, 명신대부 松山都正 〈서현동〉

李 潔, 固城人, 軾의 1남, 軍資主簿 〈도촌동〉

李慶覃, 慶州人, 淵의 3남, 통사랑 〈아담동〉

李慶流(1564~1594) 韓山人, 자는 長澤, 호는 仲琴, 增의 4남, 사마·문과, 명조 좌랑 (증) 직제학, 왜관시 殉節, 施闕, 碑文 李緯 撰, 行狀 李澤 撰 〈수내동〉

李敬敏(1730~1750) 廣州人, 行百의 1남, 예조정랑(정자동)

李景閔(1578~1652) 德水人, 자는 汝閑, 호는 陽村, 通의 孫子, 生父는 通. 통정대부 벽천군수 겸 해주진관 병마절도사(증) 대장보국승록대부 좌의정(고등동)

李景輿(1595~1671) 全州人, 자는 周輔, 호는 白軒, 崔倪의 3남, 진사·文科, 영의정, 시호는 文忠, 旌閔, 행장 崔錫龜·표표 李匡會·신도비문 朴世堂 撰. 저서로 白軒集이 있다. (석운동)

李景顔(1572~1614) 德水人, 자는 汝愚, 호는 松石, 通의 1남, 진사·文科, 통훈대부 사간원정언 겸 춘추관기사관(증)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고등동)

李景衍, 羽溪人, 자는 觀雨, 仁淑의 2남, 昭威將軍 行 중과위 부사정(증) 통정대부 형조참의(대장동)

李景容(1580~1635) 德水人, 자는 汝復, 호는 杜谷, 通의 3남, 진사·文科,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상적동)

李敬仁(1575~1642) 全州人, 자는 克甫, 호는 亭村, 權의 1남, 鄭遂의 門人, 통정대부 이천도호부사 겸 광주진관 동첨절제사(정자동)

李慶標, 慶州人, 繼의 5남, 김지중추부사(야담동)

李慶閔(? ~1923), 全州人, 冕春의 1남, 의금부 도사(정자동)

李景憲(1585~1651) 德水人, 자는 汝思, 호는 芝田, 通의 4남, 진사·文科, 가의대부 병조참관 겸 동지의금부사, (증) 자헌대부 이조참서(상적동)

李 坤(1462~1524) 延安人, 자는 子靜, 호는 龜窓, 仁文의 4남, 생원·문과, 가선대부 오위장(증) 자헌대부 예조판서, 延城君(관교동)

李公升(1501~1533) 延安人, 자는 秀夫, 坤의 2남, 司諫(증) 승정원 좌승지, 碑銘 鄭惟吉 撰(관교동)

李 瀾(1711~1791) 德水人, 자는 翽之, 호는 曉隱, 德祖의 1남, 肅·가선대부 豐安君(고등동)

李觀濟(1670~1739) 全州人, 자는 大紳, 善徵의 1남,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궁내동〉

李匡國, 廣州人, 孟昌의 1남, 여산현감 (증) 濟州監正 (대원리)

李匡德(1690~1748) 全州人, 자는 聖輔, 호는 冠陽, 景興의 孫, 文科, 평안도 관찰사, 저서로 冠陽集이 있다 (석운동)

李匡元(1688~1740) 全州人, 眞養의 2남, 금부도사 (대장리)

李 鵬(? ~1516) 固城人, 자는 凌雲, 陞의 4남, 舊順副尉 (증) 병조참판 (도촌동)

李敬復(1828~1886) 全義人, 熙廷의 孫子, 生父 普植, 武科, 현령 (증) 의정부 좌참찬 (구미동)

李敬性(1840~1867) 全義人, 자는 道一, 熙命의 2남, 武科, 兵使, (구미동)

李敬英(1826~1892) 全義人, 자는 樂容, 熙命의 1남, 무과, 통정대부 현감 (구미동)

李 玖(1659~ ?) 延安人, 자는 大王, 汝舟의 5남 (증) 호조참판, 〈관교동〉

李 璽(1611~1668) 全州人, 자는 子重, 호는 南谷, 綱胤의 2남, 사마·文科, 사간원 司諫, (증)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행장 李麗洪·碑文 宋時烈·遺稿序文 俞拓基 撰 (궁내동)

李 鵬, 固城人, 陞의 2남, 통훈대부 거창현감 (도촌동)

李國老(1554~1644) 延安人, 僎의 1남, 선공감역 (증) 통정대부 장례원 관검사 (관교동)

李權生, 慶州人, 進의 3남, 영변관관 (북정동)

李貴宗, 延安人, 자는 宗之, 塢의 1남, 문과, 연안부사 (관교동)

李根健(? ~1456) 延安人, 자는 野叟, 續의 2남, 성균생원 (증) 이조참의, 延安君 (관교동)

李克主, 廣州人, 자는 公瑞, 長孫의 1남, 문과, 통정대부 병조참의, 清白志節, 碑文 李秉鶴 撰 (상대원동)

李克均(1437~ ?) 廣州人, 자는 邦衡, 호는 玉峰, 仁孫의 5남, 文科, 좌참성,

廣南君 〈야담동〉

李克基(? ~ 1491) 廣州人, 자는 伯溫, 호는 圓峰, 禮祐의 1남, 생원·文科, 공조판서, 諱文 安浩相, 묘정비 尹丁鑑 撰 〈하대원동〉

李克增(1435~1503) 廣州人, 자는 士高, 호는 四峰, 仁祐의 4남,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하대원동〉

李克增(1431~1494) 廣州人, 자는 景撰, 호는 三峰, 仁祐의 3남, 문과 승정대부 판중추부사, 시호는 恭長, 廣州君, 신도비문 金都鍊 撰 〈야담동 상판〉

李根健(? ~ 1456) 延安人, 자는 野見, 續의 2남, 성균생원 (증) 이조참의 〈관교동〉

李 岐(1524~1581) 全州人, 자는 伯高, 중종대왕의 5남, 시호는 靖德, 德陽君 〈궁내동〉

李箕相(1628~1683) 全州人, 자는 說卿, 至의 子, 文科, 병조좌랑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오위도총부 부총판, 諱文 李緯 撰 〈궁내동〉

李箕叙(1636~1688) 全州人, 자는 君鍊, 原의 2남, 사마, 통정대부 청도군수 겸 대구진관 병마첨절제사 〈낙성 槽山〉

李箕壽(1656~1729) 全州人, 자는 仁叟, 莪의 1남,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백현동〉

李其元, 廣州人 聖祐의 1남, 통덕랑 〈정자동〉

李箕佐(1656~1732) 全州人, 자는 君弼, 最의 2남, 중추부사, 통훈대부 行 좌원원감 병마첨절제사 〈궁내동〉

李吉男(1561~1644) 羽溪人, 자는 錦甫, 成憲의 2남,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대장동〉

李魯植(1759~1787) 全義人, 자는 景參, 開恒의 2남, 武科, 통정대부 府使 〈구미동〉

李 臺(1394~1443) 固城人, 자는 子益, 호는 鈍齋, 原의 1남,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도촌동〉

- 李大老, 延安人, 자는 郡南, 倪의 1남, 문용교위 (관교동)
- 李大升(1467~1557) 延安人, 坤의 1남, 제녕교수 (증) 봉래원 좌동래 (관교동)
- 李德良, 全州人, 충자위 부사과 (성남동)
- 李德老(1564~ ?) 延安人, 자는 得南 懷의 2남, 금화현감 (관교동)
- 李德老(1692~1749) 全義人, 자는 仁皇, 莊龍의 1남, 진사, 형조좌랑 (대장동)
- 李德英(1721~1781) 全州人, 황해도 관찰사 (장곡동 세죽골)
- 李德重(1702~1748) 韓山人, 자는 子鼎, 康謙의 1남, 사마·文科, 홍문관 부제학 (수내동)
- 李德恒(1682~1744) 德水人, 자는 久而, 培의 1남, 함열현감, (증) 호조참판, 德恩君 (고동동)
- 李 惇(1440~ ?) 全州人, 의성군 宗의 2남, 峇城正, 참전대부 (서현동 추현)
- 李東鉉(1726~1801) 全州人, 자는 汝問, 觀濟의 2남, 자헌대부 동지중추부사 (궁내동)
- 李東模(1756~1835) 全州人, 자는 聖贊, 舜濟의 3남, (증) 가의대부 호조참판 (동원동)
- 李東善(1759~1804) 全州人, 자는 而元, 舜濟의 4남, 文科, 가선대부 전라병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서현동)
- 李東植(1738~1803) 全州人, 자는 善培, 舜濟의 1남, 무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동원동)
- 李得會, 廣州人, 其元의 1남, 전략장군 (정자리)
- 李 棟(1603~1650) 德水人, 자는 秋寅, 호는 葵湖, 景閑의 3남, 진사·文科,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지제교 (증) 간선대부 이조참판 (고동동)
- 李良潤(1585~ ?) 全州人, 자는 子賢, 정의대부, 雲山君 (단대리)
- 李 璣(1500~1561) 固城人, 자는 精仲, 混의 1남, 참봉 (증) 승정원 승지 (을동)

144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李 陸(1438~1498) 固城人, 자는 放翁, 호는 靑坡居士, 龍의 1남, 사마, 병조참판, 시호는 文光, 저서로 靑坡集, 靑坡劇談 〈도촌동〉

李 陸(1609~1640) 德水人, 자는 秀有, 景顔의 3남 〈증〉 호조참판 德昌君 〈고동동〉

李 琳(1427~1445) 全州人, 자는 珍之, 호는 謹行堂, 세종대왕 7子, 詩·大學衍義에 숙달, 平原大君

李 麟, 固城人, 자는 希平, 諱의 1남, 价川守 〈도촌동〉

李麟祥(1511~1560) 德水人, 자는 顔甫, 萬의 1남, 어모장군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德安君 〈고동동〉

李曉器(1672~1724) 延安人, 자는 大仲, 汝相의 2남, 의금부 도사 〈판교동〉

李孟衍, 廣州人, 秀壽의 4남, 이원부사 〈증〉 이조참판 〈대왕리〉

李孟昌, 廣州人, 秀壽의 2남, 서산군수 〈대왕리〉

李勉行(1614~1686) 廣州人, 崗安의 1남, 현릉참봉 〈증〉 호조참판 〈대왕리〉

李 實(1647~ ?) 全州人, 자는 聖瑞, 元衡의 3남, 군수 〈분당동〉

李 溟, 全州人, 元彬의 1남, 통덕랑 〈여수동〉

李命夏(1878~1921) 全州人, 유인석의 문인, 독립운동가, 순국, 전국총장단장, 〈궁내동〉

李 穆(1589~1642) 德水人, 자는 仲深, 호는 北溪, 宗建의 系子, 生父 景顔, 생원·진사·文科, 광명현령 〈고동동 동자곡〉

李 榮(1572~1646) 全州人, 자는 文伯, 호는 松郊, 靈誠의 子, 成德·金長生의 門人, 병조참판 〈증〉 영의정 시호는 忠正, 碑文 李敦榮·신도비문 南九萬 撰, 尹德駿 撰, 저서로 松郊文集이 있다. 〈정자동〉

李夢錫(1477~1532) 全州人, 자는 翁卿, 槿의 1남, 선공감역, 〈여수동〉

李文明, 慶州人, 祥의 4남, 통덕랑 〈북정동〉

李文濟(1707~1743) 全州人, 자는 率叔, 舊老의 1남, 승정원부정자 〈백현동〉

李文佐(1461~1491) 慶州人, 자는 縣直, 호는 細村, 祥의 1남, 文科, 안렴현감,

遺事 金應祖·行狀 李明爾·墓誌 鄭宗鑑·墓誌 李義嘉 撰 〈복정동〉

李 瀾(1575~1633) 全州人, 思齊의 1남, 沙溪의 門人, 鴻文館 祿學士(증) 李承輔 撰 〈서현동〉

李彭壽(1520~ ?) 全州人, 蔚山군 協의 5남, 孝宗공신 (증) 肅憲대부 오위도총부 도총관, 泰安君 〈정자동〉

李邦郁(1699~1761) 全義人, 義輔의 1남, 武科, 主簿 〈구미동 석촌〉

李邦仁(1720~1770) 全義人, 자는 君宅, 義集의 4남, 武科, 軍守 〈구미동〉

李 埴(1649~1710) 德水人, 喜寅의 1남, 進士, 祿院判官 (증) 祿贈 諫官 (고동동)

李 佰(1455~1528) 固城人, 자는 井夫, 호는 槐山, 諱의 4남 사마·文科, 贈主簿, 신도비문 成世昌 撰 〈도촌동〉

李秉健(1696~1769) 韓山人, 자는 汝剛, 諱의 1남, 사마, 孝宗정랑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수내동〉

李秉謙(1685~1707) 韓山人, 諱의 1남, (증) 이조참판 〈수내동〉

李秉龍, 昌寧人, 石柱의 子, 가선대부 領 容陽위 부호군 〈서현동〉

李秉泰(1688~1733) 韓山人, 자는 幼安, 호는 東山, 諱의 1남, 사마·文科, 京畿 觀察使 (증) 이조판서 提學, 清白吏, 시호는 文靖 〈수내동〉

李 埴(1694~1723) 德水人, 喜績의 1남, 통정대부 〈고동동〉

李復興, 廣州人, 世弘의 2남, 부사과 〈아담동 上〉

李 鑴(1574~1597) 全州人, 자는 文伯, 鑴亨의 1남 (증) 통훈대부 領 병조판官 殉節 〈도촌동〉

李富丁, 全州人, 新宗君의 2남, 昭德大夫, 蔚谷守 〈석운동〉

李 積(1623~1697) 德水人, 자는 鑾叔, 景閑의 6남, 武科, 諫議大夫 容陽위 부호군 〈고동동 宮基〉

李思省(1558~1637) 全州人, 자는 李反, 鑴의 2男, 肅憲대부 사헌부 給의 (서현동)

146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李恩實(1547~1596) 全州人, (증) 호조참판 홍문관 부제학 (서원동)

李山重(1717~1775) 韓山人, 자는 子靜, 秉健의 1남, 군자감정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수내동)

李 祥 慶州人, 호는 潤陰, 權生의 2남, 수의부의 사정 (북정동)

李岡安(1575~1627) 廣州人, 자는 靜而, 匡國의 孫子, 生父 匡緯, 무과, 강계부사 (증) 우원성, 시호는 忠愍, 호란시 안주성서 死節, 葬衣冠, 旌閭, 신도비문 李景奭 撰 (대원리)

李相頊(1648~1721) 廣州人, 자는 重卿, 祉運의 3남, 武科, 가선대부 권라병사 (대왕리)

李 瑞, 延安人, 자는 子休, 汝弼의 1남, 동지중추부사 (관교동)

李石崑, 全州人, 翹의 1남, 中軍司直 (여수동)

李錫命(1611~1673) 全州人, 敬仁의 1남, 선무당 (정자동)

李石柱(1680~1734) 昌寧人, 가선대부 (서원동)

李 璿(1645~1692) 延安人, 자는 仲玉, 汝舟의 2남, 통덕랑 (관교동)

李 鍾(1597~1665) 韓山人, 자는 士實, 호는 樊溪 慶福의 1남, 사마·文科, 군자감정 (면천리)

李宣鼎, 全州人,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성남동)

李 晟(1565~1626) 延安人, 자는 明甫, 純의 1남, 오위도총부 부총관 (관교동 梧里洞)

李聖萬, 慶州人, 자는 春瑞, 銀의 1남, 돈녕부 도정 (야탑동)

李成枝, 廣州人, 時英의 1남, 생원, 箕子殿 참봉 (대원리)

李成憲(1534~1601) 羽溪人, 자는 仲章, 戴의 1남, 文科 典籍,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대장동)

李世璵, 全義人, 禮長의 1남, 동경대부, 원주목사 (대장동)

李世貞(1461~ ?) 廣州人, 자는 仲權, 克敬의 3남, 文科, 5曹 참의, 碑文 尹修 撰, 安仁 進 (하대원동)

李世弘(1471~1520) 廣州人, 자는 可谷, 克增의 1남. 문과, 선공감정, 〈상탈동〉
李 縝, 延安人. 貴山의 1남, 중훈대부 춘원도호부사 (증) 통훈대부 사복시정
(관교동)

李 幹(1569~1645) 全州人, 자는 明遠, 宗麟의 2남, 오위도총부 부총관, 시호는 忠惠, 龜川君, 墓誌 金集·墓誌 尹宜學·선도비명 李緯·遺稿 序文 宋時烈·謚狀 李景奭 撰 〈궁내동〉

李遂大(1674~1708) 全州人, 자는 就而, 호는 松徑, 鼎興의 1남, 사마·文科, 봉원대부 병조정랑, 錫銘 李起輔 〈정자동〉

李守震(1482~1554) 廣州人, 자는 春卿, 世傑의 1남, 삼가현령, 碑銘 趙溪 李漢撰 〈하대원동〉

李隨亨(1552~1588) 全州人, 자는 時叔, 拭의 2남, 통훈대부 군자감정 (도촌동)

李秀萱(1496~ ?) 廣州人, 자는 子芳, 世綸의 1남, 武科, 자헌대부 한성관윤 (증) 대장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돌마면〉

李 偲(1518~1576) 延安人, 자는 起中, 大升의 2남, 평창군수 (증) 승정원 좌승지 〈관교동〉

李 淑(1610~1663) 全州人, 元老의 子, 통덕랑 〈여수동〉

李 塾(1621~1680) 全州人, 자는 學而, 燭信의 1남, 어모장군 총과위 부사과, 墓誌 宋時烈·行狀 李箕弘 撰 〈궁내동〉

李 洵(1596~1661) 德水人, 자는 淸源, 得胤의 1남, 武科, 경흥부사 〈고동동〉

李純臣(1546~1584) 延安人, 자는 彦一, 假의 2남 (증) 이조참판 〈관교동〉

李舜濟(1721~1784) 全州人, 자는 汝章, 善瑞의 4남,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碑文 宋煥箕·행장 李東直 撰 〈동원동〉

李承齊(1594~1652) 延安人, 國老의 5남, 용양위 부호군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관교동〉

李承說(1569~1592) 延安人, 자는 夢卿, 大老의 1남, 임관호증공신 (증) 좌승

지, 陶節 (관교동)

李承元(1579~1612) 延安人, 자는 善卿, 弘老의 1남, (증) 사복시정 (관교동)

李承尹(1571~1592) 延安人, 자는 允卿, 大老의 2남 임란호종 (증) 승지, 陶節, (관교동 杜堂觀)

李壽老(1683~1743) 全州人, 자는 國老, 箕壽의 1남, 통덕랑 (궁내동)

李壽命(1662~1750) 全州人, 자는 秀衍, 호는 坐路, 箕祖의 4남, 가의대부 동지 중추부사, 碑文 尹鳳九 撰 (성남시)

李時瑞(1433~1492) 全義人, 자는 信信, 禮長의 2남, 통정대부 장례원 관결사 (증) 병조참판 (대장동)

李時瑞(1684~1754) 全州人, 자는 吉甫, 箕瑞의 2남,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벽현동 新村)

李時英, 廣州人, 壽興의 3남, 무과, 가선대부 兵使 (세촌명)

李壽微(1650~1728) 全州人, 자는 明老, 호는 蓮谷, 箕相의 1남, 장성부사 (증) 통정대부 좌승지 (궁내동)

李時蕊, 全州人, 통훈대부 호조좌랑 (성남동)

李壽亨(1685~1765) 全州人, 자는 士吉, 箕輔의 1남,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与 等山)

李始興(1634~1711) 全州人, 錫命의 1남, 사마, 인제현감 (정자동)

李 輔, 全州人, 石寬의 1남, 호군 (여수동)

李 斌(1522~1587) 全州人, 자는 淸之, 호는 損菴, 承宣의 4남, 진사·文科, 가의대부 이조참판 (도촌동)

李信誠(1552~1596) 全州人, 자는 欽仲, 彦歸의 子, 栗谷·虎溪의 門人 사옹원 봉사 (증) 이조판서, 신도비 金尙憲 撰·吳埴 書·金光錄 撰 (정자동)

李臣龍(1674~1718) 全義人, 萬相의 1남, 생원, 통훈대부 농주목사, 墓誌 李德壽 撰 (대장리)

李繼亨(1723~1798) 全州人, 자는 錫勢, 匡元의 孫子, 生父 匡閔, 통덕랑 (대장

동)

李 權(1600~1672) 全州人, 자는 應立, 政亨의 1남, 생원, 통훈대부 장수원감 (증) 통정대부 이조참의 (도촌동)

李德祺, 全州人, 자는 景受, 連禧의 3남, 武科, 功顯 (증) 승정대부 의정부 우관 성, 殉國, 旌閭, 시호는 毅愍, 碑文 韓晩裕, 선도비문 洪直弼·시강 金喜 撰 (석운 동)

李 儼, 延安人, 公升의 2남, 단성원감 (증) 예조참의 (관교동)

李彦節(1519~1561) 全州人, 자는 雲房, 浩의 子, 흥원원감 (증) 이조참의 (정 자동)

李彦哲(1608~1696) 全州人, 자는 仲明, 演의 2남, 통정대부 곡성원감, 〈분당동 主人詞〉

李 冀, 固城人, 陸의 3남, 진사, (증) 승지 (도촌동)

李 儼(1549~1613) 全州人, 자는 季元, 廣川君 壽麟의 5남, 승헌대부 平陵君 (단대리)

李汝儉(1556~1626) 廣州人, 자는 景任, 증산원령 (증) 사복시정 (대왕리)

李汝梯(1625~1670) 延安人, 承晚의 2남, 통덕랑 (관교동)

李汝舟(1625~1655) 延安人, 자는 濟而, 承元의 弟, 生父 承業, 생원·文科, 안막군수 (증) 승정원 좌승지 (관교동)

李汝恒(1593~1657) 延安人, 자는 子常, 承尹의 1남, 임원군수, (관교동)

李 衡(1553~1613) 全州人, 清臣의 1남, 奉事 (여수동)

李 鏡, 慶州人, 자는 正化, 渭基의 1남, 도사 (야담동)

李 瑩(1601~1678) 固城人, 자는 彦潤, 호는 南阜, 石廉의 2남, 文科, 翰林兵 議, (증) 이조판서

李 藝, 全州人, 夢錫의 1남, 통훈대부 무주부사 (여수동)

李禮孫(? ~1459) 廣州人, 자는 季胤, 之直의 3남, 생원·文科, 황해관찰사 (증) 예조참판, 碑文 李採顯 撰 (하대원동)

李禮長(1403~1468) 全義人, 자는 子文, 士寬의 3남, 文科, 통정대부 병조참의 (증) 정헌대부 예조판서, 시호는 平簡, 全城君, 碑文 下榮寅 撰 (대장동)

李 漉(1659~1699) 韓山人, 자는 贈伯, 廷龍의 1남, 부평부사 (수내동)

李 塏, 延安人, 仁文의 1남 권위현령 (관교동)

李 璠(1441~1506) 全州人, 義(정)의 3남, 武科, 자의대부 제원군수, 堤川君 (정자동)

李完鎬(1868~1922) 全義人, 教獻의 采子, 生父 教英, 武科, 홍양군수 (구미동·石村)

李 堉(1697~1767) 德水人, 자는 聖賓, 喜面의 2남, 생원·菊試, 병조참판 (고동동)

李 堉, 固城人, 호는 四槐亭, 堉의 2남, 校尉 (도촌동)

李 垣(1522~1550) 韓山人, 之菽의 1남, 종전부 전부 (수내동)

李 原(1368~1429) 固城人, 자는 次山, 호는 容軒, 罔의 1남, 정몽주·권근의 문인, 진사·文科, 좌의정, 시호는 襄惠, 칠성부원군, 신도비문 徐居正 撰, 저서로 容軒集·鐵城聯芳集 (도촌동)

李元龜(1587~1647) 全州人, 衍의 1남, 참봉 (증) 공조참의 (여수동)

李元老(1585~1637) 全州人, 衍의 1남, 勳階校尉 (여수동)

李元彬, 全州人, 得의 1남, 무사직 (여수동)

李元植(1755~1822) 全義人, 자는 伯仁, 潤慶의 1남, 武科, 평안병사·摘將 (구미동)

李元哲(1615~1670) 全州人, 자는 叔明, 자의 1남, 금성현령 (증) 통령대부 종원부 전섬 (분당동)

李渭基, 慶州人, 자는 繼岡, 炫의 1남 (증) 참의 (야탑동)

李 澣(1645~1721) 全州人, 자는 子雨, 호는 鹿川, 重輝의 子, 문과, 영의정, 시호는 惠定, (돌마면)

李 璠(1642~1715) 延安人, 자는 伯玉, 汝舟의 1남, 통덕랑 (관교동)

李 沈, 全州人, 武科, 부호군 (여수동 玄岩)

李潤德(1529~1611) 廣州人, 자는 得夫, 秀宣의 1남, 武科,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 (증) 형의정 (대원리)

李潤明(1736~1799) 全義人, 곡성현령 (증) 좌승지 (구미동 古阜山)

李 律(1569~ ?) 全州人, 純臣의 2남, 부사과 (여수동)

李 銀, 慶州人, 자는 如信, 泰基의 1남, 武科, 첨정, (야담동)

李 閔(1455~1522) 廣州人, 자는 子和, 호는 陰桂 克基의 1남, 사마, 고원군수, 己卯名賢, 碑文 鄭士龍 撰, 南村서원 표장비문 羅紳桂 撰 (하대원동)

李應慶(1513~1569) 廣州人, 자는 允吉, 復興의 2남, 진사, 봉산군수 (야담동 남담)

李 鑾(1413~1491) 固城人, 臺의 3남, 병조참판 (도촌동)

李 璫 (1601~1614) 全州人, 선조대왕의 1子, 광해군 때에 반역으로 몰려 죽음, 永昌大君 (대평동)

李義堅, 韓山人, 亨增의 2남, 참판 (여수동)

李宜蕃, 德水人, 자는 茂叔, 拙의 3남, 진사, 돈영부 참봉 (증) 자헌대부 호조판서, 豐城君 (고동동)

李 綱(? ~1519) 固城人, 자는 望之, 陸의 1남, 한성판관 (도촌동)

李仁文(1425~1503) 延安人, 根健의 1남, 사마·文科, 통정대부 병조참의 (증) 가선대부 예조참판, 延安君 (관교동)

李仁胤(1570~1622) 全州人, 자는 子天, 儼의 1남, 정의대부, 宜山君 (단대리)

李一鎮(1718~1803) 全州人, 民獻의 子,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정자동)

李 資(1579~1667) 全州人, 자는 湖源, 호는 郊村, 思齊의 2남, 김장생의 문인, 승정원 좌승지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清白吏, 有碑·善政碑 (분당동 주인동)

李 錫, 固城人, 世芳의 1남, (증) 이조참판 (도촌동)

李 璫(1652~1722) 德水人, 자는 士完, 洵의 1남, 文科, 통정대부 경흥부사

〈고등동〉

李 堃(1628~1694) 全州人, 자는 載祐, 호는 渠園, 嶺巖의 1남, 통덕랑 〈궁내동〉

李長孫(1411~ ?) 廣州人, 자는 孟泉, 호는 之直의 1남, 文科, 지세교 겸 춘추관 편수관, 碑文 金亨爾 撰 〈상대원동〉

李長淵(1455~1528) 韓山人, 자는 粹然, 綸의 1남, 봉화현감 (증) 정헌대부 이조판서, 韓原君, 三世遺事碑 李秉淵 撰 〈수내동〉

李 載(1624~1698) 全州人, 자는 子固, 호는 鰲菴, 嶺巖의 4남, 봉정대부형 용안현감 〈궁내동〉

李 塏, 延安人, 자는 子厚, 仁文의 2남, 文科, 경주부윤 〈관교동〉

李 程(1618~1671) 德水人, 자는 雲長, 호는 南谷, 景憲의 1남, 진사·문과, 송정원 좌승지 지세교 〈고등동〉

李 程(1489~1531) 韓山人, 자는 子明, 長淵의 4남, 어모장군 형 종파위 부호군 〈수내동〉

李廷鑾(1612~1671) 韓山人, 자는 一鵬, 호는 福川, 櫟의 1남, 사마·文科, 한성부 좌윤, 신도비문 宋時烈 撰 〈중부면 빈원리〉

李廷龍(1629~1689) 韓山人, 자는 夢卿, 櫟의 2남, 김제군수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신도비문 李宜顯 撰 〈수내동〉

李正彬, 德水人, 자는 正汝, 泓의 1남, 의금부 도사 〈고등동〉

李廷植(1600~1669) 全州人, 자는 子建, 호는 秋溪, 櫟의 1남, 선교랑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서현동〉

李繼臣, 延安人, 假의 1남, 부호군 〈관교동〉

李鼎興(1645~1729) 全州人, 자는 士重, 錫龜의 孫子, 生父 錫龜, 종파위 사윤 (정자리)

李 濟(1609~1671) 全州人, 元龜의 1남, 승리랑 〈어수동〉

李 積(1589~1631) 韓山人, 자는 而實, 慶流의 1남, 사마·文科, 대구부사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변천리)

李尊庇(1233~1287) 固城人, 자는 彬然, 璫의 子, 文科, 정의대부 좌상시, 시호는 文僖 <도촌동>

李宗麟(1538~1611) 全州人, 자는 景仁, 岐의 1남, 현록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豐山君, 碑文 申翊聖 撰 <하산운동>

李從錫(1479~1538) 全州人, 植의 2남, 진사, 흥원현감 <여수동>

李浚明(1634~1711) 廣州人, 자는 子晦, 勉行의 1남, 武科, 동중추 <대왕리>

李俊永(1729~1791) 韓山人, 獻重의 1남, 해주관관 <서원동>

李 增(1525~ ?) 韓山人, 자는 可謙, 호는 北庄, 之菴의 2남, 사마·文科, 예조관서(증) 대광보국승목대부 영의정, 시호 懿簡, 鵷川君, 신도비명 鄭斗卿, 시장 李景奭 撰, 有詩稿一冊 <수내동>

李 樞(1420~1486) 固城人, 자는 升卿, 호는 思庵, 原의 7남, 문과, 예문관의제학(증) 가선대부 예조참판 <도촌동>

李之菴(?~1561) 韓山人, 자는 大有, 秩의 3남, 중요서령(증) 정헌대부 이조관서, 韓平君, <수내동>

李之直(1354~1419) 廣州人, 자는 伯平, 호는 炭川, 集의 1남, 사마·文科, 형조참의(증) 영의정, 청백리, 碑文 李瑛鎬·李休微 撰 <하대원동>

李之恒(1605~1654) 全州人, 자는 月如, 목의 1남, 趙繼緯의 문인, 사마·文科, 홍문관 부제학 <정자동>

李枝憲(1502~1569) 全州人, 자는 芳仲, 鎰의 1남, 봉훈대부 평택현감 <서원동>

李 謙, 慶州人, 元善의 1남, 長城監務 <북정동>

李眞養(1667~1685) 全州人, 자는 顯甫, 羽成의 1남, 현령 <석운동>

李 秩(1474~1560) 韓山人, 자는 子序, 長閑의 1남, 사마, 가선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韓城君 <수내동>

李 集(1327~1387) 廣州人, 자는 浩然, 호는 蓮村, 唐의 2남, 文科, 봉순대부

154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판전교시사 (증) 과관성 錫文 李休徵·신도비문 李家源 撰, 거서로 詩遺稿 2권 (하대원동)

李 濩(1670~1727) 韓山人, 자는 李通, 호는 韓州, 廷龍의 4남, 사마·文科. 통정대부 황해관찰사 겸 해주목사, 有遺稿 (수내동)

李 徵(1656~1718) 星州人, 자는 玄成, 保胤의 2남, 의금부 도사, <이매동>

李 徵, 羽溪人, 자는 獻夫, 景衍의 1남, 선무랑, 穆濟殿直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대장동)

李昌興, 全州人, 錫亨의 1남, 1642년 진사, 군수 (정자리)

李 鑰(1554~1599) 全州人, 자는 思道, 宗麟의 1남, 龜城副正, 龜城君, 碑文 李瑄·음기는 李哉 撰 (궁내동)

李哲英(1613~1662) 全州人, 자는 士明, 호는 槐園, 景興의 1남, 생원, 平市令 (증) 이조참판, 安陝에 송덕비, 墓碑文 徐宗泰 撰 (석운동)

李清臣(1529~1651) 全州人, 藝의 3남, 호군 (여수동)

李 軸(1519~1596) 全州人, 자는 子任, 호는 松溪, 枚蓐의 3남, 完山府院君 (서현동)

李玄鑄(1719~1756) 德水人, 자는 大初, 址의 1남, 생원, 은진현감, <사송동 북평>

李 鏞(1413~1756) 德水人, 자는 士仁, 補의 2남, 가덕대부 병조판서, 시호는 夷安, 瑞原君, 碑文 李起鍾 撰 (문당동)

李 偉(1416~1548) 延安人, 大升의 1남, 敦勇校尉 (증) 좌승지 (관교동)

李泰基, 慶州人, 址의 1남, 원정 (야탑동)

李 澤(1509~1573) 固城人, 자는 卓之, 호는 雨堂, 蟠의 子, 사마·文科, 예조참판, 碑文 李珥 撰, 李嘉 書 (갈현동)

李 通(1556~1620) 德水人, 자는 天儒, 麟의 孫子, 生父 元謹, 생원, 통훈대부 순천군수 성천병마절도사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德豐君 (고동동)

李 詮(1730~ ?) 德水人, 자는 大保, 溟鏡의 子, 生父 馨鏡. 문자, 통정대부 장흥부사 <고동동>

李慶成(1646~1717) 全州人, 자는 賀卿, 哲英의 2남, 군수 <석운동>

李夏昌, 全州人, 漢의 1남, 전충장군·부호군 <여수동>

李學永, 全州人, 가선대부 동지 돈녕부사 <성남동>

李 誦(1470~1534) 德水人, 자는 子實, 宜善의 3남, 가선대부 (증)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海豐君, 有神道碑 <고동동>

李威亨(1550~1577) 全州人, 자는 平叔, 호는 天山齋, 拭의 1남, 退溪의 문인, 저서로 心經講錄 3권 1책 <도촌동>

李獻重(1711~1742) 韓山人, 秉泰의 子, 生父 秉恒, 양성현감 <수내동>

李 炫, 慶州人, 자는 命信, 慶標의 1남, 군자감경 <야담동>

李顯勳, 慶州人, 자는 承漢, 棕의 2남, 관관 <야담동>

李 波(1664~1698) 韓山人, 자는 叔和, 廷龍의 3남, 司馬, (증) 이조판서 <수내동>

李顯佑(1608~1663) 全州人, 자는 汝慶, 暉의 4남, 장선대부, 誌銘 李箕弘 撰 <궁내동>

李煥胤(1593~1645) 全州人, 자는 汝承, 호는 滄州, 暉의 1남, 중의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증) 승헌대부 도총관 蓬萊君, 碑文 李敬輿 撰·李載 書, 有遺稿 <벽현동>

李亨增, 韓山人, 첨지중추부사 <증> 병조참관 <여수동>

李 浩(1491~1535) 全州人, 자는 浩然, 源祐의 子, 사마, 예빈시별과 (증) 사헌부 김의 <분당동>

李弘老(1560~1623) 延安人, 자는 裕甫, 호는 橋汀, 侃의 3남, 사마·文科, 경기 관찰사 (증) 이조참관 <관교동>

李 獲(1583~1615) 韓山人, 자는 君實, 慶洪의 1남, 현풍현감 <수내동>

李 湏(1483~1533) 固城人, 자는 贊卿, 峽의 1남, 金井察訪 <돌마면 麻溪只>

李 薈(1655~1717) 全州人, 자는 茂樞, 元哲의 5남, 통훈대부 회인현령 (분당동)

李 薈, 全州人, 從錫의 2남, 장례원 司評 (여수동 현암산)

李晦植(1755~1833) 全義人, 자는 聖根, 潤恒의 1남, 무과, 경상우도병사 (구미동)

李孝伯(1416~1487) 全州人, 厚生의 1남, 무과, 승헌대부 병조판관, 시호는 恭簡, 新宗君, 墓誌는 李匡錡 撰, 神弓 (석운동)

李後伯(1632~1693) 全州人, 鍾의 1남, 무과, 韓 肅公府 經歷, 忠肅公 司書 (도촌동)

李厚生(1398~1465) 全州人, 靖宗대왕 10子, 정의대부 (증) 광록대부 領宗正卿, 시호는 精德, 德泉君, 碑文 李匡賢 撰, 신도비문 李匡師 撰 (대장동 중대면 葛城里)

李厚濟(1702~1780) 全州人, 자는 載望, 舊命의 系子, 生父 舊諱,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궁내동)

李興鳳, 慶州人, 鍾의 1남, 동덕랑 (야담동)

李 惇, 全州人, 成宗대왕의 16남, 楊原君 (세촌면)

李喜開(1645~1697) 德水人, 顯의 2남, 통훈대부 양성현감 (고동동)

李熙敬(1808~1874) 全義人, 자는 誠相, 魯植의 2남, 武科, 통정대부 (구미동)

李喜植(1670~1696) 德水人, 자는 子久, 椿의 子, (증) 이조참의 (사송동)

李喜相(1626~1692) 德水人, 자는 鼎卿, 惇의 3남, 진사, 홍산현감, (고동동)

李熙業, 廣州人, 자는 重雨, 顯의 1남, 사헌부 감찰, 삼동현령 (대원리)

李喜燁(1667~1751) 德水人, 자는 士章, 杓의 子, 진사, 동지중추부사 (고동동)

李喜龍(1639~1697) 德水人, 자는 君瑞, 椿의 4남, 文科, 강원도 관찰사 (고동동)

李喜益(1633~1718) 德水人, 자는 礪叔, 樞의 系子, 生父 樞, 무과 강동현령, 가선대부 (고동동)

李喜寅(1626~1678) 德水人, 稹의 1남, 文科 영흥부사 <고등동>

李熙一(1792~1863) 全義人, 자는 貫吾, 厚植의 1남, 대호군 <구미동>

李熙晶(1781~1863) 全義人, 자는 日汝, 奉植의 1남, 가선대부 <구미동>

李熙贊(1806~1886) 全義人, 자는 聖佐, 倫植의 2남,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구미동 古阜山>

李喜澤(1640~1691) 德水人, 자는 潤卿, 稹의 1남, 생원, 연안부사, <고등동>

李喜涵(1673~1717) 德水人, 자는 子有, 호는 歸川, 稹의 子, 진사, 옥천군수
(증) 이조참판 <사송동 북평>

林建漢(1714~1754) 平澤人, 자는 巨卿, 鎭九의 1남,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林啓善(1833~1897) 平澤人, 자는 殷敎, 主廉의 2남, (증) 가선대부 동지중추
부사 겸 오위장 <갈현동>

林圭冕(1791~1852) 平澤人, 자는 榮七, 容宣의 1남,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林圭相(1837~1909) 平澤人, 자는 建錫, 容祖의 3남, 통정대부 중추부사 <갈현
동>

林圭貞(1804~1881) 平澤人, 자는 榮玉, 容朝의 1남,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갈현동 이매곡>

林圭台(1809~1872) 平澤人, 자는 榮三, 容宣의 2남, 통덕랑 <갈현동>

林圭顯(1817~1895) 平澤人, 자는 春煥, 容晩의 子,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갈현동>

林圭勳(1820~1881) 平澤人, 자는 春寅, (증)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林東淵(1859~1913) 平澤人, 자는 學維, 啓善의 1남, 통정대부 昌陵 참봉 <갈
현동>

林澧根, 平澤人, 日漢의 1子, 통정대부, <갈현동>

林勳根(1765~1788) 平澤人, 자는 貴善, 宗漢의 2남, (증) 통정대부 승정원 과

송지 겸 경연참찬관 (갈현동)

林富善(1836~1894) 平澤人, 자는 仁南, 主顯의 1남,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林祥福, 平澤人, 강릉부사, 여주목사 (사송동)

林聖源, 平澤人, 자는 元南, 起善의 1남, 통정대부, (갈현동)

林泳根(1767~1829) 平澤人, 자는 茂善, 宗漢의 3남, 통훈대부 군자감경 (갈현동)

林容晚(1790~1863) 平澤人, 자는 旭西, 鎰根의 1남, (중) 가선대부 예조참판 (갈현동)

林容宣(1768~1826) 平澤人, 자는 逸民, 鎰根의 2남,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 (갈현동)

林容旭(1785~1836) 平澤人, 자는 千澤, 泳根의 1남, 통정대부 승정원 승지 (갈현동)

林義善(1821~1893) 平澤人, 主台의 弟, 生父 主免, 통훈대부 행 예빈사, 관판 (갈현동)

林一南, 平澤人, 興周의 子, 청주목사 (사송동)

林日漢, 平澤人, 자는 成逸, 顯世의 1남, 武科, 형 훈원봉사 (갈현동)

林智善(1822~1897) 平澤人, 자는 季載, 主貞의 1남, 무과 훈원첨정 (갈현동)

林鎮九(1688~1730) 平澤人, 자는 海如, 淳運의 1남, 진사, 통정대부 (갈현동)

林鎮七(? ~1797) 平澤人, 淳運의 3남, 진사, 통정대부 (갈현동)

林澈根(1735~1762) 平澤人, 자는 祥安, 建漢의 1남, 武科, 형 훈원中軍, 통훈대부 옥천현감 (갈현동)

林興周, 平澤人, 삼가현령 (사송동)

張時瑞(1653~1709) 結成人, 孝岡의 1남, 절충장군 겸지중추부사 (중) 가선대부 병조참판, 碑文 張基德 撰, 張錫鎭 書 (여수동)

丁好德(1559~1607) 羅州人, 자는 希迪, 胤緒의 1남, 계공랑 (백현동)

丁好誠(1566~1614) 羅州人, 자는 希一, 鳳禧의 3남, 호조좌랑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碑文 丁元燮 撰 (상적동 義谷)

丁鳳禧(1531~1589) 羅州人, 자는 景錫, 호는 顧菴, 應斗의 2남, 退溪의 문인, 文科, 강원도 관찰사, 碑文은 丁時樸·申道碑文 丁元燮 撰 (백현동)

鄭景淳, 迎日人, 沅의 子, 든녕부 주부, 有碑文 (북정동)

鄭均誠(1792~ ?) 慶州人, 자는 新贊, 宇周의 1남, 통정대부 (도촌동)

鄭大年(1503~1578) 東萊人, 자는 景老, 호는 思庵, 조의 1남, 사마·文科,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정백리, 시호는 忠貞 (신흥동 용정촌)

鄭敦復, 東萊人, 大年の 5남, 통훈대부 안성군수 (신흥동)

鄭得彬, 淸州人, 승정원 좌승지 (삼평동)

鄭樂勳, 淸州人,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오위도총부 부총관 (삼평동)

鄭良說(1618~1693) 東萊人, 沅의 系子, 生父 淹, 풍덕랑, 행 용양위 부호군 (단대리)

鄭良臣(1604~1676) 東萊人, 淹의 1남, 칠층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 (단대리 능곡)

鄭良翼(1574~1629) 東萊人, 자는 元吾, 沅의 1남, 풍덕랑.

鄭 崑(1574~1629) 迎日人, 자는 汝秀, 景諤의 子, 문과 공조참판, 鐵文 任相 元 撰 柳以復 書 (북정동)

鄭 沆(1555~1629) 東萊人, 자는 汝點, 敦復의 2남, 통정대부 운산군수 (신흥동)

鄭 淹, 東萊人, 敦復의 4남, 가선대부 행 병조참의 (단대리 능곡)

鄭宇龍(1764~1821) 慶州人, 자는 柄龍, 駿章의 3남,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도촌동)

鄭 沅, 迎日人, 沅卿의 子, 승정원 좌승지 (북정동)

鄭惟爽(1626~ ?) 慶州人, 자는 演爽, 淑의 1남, 통정대부 (도촌동)

鄭履泰, 淸州人, 欽의 子, 통훈대부 사복시정 (삼평동)

160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鄭 荃(1475~1513) 東萊人, 亨起의 子, 生父 元祐, 사마·文科, 예문관 대교(증)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碑文 洪溫 撰 〈신흥동〉

鄭泰齊(1621~ ?) 東萊人, 자는 東望, 호는 菊堂·三堂, 승정원 승지, 저서로 菊堂非吾, 天君衍義(소설)가 있다. 〈신흥동〉

鄭 沆 東萊人, 무과, 황주목사 〈신흥동〉

鄭 赫 淸州人, 樂勳의 子, 승정대부 행 중추부사, 〈삼평동〉

鄭亨耘 東萊人, 赫의 2남, 부사직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신흥동〉

鄭 淵(1551~1609) 東萊人, 休復의 1남,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신흥동〉

鄭 淵 迎日人, 안주목사, 〈북정동〉

鄭華齊(1618~1674) 東萊人, 자는 西望, 호는 醉全, 良弼의 1남, 사마·文科, 통정대부 승정원 우승지 (단대리 용정촌)

鄭休復(1529~1604) 東萊人, 자는 復初, 大年의 1남, 이산군수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碑文 李晬光 撰 〈신흥동〉

鄭 欽 淸州人, 자는 明叔, 昌老의 子,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삼평동〉

趙 弼(1351~1425) 平壤人, 자는 巨卿, 호는 松山, 德裕의 2남, 문과, 안렴사, 조선조 (증) 공조판서, 시호는 平簡, 平壤君, 平城府院君 〈여수동〉

趙繼興(1534~1590) 平壤人, 弼의 3남, 어모장군 행 중과위 부호군 〈신흥동〉

曹夢禎(1535~1595) 昌寧人, 자는 應吉, 호는 敬軒, 彦博의 1남, 시호는 李安, 碑文 吳億齡 撰, 全玄成 書 〈서현동〉

趙石山 平壤人, 弼의 1남, 의정부 좌찬성 〈여수동〉

曹彦博(1509~1547) 昌寧人, 자는 寬夫, 漢弼의 系子, 生父 繼衡, 문과 호조좌랑 (증) 부제학, 碑文 倬 撰 〈서현동〉

崔公天(1744~1822) 慶州人, 자는 擎天, 德顯의 1남, 선략장군 행용양위 부사 파 〈도촌동〉

崔起南(1559~1619) 全州人, 호는 晚谷, 秀俊의 子, 成運의 문인, 사마, 영흥부사 (증) 영의정, 碑文, 張維 撰, 金義信 書 〈신촌동〉

崔德鎭(1718~1787) 慶州人. 자는 德俊, 命狗의 1남.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도촌동)

崔龍柱, 慶州人. 자는 孟豫, 公天의 4남. 선략장군 行 용양위 부사과 (도촌동)

崔命狗(1699~1768) 慶州人. 자는 汝豹, 楊甲의 1남. 통정대부 첨지 중추부사 (도촌동)

崔鳳柱, 慶州人. 公天의 2남. 절충장군 부호군 (도촌동)

崔三崑(1725~1780) 慶州人. 武科, 諱정 (시흥동)

崔商龍(1668~1738) 慶州人. 자는 祺龍, 濟의 7남. (증) 가선대부 공조참판 (도촌동)

崔楊甲(1684~1755) 慶州人. 자는 廷福, 商龍의 2남.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도촌동)

崔弘良(1808~1862) 慶州人. 어모장군 전라우도 수군 (시흥동)

韓縵福(1423~1482) 淸州人. 자는 子順, 惠의 3남. 의정부 좌찬성 (증) 대광보 국승록대부 영의정. 시호는 文靖, 西平君. 신도비명 徐居正 撰 (율동)

韓貴榮(갑진~정사) 淸州人. 昂의 1남. 武科. 어모장군 (오야동)

韓貴益, 淸州人. 昂의 2남. 용양위 부사과 (오야동)

韓德孚(1705~1775) 淸州人. 자는 聖聞, 宗說의 系子, 生父 宗德, 文科, 都事, 통훈대부 병조좌랑 (서현동)

韓德厚(1735~ ?) 淸州人. 자는 謹之, 호는 湖庵, 宗浩의 子, 사마·文科, 통원부사 (서현동)

韓明昂(1567~1652) 淸州人. 자는 昂鐵, 호는 栗軒, 述의 1남, 鄭澈·成渾의 문인, 사마, 자헌대부 지돈녕부사, 저서는 三體集 (율동)

韓明直(1576~1613) 淸州人. 자는 直哉, 述의 2남, 사마, 통훈대부 동래원인의 (증) 숭정원 좌승지 (율동)

韓百鳳(1881~1950) 淸州人. 자는 聖儀, 호는 松軒, 榮會의 3남, 徐相晩의 문인, 독립유공자, 건국공로훈장 애족장 (율동)

162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韓士介(1453~1521) 淸州人, 자는 士廉, 繼禧의 4남, 통정대부 권주목사 (증) 별조참판, 碑文 金安老 撰 (윤동)

韓士武(1452~1482) 淸州人, 繼禧의 2남, 동훈대부 한성부 관관 (증) 의정부 좌찬성 (서헌동)

韓斯文(1446~1567) 淸州人, 자는 子藝, 繼禧의 1남, 정헌대부 행 공조판서, 시호는 恭簡, 西川君, 신도비문 申用溉 撰 (윤동)

韓士信, 淸州人, 자는 德祉, 繼禧의 3남, 三登縣令 (증) 좌통례 (윤동)

韓世靑(갑신~신유) 淸州人, 振善의 子, 군위부 수어사 (오야동)

韓 述(1541~1616) 淸州人, 자는 子善, 호는 陶谷, 智淵의 1남, 사마·문과 동지중추부사 (증) 승정대부 좌찬성, 孝子로 旌闕 (윤동)

韓承元(1465~1514) 淸州人, 자는 仁淑, 士武의 1남, 정선군수, (증) 좌찬성 (서헌동)

韓永福(1867~ ?) 淸州人, 호는 有農·南農, 一名 世良, 1914년 11월 북경 동서동 직문대가로가 항일운동, 돌마면 분당리 44번지 거주.

韓 崑 淸州人, 호조참의 (오야동)

韓允謙(1588~1637) 淸州人, 자는 時益, 孝純의 5남, 진사·文科, 都事 (서헌동)

韓智源(1513~1560) 淸州人, 자는 士達, 호는 靑蓮, 頤의 4남, 文科, 인관부사 (윤동)

韓振善(정희~갑진) 淸州人, 貴益의 子, 통정대부 호조참판 (오야동)

韓致謙(1574~1608) 淸州人, 자는 季益, 孝純의 3남, 통정대부 동부승지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서헌동)

韓孝純(1543~1621) 淸州人, 자는 勉叔, 호는 月澗, 汝弼의 2남, 사마·文科 좌의정, 정백리, 시호는 莊獻, 西興府院君, 후예 朴謫, 墓誌 李塾, 문집으로 韓器秘訣, 陣說 (서헌동)

韓 懷(1550~1621) 淸州人, 자는 民望, 호는 苦庵·柳下, 智元의 2남, 사마·文科, 통정대부 동부승지,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윤동)

洪喜順(1557~1639) 南陽人, 자는 士吉, 準의 子, 외낭헌감, (증) 도승지, 孝子, 旌閭 (여수동)

洪奉世(1498~1575) 南陽人, 자는 欽中, 景森의 子, 趙光祖의 문인, 여주목사 (돌마면)

洪辟元(? ~1637) 南陽人, 자는 建初, 三學士 翼漢의 子, 孝行 旌閭, 碑文 宋時烈 撰·宋煥箕 書 (수내동)

洪處道(1625~1691) 南陽人, 자는 子由, 命亨의 子, 영양헌감 (갈현동)

洪 燾, 南陽人, 思立의 子, 원지 (북정동)

黃 鍵(1646~1695) 昌原人, 자는 啓明, 世壽의 1남, 宋曄의 문인, (증) 대광보 국승록대부 영의정, 碑文 李宜顯 撰 (낙생면 도성현)

黃立中(1561~1622) 昌原人, 자는 子正, 璿의 4남, 통정대부 예원군수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碑文 黃重壽 撰, 朝相愚 書 (樂生面 瓦洞 德陽君墓前 子坐)

黃命壽(1607~1670) 昌原人, 자는 元老, 潤의 1남, 조선대부 典設司 提檢, 碑文 黃鏞 撰 (낙생면)

黃 鏞(1653~1716) 昌原人, 자는 子望, 胤壽의 1남,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단대리 屯谷)

黃聖河(1691~1765) 昌原人, 자는 君厚, 鏞의 1남,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단대리)

黃世壽(1612~1699) 昌原人, 자는 廷老, 潤의 2남,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낙생 餘鮮里)

黃有壘(1663~1735) 昌原人, 자는 汝相, 一夏의 1남, 중직대부 교하군수 (새촌면)

黃有牧(1675~1742) 昌原人, 자는 夢汝, 一夏의 2남, 조선대부 김포군수 (사송동 송현)

黃有師(1680~1739) 昌原人, 자는 雲甫, 一夏의 3남,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창곡동)

黃鳳翥(1607~1691) 昌原人, 자는 以鳳. 諱의 2남. 동경대부 승정원 좌승지 (단대리)

黃仁煥(1733~1799) 昌原人. 자는 景明 家의 孫子. 生父 東. 가선대부 전라병사 (창곡동)

黃一重(1644~1726) 昌原人, 자는 子羽, 諱의 1남. 文科, 좌찬성 (사충동)

黃樞河(1692~1743) 昌原人, 자는 秀甫. 諱의 4남. 진사, 懿陵참봉, (삼평동)

黃 鎭(1642~1707) 昌原人. 자는 翰翼, 호는 安隱堂. 命鶴의 1남. 동경대부 행 동천군수. 有道稿 (낙생면)

黃震壽(1619~1694) 昌原人. 자는 東老, 諱의 1남. 동경대부 한성부 판관 (중) 자헌대부 이조판서 (낙생면)

黃 梁(1703~1739) 昌原人, 자는 子公 有郎의 1남. 무과, 가의대부 부총판 (새촌면 蔞村)

黃 洞(1584~1628) 昌原人, 자는 汝誦, 호중의 1남. 처사, (중) 동경대부 승정원 좌승지. 碑銘 宋時烈 撰. 家狀 黃世壽(2남) 지음 (낙생면 도성현)

III. 城南의 主要姓氏

조사한 바에 의하면 城南地域내에 世居했던 姓氏는 다음과 같다.

강릉최씨, 결성장씨, 경주김씨, 경주배씨, 경주이씨, 경주정씨, 경주최씨, 고성이씨, 광산김씨, 광주이씨, 김해김씨, 나주정씨, 남양홍씨, 남원양씨, 남원윤씨, 덕수이씨, 동래정씨, 문화유씨, 밀양박씨, 사천목씨, 성주이씨, 수원김씨, 순천김씨, 순흥안씨, 신창정씨, 안동권씨, 안동김씨, 양근함씨, 여산송씨, 여흥민씨, 연안김씨, 연안이씨, 영일정씨, 온양방씨, 용인이씨, 우계이씨, 원주원씨, 의령남씨, 인동장씨, 장연노씨, 전희이씨, 전주이씨, 전주최씨, 제주고씨, 진주강씨, 진주유씨, 창녕이씨, 창녕조씨, 창원황씨, 청송심씨, 청주정씨, 청주한씨, 칠원윤씨, 파평윤씨, 평

산신씨, 평양조씨, 평택임씨, 한산이씨, 해주오씨, 해평윤씨, 홍원용씨, 등 61개 姓氏이다.

그 중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출세하여 名人物을 배출한 성씨는 분당구에 8개 성씨, 수정구에 6개 성씨, 중원구에 6개 성씨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 분당구를 동별로 살펴보면 구미동은 전의이씨 李夏驥(1707~?)의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음이 뚜렷하고, 금내동은 전주이씨 李岐(1524~1581)의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운동은 李震興(1461~1487)의 후손들의 세거지였으며, 수내동은 한산이씨 李長淵(1455~1528)의 후손들의 세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읍동은 순흥안씨 安從約(1355~1424)의 장남 政의 자손들이 세거하였고, 정주한씨는 韓繼禧(1423~1482)의 자손들이 세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자동은 李彭壽(1520~?)의 후손들의 세거지였으며, 판교동은 면암이씨 李穰의 아들 根健(?~1456)의 자손들의 세거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정구의 성씨를 동별로 살펴보면, 고동동은 덕수이씨 李拙(1417~1463)의 후손의 세거지가 뚜렷하며, 금토동은 남원윤씨 尹克新(1527~1589)의 자손들의 세거지와 안동권씨 權攀(1419~1472)의 자손들의 세거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정동은 전주강씨 姜天命의 子孫들의 세거지가 뚜렷하고, 신흥동은 동래정씨 鄭亨配의(손자 大年: 1503~1578) 자손들의 세거지였으며, 태평동은 의녕남씨 南在(1351~1419)의 子孫들의 세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원구의 세거성씨를 동별로 보면 금광동은 광산김씨 金若時(1335~1406)의 자손들의 세거지였음이 뚜렷하고, 도촌동은 고성이씨 李原(1368~1429)의 후손들의 세거지였으며, 상대원동은 여산송씨 宋壽(1470~1518)의 후손들의 세거지였고, 여수동은 전주이씨 李伯由(1352~1399)의 자손들의 세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하대원동은 광주이씨 李集(1314~1384)의 자손들의 세거지였으며, 칠원윤씨 尹伊(1502~1576)의 자손들의 세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20개 성씨는 1300년대부터 1700년대 사이에 성남에 이주 정착하여 자손이 번족하고 出世 현달한, 인물의 배출이 뚜렷한 성씨임을 앞에서도 언급하였거

니와 그 비급가는 성씨도 있음을 밝히둔다.

Ⅳ. 城南의 姓氏와 名人

성남의 人物中에는 의정부나 三司·六曹·승정원 등에 진출하여 가문과 자신이 영화를 얻은 사람이 많다. 이 수 많은 人物을 상세히 논설한다는 것은 연구목적상, 작은 지면상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 중에서 사후에 생전의 업적·덕행·지절 등을 높이 평가받아 謚號나 旌闡을 받거나, 생전에 봉군되거나 사후에 추봉·진봉되는 등 포장을 받은 경우와, 청백리에 녹선 되거나 충효로 세인의 추종을 받은 사람을 선정하여 보면 [表-1]과 같다.

성남지역 내에 세거한 61개 성씨의 조사된 651명 중에서 시호를 받은 자는 전주이씨 8인, 고성이씨 5인, 의령남씨 3인, 안동권씨 3인, 광주이씨 2인, 청주한씨 1인, 한산이씨 2인, 광산김씨 1인, 남원윤씨 1인, 동래정씨 1인, 문화유씨 1인, 여산송씨 1인, 온양방씨 1인, 원주원씨 1인, 전의이씨 1인, 칠원윤씨 1인, 평양조씨 1인 등 모두 35명이다.

최참의 명예를 갖게된 人物은 전주이씨 14인, 덕수이씨 7인, 한산이씨 4인, 안동권씨 3인, 의령남씨 3인, 칠원윤씨 3인, 고성이씨 2인, 광주이씨 2인, 연안이씨 2인, 청주한씨 2인, 신창맹씨 1인, 전의이씨 1인, 평양조씨 1인 등 모두 45인이다.

旌闡을 받은 사람은 남양홍씨 2인, 의령남씨 2인, 전주이씨 2인, 광주이씨 1인, 칠원윤씨 1인, 한산이씨 1인 등 모두 9인이다.

清白吏에 錄選된 자는 광주이씨 1인, 동래정씨 1인, 안동권씨 1인, 전주이씨 1인 등 5인이다. 그리고 忠孝로 나라의 포장을 받거나 世人의 추종을 받는 인물로는 14인으로 발췌되었다.

이상은 족보의 기록이나 기타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며, 시호, 군호나 청백리에 녹선 되었어도 삭탈된 후에 신면되지 않은 경우는 기록에서 제외하였다. 또 증시·봉군·정려·청백리 등이 중복된 경우도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표-2]와 같다.

(표-1) 姓氏別 官職數

本貫別 姓氏	品官	贈 諡	封 君	族 閥	濟 白	忠 孝	비 고
전 성 장 씨	1						
전 구 김 씨	3						
전 구 이 씨	15						
전 구 정 씨	3						
전 구 최 씨	9						
고 성 이 씨	20	4	1				
송 산 김 씨	19	1					
송 주 이 씨	31	2	2	1	1	2	
김 태 김 씨	4						
나 주 정 씨	3						
남 양 홍 씨	5			2			
남 원 양 씨	1						
남 원 훈 씨	7	1				1	
덕 수 이 씨	32		7				
홍 태 정 씨	14	1			1		
문 화 유 씨	3	1					
밀 양 박 씨	5						
사 원 북 씨	2						
성 주 이 씨	1						
순 원 김 씨	16					3	
순 흥 안 씨	10						
신 창 행 씨	4		1				
안 동 권 씨	16	3	3		1		
안 동 김 씨	4						
여 산 송 씨	18	1					
여 흥 민 씨	1						
연 안 김 씨	3						
연 안 이 씨	33		2			2	
영 일 정 씨	4						
운 양 방 씨	2	1					
우 계 이 씨	5						
원 주 원 씨	12	1					
의 녕 남 씨	70	3	3	2		4	
장 연 노 씨	2						
전 희 이 씨	19	1	1				
전 주 이 씨	195	8	17	2	1	2	

→ 本貫別 姓氏	品官	贈 諡	封 君	旌 閭	清 白	忠 孝	司 高
전 주 최 씨	1						
계 주 고 씨	4					1	
전 주 강 씨	13						
전 주 유 씨	4						
장 남 이 씨	2						
장 남 조 씨	2	1					
장 원 황 씨	17						
장 윤 심 씨	2					1	
장 주 정 씨	5						
정 주 한 씨	22	2	2	1		2	
정 원 윤 씨	8	1	3	1			
평 산 신 씨	5						
평 양 조 씨	3	1	1				
정 태 임 씨	26						
한 산 이 씨	24	2	4	1	1	1	
해 주 오 씨	8						
해 평 윤 씨	3						
홍 원 윤 씨	10						
계	651	35	47	10	5	18	

〔表-2〕 姓氏別 名人

姓 名	贈 諡	封 君	旌 閭, 清白吏	忠 孝	本 貫
姜 熙 臣	忠 定	花 城 君		己 卯 名 賢	전 주 동
權 攀 巒	安 襄	花 山 君			안 동
權 愚 愚		水 嘉 君			안 동
權 微 微	貞 襄		清 白 吏		안 동
權 微 微					안 동
權 微 微					안 동
金 論 時	忠 定			孝 子	순 천
金 若 九				王 亂 殉 節	판 천
金 運 鎭				孝 子	순 천
南 公 大	文 獻	宜寧府院君			의 천
南 相 佑		宜川府院君	전 국 훈 장		의 천
南 權 璫			旌 閭	倭 亂 殉 國	의 천

姓 名	贈 諡	封 君	旌 闕, 清白吏	忠 孝	本 貫
南有容	文忠	宜春府院君		胡亂殉節	“
南以興			旌 闕	倭亂殉節	“
南挺範		新 昌 君			“
孟 欽	文忠				신 장
方 恂	文忠				은 알
宋 景	文忠				이 산
柳 李	文忠	漆 岬 君	旌 闕		원 주
尹 慶		龜津府院君			화 화
尹 敬			신 국 莊 將		원 원
尹 在	文忠	漆 溪 君			원 원
尹 卓					원 원
李 慶	文忠		旌 闕	倭亂殉節	고 성
李 景		延 城 君	旌 闕		한 산
李 坤		延 安 君			진 주
李 灌		廣 南 君			언 수
李 克	恭 長	廣 川 君			주 주
李 增		德 陽 君			주 주
李 岐		德 恩 君			수 수
李 恒		德 安 君			수 수
李 麟		平 原 大 君			전 전
李 種	文 光	德 昌 君	신 국 奉 將		고 성
李 夏	忠 正				수 주
李 榮		泰 安 君			전 전
李 齊	文忠		清 白 吏 闕	胡亂死節	한 주
李 奉	文忠	龜 川 君		壬亂殉節	광 주
李 安				壬亂殉節	전 연
李 群				壬亂殉節	연 연
李 說	毅 忠	平 陵 君	旌 闕		전 주
李 承					“
李 信					“
李 權					“

姓 名	贈 諡	封 君	旌 闕, 清白史	忠 孝	本 貫
李 禮 長	平 贊	全 城 君			전 의
李 李 昌		堤 川 君			전 주
李 李 原	襄 憲 定	鐵城府院君			전 성
李 李 鑑				己 諱 名 賢	전 주
李 李 瑞		永 昌 大 君			전 주
李 李 宜		豐 城 君			전 수
李 李 仁 文		延 安 君			전 인
李 李 仁 鳳		宜 山 君			전 주
李 李 濟			清 白 史		전 주
李 李 長 南		韓 原 君			전 산
李 李 尊 庇	文 簡				전 성
李 李 宗 麟		豐 山 君			전 주
李 李 增 麟	懿 贊	鎭 川 君			전 산
李 李 之 寂		鎭 坪 君			“
李 李 之 道			清 白 史		“
李 李 秋 林		鎭 城 君			“
李 李 瞻 瞻		龜 城 君			전 주
李 李 軸 軸		完山府院君			“
李 李 鳳 鳳	夷 安	瑞 原 君			전 주
李 李 通 通		德 豐 君			전 수
李 李 兩 兩		海 豐 君			“
李 李 鳳 伯		蓬 萊 君			전 주
李 李 孝 伯	恭 簡	新 宗 君			“
李 李 厚 生	恭 簡	德 泉 君			“
李 李 鄭 大	忠 貞		清 白 史		동 대
趙 趙 夢 劉	平 簡	平壤府院君			원 양
趙 趙 夢 續	文 簡				원 주
韓 韓 百 緒		西 平 君	건 국 훈 장		“
韓 韓 斯 文	恭 簡	西 川 君			“
韓 韓 永 福				참 일 운동	“
洪 洪 百 順			旌 闕		남 양
洪 洪 時 元			旌 闕		“
계	35	46	清5旌9훈 4	151-5	

V. 맺 는 말

城南地域은 선사시대의 支石墓와 積石塚의 발견이나 백제의 고도 위례성과 근접하여 있고, 토질이 비옥하여 오랜 옛날 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느 골짜기나 마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길이 없고 역사의 사건 속에서 행정구역상의 廣州의 지명과 인물이 간혹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본 조사연구 결과 世居姓氏別로 현존인물의 조상은 外地人으로 ① 광주지역 또는 관내 변방의 책임을 맡았던 자 ② 양친부모 중 그 한쪽의 묘가 있는 자 ③ 친정·외가 근처로 이주한 자 ④ 고려 말기 忠節을 지켜 온거하였던 자 ⑤ 자연적·인위적(정치적·개인적) 재앙을 피하여 온거한 자 ⑥ 생전에 유람하거나 일시 온거하였던 자 들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물은 고려 말과 조선조의 인물로 현재도 현재 이거니와 머나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人物史的 重要性을 갖게될 것으로 생각된다.

욕심 같아서는 人物 한 사람마다 상세한 기록을 하고 싶었으나, 수가 많고 지면과 연구의 한계점 때문에 가능한대로 姓名·生卒·字·號·父名·官職·포장 등을 간략하게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누락된 人物도 있어서 기록상의 아쉬운 점도 많다.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성남지역내의 묘의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이 성남지역내의 사람임을 알수가 있다.

둘째, 성남시는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성남시 지역내의 옛 현인들은 오늘의 성남시민들의 정신적 지표가 되며 국가사회의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인물이 많다는 사실이다.

넷째, 도시개발에 의해 보존되어야 할 자연경관의 파괴와 忠臣·名儒·節臣의 묘소가 없어졌다.

다섯째, 향토의 시대적·지역적·주체적 특수성이 계승되지 못하고 전통과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

여섯째, 역사의 산 증인이 될 기록이 적고 부정확하며 혹은 객관성을 인정하기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다.

일곱째, 현대인들의 崇祀思想이 극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악하다는 사실이다.

여덟째, 주민에 따라서는 적극적 협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고령층임에도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향토적 전설·민속·풍습 등과 主人洞·望月洞·禮山·炭里 등의 지명이 사라져감을 알 수 있다.

오늘을 사는 성남인들은 20년 전 개발 이전의 향토적 특수성과 개발 이후의 도시적 특성을 조화시켜 성남지역의 새로운 향토적 중심사상과 생활문화를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성남의 옛 주인공들의 훌륭한 정신·모범적 생활을 본 받고 계승하는 일과 향토에 관심을 갖는 일은 곧 민족정기를 계승하고 조국강토를 사랑하는 일로 승화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첫째로 ① 전통의 중요성 ② 전통의 계승 ③ 전통의 수호에 관심을 가지고, 둘째로 ① 기록의 생활화 ② 기록의 정확성 ③ 기록의 보존에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① 향토에 대한 사랑 ② 향토 자료의 발굴·보존 ③ 향토인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은 전통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접촉,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 때문에, 발굴된 인물에 대한 관심과 보다 방대하고 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남인물사」를 엮어내는 일은 성남시의 과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담장 좁고 배고픈 지경에 죽은 사람의 무덤이 무엇이며, 제사가 다 무엇이나는 생각은 지금의 내가 선조의 후손이요 미래의 후손의 선조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의 생각이다. 대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집안은 옛날이고 지금이고 때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하고 즐겁게 산다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가정에선 家史에 대한 문헌적 자료도 없고 충·효·정절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뿌리도 없고 역사도 없으며 조상도 없는 사람처럼 된다. 국가와 사회도 이치는 이와 다를바 없을 것이다. 설남의 뿌리를 찾고 수호하는 일은 산업·경제 못지않게 서둘러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강릉최씨 족보, 권성장씨 개성파보, 경주김씨 대동보, 경주최씨 족보, 경주이씨 대동보, 경주이씨 세손공파세보, 경주정씨 족보, 경주최씨 관가정공파대동보, 고성이씨 세보, 광산김씨 직제학공파보, 광주이씨 대동보, 김해김씨 석정공파 전국파보, 김해김씨 대동보, 나주정씨 고암공파보, 남양홍씨 세보, 남원알씨 대동보, 덕수이씨 의정공파보, 동래정씨 불화공파보, 동래정씨 참봉공파보, 문화유씨 세보, 문화유씨 과상공파보, 밀성박씨 충헌공파 대동보, 밀양박씨 명광공후손 가승보, 사천목씨 세보, 성주이씨 대동보, 순천김씨 대동보, 순흥안씨 파보, 신창행씨 대동보, 안동권씨 추밀공파대보, 안동김씨 대동보, 양근함씨 대동보, 여산송씨 대동보, 양근함씨 대동보, 여산송씨 정희공파 족보, 여흥민씨 족보, 연안김씨 족보, 연안이씨 참사공파대보, 영인정씨 족보, 온양방씨 족보, 우계이씨 대동보, 원주원씨 족보, 의령남씨 족보, 장안노씨 족보, 전의이씨 족보, 전주이씨 덕양군 정희공파 세보, 전주이씨 무산군파보, 전주이씨 양녕대군파보, 전주이씨 효녕대군파 세보, 제주고씨 대동보, 전주강씨 밀직공파 세보, 전주유씨 세보, 창녕이씨 족보, 창녕조씨 태복경공파보, 창원황씨

174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세보(리장공) 장원황씨 봉고공파 세보, 청주정씨 족보, 청주한씨 청산공파보, 청주한씨 족보, 칠원윤씨 대동보, 평산신씨 사간공파보, 평양조씨 현령공파보, 평택임씨 갈곡공손가승보, 해평윤씨 대동보, 홍천윤씨 대동보, 경기읍지, 동국여지승람, 성남시사, 성남의 뿌리,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인의 족보.

논 문

碧巖 覺性禪師의 生涯와 思想

全 寶 三

(新丘專門大學 教授)

[차 례]

- | | |
|----------------------|------------------|
| 1. 머 리 말 | 4) 丙子胡亂시 降魔軍을 組織 |
| 2. 생 涯 | 3. 學風과 思想 |
| 1) 時代的인 背景 | 1) 三巖의 教育指針 |
| 2) 華山에서 스승 浮休禪師를 만나다 | 2) 學風과 門徒 |
| 3) 南溪山城의 築城 | 4. 맺는 말 |

1. 머리말

남한산성(南漢山城)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시대 도읍지 즉 궁성의 앞산이라는 뜻인 남한산(南漢山)이었다. 그러므로 백제인들은 이 산을 신성시하여 시조인 온조왕의 사당과 온왕청을 두어 관리하였고, 이 산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처음은 토성(土城)으로 시작하여 전성(塹城)으로 바뀌고 지금의 모습인 석성(石城)은 인조 2년 백암 각성선사(碧巖 覺性禪師: 1575~1660)에 의하여 2년의 역사 끝에 현재의 축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성이 되었다. 남한산성은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휴일이면 수도권에 수만 시민이 모여드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이곳을 1971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곳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작년 한해도 160만의 탐방객이 남한산성을 다녀간 통계를 보면 더욱 그러한 심정이다. 이곳이 역사의 땅이요 민족문화의 얼이 숨쉬는 민족정신의 요람지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당국이나 탐방객 모두가 역사에서 배운다는 겸허한 자세와 부족이 원인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많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남한산성을 가꾸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다듬을 때다. 더우기 수도권에 있는 많은 도시민이 이용하는 남한산성이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 즉 이 산성은 언제 축성되었으며,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으며, 남한산성의 축성에 정열을 바친 호국 의승군들의 활약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특히 이 산성을 축성하고 지킨 의승군 대장 조선팔도도총섭(朝鮮八道都總攝)¹⁾인 백암 각성선사에 대한 인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직

1) 宣祖 이후 승제제도가 승지제도로 바뀌어 서산대사는 禪敎一六宗都總攝에 임명되었다. 총섭의 칭호는 고려 나옹 慧勤에서 시작된 것이다. 승장을 의미하는 총섭은 서산대사가 처음이다. 도총섭의 제2대는 송운대사 惟政이며 그 이후에는 남한산성 신축의 大役의 책임자였던 碧巖 覺性이 제3대 都總攝이 되었다.

2. 생애

1) 시대적인 배경

백암 각성(1575~1660)은 16세기 후반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던 시대에 태어났다. 국제적으로는 북쪽 만주에서 여진족(女眞族)의 동향 가운데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는豊臣秀吉(豊臣秀吉)이 나타나 백여년 간에 걸친 전국시대가 끝나고 통일국가가 성립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주변 민족들은 조선 침략을 서서히 고조시켜 가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15세기 후반부터 드러난 부역제(賦役制)의 모순으로 방군수포(放軍收布)의 성행은 이미 군사 동원의 체계를 무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관직제(官職制)도 해이해지게 되면서 명종 10년 을묘왜변(乙卯倭變:1555) 이후 시행되어 오던 계승방략(制勝方略)의 분군법(分軍法)은 그 결함을 드러내던 시기였고, 공납 부역제의 독려로 농민의 생활은 궁핍하여 각지에서 유민과 도적이 출몰하였다. 명종 14년(1559)에서 명종 17년(1562)까지 황해도 일대를 무대로 활약했던 임역정(林正)의 난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훈척(勳戚) 계열의 특권적 비리 행위를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세력이 성장해 가고 있던 시대였다.

또한 훈구(勳舊) 세력들과 사람들의 대립 투쟁은 참혹한 사회(士禍)를 낳으면서 격렬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던 시기였다. 더우기 조정은 관직을 둘러싼 실정으로 사류(史類)들은 무오(戊午), 갑자(甲子), 을사(乙巳)의 큰 참화를 당한 뒤라 불안한 정계보다 차라리 한적한 전원에서 진리나 탐구하려는 경향으로 흐르던 시대였다. 정계는 동·서로 대분열을 하여 국사보다는 파쟁을 일삼음으로써 정치는 고식(枯息)과 소극에 빠지고 경제는 파탄 직경에 이르렀다. 학문은 실질적인 것에 힘쓰지 않고 사변적 이학(思辨的 理學)으로 기울었으며, 밖으로는 북쪽의 오랑캐와 왜구가 변방을 흔들며 침입의 기회를 엿보건만 아무

시하고 벽암 각성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고는 이 남한산성이 수도권 방어 일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도록 오늘의 석성으로 쌓는 일에 총력을 경주한 벽암 각성선사의 나라사랑의 정신과 그 분의 생애와 사상을 밝히봄으로써 축성의 의미와 산성이 갖았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벽암 각성선사는 조선 왕조시대 서산, 사명, 다음으로 이어지는 조선광도도총섭(朝鮮光道都摠攝)을 지내고 2년에 걸쳐 이 성을 완성한 인물이다. 국가 유사이 양병훈관장으로 의승군 활동의 무대로, 진충호국(盡忠護國)하는 애국정신(愛國精神)을 발휘케 한 탁월한 전술가(戰術家)요, 이론가(理論家)였음도 확인하고자 한다.

벽암 각성선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년시절과, 화산(華山)²⁾에서 스승 부휴(浮休)선사³⁾를 만나 본격적인 수업시기와 스승을 따라 임진란의 전투에 참가한 이후 봉은사(奉恩寺)에서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으로 계시다가 남한산성 축성의 대임(大任)을 맡아 2년에 걸쳐 남한산성을 축성한 부분과, 병자호란시 항마군(降魔軍)을 조직하여 의승군을 지휘한 부분을 중심으로 벽암 각성선사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분의 학풍과 사상, 후학으로 이어지는 세계와 범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벽암 각성선사 개인의 역사를 조망한다기보다 남한산성의 축성과 병자란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여 간조상들의 역사관과 민족관을 살펴서 오늘의 우리 삶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이다.

2) 현재 충북 보은군 내에 있는 지명임.

3) 선수(善修 : 1549~1615)의 호는 부휴(浮休)이며 속성은 김씨이고, 남원 오수인(吳樹人)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지리산에 들어가 선명장로(仙鳴長老)에게 득도하고, 뒤에 부용당명관(芙蓉堂明觀)에게 나아가 그 심법(心法)을 얻었다. 그는 송장사에 이끌림으로 들어가 광해군 7년(1615)에 제자 벽암에게 법을 부촉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하에는 칠백명에 달하는 제자가 있었으며, 부휴 법맥은 시선 문파와 더불어 오늘날 한국 불교 승단을 이루고 있다.

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던 시대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의론각 모순이 뒤얽혀 국가 전체가 파장과 붕괴의 무절제한 악순환을 거듭하며 외우내환(外憂內患)이 겹쳐 시대정신이 표류하던 시기였다.

특히 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壬辰倭亂:1592)은 무방비 상태의 전국을 왜군에게 짓밟히게 만든 참화(慘禍)의 전쟁터로 변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해전에서와 이순신(李舜臣)의 눈부신 활동이 돋보이고 각지의 의병들이 항토 방위를 위하여 일어났고, 서산대사, 사명대사, 부휴선사 등의 승병 유격 활동이 왜군의 군사 행동에 타격을 주는 정도였다. 임진왜란은 비단 조선 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를 뒤흔든 대전란이었다. 이 전란중에 태두하기 시작한 여진의 창에 의하여 명은 말하고 중국 대륙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일본에서는豊臣秀吉(豊臣秀吉)이 죽고 대신 德川(德川) 막부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사색당파 싸움은 그 끝을 보기가 어려웠다. 임진왜란 이후 당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선조 초년에는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동인은 다시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임란 이후 세력이 강해진 북인이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졌다. 광해군(1608~1623) 일대(一代)는 그를 추대한 대북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야(野)에 있던 서인은 광해군이 이생모(異生母)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고 동복형(同腹兄) 임해군(臨海君)과 이모제(異母弟)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였다는 죄목의 구실로 광해군을 폐하고 인조(仁祖)를 옹립하였다(仁祖反正:1623). 이후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조반정의 공을 가지고 다시 훈서(勳西)와 청서(淸西)로 나뉘어지고 또 제각기 여러 파로 갈라져서 그 복잡함이 그지 없었다. 인조를 옹립한 서인은 광해군의 대외적인 관망 태도를 버리고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으로 후금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였다. 후금은 명을 치기 위하여 먼저 배후를 위협하는 조선 정벌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 이상은 이기백 교수⁴⁾와 이완재 교수⁵⁾의 논설을 요약 정리하였다.

4)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75.

5) 李完宰, 《韓國史에 비춘 城邑地域의 歷史》, 민족문화사, 1993.

이러한 때에 조선에서는 인조 2년 이괄(李适)의 난(1624)이 일어난다. 이괄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으나 2등 공신밖에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일시 서울을 점령한다. 인조는 공주까지 피신하면서 남한산성의 견고한 축성을 생각하게 된다. 이괄의 난은 곧 관군에게 진압되었고 그 일당이 후금으로 도망하여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후금의 조선 침략을 종용하기에 이른다. 이에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인조 5년(1627)에 제1차도 침입하여 왔다. 이것이 정묘호란(丁卯胡亂)이다. 그 후 후금은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고쳐 "군신의 의(義)"로 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淸)이라 개정하고 사신을 보내왔지만 인조는 청나라 사신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 국서도 받지 않았다. 이것이 화인(禍因)이 되어 청 태종은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을 감행하게 된다. 이것이 인조 14년에 일어난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이다.

2) 화산(華山)에서 스승 부휴선사(浮休禪師)를 만나다

이러한 역사의 회오리가 휘몰아친 시대에 태어나 그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우리는 벽암 각성선사를 생각하게 된다. 벽암 각성선사는 서산, 사명대사의 뒤를 잇는 조선팔도도총섭(朝鮮八道都摠攝)으로 임명되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남한산성을 2년에 걸쳐 축성하였으며, 병자호란 때는 침입해 온 청병을 물리치기 위해 파사검(破邪劍)을 높이 들고 항마군(降魔軍)을 조직하는 등 헌신적인 우국충절을 바친 의승군 대장이기도 하다. 벽암 각성에 대한 사적은 두 서너개의 기록에 밝혀지고 있다. 그의 제자 백곡처능(白谷處能)의 문집인 《백곡집 白谷集》에 실려있는 “賜報恩蘭教羅祖國一都大禪師行狀”이나 오늘의 속리산 법주사(法住寺)에 세워진 비문⁶⁾과 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에 있는 비문⁷⁾과 그리고 김언덕

6) 법주사에 세워진 비문은 정두경(鄭斗卿)이 지은 것으로, 그 비명은 “有明朝鮮國故俗離山賜報恩蘭教羅祖國一都大禪師覺性十六宗都摠攝慈智覺運辯才無碍扶宗樹教編國佑世特賜玄鉢碧巖大師碑”라고 쓰여 있다.

7) 화엄사에 있는 비문은 이정석(李景奭)이 지은 것으로, 그 비명은 “賜報恩蘭教羅祖國一都大禪師碧巖碑”라 기록되어 있다.

교수의 논문⁸⁾에서 부휴의 문도편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그의 생애를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벽암 각성은 선조 8년(1575) 12월 충북 보은의 서삼산(西三山)에서 김해 김씨인 아버지와 조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字)는 정원(澄園)이며, 법명(法名)은 각성(覺性)이고, 스스로 지은 호(號)가 벽암(碧巖)이다. 그의 조상 가운데는 벼슬에 오른(衣冠) 분이 많았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 가문이 번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대사문(大沙門)일 것이다”라고 주술사(術者)에 의해 예언된 김터(報恩邑 西三山)에서 살았던 부모는 함께 북두칠성에게 기도하기를 지극 정성으로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딸 어머니 조씨가 백발 노인으로부터 옛 거울(古鏡)을 받아 지니는 꿈을 꾸 태몽으로 그를 회임(懷妊)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점을 살필 때 각성은 양가(良家)와 정성어린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각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서, ‘생김새가 비범(風骨異常)하고 뛰어난 얼굴(容貌粹美)로 눈동자는 빛났다(星仍如電)’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재질(天資)이 출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효심이 두터웠음은 말할 나위 없었으나 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였다. 벽암 각성은 여기서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문제를 알고 고뇌에 빠진다. 드디어 벽암은 10살 때 뜻을 세워 군내의 화산(華山)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 설묵장노(雪默長老)를 스승삼아 제자가 되었다. 이어 14살 때는 머리를 깎고(剃髮) 불도에 정식으로 입문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보경(寶品)대사로부터 받았으며 그후 불경을 공부하였다. 어느날 부휴선사가 화산에 왔었다. 그 런데 한눈에 벽암이 불법의 진수를 담을 수 있는 훌륭한 그릇(法器)임을 알아차렸다고 전한다.

그 뒤로 벽암은 부휴선사를 좇아 스승으로 모셨다. 속리산에 들어가거나, 스승

8) 金仁德, 〈부휴의 문도〉 - 숭산박길전박사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1975.

이 덕유산, 가야산, 금강산 등 여러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며 정진하였다. 스승을 늘 그림자처럼(形影相) 따라다녔고 경, 율, 론 삼장을 널리 열람하였다. 그리고 선조 25년 임진난(1592)이 일자 역시 스승을 모시고 장검(杖劍)하여 명나라 장수(明將)와 함께 특히 해전(海戰)⁹⁾에서 왜병을 물리치는 전투에 분연히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리니 명나라 장수들도 각성의 해전에 뛰어난 전술과 인품에 탄복했다고 전한다.

임진난이 끝난 뒤 가야산에 있을 때 벽암이 스승 모시기에 정성스럽게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지라, 사명(泗溟)도 줄곧 “훌륭한 시자(侍者)”를 두었다고 축하해 마지 않았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明將) 이종성(李宗城)도 해인사를 지나갈 때, 벽암의 모습이 으뜸 감(相貌 偉)을 보고 부휴선사에게 “백마(伯馬)의 마굿간에는 준마(駿馬)의 땅아지만 많을 뿐, 선사의 시자는 천리마와 같은 청년”¹⁰⁾이라고 부러워했으며, 또 부휴와 각성의 사제 관계를 자기 나라의 불도정(佛圖澄)과 도안(道安) 관계에 비유해 찬탄¹¹⁾한 일도 있다.

벽암 각성은 스승 모시는 일에 철저하였고 그 인품이 뛰어났다. 사람들은 부휴와 각성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대불(大佛)과 소불(小佛)이라고 존경했다고 한다. 그리고 광해군 때(1612)에 당시 괴승 성지(性智) 등의 잡매가 풍수설로써 관중에 출입하면서 이들이 부휴와 각성을 모함하며 무고(誣告)¹²⁾하므로 스승과 함께 중앙의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비록 묶여졌으나 스승과 함께 태연부동하게 앉아 있었으므로, 그의 덕행에 감복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서 ‘대불(大佛)’, ‘소불(小佛)’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임금 광해군도 이들 스승과 제자는 죄 없음을 즉각 알아차리고 부휴선사는 환산(還山)케 조치하였다. 그후 광해군은 벽암 각성을 봉은사(奉恩寺)에 머물게 하고 관선교도총섭(判善敎都摠攝)의 직함을 내렸으며, 많은 하사품도 내리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대부와 교우를 갖게 되었다.

9) 李能和, 《불교통사》 卷之上, p. 502.

10) “伯馬之鞍多駿駒 禪師侍者驥之子也”

11) “圖澄道安復見於海外”라고 부휴와 각성 사제 관계를 찬탄한 것이다.

12) 高橋亨, 《李朝佛敎》, p. 505.

3) 남한산성의 축성

국가의 요성에 부응하여 백암 각성선사는 사명대사를 뒤이어 팔도도총섭이라는 중직을 맡아 전국의 의승군을 통솔하여 남한산성을 축성하는 일을 전담했다는 사실이 조선왕조실록 인조조에 보면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한지南漢志》권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仁祖甲子 築城時 以僧覺性 爲八道都總攝 專任城役 召集八道僧軍 且令城內各寺 分掌八道 赴役僧軍 供養等事 故各寺 始有主管 各道義僧立番 及僧總節制中軍 主將之名 格城內九寺 自甲子始 而望月殿古 玉井次之 其餘七寺 晉新齋 東林最後 靈雨又晚置 皆任守城事 九寺各藏 軍器火藥』

즉 인조 2년(1624, 7. 28.)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각성은 팔도도총섭이라는 중요한 직책, 즉 승군대장으로 산성 축성의 대임을 전적으로 책임지게¹³⁾ 되었다. 조선 팔도에서 소집된 의승군은 성내의 8사에 배치되고 망월사(望月寺) 등 8사(寺)(玉井寺, 開元寺, 國清寺, 天柱寺, 南壇寺, 漢興寺, 張經寺, 東林寺)에는 모두 병기창과 화약고 그리고 군량미¹⁴⁾를 저장했음이 우정삼 교수의 논문에서 상세히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산성내의 동, 서, 남, 북 네 봉우리에 장대를 설치하고 그 장대의 좌, 우에 이 사찰을 배치하여 도합 8개의 사찰을 두고 본영으로 개원사에서 모든 지휘통솔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에는 9개의 사찰이 이때부터 있게 되었다. 현재는 망월사, 개원사, 장경사, 국정사 4곳만 남아 산성의 옛모습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5곳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그 이후 남한산성은 조선 왕조 고종 때 갑오경장(1894)에 의하여 승변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270년간 수도권 방위의 중요한 역할을 9개의 사찰이 담당하여 왔다.

13) 李維和, 《佛敎通史》卷之上 p. 488에서는 “仁祖二年甲子 始營南漢山城 又設僧軍以城內之閑蓮寺爲呆營 隸于守禦營 置八道都總攝一人 僧覺性 爲八道都總攝 領軍呆徒監築山城”라고 기록되어있다.

14) 馬貞相, 〈南北漢山城義僧助番錄에 대하여〉佛敎學報 제 1집 1963, 10, 15.

그리고 《남한지》 권4에 승병의 제도(制度)를 다음과 같이 서술(敍述)하고 있다.

『僧軍總攝一人 僧中軍一人 敎練官一人 暗官三人 旗牌官一人 十寺原居
僧軍 一百三十八名 杜攝 義僧三百五十六名 列在 京畿 江原 三南 黃海
每年分六逐 立番兩朝 英宗朝丙子 罷義僧立番 收其屋錢 給原居僧 代其
番』¹⁵⁾

산성 내의 사찰에 승군 총섭 1인 휘하의 지휘부와 승군 138명, 의승군 356명
의 의승입번(義僧立番) 제도를 통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백암 각성은 의승군 대장으로서 전국 의승군을 지휘 감독하여 나라로부터 아
무런 보조 없이도 2년 만에 완전히 축성의 대업을 마쳤다. 남한산성은 수도권 호
위에 직결한 산성 요새(要塞)였고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는 양병훈련장(養兵訓練
場)이 되었다. 인조 14년(1636) 청병이 대거 침략해 온 병자호란 때에는 국왕,
대신 및 일반서민까지 무난히 화급(火急)을 피할 수 있었던 곳¹⁶⁾이었다. 이러한
효과를 얻었던 조정은 남한산성처럼 유용한 산성을 수도의 북방에 구축하기로
착안하였고, 실제로 훗날 마한가지로 의승군에 의해 숙종 37년 북한산성(北漢山
城)이 축성¹⁷⁾ 되었다. 그러므로 이 남한산성은 수도권을 호위하기 위한 본격적 산
성 요새 축성의 계기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백암 각성이 영도(領導)하
던 의승군은 이때부터 수도 방위를 위한 상비 정예군으로서 면목을 갖추었다.¹⁸⁾ 그
리고 천중호국(盡忠護國)하는 불교도의 빛나는 애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관군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축성역사(築城役事)를

15) 《南緯誌》卷 4 八七

16) 禹貞桓, 〈朝鮮佛教의 護國思想에 대하여〉 - 특히 義僧軍을 中心으로 - 《佛敎學論文集》(白性旭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續紀 4292. 7. 25.

17) 《肅宗實錄》 권50, 숙종 30년(1711. 10. 11).

18) 禹貞桓, 〈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에 대하여〉 - 《佛敎學報》 제1집, 1963.

19) 《仁祖實錄》 권13 인조 4년(1626) 7월 22일조 참조.

헌신적 노력으로 훌륭히 완성²⁰⁾한 각성은 나라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으므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치하를 받았다. 즉 인조 4년(1626) 11월에 받은 사령(辭令)²¹⁾에 의하면 ‘報恩閣敎國庶國一都大禪師’라는 시호(諡號)와 가사와 말우가 특별히 하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의승군의 활동 상황은 조선왕조실록 인조조에 서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270년간의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 관계 기록을 다시 정리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여기서는 약하기로 하겠다.

그 이후 벽암 각성은 화엄사로 내려와 사찰을 중수(1633)하여 웅장한 총림(大叢林)을 차리고 불법 흥포에 정진하면서 도제 양성에 온 열정을 쏟았다.

4) 병자호란 시 항마군(降魔軍)을 조직

조정은 인조반정(1623) 이후 친명배금의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당시 후금으로부터는 조선의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신경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때 마침 조선에서는 인조 2년 이괄이 난(1624)을 일으켜 후금으로부터는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인조 5년의 정묘호란(1627)이다. 그 후 후금은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兄弟)의 맹약(盟約)”을 고쳐 “군신(君臣)의 의(義)”로 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리고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개칭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왕자를 불모로 보내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불응할 경우 조선을 공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조선에 의해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하여 청 태종은 직접 12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침입을 감행한 바, 이른바 인조 2년에 일어난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이다.

1636년 찬 겨울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12월 1일 청 태종은 12만의 대군을 인

20) 구례 화엄사에 현재 보존되는 사령장(辭令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都德講覺性 南漢山築城時 萬事賴徒盡心完役 其有功於邦家 樹大王爲可嘉 爲報恩閣敎國庶國一都大禪師 特賜衣鉢者 天啓六年十一月 日”.

출하여 다음 날 봄소 조선 침략에 나섰다. 9일 압록강을 건너고 심양을 출발한 지 10여일 만에 선봉부대는 서울에 육박하였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입하였다는 급보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12일이였다. 급보에 접한 조정에서는 비로소 적의 형세가 급박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토록 빨리 전격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13일 오후 늦게 재차 치계(馳啓)가 이르러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조정은 갑작스런 변란에 황망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도성 안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흉흉하여지면서 성을 빠져나가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14일에는 청군이 개성을 지나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황급히 판윤(判尹) 김경정(金慶徵)으로 하여금 강화를 수비하도록 하는 한편, 묘사신주(廟社神主)를 받들고 원손(元孫) 봉림대군(鳳林大君), 인평대군(麟平大君)을 비롯한 공주(公主), 옹주(翁主), 부마(駙馬) 노병제신(老病帝臣) 등은 강화도로 피신토록 하였다. 인조도 그날 밤에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걱정을 탐색하던 군졸이 달려와 청군이 이미 영서역(迎驛驛)²¹⁾을 통과하였으며, 마부태(馬夫太)는 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미 강화로의 피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인조는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그날이 12월 14일이라고 인조실록은 전하고 있다.

남한산성에 봉진한 인조는 산성 수비의 전역을 정비토록 하였다. 그리고 서울로부터 뒤따라 온 훈련대장 신경진(申景進)은 동성(東城) 망월대(望月臺)를 지키게 하고, 이영달(李穎達)은 중군(中軍), 총융사(摠戎使) 구경(具宏)은 남성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수원부사 구인후(具仁후)는 부장, 이확(李廓)은 중군을 삼고, 어영대장 이서(李曙)는 북성을, 수어사 이시백(李時白)은 서성을 지키게 하였다. 또한 이적(李穰)을 중군으로 삼는 동안 여주목사 이필원(李必遠), 이천부사 조명옥(曹明玉), 양근(楊根)군수 한희일(韓喜一), 지평현감 박환(朴煥) 등

21) 지금의 은평구 대조동과 불광동 사이를 말한다.

과 파주북사 기종현(奇宗顯)이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였다. 당시 성 안에 있는 군사의 수는 1만 3,000명 정도로서, 도원수 부원수와 각도의 관찰사 병사에게는 근왕병(勤王兵)을 모으도록 하는 한편 명나라에 위급함을 알려 원병을 청하기도 하였다.

청군의 선봉부대는 12월 16일에 이미 남한산성에 다달았고, 청 태종의 시산(侍臣) 탄태(潭泰)의 군사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서울에 입성하였다. 그 길로 한강을 건너 송파에 진을 치고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1637) 정월 1일에는 청 태종이 친히 2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성 밑 탄천(炭川)변에 포진하더니, 산성 동쪽의 망월봉에 올라 성 안을 굽어보며 조선군의 동태를 살피기에 이르렀다. 조선군은 포위당한 상태에서 이렇다 할 큰 전과없이 40여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 안의 상황은 혼란만 더해갔다. 청군이 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각지로부터 관찰사 병사 등에 의해 구원병이 출전 기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기에도 전에 험천(險川)에서, 증주 쌍령(雙嶺)에서, 용인 광교산(光敎山)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남한산성은 이제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 참담한 소식을 접한 벽암 각성은 지리산에 있다가 위기에 봉착한 국가표사(國家廟社)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 출권기하여 오랑캐를 쳐 부수자는 격문을 보내 향마군을 조직하는 애국활동을 또 다시 전개했다. 국가존망의 위태로운 소식에 접한 벽암 각성선사는 범의를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분연히 일어나 전국에 격문을 날려 의승군 3천명을 모아 쇠된 무리를 몰아내고 정법을 세우자는 향마군을 조직하여 남한산성으로 복진중에 있었다. 3천의 의승군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우리들의 몸뚱아리는(色身) 공허(空虛)하다는 불타의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자주정신을 수호하려는 절의는 절저하였다. 의승들은 모두 범의를 벗어 던지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국난의 고통을 불도의 힘으로 극복하리라라는 대서원(大誓願)을 발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당하였다는 비보가 산성에 당도하였고, 얼마 안 있어, 조로가 된 대군(大君)의 수서(手

書)와 재신 윤방(尹昉)과 한흥일(韓興一) 등의 장계(狀啓)를 내보이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강화 함락과 더불어 붙잡힌 군신의 처자 등 200여명을 남한산성 청군 전지(陣地)에 송치(送置)하여 놓고, 참상을 목도케 하니 성중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인조는 드디어 출성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소식도 모르는 벽암 각성선사는 의승군 3천을 이끌고 몸을 불살라 나라를 전지고자(碎身報國) 오로지 북진만이 일념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굴욕적 화의(和議)로 일전(一戰)할 기회도 한번 얻지 못하고 동한의 가슴을 치며 남쪽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 항마군의 세력은 호남 일대의 관군과 다물(與官軍爲 犄角)²²⁾ 정도로 우세했었다. 그때의 사정을 화엄사에 있는 이경석 판 벽암 비명(李景奭撰 碧巖碑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丙子在智異山 聞車賀幸南漢 及鳴鼓泣諭衆曰 吾屬亦王民 況以普濟爲宗 國事矣 其忍坐觀即衣戎衣而起 數召南僧 來赴者數千 相率南北運道聞敵退 痛哭而南』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벽암이 불교도의 애국심을 일깨우기 위해 눈물로 외쳤던 내용이다. 즉 “우리(佛敎人)는 나라의 국민이요, 더구나 널리 중생을 구제함을 근본이념으로 삼고있다. 나라가 위급하니 좌시(坐視)치만 말고 군복을 입고 일어서자”라는 비장한 호소였다. 나라사랑의 정신이 대비(大悲)의 원력(願力)으로 나타났다. 사멸이 의승을 모을 때 불교도는 좌시치만 말 것을 호소했던 내용²³⁾과도 같았다. 자비의 신앙을 애국의 실천으로 승화시키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항마호국(降魔護國)하는 애국심에 직결시켰던 것이다. 부처와 민족은 둘이 아닌 하나의 정신 즉 자타·불이의 사상으로 승화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불교인의 전통인 원융무애(圓融無碍)의 이념과 나라사랑의 크나 큰 정신을 민족 역사에 실현시킨 조국의 화신이 되었던 것이다.

22) 범주사에 세워진 정주경 판 벽암 비명에는 그 당시의 항마군의 기세를 잘 설명하고 있다. “丙子冬 清兵移王 師募南僧三千 號降魔軍 與官軍爲犄角 上聞益嘉之”.

23) 선조왕이 서거하니 사명대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我等生居此土 食息優游 聞有年紀者 秋毫皆上力也. 值此艱危 其忍坐觀” - 海印寺의 泗溪大師 碑銘 참조.

이와 같이 벽암은 남한산성을 축성·수비·경영하는 데 앞장섰고, 향마군을 조직하여 쓰러져가는 국운을 바로 잡으려는 등 그의 충성스런 애국심과 헌신적 역량은 높이 평가되었다. 1640년 봄에 쌍계사로 돌아가서 옛 사찰(寺刹)을 중수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등의 주언(奏言)으로 그는 규정도총섭(糾正都摠攝)으로 임명되어 무주(茂朱)의 적상산성(赤霞山城)에 있으면서 사고(史庫)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국가적 중대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각성은 1642년 해인사에 돌아와 있었던 6월에는 사명대사를 뒤흔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日本使价; 使令)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성은 말을 달려 서울로 향하던 도중 노병(老病)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일본 사신의 자리를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명대사가 맡았던 애국적 대일 외교활동을 각성에게 맡기고자 했던 나라의 의도로 보아 각성의 애국적 역량이 뛰어났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후에는 백운산 상선암(上仙菴)에 머물렀으며, 1642년 보계산으로 들어가서 법석(法席)을 열었다. 이때 왕자였던 효종은 그를 만나 화엄종지(華嚴宗旨)를 배웠다. 1646년 가을 법주사에서 동문인 최언(熙彦)과 은거하였고, 최언이 화엄사로 가서 입적하자 그도 화엄사로 가서 지내다가 제자들에게 "도업(道業)에 힘써 국운에 보답할 것"과 "사후(死後)에 비(碑)를 세우지 말것"을 유언한 뒤 입적하였다. 나이 86세요, 법랍 73세였다.

3. 학풍과 사상

1) 삼잠(三箴)의 교육지침

벽암 각성은 선교(禪敎) 양종의 경전을 비롯하여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는 학설에 정통했고, 또 그의 필세가 초(草)·예(隸)에 뛰어났었다. 그가 스승 부휴를 모시고 지리산에 있을 때, 당시 승림(僧林)의 삼걸(三傑)이라고 불리웠던 운곡종미(雲谷沖微) 소요태능(遼遙太能) 송월응상(松月應祥) 세 사람과 한자리

하여, 부휴에게 선지(禪旨)를 묻는 한 재관(宰官)을 위한 시부(詩賦)를 짓게 되었는데, 누구보다 먼저 계송(偈)을 베풀어 지었다. 다른 세 사람은 그 계(偈)가 훌륭함에 감탄하여 글짓기를 그만둘 정도였다고 전한다.

1600년 지리산 칠불암(七佛庵)에서 열린 학계 안거(安居) 때 스승 부휴를 대신해서 각성은 26세의 나이로 강석(講席)에 올라 강론하였다. 그 토론의 내용²⁴⁾이 길어서 좌중은 모두 기뻐했었다. 또 그는 학문 뿐만 아니라 덕행도 임팩이 남달라 높았었다. 즉 그가 강석에 오르기 앞서 있었던 일인데, 동문(同門)의 한 승려가 피질로 갑자기 죽으니 그 전열이 두려워 아무도 시체에 접근치 않았다. 그러나 벽암만이 혼자 평온히 그 시체에 옷을 갈아 입히는 등 의식을 차려 장례를 치루게 했다고 전한다. 천성이 뛰어난 각성은 부휴 문하에서 20여년간 공부하여 기개는 높아지고 학문은 깊어져 배움을 찾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세연(世緣)을 떠나 입실한 그는 계행(戒行)이 정백했고, 언제나 놓는 일 없이 단정히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있었다. 그는 계행이 정백했던 만큼 기개도 높았으니, 문도를 훈계하기 위한 교육지침인 '삼잠(三箴)'에서 그의 고결했던 법력이 잘 나타나 있다.

삼잠이란 각성이 학도를 일깨우기(覺醒) 위하여 독자적으로 강조했던 교육지침인데 ① 생각이 망령되지 말아야 하고, ② 얼굴에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③ 허리를 꾸부려 앉지 말아야 한다 (① 思不妄, ② 面不愧, ③ 體不屈)는 세 가지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불교에는 '防非止惡할 止惡戒'나 '행씨 行善할 作持戒' 등 수많은 수행덕목이 없는 바 아니지만, 각성의 삼잠은 시대 사회 환경을 전주어 볼 때 불교인에게 비장한 각오를 불러 일으키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으로 많은 박해가 불교계에 가해지고 승니(僧尼)에게는 한양 출입과 시장(市井)에서의 기마(騎馬)가 금지되는 등 불교인이 받는 사회적 차별 내지 신분적 원대가 심해졌고, 조국은 왜적의 침략으로

24) 그 계송(偈頌)의 일언의 내용은 “窓外度影僧看月 窓外清香鳥拂梅”였다.

25) “講論風發一座 喜”.

혼란을 면할 수 없었던 때에, 불교도의 기개를 높이고 나아가 신충호국(盡忠護國)할 애국자적 자세를 확립시키고자 '참되고, 깨끗하고, 굳세게' 인격 도야를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삼품을 그 당시 불교 수행자에게는 가장 적절히 요약되었던 훈계로 풀이할 수 있다. 벼람은 인격 함양의 기본요소 즉 ① 마음씨, ② 행동, ③ 자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고, 이 세 가지가 각각 '① 참되고, ② 깨끗하고, ③ 굳세게'를 쉽고도 권밀하게 강조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思不妄'을 '거짓 아닌 것을 생각하라, 생각은 거짓 아니게, 마음을 거짓 아니게'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생각이 방황되지 않아야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것은 진실(菩提)에 향하는 의식(心)을 각도록(覺醒) 교육했던 지침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思不妄'은 대승 보살의 기본요소인 發菩提心 하는 사람 즉 진리, 진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發菩提心, 大覺醒, 勇猛精進'과 같은 세 가지는 보살의 마음자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크나 큰 원력을 세우고, 섬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보살이 갖는 정신적 구조의 특징을 이루는 기본요소이다. 또 인격 함양의 내면적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타 철학의 근원적 진실인 연기무아(緣起無我), 무자성공(無自性空), 제법실상(諸法實相), 청정진여(淸淨眞如)에 계합할 만야성취(般若成鏡)와도 같은 것이다. '面不愧'도 '부끄럽지 않은 얼굴을, 잘못없는 체면을, 깨끗한 행동을'이라고 풀이한다면 '행동을 깨끗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면 자연히 얼굴에 나타나며, 부끄러움이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행위의 외형적 행동을 순화시키고자 윤리 도덕적인 가치 세계로 유도(誘導)하는 훈계이다. 칠불통계(七佛通誡)의 '諸惡莫作 衆善奉行'에 적절되고, 오계를 비롯한 모든 방비지오(防非止惡)하는 율의계(律儀戒)의 수행과도 같다. 그리고 앞의 '사불망'이 번뇌리심(發菩提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용맹정진(勇猛精進)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행동 행위를 깨끗이 함으로써 인간은 공동사회에서 공신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인격이 향상되는 구체적 요소로서의 덕목이 갖

추어 질 것이다.

‘腰不屈’은 ‘허리를 굽지 않게, 허리를 굽히지 않게’로 풀이하면, 반듯하고 곧은 자세를 취하라는 뜻이다. 허리를 구부려 앉지 않아야 함은 당당하고 굳센 자세나 태도를 갖도록 교육했던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또 정개나 뜻, 거조를 굽히지 않는 강인한 자세 정립을 고취한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心不動)하고 사된 것은 깨뜨리고 바른 것은 널리 알리는(破邪顯正) 높은 의지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 ‘腰不屈’함으로써 대아(大我)다운 참인격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 당시의 어려웠던 시대 상황에도 비굴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인격 자세가 확립되어, 교제나 국가로부터의 요청에 응하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할 수 있는 불교도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하였다.

2) 學風과 門徒

벽암 각성은 불교의 모든 교학(敎學)과 수행에 통달했고 기타 일반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러기에 칠불암에서 법당을 세운 이래 선흥사(보성군), 화엄사, 쌍계사, 송광사, 해인사, 상선암, 보개산, 속리산, 묘향산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화도(化度)했었던 강석(講席)이나 중수가람(重修伽藍)으로부터 배출되었던 제자들은 서산대사의 문하를 방불할 정도였다.

벽암이 칠불암에서 임제현풍(臨濟玄風)을 크게 떨치거나 《선원집도결의 禪源集圖決疑》 1권, 《간화결의 看話決疑》 1권 등 책을 짓고 또 증골 힘드는 과신을 하면서 훌륭한 사람을 가르쳤다는 행장 등을 볼 때, 그는 참선 수행에 열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종대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에 그는 안주(安州)에서 왕을 알현(謁見)하여 화엄의 중요를 말씀드린 일이나, 병석에 계시는 스승 부휴를 대신하여 26세의 나이로도 강석에 올라 강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그는 불교 이론 특히 화엄사상에도 정통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벽암은 융통무애(融通無礙)하고 원융무이(圓融無二)한 이념에 사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깊이 익히 정혜쌍수(定慧雙修),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실천했고 청정한 계행과 자비스럽고 겸양한 생활태도로 지덕겸비(智德兼備), 복혜구족(福慧具足)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으로부터 관선교도총섭으로 임명되어 봉은사에 머물른 일이나, 교법을 위해 송광사에 머물면서 선교의 사석(司席)으로 되었던 일들은 교와 선을 결합했던 각성의 학문을 충분히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참구(參究)했던 선지는 스승 부휴를 이어 임제현풍(臨濟玄風), 무자간화(無子看話)에 있었고²⁶⁾, 담론시(談論詩)는 화엄을 위주했던 사실을 우리는 그의 행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백암은 “평생 능히 고좌(苦坐)하면서 사람들을 잘 가르쳤고, 배움의 도움을 청하는 남객(衲客)에게는 무자 참구를 권했다. 이론이 뛰어난(談論甚巧) 사대부 일지라도 그 예리함에 대항할 자 그리 많지 않았다. 사람을 대할 때는 공근(恭勤)하며 결코 교만, 오만한 티가 없었다. 자비심이 깊어 궁고(窮孤)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베풀어 주기 일췌였으므로, 조식 두 끼의 죽반(粥飯) 때는 문전에 배놓는 사람이 가득 모였다고 한다. 세들도 그의 손바닥에서 먹이를 쏘아 먹고, 어부를 향해 그가 불살생계(不殺生成)를 가르치니 어망을 불태우고 잡히 사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²⁷⁾로 그의 신앙자세가 경건했고 생활태도가 겸손했다.

여기서 우리는 백암이 인도적 견지에서 넓은 포용력을 인격에 형유(享有)했고 종교적 감화력을 두텁게 발로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불교 이외 학자 지식층이 그의 예봉(銳鋒)에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일반 학문에도 능통하고 있었던 그의 식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관선교도총섭으로서 봉은사에 있을 즈음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을 비롯한 사대부와 교유가 많았고, 1643년 관서 관찰사 구봉서(具鳳瑞)가 백암을 맞아 묘향산으로 모셨고, 또 효종대왕 참저(潛邸) 시 각성에 귀의²⁸⁾ 했었던 사실 등, 이들은 모두가 각성이 내전과 외전에 통달한 초

26) 1615년 지리산 칠불암에서 스스로 법당을 세워 임제현풍을 펼쳤고, 남객의 청의(請誡)이 있으면 언제나 무자 참선(無子看話禪)을 권하였다.

27) 高橋亨, 《李朝佛教》, pp. 516~517 참조(의역).

28) 上揭書, p. 516 참조.

활한 학문의 세계에 서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벽암 한 몸으로서 서산문(西山門)의 육파(六派)와 능히 신의의 정경을 펼칠 수 있었다 함은²⁹⁾ 스승 부휴의 법맥을 계승한 그의 법화(法化)가 높아서 많은 문도를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서산 문하와 맞서는 부휴 법맥을 형성해 한국의 양대 법의 흐름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부휴가 사명으로부터 의탁받았던 종문대사(宗門大事)를 벽암이 유감없이 이어받은 셈으로도 된다. 서산의 적사(嫡嗣)인 사명(師叔)인 법력이 높은 부휴에게 교계종문(敎界宗門)을 부탁³⁰⁾하였던 것이며, 벽암은 스승 부휴에게 의탁된 과업을 자기가 이어받아 충실히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는 문도를 가르칠 때는 “참되고, 깨끗하고, 굳세게”라는 소위 ‘삼장’으로써 교육의 지침을 삼았는데, 이것은 서산이 불교계의 장래를 염려하여 부휴에게 부탁하였던 “기강의 재정돈”을 그가 이어받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던 실적인 것이다. 또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요구하는 굳센 인재를 훌륭히 양육해 낼 수 있었던 요령(要領)이요, 한국 불교의 법맥 정통을 계승 재정비케한 실제적 근본지침이었기에 많은 문도가 운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벽암 각성은 관선교도총섭이라는 소임과 팔도도총섭이라는 직책 등으로 그 활동 무대가 전국 곳곳에 이르고, 내전과 외전에 능통한 법력이나 경건한 신앙 자세 및 검소한 생활태도 등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자였던 까닭에 그를 흠모해 그 문하에 모이는 제자가 적지 않았다. 1618년 가을 보성군 복치산(伏雌山) 신흥사(神興寺)에 있을 때에는 700여명의 문도가 모여들었던 사실로나, 각성의 제자가 서산의 제자를 방불했다는 기록 등은 그의 문하에 많은 제자가 있었음을

29) 上揭書, p.515 참조.

30) 《鰲羊集》蓮栗山雲水庵鍾峯影堂과, 《泗洲集》권3, 贈淨休子の 律詩 中 “去聖三千年後時 丈堪眞法日將 * 紛 * 魔誘人皆醉 毅蕩金言世執持, 雲岳此時曾識晏 少林何日又春歸 * 今正觀吾兄在 再整綱綱更是誰”

알려준다. 그 중 수초(守初:1590~1660)와 처능(處能:~1680)이 함께 양대 상족(上足)제자라 불렸다.

수초는 호가 취미(翠微), 속성은 성(成)씨로서 세종조의 충신이었던 성삼문의 후예이다. 한양 사람으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출가하여 선수에게 참배하여 후일 각성에 의탁했다. 여러 병산을 역유하면서 수학하고 그 깊은 뜻을 밝혔다. 선(禪)과 교(敎)를 강의하여 교화에 전력하였으며 저서로는 《취미집 翠微集》, 《불조원류 佛祖源流》가 있으며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 이들 중에는 성충(性聰) 위암해관(翠巖海關) 설파민기(雪坡敏機) 등이 있다.

그리고 처능은 호가 백곡(白谷), 속리산에서 출가했다. 동양위(東陽尉), 선이성(申理聖)으로부터 한문과 유학을 배운 유명한 문장가였다. 팔도선교도총섭(八道禪敎都摠攝)에 임명되었다고는 하나 상세한 전기는 알 수 없다. 저서에는 《백곡집 白谷集》, 《임성당대사행장 任性堂大師行狀》이 있다. 억불승유 정책으로 일관하던 조선 왕조시대에 불교의 탄압에 대해 올린 〈간폐석교소 諫廢釋敎疏〉의 상소문은 그 문장이나 기개로 보아 다시 볼 수 없는 대문장이었다.

벽암의 입실 고제자는 취미수초, 백곡처능 이들 두 사람이지만, 그 밑으로 고운정특(孤雲揭特), 모운진언(暮雲震言), 동림혜원(東林慧遠), 벽진정현(碧川正玄), 월파인영(月波印英), 무의천연(無依天然), 제하청현(澈霞淸顯), 유곡충(幽谷冲), 한계현일(寒溪玄一), 연화인옥(蓮華印旭), 나암진일(懶菴眞一), 침허율계(枕虛律戒), 배은응준(昧隱應俊), 허월승준(虛月勝俊), 화적성오(晦跡性悟), 함화혜인(含花慧認), 반운상욱(伴雲尙旭), 동계경일(東溪敬一), 저음경연(雷音敬演), 운천홍(雲天弘), 설허인규(攝虛印圭), 쌍산인행(雙山印行), 설봉희안(雪峯希安), 영원담희(靈源曇熙), 청담혜취(淸潭慧粹), 송봉삼우(松峯三愚), 김해신여(金海信如), 곤륜준극(崑崙準極), 원응보천(圓應寶天), 고한희언(高閑希彦), 환호유문(喚乎有文), 한장신홍(寒彰信弘), 선화경림(禪和敬林) 등 출중한 제자들이 많았다.

벽암 작성이 1660년 1월 12일 입적한 뒤로는 그 제자들이 8파로 변성해 작성 문파는 크게 발전하였는데, 그 8파란 취미파(翠微派), 백곡파(白谷派), 침허파(枕

虛派), 고운파(孤雲派), 모운파(暮雲派), 동림파(東林派), 연화파(蓮花派), 벽천파(碧川派)등 여덟 문종이다. 이 가운데 취미파가 가장 크게 번성했었고, 백곡치능은 문장이 뛰어나고 《간제석교소 謙齋釋教疏》를 지어 올린 분으로 유명하며, 매은옹준(梅隱應俊)은 경세(經世)의 뜻을 같이 스승 각성을 따라 칠마군을 조직할 때는 참모장(參謀將)으로 공헌했고, 그리고 스승을 이은 광도도총섭으로서 남한 산성에 머물러 의승군을 지휘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다.

벽암 작성은 원종 1년(1660) 세수 86, 발람 73으로 입적하였다. 입적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道業에 힘써 國恩에 報答할 것”을 권장하는 나라사랑의 애국심이 가득차 있었고, “사후에 비를 세우자 말도록” 타이르던 겸손한 분이 었다. 이때 제자들의 청에 못 이겨 수사(手寫)한 임종계(臨終偈)³¹⁾에도 그의 겹혀했던 생활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즉 “大經八萬偈와 結頌三十卷이 足以兼二利인데 何況別爲頌이리요”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八萬藏經과 結頌 30卷 안에 自利利他的 가르침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특별히 할 말이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 임종계에서 그의 겸손하고 겸허한 인격의 한 단면을 역력히 읽을 수 있다.

벽암의 저서로는 《선원집도중결의》, 《간화결의》, 《석문상의초 釋門喪儀抄》 각 1권을 지은 것과 스승의 시문집인 《부휴당집 浮休堂集》 5권을 편찬한 것이 있다. 이 가운데 《부휴당집》과 《석문상의》는 현존하고, 《선원집도중결의》는 이수광의 《지봉집 芝峯集》에 조금 언급³²⁾되어 있다. 《석문상의초》는 상하 양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벽암이 한국 승려의 죽음(喪)에 따르는 의식을 정한 책이다. 이것은 중

31) 화엄사 비명에 수록된 임종계(臨終偈)임, 범주사의 비명과 《백곡집》에 수록된 그의 생장에서는 이것과는 달리 “結頌三十篇 契經八萬偈 何須打葛藤 可笑多事在”라고 기록되어 있다.

32) “碧巖之國中決疑即不得已而言也. 前賢說之已詳 後人錯認起疑不辯則不明 非故爲好辯也. 參商師旨之說雖見尤譯 辯之尤的. 打破重關覺持廓然 學而至此可謂快活境界. 古人曰 行船要在把握人 如碧巖者可以當之否. 吾今老矣 安得再游山水間與如碧巖者”(高機亭, 《李朝佛教》, p. 51 참조)

국 책 자각(慈覺)대사의 《선원정규 禪院清規》나 응지(應之)대사의 《오삼집 五杉集》 그리고 《석씨요람 釋氏要覽》 등에서 간추려 낸 것으로, 우리나라에 알맞는 부분만을 모아 놓았으며, 벽암 이후 한국 승림 사원의 상의(喪儀)는 이것으로 의례(儀軌)를 삼게³³⁾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벽암 각성의 학문과 문도는 《韓國佛教思想史》³⁴⁾에 게재된 김인덕 교수의 〈浮休의 門徒〉와 우정상, 김영태의 《韓國佛教史》³⁵⁾와 忽湑谷快天의 《朝鮮禪敎史》³⁶⁾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4. 맺는 말

1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국내의 혼구세력과 사람파들의 대립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당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일신을 돌보지 않고 역사의 한 가운데에 뛰어들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열정을 불태운 벽암 각성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 그의 진충호국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살펴보았다.

불국토 건설이라는 불교의 이상으로써 이것을 실현에 옮기는 목적도 일면은 있었지만, 소위 호국 삼부경(護國三部經)이라는 법화경(法華經), 금강명경(金剛明經), 인왕변야경(仁王般若經) 등에 사상적 근거를 둔 한국불교의 호국사상은 한국불교의 특징적 요소이기도 하다. 불법이 국가와 민족의 복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기도의 공덕으로 판병의 능력이 당하지 못할 때 호국의 의무 행위로서 충절을 들고 충렬시한다는 호국사상의 전통은 서산, 사명스님으로부터 내려온 한

33) 高橋亨, 《李朝佛教》, p. 518 참조.

34) 金仁德, 〈부휴의 문도〉 - 숭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pp. 937~960, 1975.

35) 禹貞祖 金煥泰, 《한국불교사》, 신흥출판사, 1976.

36) 忽湑谷快天, 鄭湖鏡 譯, 《조선선교사》, 보림각, 1978.

국불교의 전통이었다. 이러한 법통을 이어 받은 각성선사는 임진년의 해전에서와
 박원했던 능력과 봉은사를 중심으로 관선교도총섭으로서의 활약을 살렸다. 그리
 고 특히 인조 2년(1624) 조선팔도도총섭으로서 남한산성의 축성의 대임을 훌륭
 히 마친 역량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팔도도총섭으로 전국의 의승군을 통솔하여
 축성을 전담하기 위하여 4장대 좌, 우에 2군대씩 8곳의 사찰을 건립하게 하고
 본영인 개원사에 지휘부를 설치하였다. 산성 축성의 대임을 전담하여 인조 4년
 (1626)에 이 역사를 완성하였다.

남한산성에는 적(敵)의 동태를 파악하고 산성 수비를 위하여 4곳에 장대를 설
 치하였다. 현재는 서장대(일명 수어장대라고 함) 한 곳만이 남아 옛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장대 좌, 우에 2개씩 총 8곳에 사찰을 배치하고 조선 8도의 역
 량을 하나로 모아왔다. 그리고 개원사에 총지휘부를 만들어 의승군 활약의 본영
 으로 활용하였다. 남한산성 내의 당월사와 옥정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7사는 이때
 건립된 사찰의 역사를 살펴 볼 때 남한산성의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백암 각성선사는 자비의 신앙을 예국의 실천으로 승화시켰으며, 파사현정의 정
 신으로 함바호국의 나라사랑하는 정신으로 귀결시켰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백암
 각성선사는 조선팔도도총섭으로서 남한산성 축성의 대임을 효율적으로 마친 그
 의 나라사랑하는 우국충절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자호란시 의승군 3천명
 으로 파사검(婆邪劍)을 높이 든 함바군을 조직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국가와 민
 족을 위하여 멸사봉공하는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살펴보았다.

오늘의 이 남한산성은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교육장으로서 그 기
 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한산성은 국난 극복의 의지를 실현시킨 도량으로서
 의 의미를 생각할 때 본 논고가 갖는 의의가 크리라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 한다.

첫째, 남한산성이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중심세력이 한반도의 중추세력이었고 현재도 수도권 위성도시의 중심축이다.

둘째, 장대의 위치, 조선 8도 사찰의 배치 등을 살펴볼 때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셋째, 민족과 국가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국난 극복의 산 교육장이다.

넷째, 전 국민이 국난 앞에서 하나가 된 국민 총화의 장소다. 조선 8도의 사찰이 왜 산성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문제의 해답은 쉽게 풀리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벽암 각성선사의 산성 축성의 의미와 함마군으로 활동한 호국 승군의 의지가 서린 남한산성의 의미는 풀어주리라 믿는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할때 민족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량형을 확인하여 주는 땅이다.

성남 漢詩 同人(詩集)자료 고찰

韓 春 燮

(시조시인, 풍생고 교무과장)

[차 례]

1. 머 리 말

- 1) 농경생활권의 문화생활 모습
- 2) 한시(漢詩) 창작집 자료
소개 경위

2. 본 문

- 1) 〈詩集〉문헌 분석
 - (1) 〈시집〉제1권 소개
 - (2) 〈시집〉제2권 소개

(3) 〈시집〉제3권 소개

- 2) 몇 작품을 통해 본 시 세계
8편 한시(이억령·권오형·
이원협·이병덕·손기호·
정규찬·한문원·권오선)

3. 마무리 말

- 1) 자료 소개의 의의
- 2) 요약 및 제언
- ※ 참고 내용 소개

1. 머 리 말

1) 농경 생활권의 문화생활 모습

우리 민족사를 살필 때마다 독자적인 문화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느낀다. 결국, 문화의 원동력이 밭과 글임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증주로 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이 시대별·지역별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긴 역사가 전개되어 오는 동안에 주변국가와 서로 문화교류를 조화시켜 알찬 민족 문화로 가꾸어 온 실례는 적지 않다. 때로는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선조의 슬기와 자주적 단결심으로 항거해 싸웠다. 그리하여 평화로운 시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값진 것으로 보존시켜 우리의 참 모습을 세계에 드러낸 예는 적지 않다.

긴 과거의 역사 중에 농경 생활권의 문화창조를 한 마디로 언급하긴 어렵다. 그러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 온 산촌지역의 문화생활은 비교적 단순하고, 종교 또한 생활과 연관성이 깊어, 삼국시대 이후 전래해 온 불교, 유교, 도교의 여러 종교와 원시형태의 민간신앙이 결합된 상황에서 문화생활은 귀족 지식층 문화와 평민 문화로 구분지어 말할 것이다.

역사의 주체인 인간활동이 문화의 총체라고 보아 지난 시대의 지식층 문화생활은 아무래도 평민문화에 비해 언어와 풍속 자체가 한층 우위에 속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선진 문화의 이웃나라 중국문화야말로 우리 선조의 귀족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지혜를 모은 우리만의 정신문화 창달은 더 한층 값지다.

한국사에서 우리의 문자가 만들어지기 까지에는 어쩔수 없이 지식층의 문화생활 도구(매체)가 중국의 한자일 수 밖에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때, 삼국시대의 땅 이름이나 시가(詩歌)를 한자의 뜻과 소리를 흉내내어 만든 '이두'의 기록이 있었으나 이는 극소수의 실험성 전달수단이었다. 그러므로 한문학의 사용

은 조선시대 15세기초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우리 글 '한글(訓民正音)' 창제 이후에도 한문학은 우리의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하므로 한자(漢字)에 의한 기록과 보존은 20세기 중엽에도 없어진 적 없이 활발했으며, 서구문화의 유입 이후 국권회복기 부터 서서히 쇠퇴해졌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한문학사는 이차림 귀족 문화생활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그 토대의 역할로 소임을 맡은 바 되었으며, 중국의 한문학을 그대로 모방한 단계에서 벗어나 훨씬 독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저술과 문학 창작이 한문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지식층의 기본 소양인 한시(漢詩) 짓기마저 일상생활의 교양으로 자리한 후 귀족층 별주를 벗어나 지식인이라면 관심을 두고 짓고 외우며 도시에서 농촌에서 평범한 삶 중에도 읊조릴 풍류는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후의 서양문화 유입과 실학정신의 추종으로 인하여 서서히 근대사회, 산업발전화 시류에 의해 농경생활권까지 새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노비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양반문벌 제도와 미신숭배, 사치, 일 잘하기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대두되어 농경생활권의 지식층 문화생활은 위축되어 갔다. 일대 개혁사상의 주장이 대두되어 농경생활권의 지식층 문화생활은 위축되어 갔다. 개혁사상이 시대를 재촉하면서 빼앗긴 국토 되찾기의 애국심 등이 과거에 대한 비판정신으로 충일했고, 한문학에 의한 국학연구가 쇠잔해 갔다.

이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 지식층의 문화생활엔 대혼란이 야기되었다. 수천년 계승되던 한문학이 위축됨은 물론, 서구의 신문화가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아 가는 열기로 인하여 국학의 지식층 존립은 존폐기로에 이른 감마저 든 시기가 20세기 중반 이후의 한국문화 현상이 되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문학 연구와 번역사업의 침체현상이었다. 변모되는 시대 조류에서의 한학자 지식층 활동이 보수적 학자로 당대인들에게 외면 당하기 일쑤였다. 아무리 긴 역사속에 이룩한 업적이 많고 전해지는 국학분야의 전적이 대단하다 하여도 현실은 냉혹하여 서구적인 거센 바람으로 한학의 위축은 순식간에 꺼져갈 듯한 촛불

같았다.

현대사 1백년의 실재를 조명치 않더라도 그간 한국의 문화사는 안정기를 누리 지 못하여 왔다. 전반 반세기 동안의 외세 침탈과 일본의 감점 역사로 인하여 시련기의 처절함, 후반 반세기 또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기의 연속이 아려졌 미해결 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것'에의 애착은 불과 얼마전 부터의 관심이 었다. 이 땅에 뿌리내려 있는 분열의식과 분단 상황하의 역사 전개가 하나로 일체감을 주는 꽃가지가 자라날 때 비로소 이 시대의 정당함의 시비 판별은 각 영역에서 내려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문학이 중국을 모방하지 않아 옹혼·장막한 반면에 청아·권면(淸畵)으로 그 정감을 담은 특징을 평가한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1천여년 동안 수많은 전적속의 작품이 갖는 가치를 현대인들이 외면하지 못할 바라면 한국문학의 범주에서 한문학이아말로 그 자리매김이 계승되고 발전시켜 한글문학 못지 않게 한문학의 문인과 연구자료를 적극 연구작업에 포함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로, 『관고기회』 동인지 〈시집〉 3권에 대한 검토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성남시제 실시 20년 전후에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자료검토뿐만이 아니라 수록되어 있는 동인들의 작품번역 사업과 아울러 전체 130명 중에 줄곧 동참하고 작품을 수록해 놓은 18명 문사(文士)의 업적과 문학성과는 이미 평가되어졌어야 했다. 너무 늦은 시기에 이르러 자료가 찾아졌음도 천만 다행일 뿐으로 특히, 궁벽한 산촌의 농민들만이 살던 고장으로 일축했던 성남시 이전의 원주민에 대한 재평가 수정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78년판 〈성남시지〉나 82년판 〈성남시지〉 등에서 한 자 언급도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인하여, 문화예술계 또한, '관고기회'의 10여 년간 업적껏 활동 실적이 그 누구에게 의해 한번도 언급된 적 없이 '— 성남시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인공도시다./영성환 주거환경에 꼭적합은 인공도시./성남은 취업인구의 60%가 서울로 출근해 낮에는 서울시민, 밤에는 경기도민. —' 등으로 개발 이후의 도시화 면모만 소개

하여 품위와 한학의 식견 높은 문사(文士) 활동은 역사의 뒤쪽으로 묻혀질 뻔하였다.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문화 활동의 모습은 성남시 원주민 시경의 한시 창작에 관한 연구다. 새 물결이 물려 드는 시대에 살면서 오로지 농촌을 배경으로 결사(結社)한 60세 이상의 학덕(學德)있는 선비들의 한시 동인집을 중심으로 3권 속의 2,238수 작품 분석과 함께 결코, 성남시 일원의 원주민 사회는 궁벽한 촌락이 아니었음을 입증시키려는 데 있다.

한 두 사람의 몇 권 정도 작품집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력 있는 문화단체로서의 활동면모, 작품세계의 순수서정 등이 오히려 전국권의 큰 성과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농경문화권의 실체를 구질마다 풍겨주어 예전의 은둔 학자들의 시사(詩社) 경지를 본 받았지 않았나 싶을 뿐이다.

2) 한시(漢詩) 창작집 자료 소개 경위

오늘의 성남시는 남한산성의 서남쪽에 관할 지역을 말한다. '성남'이란 고장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여진 때는 1964년 3월 3일 광주군 중부면에서 성남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 분할·신생·통합의 과정을 거친 현 성남시는 광주군 중부면의 6개리, 돌마면의 11개리, 낙생면의 11개리, 대왕면의 10개리 일원이 통합된 곳으로 지금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지역이 여러 마을의 통·폐합과 분할로 형성된 곳이다. 64년 성남출장소는 광주군 직할로, 1971년 8월 1일자로 경기도 직할로 승격 조정된 지 2년 후, 법률 제2597호에 의해 『성남시』가 1973년 7월 1일 시제에 의해 도시가 되었다. 도시가 커가는 중에 부락명칭도 새로 지어진 예가 적지 않아, 1968년 5월 7일에 성남주택단지 경영사업 실시 인가 후에 원주민 생활터전이 급변했음은 물론, 마을 이름이 새로 만들어 통칭하는 큰 혼란속에서 '광주대단지'라는 속칭까지 생겼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4개 면사무소 관할의 부락명칭은 (리)에서 (동)으로 도시이름을 붙였고, 생소

한 동명(洞名)이 훨씬 많아지면서 해마다 인구 폭증의 거대도시로 변해 온 곳이다.

이 글의 연구 자료인 〈詩集〉이 발견된 시기는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1993년 4월초, 필자의 근무교에 홍사홍(1936~) 학교장 동문 후배인 권순주(1944~)에 의해서 안동권씨 안양궁과 35대손인 학교(鶴巢)권 五職(1900~1974)문사 소장 고서적 30여 권이 학교에 화사되면서 서지열람 도중에 발견되었다. 인수자 권순주 사장 자신도 판교기회(板橋耆老會)편의 〈시집〉이 성남시 이전 원주민들의 문학활동 한시 선집인 것만을 알았을 뿐, 향토문화의 귀한 자료임은 모르는 형편이었다. 다만, 자신의 조부인 학교의 손때가 묻은 고서를 관련 연구자에게 사심없이 인계하여 소용되는 고서적으로 이용되기만 바랬던 입장이었다.

이에 필자는 단 한 권이었던 인수 당시의 〈시집〉을 살피며 인계자 가족들과 몇 차례 대담도 나눈 후, 향토인물 연구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곧바로 분석 연구에 임했다. 한 편의 논문을 달고하여 후손에게 남기면서 때를 맞추어 『도시신문』 2171호 (93. 7. 5) 3면에 특종기사로 게재토록함으로써 성남문화재에 관심 거리 소식을 알린 셈이었다. 당시 신문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원주민 문학활동 자료 한시 작품 5백편 발굴

성남지역 원주민 사회에서도 활발한 문학활동이 있었다는 귀중한 향토자료가 시 승격 20년만에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시제(市制)실시 이전 광주군 대창면과 낙생면, 돌마면, 오포면, 그리고 용인군 일원리 구역 일원 한 학자들의 모임인 '판교기회'가 있었다는 자료가 최근 발견된 것. (중략) 〈시집〉1권 안에는 60년대의 한시 작품 574편이 수록되어 있다. (중략)

이번에 발굴된 향토자료는 성남시 개발이전의 열악한 문화환경을 보다 풍요롭게 채워준 한 가지 있는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발이전 당시 불모지는 농촌지역으로만 전해졌던 성남 방에도 옛 선비들의 한시 창작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신문 기사 중에는 권학교 문사를 중심으로 사진 및 자료의 증거가 곁들여 소개되었다. 그 후 필자는 판교기회 모임 장소, 관계인사와의 후손들 만나기에 힘쓰며 1권의 시집만을 출간하였을까 하는 의미심장으로 제차로 자료 찾기에 탐문

을 계속한 결과, 권순주 사장으로 부터 문중의 보학(譜學)관련 서적과 함께 나머지 두 권의 〈詩集〉을 또 찾아 내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관교기모회의 활동 기간, 참여 동인 파악과 작품 편수가 상당량에 이르므로 새삼 놀라운 생각이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3권의 한시집 발견이 더욱 상세한 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고, 주도자의 실상도 근거에 의해 신빙성 있게 규명할 만하였다. 그러므로 분석작업을 일단락지어 본고(本致)로 완성을 서두른 셈이다.

이 세 권의 한시집 발견으로 인하여 성남땅 이전의 원주민 생활권이 그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았던 농촌이면서도 지식층 원로들의 문화생활을 수준높게 할 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에 밀려난 광주군 일원의 향토문화 영역이 한층 더 뿌리 깊었던 데로 평가해야 옳았다 하겠다. 어쩌면 남한산성 서남쪽의 현 성남시 일원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위성도시요, 고저대 구릉으로 에워싼 산비탈 빈민촌대에 불과한 땅으로 누대에 걸쳐 오인될 뻔 하였다. 서울지역 편자 겸 철거민이 이주한 60년대 말 이후의 성남땅이 이 지역 전부의 모습으로 세인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자체부터 오늘날의 성남시를 모르는 흑평인 것이다. 급조된 도시건설 초기의 착오로 인하여 20년 가까운 시 역사가 오도되었으나 80년대말 이후 오늘날의 성남시는 그 어느 위성도시 못지 않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숙한 생활변화가 폭넓게 자리잡았다고 본다.

조용한 마을에 인정 넘치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농경문화의 생활터전이었던 사회로서 60년초 까지 문화영역이 다른 데 보다 앞섰던 곳이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식층이 부락마다 살아 미륵양숙과 자니교화, 부락발전과 향토에 정신, 예의범절과 충효애국심이 뛰어났던 마을들이었다. 검단산, 영장산을 마주보는 청계산과 국사봉 사이에 에워싸인 들과 냇물이 철따라 변화하면서 높고 낮은 산능선에는 어김없는 명재상 선조들의 표비석이 즐비하며 옛날의 서울 귀족의 명당지대로 손꼽히던 땅이 바로 현재의 성남시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세한 역사 고찰은 피하거나 우리 성남시아말로 각 시대마다 큰 역할을 떠맡아 온 고장이었다. 지금의 거대도시 성남땅만하더라도 고통받는 도회지 실태난

면들의 생활고를 이 땅, 이 자리에서 해결해 준 곳이 아닐 수 없다. 천조가 묻힌 선산을 빼앗기고 세석비갈을 타 지방으로 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 개발 당시의 원주민 심정을 생각더라도 오늘의 이 고장은 후덕한 인심과 시대적 아픔을 맞아들인 군자다운 원주민의 양보심이 묻힌 곳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정든 집터와 전답을 헐값에 넘겨준 원주민의 뼈아픈 인내심과 협조정신은 아무리 적은 숫자일 지 언정, 크게 선양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이 고장에서 품류도를 결한 몇 사람 문객(文客)이 중심으로 결사(結社)된 판교기로회 활동은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6, 70 이상의 덕망있고 학식있는 부락 어른들의 한시 문학단체가 몇 개 마을 노인들에 의해 움직여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성과를 믿을만 한 것이다. 특히, 참여 인원이 방대했고, 활동 기간과 성과가 만만치 않아 문화활동의 몰모지격으로만 인식했던 성남시 개발 이전의 토착민 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을 바랄 뿐이다. 오히려 만만치 않게 활동할 수 있었던 당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의 문학창작 수준이 오히려 더 보배로운 유산이라고 믿을 일인 것이다.

한시 (시집)고찰에 앞서 분명한 자료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큰 비딩들이 되도록 후대의 그 가치를 더욱 인정하면서, 형성했던 이 지방의 문화유산에 한층 값진 성과로 보아야 할 일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그 같은 문학활동은 흔하지 않았으며, 누대로 이어온 명유석학(名儒碩學)의 작품의 향기가 묻어남을 대하면 더 더욱 판교기로회와 (시집) 3권이 값지다고 하겠다.

2. 본 문

1) (詩集)문헌 분석

이 논고(論考)에서의 문헌 소개는 3권에 한정한다. 제1권 (詩集)은 판교기로회

(板橋耆老會) 권으로 출간되었지만 제2권과 3권의 동호인 명칭은 개명되어 한남 기로회(漢南耆老會)라 적혀 있음을 대비할 수 있다.

제1권 〈시집〉이 입수된 93년 4월 초, 단 한 권 뿐의 자료를 신문지상에 발표할 당시, 이 한 권이 전부가 아닌데도, 의아해 하면서 곧 서둘러 “하고 권오선의 한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후손측에 넘겼었다. 그후 자료분석과 같이 인물을 조망하였지만 재차로 입수된 제2권과 육필 초고본 제3권 〈詩集〉이 손에 잡히고부터 이 자료가 어느 한 사람에 치중될 일이 아니기에 아예 글 논제(論題)조차 바꿔 “성남 한시 동인 〈시집〉 고찰”이라 하게 된 것이다.

- (1) 〈시집〉 제1권 - 1967. 7. 25인쇄/발행자: 李元榮(서울 서대문구)
李圭善(경기 광주군)
교정자: 洪淳天(광주 동마면), 편집자: 鄭德和(용인 모현면)
발행소: 관교기로회(광주 낙생면 관교리)

서지적인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시집의 겉면은 흑색바탕이고 흰 종이에 책이름과 동인의 명칭을 별지로 붙였다. 세로 26센티×가로 19센티 규격의 총 160쪽 세로판형으로 고서의 체제를 본따 만들었고, 필사본 석판 인쇄로 제작된 이 한시 선집은 1965년 음력 3월 20일~1966년 9월 12일 즉, 1년 반 동안의 월례회 18차례의 동인 작품을 한데 묶어 책으로 만든 세로판형의 순한문본이었다.

안과 밖의 모든 글자가 필사한 글자로서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속표지 간지에 이어 당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이 원영과 광주군수 이 규선 두 사람의 사진이 소개되어졌다. 뒤이어 간지 한장에는 24명의 회원 사진이 배치되어 있고, 정오표까지 삽입되어졌다. 다음으로 서문(鄭元和), 발문(李元榮), 관교기로회기(會記 - 金明鎬) 그리고 회원 명단 66명분이 6쪽에 기재되어 있다. 아호, 본관, 출생연도 및 주소가 밝혀 있으며 회원 분포를 살펴보면, 낙생면 25명을 필두로 대왕면 7

명, 용인군 13명, 기타 지역으로 돌아보면 시흥과 그리고 서울시 거주자도 동참되었음을 살피게 된다.

제1회(乙巳) 3월 20일 첫 시작에 전춘아운(陳春雅韻)이라 명시된 모임에서는 17명의 작품인 7언 읍시체 한시가 일정한 압운자에 맞춰서 소개되기 시작했다. 제1권의 총 작품 574편은 18차례의 월례회와 4차례의 특별회 석상에서 공동 창작한 작품들이다. 모임 장소는 주로 판교리에서 개최했으나 특별 모임은 용인 송림서원 정몽주 사당, 수원 수휴정, 오폐면의 赫 基庵 회원 제사 주도일 등으로 장소를 옮긴 경우도 있었다.

앞에 밝힌 책뒤의 판권으로 보아 (시집)의 발행 제작비를 광주군수와 이원영 국회의원 협찬으로 만들어졌음을 추측케도 한다. 때와 마다 작품수가 15~34편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은 그때그때의 참석 회원수를 말하는 것으로써 지역 문화 동인들의 창작 움직임이 활발했음을 짐작케도 한다. 매월 한번도 거른 적이 없이 치밀하게 동호인 단체를 주도했던 회장 李德率(1893~?)외의 5~6명 실무자의 열성이 실로 대단했지 않았나 싶다.

서문을 쓴 정원화(1886~?), 발문에 이원영 그리고, 동인회기를 쓴 김명호(1887~?)는 서울이거나 인근 용인군 거주자였다. 왜, 이 세 사람들이 서·발문을 썼으며, 대표자인 회장 이덕령 옹은 3권의 시집에서 단 한 번도 책 발간문을 남지 않았을까가 궁금한 일이 된다. 서·발문에 나타난 동인활동상을 잠시 몇 구절 한글 번역 소개한다.

(前略) 운하 이동이한 이는(회장 이덕령을 가리킴) 연한의 명망있는 집안 사람인데,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사는 이다. 원래 사람을 모아 일하기에 모범적이고 집안 다스리기와 자기 일함에 있어 언제나 자랄할 일이 많다. 집안에서는 우애의 정이 두텁고 효행의 덕행을 베풀어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이며 칭송받음이 적지 않은 이로, 후세까지 그 덕행의 도가 더욱 새로와 전해질 것이다. 또한 시도(詩道)에 있어서도 오탁한 격식아래 음조(音調)마저 엄숙하고 경건되어 그 풍아함이 저 한 위(漢魏)에서 명청(明清)시대까지의 모든 작품에 박함이 없는 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면 읍조림이 깊이를 알으므로, 마치 잔 가지를 갈라 뿌리를 세워 넉넉함을 이루

었으며, 물을 거슬러 근원을 막아서 못알 좁은 길을 넓힌 것 같다.

이미 몸은 늙었으니 재물이 살 생각이 없고, 나혼자 고루해점을 싫어 하며 여럿이 함께하므로써 좋은 정만을 본받고자 단재를 결성하니, 원근의 여러 선비들이 기뻐하며 각기 회원되길 자필해 이문 것이다. 돌아보건대, 오늘날 이 세상의 상하권시가 못난한 중에 제 이미만 피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공적만 따지려 한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 모임이 만들어 깊은 밑씨부터 좋은 친구들을 서로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한다. 덕을 함양하고 심성을 재발하는 일이란 오직, 서만이 할 수 있으며 때로 시를 서로 주고 받으며 짓고 읊조림이 훌륭한 일 아닌가. 한편 답답할 때에도 은화함을 인도하기엔 오직 술기운만에 의지하게 되니, 자주 만나 서로 술잔을 권태가며 시도 짓고 자연 풍류에 묻힌다고 생각하면 이 모임에서의 자연탐승을 더 한층 보람으로 여기진다. 서로가 모여 같은 취미아래 세상사 흥망, 득실, 희비애락 모두를 시에 담아 즐겨 보니 마음은 넓어지고 자연이 더욱 아름다와 보여 느낌의 글 짓기가 더욱 세상에 알려지는 것 같을 뿐이리라. 그러므로 이 모임에서의 회원간 신뢰와 우애가 갈수록 두터워지므로 하여 시회(詩會)결성이 전작부터 있게 않았음을 후회하는 마음이 아닐 수 없다. □ 정원화 서문 : (下略) 김인학 해석 -

계속해서 이 원명의 발문을 옮긴다.

향약(鄕約)이 폐지된 후 향리의 선비 군자들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우의를 나누어 시 짓기로써 교제에 임하거나, 한 달에 한 차례씩 모여서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함이 광주말 관교에서의 한 모임이 그것이다.

내가 시짓기하므로써 도 담기를 살피 보건대, 마음속 혼을 단련하고 나타내거란 원성에 의지하므로써 비록, 술자리가 호탕하게 무르익는다는 처도 전혀, 난감하거나 참스럽지 않다. 더불어 자연속을 유유자적하기란 인생의 늙는 비애를 위로할 만하고, 또 시에 적절한 표현이 옛 사람 붓모 뒤따르기에 있다고 보아, 이 같은 모임이 후대까지 전하여 후손을 위함이 장차 보태스리운 옛 것 즐기는 일이나, 곧 덕으로 교화하는 데 일익을 하는 일이 인쇄작업의 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 진다.

- 김인학 해설 -

인용한 두 편의 서문과 발문을 통해 한시 동인 '관교기로회'(板橋耆老會)의 창립 취지와 활동 모습을 짐작할 만 한다.

원래 『기로소』란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신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왕과 조정원로의 친목·연회 등을 주관하였으며, 명조때 수직관 2명과 50여명 관직이 배치되기도 했었다. 대조 자신이 60세가 넘자 기사(耆社)를 설치한 후 6,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 관료를 선발하여 여기에 함께 동참했다. 군신 원로가

한데 어울려 시간을 보냈고, 태종때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로 개칭한 후 세종때 이르러 치사기로서(致仕耆老所)로 제도화시킨 명칭에서 약칭된 말이다. 그 후에는 자격제한을 두어 정2품 이상 70세가 넘는 문신에 한정시켜 '가로당상'으로 불려졌다.

가로소에 참여한 신하들은 한데 모여 임금의 탄일, 정조(正朝), 동지, 그리고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국사를 논하고 하례를 치뤄가며 왕의 자문에 응했던 일도 해냈다. 개국 이래 이에 참여한 왕은 태조, 숙종, 영조 등이고 최고령 문신으로 98세의 윤경(倫卿) 및 이구원(97세), 민형남(96세)이라고 기록되어 전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상의 기구명칭에 근거하여 걸쭉된 우리 고장의 60년 중반기 『관고기도회』는 그 활동 기간이 9년을 넘었다. 아울러 활동으로 창작된 한시 총 작품집도 3권 분량이 넘으므로써 전국 그 어느 지방에서 흔히 찾기 드문 방대한 성과를 후대일에 전하므로 하여 향토문화 예술계의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준 셈이다. 성남시라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지닌 개발 신흥도시로서 국민 인식이 되어 온 열악한 곳이다. 시제(市制)후도 불명예스러운 지역으로만 알려진 우리 고장에서 일찌기 개발 필현 이전부터 수준 높은 60세 이상의 원로 문사가 시 창작단체를 결사하여 알찬 문학을 3권의 시집에 남겨 놓았다는 일이 도무지 이해 안되는 문화유산으로 의아해 하기까지 했다.

번역된 인용문에서 살펴지는 향토 한시문학 단체의 의의야말로

- 덕을 함양하고 심성을 개발하는 일
- 이 모임에서의 자연탐승을 더한층 보람으로 여겨진다.
- 서로가 모여 같은 취미아래 세상사 흥망, 득실, 희비애락 모두를 시에 담아 즐기 보니 마음은 넓어지고 자연이 더욱 아름다와 보여
- 자연속을 유유자적하기란 인생의 늙는 비애를 위로함 만하고
- 이같은 모임이 후대까지 전하여 후손을 위함이 장차 보배스러운 옛 것 즐기는 일
- 덕으로 교화하는 데 일익을 하는 일

이라하여 시창작이야말로 덕을 함양하고 심성을 개발하는 일로 생각한 것이다. 향리 선비들의 문화생활 향유가 난감하지 않았음이 글 속에 기록되고 있거니와 우리 성남당 도시화 이전의 토착민 지식층 원로의 인격이 돋보일 뿐이다.

- (2) (시집) 제2권 - 1971. 6인쇄/발행자: 俞棋濤(서울 성동구)
 權五衡(광주군 대왕면)
 李德率(광주군 낙생면)
 교정자: 孫基鎬(광주 오폐면), 편집자: 鄭命洙(용인 수지구)
 발행소: 漢南耆老會(광주 낙생면 관교리)

서지적인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시집의 겉면은 황색바탕이고 책이름과 동인지 명칭이 제1권처럼 별지로 붙여 있지 않아 겉면에 그대로 표시되었다. 세로로 『漢南耆老會 詩集』이 명기된 두번째 시표는 세로 27센티×가로 19.7센티 규격의 총 286쪽 세로판형이다. 고서(古書)의 체제를 본따 만들었으며, 필사본 동사 인쇄로 제작된 이 한시 선집은 1966년 음력 10월 23일~1969년 9월 15일 즉, 2년 11개월 동안의 월례회 39차례 창작 한시를 한데 묶어 두번째의 책으로 만든 순한문본이었다.

안과 밖의 모든 글자가 동사 인쇄의 필사체로서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지도 없이 겉면에 이어 서문(序文), 발문이 4명에 의해 權五衡, 權五衡, 鄭鳳和, 孫基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원 명단 110명분이 10쪽에 기재되어 있다. 아호, 본관, 출생연도 및 주소가 밝히 있으며, 회원 분포를 살펴보면, 낙생면 22명을 필두로 들마면 12명, 오폐면 6명, 대왕면 4명, 서부면 1명 그리고, 용인군 14명과 기타지역으로 서울 6명, 시흥군 2명, 강원도 2명까지 동참되었음을 살펴게 된다. 이외에 주소불명의 회원도 37명이나 되고 있다.

제20회(丙午) 10월 23일 모임부터 동호인회 명칭이 변경되어 '漢南耆老會'라고 된 후 한남기회회 제20회 아문(雅韻)이라 명시된 모임에서 25명의 7언율시체

한시가 종전대로 압운자에 맞춰 게재되어 있다. 제2권의 총 작품 1,111편은 39차례의 월례회와 2차례의 특별모임 석상에서의 공동 창작품이다. 모임 장소는 주로 판교리였으나 때로는 회원들 회감연석과 백현고개 야유회, 낙생국민학교 교정, 용인 출판사 서원 등 비교적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여흥을 겸한 시회(詩會)활동을 하였음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서원(書院), 정자(亭子)를 찾아 당일의 시 제목과 압운자를 수도 서울과 금강산, 울릉이, 그네놀이, 추석 명절, 동지, 달고놀이 및 소동파의 적벽부 회상을 내걸며 시 창작을 공동으로 한 움직임은 후대의 문학예술인에게 좋은 표본이 된다고 보여 진다.

앞에서 밝힌 편지의 관권으로 미루어 두번째의 〈시집〉출간사업이 용이치 않았음을 짐작할 만하다. 입수된 세 권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필자는 제2권의 〈시집〉필사 원본(原本)을 동시에 비교할 때에 원본은 겉면에 “1969년 戊申, 한남기로회시집”이라 써어 있는데, 실제의 필사 등사본 〈시집〉의 출간이 71년 6월로 미루어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이 예정보다 늦게 작업이 완료되어 있다. 더구나 제1시집의 시집과 비교해 보아도 필사본 석판 인쇄가 아닌 등사판 인쇄 작업은 훨씬 뒤지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때 바다 작품수가 20~48편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이 월례회의 동인 참석 인원을 뜻하여 창립 초창기 보다 시회의 동인 활약은 증가되었으나 세정상의 힘겨움이 적지 않았음을 추측해 본다. 그 어느 달에도 거른 적 없이 모임이 추진되었음이 입증되어 주도적 문사 20여 명의 문학 열성은 대단하였다고 믿어지며, 현 성남시 인근지역이었던 시흥과 용인지방 원로 문사의 참여도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문 작성자 김명호(1887~)를 비롯하여 발문을 4명이나 참여시킨 점이 의아스러워진다. 권오선(1990~), 권오형(1900~) 쌍둥이 형제와 정봉화(?~?), 손기화(1900~) 그리고 판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장 이억령 외 주도자 여러 명의 한시문학 열정은 실로 젊은이 후대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동인활동의 실상이 드러 나고 있다. 이들의 거처가 모두 성남땅이 아니라 광주 땅 이의

의 용인과 서울에 거처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관교기로회에서 한남기로회로 회 명칭을 바꾼 의도가 있지 않을까? 서·발문에 나타난 주도자의 취지를 다시 한글 번역으로 소개한다.

〔前略〕모임을 가지는 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따져 과석을 정하고 언장자로 부터 아래에 까지 차례로 술잔을 따랐음은 인간의 근본을 잊지 않음이다. (中略) 지금 우리들은 어느 달이나 만나지 않은 달이 없으며, 간혹 한달에 두 번씩도 만났다. 최근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지 않으니 설로 탄식할 따름이다. (中略) 우리들이 월례회에서 운(韻)을 정해 시를 지어 읊조리고 술을 마셨거니 정과 흥이 극도에 달하였다. 하심담회로 정분을 나누고 정을 문자에 담는 일은 파리요, 등시에 사귀는 패적인 것이다. □ 김명호 서문 : (下略) - 허룡구 해석 -

계속하여 권오철의 발문을 발췌해 본다.

고상한 문화가 황폐해진 지 오래다. 향토의 군자들은 그 누군을 나설하지 않았던가. 용장(龍嶺 - 용인군과 광주군의 略稱)의 여러 선비들은 느끼는 바가 있어 시회를 창립하고 매월 한 차례씩 관교(榘橋)에서 시 짓는 모임을 시작하였다. 강변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길게 불기도 하고, 호르는 물가에서 시 짓기도 하면서 하루 만년의 시간을 보내며 지내왔다.

시집이 이미 한권 나온데 이어 다시 두번째 시집이 출간됨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下略) - 리동혁 해석 -

뒤이어 정봉화의 발문 일부를 또 인용한다.

옛사람들은 중국의 『시경』을 평하여 나쁜 생각이 없다 하였다. 지금 본인도 관교의 시집을 가리켜 나쁜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다. 『시경』은 풍속을 바로잡고 풍속을 고쳐왔는데 오늘날 세상의 풍속이 너무 변하여 요사한 기풍, 괴상한 습속들이 갈수록 성행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무심결에도 '말세야'라는 탄식을 하게 된다.

관교시사에는 고령의 선비와 초로의 선비들이 많아 이 여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 보려는 마음이 있으니 비풍양속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시(詩)란 뜻을 말하나 읊조리면 진·선·미 정감을 나타낼 수 있어 태평성세나 난세 시절이나 모두 풍속을 바로하는 시와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下略) - 리 상각 해석 -

서·발문에서 발췌 인용한 문장을 통해 관교기로회(한남기로회)의 향토문화 예

술의 전면목을 살피게 된다. 광주군과 용인·시흥 인근지역의 60~90세의 문사들은 뜻있게 모임을 지속하며 정신적으로 삶의 바른 길을 향해 힘썼던 이들이었다. 전통적 인륜이 붕괴되는 전환기 시대를 살며, 종래의 인습에서 애써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들의 평생 연대가 너무나 큰 변혁과 압당한 억압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로서는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물질 산업사회의 사회생활에는 열외자 위치에 머물 뿐이었기에 자신들이 익힌 향약과 인륜의 예절규범을 강조하는 한문학 영역에서 그 지식 범주를 뻗들며 노년기의 시간을 가꾼 선비 지조를 지키려 한 이들이었다고 본다.

덕성 함양과 심성계발 그리고, 인간의 근본을 애써 지키려 한 규범 실천이 시 창작 모임에서 굳이, 강조된 점으로도 판교기회회의 詩會 활동은 전통 한국 철학의 보루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지식층의 지조였다고 하겠다. 순 한문으로만 평생을 살고자 했던 이들 앞에 '한글 전용'이니 '산업개발 계획'등의 국책 공포는 구 지식인에게 있어 생존 가치성의 확립과 할 만하다. 그러므로 구 지식층 눈에는 새로운 서구의 물질산업 발전이 곧, 미봉양속을 지혜하는 타락해 가는 세상으로 밖에 인식될 리 없는 것이었다.

힘겹게 살면서도 높은 인격수양을 위한 한문학 탐구에 전 생애를 바친 구 지식층 눈앞에서 급격한 새 물질문화와 민주 개방의 젊은 세대 모습은 모두 다 타락의 징후요, 세상 말세의 증후로만 보이는 게 당연함이었다. 혼란한 당시 사회의 무질서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격을 수양하며, 예절을 실행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움에 의한 인간성 회복 등의 모두 옛 성현 공자·맹자·석가·노자·장자의 가르침인 동양철학의 근간일진대, 이와같은 인간 지혜를 애써 시문학 속에서 찾고자 한 향토 속 기심 명의 문사들 정신이 이 시대앞에서도 편시될 리 없지 않는가? 이에 필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력으로 한 구절 한 편의 한시를 지어 책으로 엮은 판교기회회의 이 고정 선대 문사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尹絲淳 고려대 교수의 "인간성 옹호의 역사를 알아 온 미래지향 철학"의 말미에서 한 논지를 감시 옮겨 본다.

사실 건실한 개인과 성숙한 인격형성 없이 건전한 사회의 형성이 불가능함을 고려하면, 우리는 우선 불가(佛家)의 저해부터 해워야겠다. 현대가 새로운 윤리관을 필요로 하는 혼돈의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인간 관계의 심리적 연결을 고안한 유가(儒家)의 발상 역시 새롭게 윤리할 가치가 있다. 근대 서구의 기계적, 불가치적 자연관이 인류와 그 삶의 터전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이 또한 현대의 고면이고 보면, 도가의 자연철학 역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

더욱이 지성의 역사가 곧 인간 내지 인간성 옹호의 역사, 즉 인간과 인간성을 속박하는 모든 조건으로 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사라면, 분양철학의 특성은 그대로 지성사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분양철학이 미래를 지향하는 철학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그 특성이 지성사의 정신과 부합하는 데 있다.

— 고대선문 : 94. 1. 1차 10면에서 —

그 어떤 이유에서건 60년대 중반기의 태동을 보인 이 고장 토착민 속의 관교(한남)시사 동인들의 한시 창작 성과는 향토문화의 보존 차원에서도 마땅히 재평가하는 작업과 아울러 2천 편 이상의 작품 해석이 성남시 문화연구의 한 사업으로 해 나가야 옳다고 보는 것이다.

- (3) 〈시집〉 제3권 - 1974. 5 예정/발행자 : 李德寧(성남시 하산운리)
李源會(수원시 세류2동)
權五衡(성남시 금토동)
교정자 : 李炯德(성남시 대왕리), 편집자 : 韓百優(성남시 율리)/발행소 : 한남기교회(성남시 판교리)

서지적 자료 소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3권제의 〈시집〉은 필사 인쇄로 출간되지 못한 필사 초고 원본이므로 시책(詩冊)으로 취급하기엔 무리가 없지 않다. 다만, 한 동인단체가 여러 해 활동한 근거가 확실하고 그 후속 사업으로 미완성인 점은 응당, 재정상의 곤란이 없었던들이 3집도 출간되었을 것으로 보아 정리함을 천언해 둔다.

시집 권면은 두꺼운 황색지에 초고 가제본이어서 책이름과 동인회 명칭이 별지로 붙어있으나 낙장 상태다. 세로 27센티×가로 20센티 규격의 총 151쪽 세로

관형으로 제1~2권과 같은 체제로 만들고자 한 초고 가제본이다. 여기에는 1971년 윤 5월 18일~1973년 1월 20일 즉, 1년 8개월 동안의 월례회 33차례의 동인 작품을 정리시켜 책 만들 준비를 했던 초고 원고철이다. 한 가지 제3권의 초고 시책을 검토하면 나타나는 누락기간의 문제와 필제가 붓글씨가 아니고 편 글씨로 만들어진 책이다. 차례는 겉면 다음의 속장이 없이 곧바로 서문(權五衡), 발문에 2명으로(李殷世, 鄭主樸)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인 명단 53명분이 5쪽에 기재되어 있고, 성명, 아호, 본관, 출생연도 및 주소가 밝혀 있으며, 회원분포를 보면 당시에 이미 성남출장소에서 성남시로 승격된 때로 성남시내의 낙생, 대왕, 호포, 경자, 여수, 율동을 합쳐 22명, 그 외에 용인과 시흥 그리고 수원에 5명이며 나머지 회원은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채 31명은 명단 기재만 되어 있다.

제78회(辛亥) 윤 5월 18일 모임에 야운(雅韻)이라 명시된 가운데 고작 5편의 7언 읍사체 한시가 있을 따름이다. 제3권의 총 553 편은 33차례의 월례회와 2차례의 특별 모임에서 지어진 작품이었다. 냇가 전염 장소가 이동되었을 뿐이다. 대체로 판교리를 중심으로 월 모임 시회는 진행되어졌다. 제2권 〈시집〉과 제3권 초고 〈시집〉을 검토하면 이 사이에 또 한 권의 시집이 초고로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2권 시집 맨끝이 57차 월례회(1969. 9. 15)였으나 제3권 시집 첫 시작이 58차가 아니라 78차(1971. 5)로서 무려 20회 분량의 작품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1년 반치의 월례모임 작품이 빠진 점으로 〈시집〉의 초고본이 후손의 보존 소홀로 잃어버렸거나 자료가 미처 발간되어지지 않았다는 실증이 가해된다.

제1~2권의 〈시집〉 작품과는 달리 제3권 초고본 〈시집〉안의 작품은 비교적 양이 많지를 않다. 기껏해야 30편 이내로써 많은 회원이 도시화로 거처 이동의 변화가 많은 가운데 창립 당시의 상당수 회원이 이전, 활동불능 및 사망 등의 이유로 불 일이다. 결국, 열성 회원이 서서히 빠져 나가게 되고 지역 환경의 대변화가 생기므로 하여 조용했던 농촌지방이 몇달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커지는 위성 도시화로 인하여 판교기로회가 한남기로회라 개칭을 하는 일로도 별

전되어 가지 못했을 적하다. 그리고 제3권 〈시집〉도 2집처럼 겉면에는 1971년도 신해(辛亥)라 되어 있으나 해를 거듭할 수록 뜻대로 추진되질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더구나 한시 문학의 동인활동의 위축에 더 큰 원인이 각급학교에서의 한자 교육 철폐로 인하여 젊은 층 세대에 이르러 한시 창작은 몇몇 특수 의도로 전공을 열두에 두지 않고는 예전같이 한문학의 미래는 암담한 위축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남기روه 뿐만이 아니라 전국 향교와 사당이 문을 닫는 시대 추세에 따라 80년대 이전까지의 국내 한문학계는 실낱같은 운명의 사할길로 접어든 격이었다.

서문을 쓴 권오형(1900~)을 위시하여 발문 작성의 이온세(1908~)와 정규관(1897~)도 그들 거처는 자기 달랐다. 권은 성남시 금도동이 주소며, 이는 식흥군, 정은 광주군 돌마면으로 그들의 연령 또한 6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노령의 문사였으니 젊은 이의 참여가 전무한 고답적인 시풍의 시사(詩社)에 큰 발진은 힘겨웠으며, 시대여건과 향토의 여건마저 대형 도시로 탈바꿈하여 모처럼 결사되어 운영되던 이 지역의 한시문학 동인체는 스스로 그 숨소리를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서·발문에 밝혀진 동인의 활동 상황 및 구절을 한글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前略) 지금 우리는 한 고장에 살면서 끊임없이 모여 한 시사(詩社)를 창립하였으니 그 이름이 다름아닌 한남시사(漢南詩社)다. 그 위지는 산수가 빼어나고 준결한 인물들이 많은 고장이라 여겨, 아름답지 않으랴! (中略) 황산(香山)의 옛일을 본받아 구로(九老)로 동인회를 모으니 모임은 대달 중순경으로. 모임 순서는 나이에 따라 번갈아 가며 약간의 회비로 운영해 왔다. 한 자리에서 술을 권해도 서로 취하여 곤드레만드레하거나 실없는 광란을 하지 않았다. 각기 시 한 수씩 지어 흥취를 한없이 얻으며, 감정 토로에 극치로 즐거움이 대단하였다. □ 권오형 서문 : (中略) — 리동희 해석 —

계속해서 정규관의 발문을 옮긴다.

옛시에는 말위에서 한식(寒食)을 만난다는 구절이 있는데 수십, 수백 년 이래 비록 북동이나 초동이라 하더라도 그 구절을 외우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뜻을 모르

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 옛날의 그 시 구절을 책으로 만들어 출간지 않았더라면 그 시편이 어찌 오늘에 까지 전할 리 있겠는가? 또한 옛 성인 군자들의 정서문장과 현인(賢人)들의 전기문(傳記文)이 어찌, 수천 년을 내려왔겠으며, 한(漢), 당(唐), 송(宋) 이래 문장 대가의 명문이 지금까지 전해지랴!

1965년 봄에 한남(漢南 - 여기서는 광주와 용인 일원을 의미함)의 많은 선비들이 발기(發起)해서 기로회를 설립한 후 때때로 한 차례씩 모여 한시 한 편씩을 지었으니, 벼룩 독자를 감탄시키는 명구(名句)는 없었지만이나 바람과 달을 노래하기는 족하였다. 더불어 조동박을 기울려 술을 따르기도 하였으니, 李靑蓮의 3백 권이면 족히 취하여 깨어나기 싫다는 때는 비길 수가 없었으나 노래하고 춤추며 바둑도 두니 이에 자연, 경향(京鄕)의 여러 선비들과 강호의 문객(文客)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기가 어언 9년이 되었다. 이 긴 세월의 사회(詩會)활동은 고급을 살피도 흔하지 않았던 훌륭한 일이며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中略) 동방의 명승지가 모두 이 시회에 담겨있어 반드시 훗날 거울이 되리라 믿는다. 지나간 9년 동안 우리 기로회 회원들이 전심으로 함양한 일해 감사하며, 그동안 지출 경비도 수만 원에 달했다 하니 실로 놀랍고도 칭찬할 만한 일이었지 않았나 한다.

- 리살과 해석 -

인용한 두 편의 서·발문으로 미루어 관교(한남) 기로회의 지난 9년 동안 활동상이 좀 더 상세하게 드러난다. 상기 인용문 중에 누락된 부분에서는 시집 1권부터의 출간 사정도 적혀 있다.

정미년 을축(67년)에 정부에서 도와 준 자금으로 여러 선비들의 시집이 많이 발간되어 한남 강호 선비들에게 증정되었다. 또 신해년 유월(71년)에 두번째 시집이 발간되어 첫 시집과 마찬가지로 처리된 바 있다. 그리고 계축년(73년)에 용안 권선생(권오형, 1900~)이 주관하여 세번째 시집이 발간되니 이 하니 아름다운 일 이언가. - 정규환 발문 중 -

이 부분으로 하여 세 권 동안의 한시집의 지난 경위를 알게 되었다. 제1집의 출간이 광주군 문화발전 특별예산으로 만들어졌음이 추측이 아닌 사실이었다. 뒤이은 제2집 출간은 빈약한 자체경비로 만들었으므로 제1집 보다 그 시집 모습이 더 나아지질 않은 것이다. 그리고 3집 추세가 월채일로를 눈앞에 둔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끝내, 시집의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필사 초고가 발견되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관교기로회〈시집〉제1집을 위시하여 한남기로회 제2집〈시집〉과 편

사 초고본 제3집〈시집〉모두들 서지적인 면에서 과악하였다. 한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 용인·시흥 인근의 한학자 모임에서 농촌이면서도 다른 도시 못지 않게 문화환경을 조성한 실로 험거운 활동을 한 이 향토자료의 발굴과 연구 분석은 성남시 문화에 있어 충격인 동시에 가치있는 작업이라고 보여 진다. 활동 시작 후 9년 이상 한 달도 거르지 않으며, 월례회를 가져 110회가 넘는 모임에서 찬석 회원이 각자 매월 1편의 7언 율시 한시를 창작한 총 2,238편의 시 작품이야말로 향토 문학사에서 빠질 수 없는 활동 자취임을 부인 못할 창작 활동인테 반하여 하물며, 엄격한 한시 창작 원리에 기초한 율시체 시 짓기란 한학에 조예는 두말할 여지도 없이 수준 높은 선비 기질, 자연과 인생의 관조, 미학적 식견이 전성적으로 없는 이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지식층의 문화생활 업적이라고 본다.

1집 첫 시집에 참여했던 회원 문사(文士)수를 집계해 보면 66명에 이른다. 그러나 9년 동안 활동 중에 빠지고 새로 입회하여 3권 속에 시종 참여한 선비는 20명일 뿐, 110명에 이르렀던 제2집 당시의 선비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할 수는 없었음이 밝혀진다. 이에 시종 일관하게 작품이 수록된 주도적 인물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안은 출생연도 및 아호임.

김광동(雲菴 1911~)	권영복(雲岡 1891~)
권오규(默齋 1899~)	권오선(鶴泉 1900~)
권오형(聶岩 1900~)	박창서 ?
손기호(愚雲 1900~)	이억령(雲下 1893~)
이규환(松雲 1907~)	이원협(雲山 1900~)
이원희(松溪 1905~)	이병덕(陵雲 1901~)
이은세(養浩 1910~)	오덕환(蕉庭 ?)
이의열(松○ 1910~)	정규관(堤陰 1897~)
정규명(雲樞 1903~)	정명수(東園 1894~)
정덕화(松石 1906~)	홍우길(松亨 1898~)

이들 20명 외에도 두 권의 집에 참여한 회원도 33명으로 그 명단만 밝혀 둔다.

김명호	김세현	김덕현	김원명	김창현	빈주석	박인명
윤홍섭	윤호섭	이용원	이장훈	이석규	이만용	이덕규
오진환	윤병규	이원기	이규창	이정미	양기환	이완구
이석재	윤희근	정원화	정연능	전재하	최병권	한문원
한백우	홍순천	홍순일	황병덕	박창서		

이상 집계된 한시 문사들은 비교적 (시집) 출간과 모임에서도 중심인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동인회기(同人會記)의 필자도 이 중에서 전담하였음을 살피게 되며, 모임 때마다 몇 차례 정도나 누락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작품이 모두 이들의 창작품임을 확인케 되기에 위의 열거한 문사들이 한교기회회의 주도적 회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과 무관한 이야기이긴 하나 한국문화속에 한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학자에 따라서 왜소하게 취급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도 없지 않으나, 각 방면의 회귀 문서와 문화생활의 자취를 더듬을 때마다 적어도 한자문화권의 영향은 싹로 그 어느 학문에서나 생활에서 콕소평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현대 생활 안에서도 한자의 켜켜론은 말처럼 쉽지 않아 주장에 무리가 있는 일도 생각해 본다.

학문하는 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에게서 한문자 철폐를 강요한다면 몇 사람이나 이 주장에 따를 이가 있을까도 생각할 때에 앞으로 한문의 완전 철폐는 먼 후일까지의 장기적인 언어 변혁이 없지 않고서는 한국의 역사 위에 사라지게 한다는 일이 무모할 밖에 없다고 믿는다. 언어정책에 있어 한·반입장을 떠나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한글 전용만의 생각은 시기 상조이거나 이론을 위한 공허한 주장밖에 남되는 것 같다.

더구나 세계속의 한국을 여러모로 생각한다면 영어를 외면할 수 없듯이 아세아권에서의 한국문화 탐구와 발전에 있어 한문학 전반을 우리 나라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학문하는 이나 문화예술 기타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한문자 이해는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한문학의 외면은 기피할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영어와 한자권의 언어를 모르고 앞으로 21세기를 살아 나갈 때에 문명, 언

이 문명자로 전락하기 심상이다.

관교(한남)기초회의 주도적인 문사(文士)와 중심적 문사들이 누구였다는 위에서 짐작하였거니와 다음에 작품 세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분량이 방대하여 전체를 살펴 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주도적이거나 중심적 문사들의 50여명 작품을 예시 분석한다는 것도 지면 관계상 곤란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극히 제한된 10여 편의 시 작품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본고(本考)를 마칠까 한다.

이억령, 권오형, 이원협, 이병덕, 손기호, 정규찬, 한문원, 권오선 이상 8명 문사의 작품 한 편을 무작위 발췌하여 성남시 한학의 제1인자인 권오호(權五虎, 1930~) 교수 국역으로 작품 세계를 밝혀 두려고 한다. 한남(漢南) 권 교수의 전력(前歷)을 소개하자면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자로서 성균관 전학과 교학위원을 거쳐 『한국민족 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집필위원인 성남인이시다. 한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향토 문사들의 모든 한시 창작품을 집도 연구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시 작품을 수없이 창작해온 분의 직접 풀이에 의해 우리 성남시의 향토문학 뿌리를 살림에 있어 틀림없는 길을 알 수가 있다.

2) 몇 작품을 통해 본 시 세계

- ① 人心愈易道心微 是是非非必正歸 從俗惟宜當世事 空然未改舊時衣
旱餘喜雨成湯葛 軸上揮筆義體飛 碩儒文章團會地 使吾緋書寂踈稀

(풀이)

사람의 마음은 위태로와 도덕의 생각은 미묘하니
옳고 그름이야 만드시 바르게 되돌려지는 것을
풍속을 따르는 건 세상 일에 합당함이거늘
공언하게 옛 풍속 고치지 못하니라
가을 길에 기쁜 피내임이야 은나라 탕왕을 생각해보고

224 성남 漢詩 同人(詩集)자료 고찰

글짓는 종이에 글씨가 찢히지 않게끔 앞서 낚듯 싶어
큰 선비들의 문장력이 다 모여든 곳이어니
문득, 내 적막하고 서툰 시를 이따금 셋째 되었도다.
□ 李德寧 글, 을사년 7월(4회), 판교 모임에서

② 爲人性癖耽詩佳 從此吾遊洛水涯 收穀已闌經歲稔 取糧又貯過冬薪
與君一片心相照 使我萬端愁可排 借問老曹何所樂 晚來此樸莫相棄

〈풀이〉

사람 성품이 좋은 짓귀 즐기하는 병이 있어
이제 나는 낙강가에 찾아 가려하네
거둔 곡식 저장하여 한 해 먹을 알식있고
떨 나무 할아 두니 겨울은 지날꺼며
그대와 함께 마음 한 자락 서로 비워 보리니
나로하여 만단 근심 풀리치게나
분거니, 늙어감에 즐거움이 그 무엇이라
늙게라도 결성한 이 시 모임 깨지나 말고지라.
□ 權五衡 글, 을사년 11월(8회), 판교 모임에서

인용한 예각 두 편의 한시는 모두가 1965년도, 판교기포회 시사(詩社)결성 첫째의 작품이다. 문화예술의 동호인 모임 역사는 우리나라만의 사실을 떠나 각국의 역사에 등장되는 친교단체라 보는 것이다. 친교 모임이되 평범한 친교의 수준을 벗어나 훨씬 활동 영역이 확실하게 전문적이므로 하여 역사상 후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학구적인 성과를 남긴 점이 돋보인다.

운하(雲下) 이억령의 위치는 판교기포회 대표자로서 기포회 창립을 뜻깊게 여겼다. 그의 작품 앞부분에서는 사람의 밭도에 진리는 변하기 어렵겠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풍속이야 왜,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위항

이 같은 이들의 동호인(同好人) 만남에서 누리는 기쁨은 제일 으뜸이라고 하는 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판교기로회 결성으로 배달 만나는 반촌 선비들의 기쁜 정감이 노년기 생활에 그대로 벗어나서 드러내는 감이론다.

용암(靈岩) 권오행의 글에도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동호인의 운영 실무자로서 참여한 그의 작품 전반부에는 농촌의 자기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시 짓고 감상하는 원성을 버리지 못하는 스스로의 선비 풍류를 엿볼 수 있다. 늙어진 문객(文客)들 끼리 결사(結社)한 판교기로회 모임이야말로 잡다한 세상의 근심, 인성의 단식을 떨칠 만한 좋은 만남의 자리였음이 글 속에 담겨 있다.

시대와 환경은 같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 사상의 지난 역사속에서 이들과 같은 유파 형성은 수없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풍월을 시로 지어 노래한 께리끼리의 선비 모임은 선대에 많았다. 오늘날에도 각 분야의 뜻이 맞고 취미가 같은 이들간의 동호인 활동은 더욱 세분화되어 생활 중에 여가선용을 하며 삶을 누려 간다.

③ 九節杖頭脫掛衫 詩朋舉集酒朋咸 風霜以後獨存栢 樸莽之中自立衫
過去三宵前七夕 倘來牛女淚餘雪 斜陽被酒欄干下 雲末青山半是岩

(풀이)

구절 지팡이에 적삼 벗어 걸으며
시 즐기는 벗들과 술잔 즐기는 벗 모두 모였구나,
서리 내리도 잣나무 푸른 일새 언제나 파랗고
가시밭 속에서도 삼대는 홀로 우뚝 지관다네,
삼일 전날이 칠월 칠석날이거늘
아저도 견우적녀의 눈물이 비를 뿌려
저녁 햇빛 바라보며 술들고 난간에 누워 보니
구름 끝에 청산이 절반쯤은 바위로구나.

□ 李源協 글, 정미년 7월(29회), 한남 모임에서

- [4] 漢南詩席與君偕 黑氣書香韻致佳 遠天錦雁驚鄉夢 靜夜寒砧感客懷
風前落葉莊山望 雨後青苔潤石階 盡日共遊分手地 把衫更向杏花街

(풀이)

한강 남쪽의 시 모임에서 흥을 그대와 함께 하고
먹 냄새 글씨의 향내로 운치 더욱 즐거웠도다
먼데 하늘로 날아가는 기러기때에 고향 생각 그리워라
고요한 밤의 다듬이 소리 나그네 마음 더욱 쓸쓸하네
바람소리로 떨어진 잎들은 산골짜기에 떨어어
비온 뒤의 푸른 이끼로 돌계단 부풀어지니
온 종일 함께 놀아 서로 헤어지며
또다시 소매맡아 슬픔을 찾는구나.

□ 李炳德 글, 신해년 8월(81회), 한남 모임에서

편 처음의 인용한 두 편 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작품이다. 판교기로회였다가 동호인의 단체명칭을 한남기로회로 바꾼 이들의 활동에는 회원의 수가 성남시 일원으로 제한하였다가 그 폭을 넓힌 것으로 인하여 동호인수가 증가한 만큼 작품의 질양면에 큰 발전은 찾아 보기 힘들다. 다만, 시 세계가 지역 안의 제재로 한정되지 않았고, 활동 중에서 시 짓기의 제목 정하고 운달기에도 범위를 넓힌 점이 있어 다소 발전적인 면도 보이긴 하나 원로의 시 세계에 새로운 변모는 없어 보였다.

운산(雲山) 이 원협의 작품은 다소 산만한 듯 여겨지나 3~4행의 의기는 뼈마디 굳센 듯 힘이 있다. 시 짓고 술잔 나누며 즐거운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노년기의 생활이야말로 그 누구 보다 활기찬 식자층 만이 누릴 행복감이라고

하겠다. 서리 내려도 굽히지 않는 잣나무, 감목 감초 가운데도 꽃꽂한 삼대 줄기의 지조가 바로 옛 은둔 선비들의 정신이라고 할 때에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손짓이고 목소리인 것이다. 구름에 가려진 청산이라든가 해질녘 산속의 바위나 달빛 그 풍경 묘사가 곧, 실제의 자연이 아닌 깊은 마을에 도사린 그 본연의 외제인 까닭은 우리 곁에 항상 잊혀지는 선대들의 명작들에서 자주 대하는 경향이였다.

농운(農雲) 이병덕의 글에서는 재치가 담긴 구절, 향수에 농익은 사상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시킨다. 절대 가작의 수준을 유지한 작품 곳곳에 언어 선택 또한, 남들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도 스스로 원숙한 시 세계를 확보한 셈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정감 넘치는 요소만 골라 미적 승화로 일체감을 얻게 창작한 한시 작품이었다. 시대는 이미 쇠잔기로 접어들어 한시문학이 천시되었건만 성남땅 낙생면의 청계산 바람은 문화의 묵은 땅 흙냄새처럼 풍겨 향토적 정서에 보탬을 주기에 족하다. 시사성이 없는 대신에 자연과 인간의 합일감을 정착있게 그려 준 시 세계에 한국문학 일면을 대하는 듯 싶다.

세계는 나날이 가까와 오고 있다. 우리의 태도가 국수주의에 빠져들 틈도 주지 않고 세계문화는 우리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朴尙福 유네스코 대사의 “세계문화를 효유하자”라는 시론(時論) 일부를 소개하자면,

1백년전 개화의 물결이 우리 한반도에 밀려 왔을 때, 우리는 패국주의와 사대주의의 갈림길에서 헤매다가 나라를 잃었다. 그런 의미에서 패국주의와 사대주의 간의 갈등을 변증법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국제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국제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중략)

국제적 수준의 삶을 영위한다함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화 수준에 맞는 생활을 영위함을 말한다. 이 일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첫째, 외국어를 알아야 하고 둘째, 외국과 한국문화의 공통점을 찾아야 하며 셋째, 외국을 두루 여행하도록 하고 넷째, 타국의 전반적인 연구가 체계성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섯째, 국제 협상의 진행자인 전문가 양성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 : 94. 1. 17자 5면에서 —

역사상 최근의 국제간 변화처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때는 흔치 않다고 본다. 1993년말의 UR협상의 타결과 더불어 밀려 오는 한국쌀 개방 시대는 경제만의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멀고 가까운 나라가 따로 없이 전세계 국가간의 교역이 상호 수용 컴복되는 21세기를 앞둔 열린세상으로 달려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내 것만에 집착하기는 어려운 시대다. 각 나라의 문화권 특히, 과거 수천 년 동안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던져 온 아세아 대륙의 중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자세로 안주하기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아직도 국역되지 못한 수많은 고전의 한글화 작업과 연구,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우리 것으로의 수용자세는 보다 적극성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 지역의 문화 보호면에서도 사방에 흩어진 선조들의 기록과 요지 비갈의 해독 및 연구, 관교기교회의 (시집) 번역사업으로 성남 문화 연구에 기틀을 다져 보는 일에도 내 고장 뿌리 찾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수집된 자료 마저 등한시한다면, 공면히 자료 찾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5 背山臨水此幽居 何待柴門係馬車 桑麻天黍三農業 梅竹松蘭四友墟
兒傳舊裡新釀酒 況復前溪得鯪魚 與世多遠還守拙 漁人無術且書書

(풀이)

산도 등진 물가에 숨어 살며 한가로우니
어찌, 가시나무 문앞으로 마차 널 낚을 기다릴까?
누에, 삼, 벼. 가장 가꾸기는 농부의 할 일이며
매화, 대나무, 술, 난초 기르기 알맞은 터전인 것을
아직들 새로 밧은 술 향아리에서 떠 오네
또한 앞시냇가 미꾸라지도 옮겨왔구나
세상 이치와는 이곳나도 서툰 도리 지극하며
사람 도를 길 없이 책만 뒤적여 지내니라.

□ 張基鎬 글, 을사년 8월(5회), 판교 모임에서

[6] 紅葉黃花獨見孤 常尋好友酒相沽 時期緊迫無閒客 世俗均平豈宥奴
織柳黃鸝難織錦 耕沙白鷺不耕塗 飲咏然後斜陽路 散會亂節排若圖

(풀이)

붉은 단풍 노란 국화가 쓸쓸히 피었는데
항시 찾아 온 친구는 술까지 사오고 있네
농사에 바쁜 시절 한가한 손님 없고
세상 불쌍 평등하니 어찌 하인 있으랴
비둘기 짝도 비단 짚 리 없으며
모래밭 파헤칠 백로라도 진흙은 못 갈아 내네
술 마시고 시지어 노래한 후 해질녘 길에 오면
헤어진 뒤 내 지팡이가 그릴 그리듯 휘청이네.

□ 鄭圭燦 글, 을사년 9월(6회), 판교 만남에서 -

우운(愚雲) 손기호의 시 세계야말로 온둔처사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표현한 전 원풍의 서정시다. 도시를 인정했으면서 굳이 현대 문물에 겁이 들지 않은 채 현실에 분수를 지키며 여가있는 때면 공명자 삼강오륜의 이치를 살피면서 향촌의 아름다운 산수화를 노래한 옛 그대로의 향촌 어른이고자 했으리라. 꾸밈없이 자신의 목청을 글로 읽어 끈기와 열정을 후대에게 전하려 했던 이들의 인생살이가 부러울기까지 하다. 한낱, 한문자에 의해 꾸민 작품이라는 것 그것이 시대와 동떨어진 행위일 뿐이다. 풀이해 보면 중국의 맛이 아니라 반도 땅 내륙지역 훈남새 나는 작품을 지녀, 고전이되 현대화하여 향토문학의 전신으로서 답할 만 하지 않은가?

세상 이치와는 어긋나도 서분 도리 지켜가며

사람 도울 길 없이 폭만 뒤적여 지내니라

하는 7~8행의 생활 의지가 성남시 분당구의 거대 신도시 인근지역 선비의 생각이었음이 오늘날의 신세대인에 찬사를 받을 날이 오게될 때 이 시대의 절서는 선진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직업은 농업이되 학자로서 또는, 문인으로서 그의 정신이 건실하여 경외감 마저 든다.

제음(堤陰) 정규환 향토 문사(文士)의 글 전반부는 친근한 벗과의 훈훈함이 드러나있다. 결실의 가을철에 찾아 온 벗의 우정이 돈독함에 예전부터의 인륜 풍습 파괴를 현실로 보아야하는 회의 아닌 회고풍이 서려있다. 오로지 이 고장에서 태어나고 살아 온 이가 본 세대풍습을 누군들 막을리 있었을까마는 세월과 더불어 끝까지 향토를 지켜가며 자연의 순박한 모습대로 글 짓고 노래하며 안분지족 삶을 누린 이들이 바로, 성남땅의 선대였다. 아니, 우리의 한 세대 이전 이 나라 백성들 대부분의 삶이 그러했지 않은가? 칠순을 눈앞에 둔 전원의 백발 노객(老客)이 창작한 시 세계에서 삼상하고 예민한 서정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순 없다. 오히려, 인생의 중후함과 진리를 터득한 철학자의 사상이 도처에 숨겨들어 있음이 작자의 연치 수준을 타인알며 진실로 보인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이 판교(한남) 기로회의 참여 동호인 작품 속에는 한결같이 신·구 세대간의 이해 못할 인간 절서 혼란상의 목소리가 깔려있다. 아울러 향토의 아름다운 자연 풍치를 찬탄하고 늙음에의 탄식이 별로 없이 친구와의 만남과 동호인들의 우정을 진실성있게 표출시킨 공통점이 작품 구절 마다 묘사되고 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지역에서도 꿈같은 인생살이를 적어도 20~30여 년전에 이 마을 저 산골 마을에선 이웃과 벗들과 위아래 모두 인정스러운 마음들로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기로회 한 고장 사람들의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셈이다.

[7] 年過半百更何求 當使酒詩到處留 可憐白髮計千歲 最喜良朋同一樓

雖無綠竹苔中節 想必漢南最上頭 從古錢春宜秉燭 諸君休道夕陽流

〈풀이〉

어연 반백년 지난 나이 어디서도 못찾고
즐거는 시와 술은 때서제서 날 만기네
서글픈 이 백발 천년 해어도 말 못하리
즐거운 내 벗들과 더불어 높은 누에 올라
푸른 대숲 속 저조를 익히면
떠오르는 생각이 성남 최고와 이 곳을
예전부터 봄날 즐기기를 좇을 맘에 지냈거니
어리 빛과 같이 저녁 노을 살펴 보네.

□ 韓文源 글, 을사년 3월(1회), 판교 첫모임에서 -

- ⑧ 曄日長經焉得求 東皇催駕挽難留 因憫夜遊當秉燭 歡爲春錢更登樓
鳥歸亦作青山客 人老徒增白髮頭 踏盡落花仍折柳 快能自講好風流

〈풀이〉

어찌하면 저 해를 멈출거나
봄 손님 빠른 길을 멈출 수 없네
웃을 돌래 밤 그윽토록 놀며 즐기는데
또 한번 정자 올라 봄절을 즐기함이어
산새들 푸른 농산 수를 찾아 들고
인생은 어김없이 백발이 날릴 뿐이네
넷가 벼들 손에 들고 낙화 밟아 오가너라
이같은 옛 풍류 좋아 사는 멋 즐기 하네.

□ 權五璽 글, 을사년 3월(1회), 판교 첫 모임에서 -

인용한 두 편의 한시는 전형적인 고풍시의 틀을 유지한 작품이다. 7언율시의
정형시 체취를 느낄만 하고, 반듯한 자연의 감상과 인생의 허무를 회의적으로 노

래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삶의 현장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로서 유사함이 있다.

경계(謙齊) 한문원의 시속에 나타나는 시짓고 술 마시며 절친한 벗과의 즐거운 시간 보내는 정경이 서글프게 뒤혀지진 않는다. 한강의 남쪽에 위치한 성남의 제일 높은 산위에 올라 볼경치를 완미하는 자세가 사뭇, 든든한 의지로 짜지 느껴진다. 전원적인 소재로 작품을 지어 읽는 이로 하여금 지루한 감정이 없진 않고 있으나 총취에 빠져 시류(時流)를 닮아가거나 늙음을 원망지 않은 가운데 인생의 진실한 도를 손짓해 보인 정신이 사뭇 우러러 보일 따름이다.

학고(鶴皐) 권오선 작품 또한 앞에서 감상한 작품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언어의 경제술과 시 제재의 선택이 상당한 숙련미를 느낄 수 있어 더욱 한시의 맛을 느낄 글인 것이다. 봄날의 농촌 풍경을 놓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지은 글들인 점에서 서로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선천적인 창작의 재질과 한학의 조예가 없고서는 개화기 이후를 살았던 문사치고는 전국권의 실력자들이라고 보아 무방하리라.

학고 권오선 문사는 유별난 선비였다. 이미 사멸해 가던 중국 한문학을 곁에 두고 평생동안 자기의 출생지 향촌을 떠나지 않은 채 오로지, 생각은 한 가지 뿐이었다. 고향을 사랑하고 한시 짓기에 열성이었던 그는 선대로부터 습득한 사상을 다시 그 고향땅에 묻고 떠나갔다. 불운한 격동과 혼란시대를 감내하며 한시 짓기에 의질을 살았던 선비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용암(龍岩) 권오형과 쌍둥이 형제의 관계이므로 두 선비는 형제이자 아울러 한시 창작의 상호 격려와 충고를 같이한 친구로서도 성남땅의 청계산 들리를 늘 맴돌며 산 이들이다. 낮엔 들과 밭을 거닐며 시상(詩想)을 생각하고 더러는 논밭 냇길 야산을 오르내려 일도 하며 평생을 한 곳에서 산 이 두 선비의 주도적인 열의가 없었더라면, 우리 판교기르회의 창립과 시책 발간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살펴진다. 거의 골동품으로나 보아온 한시(漢詩)를 무엇보다 소중히 알아 잡고 다듬은 이가 곧, 학고와 용암 두 형제로서 후손의 증언과 남기고 간 한학 서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8권의 7언 율시체(律詩體) 한시 작품세계를 살펴 왔다. 지극히 감상 수준의 단견으로 엄청난 양의 시 세계를 조감하기란 용이치 않았으나, 대동소이한 내용면이었음을 밝히며, 대체적으로 실사(實寫) 서정이 바탕이 되어 향토미감을 맛보여 준다고 하겠다. 같은 취향으로 맺어진 시문학 동인체의 회원 작품이 권편일률적일 리 만무하지만 서로의 시 창작 수준이 엇비슷하며, 몇 사람 출중한 이를 제외하곤 유사함을 갖게 된다.

판교기모회의 작품을 몇 갈래로 분류하면 교우간의 독특한 우정을 상당수 작품에서 읽을 수가 있다. 아울러 음풍농월의 주변 산수 예찬, 수천년 전해 오고 있는 윤리도덕이 타락함을 나타낸 경세개탄, 흥겨운 술자리에서도 선비의 법도를 지켜 가려는 의지 그리고, 향토예와 탄노 서술 등이 이들의 시세계로 집약시켜 볼 만하다.

필자의 견해로서 밝히고 싶은 사업은 판교(한남)기모회가 전하고 간 동호인 한시의 〈시집〉 3권을 내 고장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라도 한글로 풀이하며, 오늘 이 시대의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번역 출간이 되어졌으면 한다.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지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 고장 선대들 수십 수백인의 문학정신이 모아진 이 세 권의 한시 동인지를 해독할 수 있게 하는 길 또한, 우리 성남시의 향토문화 육성이라고 생각한다.

3. 마 무 리 말

1) 자료 소개의 의의

한문학은 해방 후 오랫동안 위축되어 쇠퇴 암흑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학교 교육에서도 국어교과의 일부로서 문교부 상용한자 정도나 알기를 바랬던 시기에 도 옛부터 익혀 온 한문학을 일시에 사장시킨다는 일도 그리 쉽진 않았다. 이에

전국 향교, 사찰 등지의 유림(儒林) 석학과 승려문객들이 이에 큰 반발과 건의로 인하여 학교교육에서의 한문교과를 다시 독립시키고 대학에도 한문교육학과를 설치하여 중도에 사장될 위기를 면하면서 오늘에 이른다고 보여진다. 물론, 우리 문화 발전과 새로운 과학문명의 이 시대를 맞아 구태의연한 습성에 기인하여 한문을 생각함은 아니다. 중국내에서도 이미 간략자(簡略字) 언어정책을 실현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도 하루 속히 난해한 한자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이 문자 배우기에 허비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 과거의 각 분야에 걸친 술한 한문자로 기록 보존되어 온 전적(典籍)을 모두 해독한 이후에는 중국 보다 더 간편한 한글 언어정책이 채택되어 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것만으로 싸고 또 겹쳐서 국제간의 이웃들과 교섭할 시대는 아니기에 한문권의 문화와 외교정책상 필요한 인력자원을 육성 배출시켜야 할 것이다. 일어, 영어, 불어, 독일어 등의 모든 외국어가 이같은 정책으로 일관해 가야하며, 특히 한문학 이 분야는 우리의 역사와 장구한 세대를 더불어 숨쉬고 살아 온 중국과의 이웃이라는 과거를 생각한다면 쉽사리 한자 철폐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고장 60~70년대의 관료(한남)기토의 동인들이 전해 주는 그들로서는 심혈을 다 바친 문학 성과를 가차없이 사장시켜 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전에 이 분야의 관계인들이 시도 힘을 합쳐 한글로 풀이하는 작업이 이 고장 뿌리 거꾸는 액정으로 실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왕, 내 부모 내 고향일진대 못난 부모, 지겨운 고향이었다고 버릴 수는 없고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아 분명, 이 번역사업은 진행시켜야 옳다.

머리 밖에서 인용한 대로 성남시 원주민 문학활동으로서 한시 작품 5백편 발간의 신문기사 발표 이후, 또다시 발굴 임수되어진 3권 분량의 2천 2백여 편 한시작품은 결국, 내 고장의 정신이요 내 선대들의 문화 예술품인 것이다. 성남시 승격 이전의 원주민 사회상을 이 한 가지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본다.

성남시가 도시로서 개발되기 전은 전혀 낙후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역

여건만 그러할 뿐 결코, 그 어느 지역보다 뒤지는 농경문화권 고장이 아니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서광주라 불려진 이 성남시의 과거는 원래가 광주군(廣州郡) 내의 서광주 지역 중에 소속된 곳이었다. 낙생(樂生)면, 대왕(大旺)면, 둔마(突馬)면, 중부(中部)면 중 관내 6개리가 지금의 성남시 3개 구의 전체다. 그러니까 서광주 중에도 중대, 구원, 연주면은 서울시로 편입되어 갔으며, 서부면과 동부면 또한, 하남시로 개편되어 오늘날의 성남시 지역은 광주군에서 서쪽으로 독립된 후 다시 5개면이 발전 개편되고 나머지 지역이 도시로 급성장된 땅이다.

결론에서 지역의 사정을 요약 정리해 보는 일은 성남시의 과거사를 지역변천사로 훑어 봐야 이 곳이 벅찬 농민들만의 주거지가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본당이 고향인 李完宰 박사의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란 단행본 머리말 일부를 옮겨 본다.

광주군은 려제의 도읍지로서 한성시대 약 500년간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도 한산주(漢山州)로서 9주 중 가장 중요시 되었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전국을 5도로 구분하고 영서의 중부지방을 양광도(楊廣道)라고 하여 양주와 광주를 그 중심축으로 삼아 중요시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를 통해서도 유수부(留守府)를 두어 정치적으로 중요시 했을 뿐 아니라, 한편 조선후기에 발달한 실학의 중심무대이기도 한 곳이었다. 실학의 비조 유흥원을 비롯하여 실학을 하나의 학파로 이룩한 이익과 윤휴, 안경복, 박제가, 그리고 실학을 대성시킨 정약용 등이 모두 광주 출신의 실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는 초기 천주교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의 지역이었던 바, 한국 천주교 전래 정학의 거목들인 이승훈, 이벽, 권철신, 이가환, 정약중 등이 모두 원전암을 비롯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주군은 이와같이 정치적으로 중요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학과 초기 천주교의 중심 무대이었고, 서울에서 가까운 연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이래로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된게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광주군이 경기도 20개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강화군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철도가 가설되지 않은 탓이라고도 하겠지만, 한편 최근까지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성남시의 출발로서의 '광주대단지'가 이 곳에 조성되게 되었고, 나아가 '분당신도시' 건설 후보지로까지 남게 되지 않았는가도 생각된다.

— 저서 : 1993. 10. 30 민족문화사 발행, 제2면에서 —

생수는 5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923년 12월 30일 4년제의 관교공립보통학교가 설립인가된 것이다. 1924년 5월 1일 개교식을 거행하고, 5월 9일에는 관교리 186번지에 신축교사 낙성식을 가졌으며,

몇 구절 인용한 관교 마을에 연관된 글 외에도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등의 관공서가 이 고장 성남지역 안에서는 단연, 관교리 마을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음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이 고장에서의 “관교 널다리” 전래 민속 놀이와 민속 5일장 개소 그리고, 서울과 3남 지방을 왕래하는 길목 지점이 관교 마을이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미루어, 관교기교회에 모여든 고령의 노인층이 면로한 연명면의 모임이 아니라 실로, 학덕과 세속 예절, 인간 교화에 뜻어른들 선비 집단이었음이 추측되기도 남는다.

그 어느 지역에 앞서 개화의 물결도 먼저 대할 수 있었던 고장에서, 준절한 인물과 명인재사는 배출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의 경부고속도로와 정신문화연구원 그리고, 세종연구소와 서울 비행장 그 일원의 김성촌 안에서는 식견이 있는 문화인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단언한다.

산수가 아름다운 고장. 옛 사람들의 자취를 높이 떠받드는 풍속이 특출한 고장에서 한시 창작의 꾸준한 활동이 서로 적합하게 어울려졌다고 생각한다. 기교회의 시 창작이 후세에 거울로 될 것이며, 반드시 인물이 날 것이고, 식견있는 젊은이가 나타나 나쁜 생각없는 대도(大道)를 넓히 나갈 것이라는 예견이 〈시집〉필사본 3집 서·발문에는 적혀 있다.

하므로, 관교기교회의 3권 시집 자료 소개는 이 지역이 뒤쳐진 벼촌락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향토사 문헌으로서 성남시의 현재가 있기 이전의 과거사를 더 한층 높혀 나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자료의 소개야말로 한 세대 뒤를 따르는 후대인이 마땅히 풀이 나갈 과제로 여긴다.

2) 요약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뒤늦게 발굴된 성남 도학민 사회에서의 한시 동인지 〈詩集〉 작품

과 고찰은 이제 시초단계다. 앞으로 또다른 시각에서 몇 차례의 연구가 되고 번역사업이 되어져야 할 일로 본다.

개화기 부터 실학사상과 서구의 산업물질 숭배 의식에 밀려 지난날의 지식층 고급문화는 오히려 절타 당하므로써 한문학 역시, 과거의 남은 문학으로 외면당했던 시기가 없지 않아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자창제가 15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실용단계였으므로 사실상 상고시대 이후 부터의 기록이란 이차의 한문자에 의존하였기에 한문학은 우리 민족문화 역사에 한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으로 부터 받아들여 우리 것처럼 실용화했던 한문자에 의한 시문학 내용의 청아·관변설은 문맹, 우리 정신의 표현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상에 의해 우리의 삶을 나타낸 한시 문학이 중국의 사상과 정서를 알지 못한 작품이 무수하게 많아 문자만의 차용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 남의 것이라 외면함은 그릇 판단인 것이다.

성남시 이전의 이 고찰 60세 원도 선비들 130여 명이 9년 이상 오래 활동한 모임체 판교(한남)기초회의 세 권 한시 (시집)을 살핀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지역 최초의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사업에 의거하여 이들 자료를 살필 수 있음은 실로 다행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다고 믿는다. 수록된 방대한 양의 작품들이 참여 원로 선비들의 후손이나 지역문화 단체의 관심으로 더 깊게 연구되고 또 한글로 풀이되는 일이 있게 되길 재삼 기대하면서, 요약 정리와 의견 제시 두 갈래의 몇 가지 사항을 본고(本考)의 대미(大尾)로 삼고자 한다.

성남시로서는 농경문화권 시기에 해당하는 1965년 봄 어느날,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외 주변 지역 거주의 한학자 문사(文士) 몇 사람이 운하(雲下)(1893~?)를 중심으로 한시 창작 동호인체를 결사(結社)하였다. 그들은 그 해 3월부터 매월 모임을 개최하고, 적어도 10명에서 4, 50여 명의 동인들이 7언 읍시체 한시 1편 이상씩을 지어 부려, 9년 동안이나 한 차례도 거르지 않은 모임을 통해 거둬진 작품 2,238편을 3권의 시집으로 묶었다. 1권 〈詩集〉은 판교기초회라 하였고, 2권 〈詩集〉은 한남기초회라 하여 만들어 졌으며, 3권 〈詩集〉은 필사체 원본으로

시책 출간이 되지 않은 채의 향토문학 자료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3권 안에 수록된 2,238편의 작품 중에 극히 일부 시 8편을 감상하여 얻어진 내용을 요약하면,

- (1) 원로 선후배 동호인 사이의 돈독한 우정을 시세계에 담았고
- (2) 생활속 실사서정(實事抒情)으로 성납시 자연을 예찬
- (3) 우리 나라의 전통 윤리도덕의 타락을 개탄하는 구절이 많으며
- (4) 술 자리에서도 선비 학자의 법도를 지키며 '곧은 정신'의 지조로 향토예를 살
권 내용
- (5) 늙음에의 탄식이 비통적이지 않으며 높은 품격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시켰다.

이 문학 창작 단체의 회장은 윤하 이익령이었고 주도적 인물은 20명으로 특히, 권오선, 권오형, 정덕화, 손기호, 이원희, 이병덕, 한백우 등의 열성이 주도자로서 움직였다. 기타 중심인물로는 30여 명에 이르기 향토사 문학동인의 구성변으로 손색이 없었던 것 같다. 창간호는 이 지역 관할의 광주군 예산 지원금으로 출간된 문예지였으나 2집과 3집 중간에 또 한 권 분량과 작품 초고본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로서도 관계 당국 또는, 후원자의 지원대책 여부가 단체 움직임의 활력소였던 감이 없지 않다.

세 권의 〈시집〉서·발문에 담겨진 공통적 의견은 동인의 작품을 통해 향토사회에 윤리 및 정서, 애환심과 취미생활을 중요시한 가운데,

- (1) 고향을 지키며 살아 가고자 힘쓴 선비들의 우정
- (2) 원로들의 교류에도 엄격한 법도가 유지
- (3) 문학을 통해 수신(修身)하며 후손에 대한 교화 사상 주력
- (4) 여흥 자리가 있을 때에도 난장한 면모가 전혀 없이
- (5) 옛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며 후대앞에 보배스러운 정신을 계승
- (6) 늙어가는 비애감에 앞서 명승·고적지 탈승의 보람된 흥취에 도취되는 모임이었음이 살펴진다. 필사 초고본의 3권 〈시집〉중에서 정규환 문사의 발문 속에는 “고금을 살피도 흔하지 않았던 훌륭한 일이요,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동방의 명승지가 모두 이 시책에 담겨있어, 반드시 훗날 거울이 되리라.”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제1(시집) 160쪽 - 67년도 출간(574편 수록)

제2(시집) 286쪽 - 71년도 출간(1,111편 수록)

제3(시집) 151쪽 - 74년도 예정(553편 수록)

이 세 권 597페이지 안의 2,238편 한시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성남시 향토 문화의 단면을 보임과 동시에 이 고장이 그 어느 지역에도 뒤처지는 지방이 아니었다는 실증 자료요, 큰 발자취의 성과였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인을 비롯한 문화시민 앞에 이 자료 검증과 분석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비지정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이 도박민 중심으로 한데 모아아 하며,
 - (2) 이미 지정된 각 문화재에 대한 검증 작업과 보관이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인에 의해 조속하게 중점 관리되고,
 - (3) 선진 국가의 실례를 살피서 체계적으로 향토문화의 뿌리 찾기 운동과 계승작업이 계획·실행되어질 것을
- 몇 가지 요약하여 관심을 촉구하면서, 한 시민의 생각을 떠나 애정을 가진 향토문화인의 주장으로 제언을 하고 마무리 짓겠다.

★ 참고 내용 소개

- 한국사 연표(이만열), 88. 3. 역민사
- 한국의 발전(경기도), 83. 5. 뿌리깊은 나무
-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이완재), 93. 10. 민족문화사
- 성남의 뿌리(장삼현 外), 89. 3. 경원공업전문대 학보사
- 시조동인지의 양상(임선복), 79. 3. 단국대학교 출판부
- 한국 시조시 논총(한춘섭), 90. 2. 을지출판공사

성남시지(2판) 82. 9. 성남시

성남시사(3판) 93. 10. 성남시

성남20년사. 91. 1.(장충한 편), 향토문화사

성남 인물사. 90. 1. (조윤제 편), 성남신문사

권순주(1944~) 자료 제공자

〈시집〉 1집(67. 7 출간)

〈시집〉 2집(71. 6 출간)

〈시집〉 3집(74출간 예정 필사 초고본)

윤사순 교수 - 인간성 옹호의 역사를 밟아 온 미래지향 철학(고대신문,
94. 1)

박상식 대사 - 세계문화를 호흡하자(조선일보, 94. 1)

좌담회

— 21세기를 바라보는 성남문화 —

- 좌담회 -

21세기를 바라보는 성남문화

향토문화 연구소가 개설된 이후 처음 마련한 좌담회가 3시간 이상 진지하게 있었다. 각계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 전원 참석하여 진행된 좌담회에서 “성남의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문화공간의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시제 개발 이전의 농경문화권과 도시로 변모한 산업문화권 이후의 거대도시화에 따른 성남의 뿌리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으며, 각 분야에 걸친 비례지향적이고도 가장 타당성있는 성남문화가 무엇인지를 추진해 나갈 사업유형별로 결론을 모았다.

일 시 : 1993. 12. 28(화) 오후 2시~5시 40분

장 소 : 성남문화원장실

참석자 : (사회자 - 한춘섭, 시조시인)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이광열(성남문화원장)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이형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어순영(성남문화원 이사)
향토문화연구위원	고재혁(성남문화원 부원장)
향토문화연구위원	리재범(초림국민학교 교장)
향토문화연구위원	박상규(경원대학 교수)
향토문화연구위원	전보삼(신구전문대학 교수)
향토문화연구위원	장삼현(경원전문대학 교수)
향토문화연구위원	김창환(동국대학 강사)
향토문화연구위원	한춘섭(풍생고등학교 교무과장)
도 시 신 문 사	윤병식(편집국장)
우 리 신 문 사	홍성룡(기 자)
성 남 문 화 원	김임평(사무국장)
속 기 사	2명

도의 소주제 :

- 1안 : 성남의 문화권 회고
- 2안 : 우리 성남의 문화 현주소
- 3안 : 향토문화 연구소가 해야 할 사업

향토문화연구소 좌담회

○ 사회자 한춘섭 지금으로부터 성남 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성남문화로 하고 이 속에 3의안을 차례로 하겠고, 1, 2안을 진행한 후 중간휴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지요.

○ 이창열 소장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한 이래 연구위원님들을 모시고 성남 문화발전을 위해서 땀과 실천방향과 문제점 진단을 하게된 것을 큰 의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광주군 돌마면, 대왕면, 중부면 일부를 1971년 9월 4일 성남 출장소로 발바꿈하면서 도시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성남시로 승격된 가운데 성남으로서 성숙하여 명실공히 사회에서 몇몇한 인간처럼 많은 변화 속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13개 도민이 모여

살아 전국 축소권이 되다보니 앞으로 우리 성남이 해야 될 문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자는 문화에 불모지라고도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옛날 도성을 중심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가 해야 될 과제가 막중하고 또 오늘의 좌담회를 가짐으로써 일보 발전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좌담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성남문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남 20년의 문화권 회복 그리고, 우리 성남에 문화연구소의 현주소, 다음에 향토문화연구소가 할 사업, 성남상 부각의 창출에 대해서 좋은 토론이 진행되어 시민정서에도 기여할 사업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자 한춘섭 첫째 의안인 「성남의 문화권 회고」에 대해서 우선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지겠습니다.

성남시제가 실시된 73년 이전을 '농경문화권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도시화된 이후는 '도시산업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여러 위원회에서 각 전공 분야별로 평소 연구하신 것을 말씀해 나가도록 하지요.

○ 전보삼 위원 「성남문화권 회고」에서 성남시 이전에 문화권, 그것은 주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팔주군 자체가 산성내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산성에 관한 얘기가 우선 거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성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무덤이라든가 온왕청이 나타나서 역사적으로 백제의 땅이었다고 하는 근거 밑에 신라라든가 고구려의 점령지로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 났는데, 그러한 삼국문화의 결합용지로서 남한산성이 갖는 문화적 특성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성은 제가 요 근래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8도가 다 모여서 성을 축성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8도 도면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성을 쌓는때도 조선 8

도의 전체 역량이 집약되어 가지고 성을 쌓아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면 성남이 조선 8도의 도면들이 다 모여서 성남을 이뤘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 특징으로 생각되지요.

여러가지 객체적인 특성이 모여 전체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성남문화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을 따라서 이 남한산성을 살펴보면 남대봉이 첫번째 봉우리고, 그 옆에 천주봉, 그 다음이 일장봉이 있는데 그 남대봉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 8개의 사찰을 만나게 됩니다. 그 8개의 사찰이 바로 조선 8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또 한 작은 한국이 바로 우리 성남시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쪽에서 성남문화의 특성은 전체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첫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한춘섭 남한산성과 우리 시와의 형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 박상규 위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역시 성남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환, 반복설을 저는 주장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도 8도 도변이 모여서 현재 성남이 이루어 졌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비단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역사를 돌아해보면 성남 지명을 봐도 고구려어적인 요소, 백제어적인 요소, 신라어적인 요소 거기다가 특히, 산성이 둘레에 있기 때문에 청나라 군사들이 여기 머물렀을 테니까 만주어적인 그런 요소, 그런 여러가지 언어 요소들이 지명에서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행정학교 상무체육관 가는 곳을 우리가 '진터밭'이라고 하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신라어적인 한 예가 되겠고, 우리가 고동동을 이야기할 때 '웃마리'라고 합니다. '웃'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어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령 울지문덕을 순수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웃지문덕이라고 하는데 이 웃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웃어른, 웃사람으로 고구려어적인 요소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제어적인 요소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무슨 '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당 제산이 산신당이 있었던 산을 도장제 제산이라고 하는데 역시 '제산'이라는 말은 백제어적인 요소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을 의미하는데도 제라는 말은 백제어를 의미하고 '골'이라는 말은 고구려어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는 말은 신라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성남은 그야말로 고구려, 백제, 신라, 과거에 소위 말하면 삼경지로서서 역할이 그대로 지명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구려를 우리가 골이라고 합니다. 이 골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대로 만주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라든가 하는 그 자체가 만주어적인 요소, 북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지명에서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할 때에 이것이 비단 8도가 모여서 살았다는 과거의 순환, 반복되

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성남시는 복합된 후 단일화된 순환원리에 맞을 것으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성남을 희망적인 도시로 보고 싶고, 이에 여러가지 향토문화제를 우리 의지와 실정에 따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자 한춘섭 상당한 관심으로 성남시에 지명 유래와 함께 문화제 창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리학적인 면에서 김창환 위원께서 또 다른 생각을---

○ 김창환 위원 네, 우리 성남의 시제가 형성된지 20년이 지났고, 그 이전의 시대를 '농경문화권 시대'라고 우리가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경문화권시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급자족이 이뤄지는 시대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성남이 시의 모습을 갖추고 '도시산업문화권 시대'로 들어왔을 때 우리 성남에 있어서의 기반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 한편에 성남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도시산업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성남공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성남이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 그야말로 「베드타운」의 역할만 하고 있지, 우리 성남자체로서의 기반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산업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성남 도시산업문화라고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반기능의 확충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1994년은 우리의 〈한국방문의 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보이지 않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자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성남에서의 관광문화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라는 것도 차제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성남에는 관광자원이 얼마정도 되느냐?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얘기되었지만 문화재 발굴 같은 사업도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추진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문화발달에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우리 성남도 거대도시화가 이뤄질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상당히 삭막한 도시 문화가 뽕밭으로만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공간에 청소년 문화를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남의 미래를 끌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여향심을 가꾸고 또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자 한춘섭 다음 차례로 부소장 두 분중에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 이형구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것도 전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남의 역사성인데요. 역시,

두 분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성남시 여권, 말씀드린다면은 475년까지의 백제 수도권으로서 성남을 위시하여 광주 팽업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성남권이 한 지역이 되어 백제시대가 기원전 18년부터 475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강과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곳이 바로 여깁니다. 우리는 역사하는 사람이나 고고학하는 사람이 가끔 그것을 잊어요. 광주하면 지금 경안을 얘기하는데 제가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으로 해석해도 광주는 이 한강과 탄천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남을 광자' '들 주자'지요. 아까 말한 골짜기, 경안은 골짜기인데 백제 수도가 경안일, 충북리설 중에 충북리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백제 수도가 광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감실평원과 성남평원을 한데 엮은 저 수원 쪽으로 해서 계속 내려깁니다.

이 준평원이 어디까지나 하면 피난갈 때 공주까지도 내려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한테 밀려 공주로 천도할때까지 남한산

성 주변 지역에서 500년간 도읍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성남시 문화사업이나 서울시 문화사업이 언제 되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히 불린말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국가적으로 지금 매우 큰 「캐치프레이저」를 내건 것이 「94년 관망의 해」라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가 말하는 이른바 〈서울정도 6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매우 적절적으로 얘기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각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적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구요. 왜, 백제 500년은 어디다 팔아먹었다 말이에요. 서울이란 말도 백제의 한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한성, 한양이 이미 백제 때 위례성이란 말과 더불어 한성이란 말이 기원 1세기 초에 이미 나오는데 한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 500년 정도는 한강은 강북까지 포함합니다. 지금 아파 서울자리도 백제 때 상당한 도시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제가 정도할 때 철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제 500년을 당시부터 팔아먹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내년에 〈서울정도 600년〉이라는 것은 조선정도 600년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남의 위치를 새롭게 저는 부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서울시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단원이나 성남평원을 중심으로 한 남한산성을 낀 백제 500년 이것은 되살려야 됩니다. 살리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도 해 줘야 되고, 문화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정정하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조선정도 600년이라고 해야지 서울정도 6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 500년을 팔아먹은 겁니다. 결국, 서울정도는 지금 2000년입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까운 시기를 놓친게 있어요. 백제건국 2000년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바로 몇 년전에 그 시기가 지났는데... 바로 여기 한강과 단원을 중심으로해서 그런 중요한 기념될 만한 해를 잊고 지나쳤어

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망각하고 산 거예요. 심지어 역사를 왜곡까지 합니다.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남한선성을 중심으로한 설남권과 평주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의 중심권으로 함께 생각할 일이에요. 과거의 평주는 여기서부터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AD 475년까지 약 500년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는 산동과 요서 진출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 나온 것이고, 평양까지 근초고왕이 침공해서 영토를 확장한 것도 바로 남한산성 이 평주시기에 백제때에 한 것 같지요. 바로 고구려 475년에 백제가 밀려나서 공주로 내려갔을 때는 크게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63년간 공주에서 또 밀려서 부여로 가서 한 120 몇 년 있었는데 가장 활발한 전성 시기는 역시, 우리가 바로 몸담고 있는 이 성남이나 잠실벌 중심으로 한 500년을 상기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475년부터 551년까지 약 80년 전후 시기에 고구려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적 요소도 사실 있을 겁니다. 아까 언어적 측면에서 좋은 말함

하셨는데 고구려 문화는 우리가 지금 못 찾아요. 상당히 백제와 동질성이 많으며, 형제제국이라 그랬는지 모르나 고구려가 80년 여기 있었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을 텐데도 그 문화를 지금 고고학적으로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 것으로 보는 고구려 문화적 요소가 어쨌든 고구려적일 수도 있을텐데 그것은 아직 분별할 능력이 우리 없습니다. 551년 나제연합군에 의해 여기를 백제가 수복을 했는데 또 3년만에 신라에 완전히 뺏기고 말 같아요.

결국, 551년부터는 신라가 한강권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신라시대의 역사를 찾는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라가 이 한산주 바로 이 남한산성과 탄천과 한강을 장악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형성했다는 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신라통일하기가 어려웠지요. 신라는 늘 소백산맥 저 동쪽에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제나 고구려에 얽혀서 중국교역을 했던 말이지요. 조공을 한다든가 심지어 문화교류를 하더라도 백제를 거쳐서

가는 그런 중간 거점을 장악함으로써 직접 이 한강을 통해서 당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의 위치는 신라에 와서 더욱 전면목을 발휘합니다. 제가 조금 이쪽 명사에서 영동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조선조 때도 조세발는 길인데 문경새계로 넘어 옵니다라는 신라 때는 아마 문경 뒷편에 지금 새계사라고 있는 덕수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보니까 경주에서 출발한 신라의 조공이라든가 무슨 문화사절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사절들이 중국을 가는데 부산으로 돌아서 해로로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해서 조령뒷편 새계사 길을 따라서 행해졌을 겁니다. 충주댐 수몰지 한수면 쪽에 선창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조의 선창은 지금 가급면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라는 신라때의 선창은 지금 묻혀있는 충주댐쪽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룻배를 이용해서 여기 한강 즉, 한산주에 와서 다시 배를 바꿔타서 중국으로 들어 갔다고 봅니다.

그럼 왜 신라가 이 한산주의 지역을 중요거점으로 삼아 전략적으로나 무역

항로로서 가장 중시했지요. 때문에 신라가 직접 당으로 거래하고 외교를 해서 신라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곳에 의해 성취했다고 봅니다. 한산주가 있었던 이 광조, 지금의 우리 성남이 바로 중심권이었지요. 그 후의 왕도참고 대개 수도를 그대로 이용해 오면서 진군도 그대로 하고 성제도 그대로 물려받아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남의 역할을 역사상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전 교수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남한산성을 근간으로해서 남한산성이 바로 성남이라는 이름을 남게 한 모태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연구는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남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문화권 재건에 힘써서 남한산성을 성남문화권으로 이입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고학이나 고대사에 대한 문제로 보아 이 문제를 깊게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한준섭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군요?

○ 박상규 위원 예, 한마디만 더 하

지요. 이 서울이란 말은 백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를 뭐라고 하나면 소부리라고 합니다. 소부리, 소부리, 쇼음, 서울, 서울 이렇게 된 것이니까, 서울이라든 이 지명도 백제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한강 이북에다가 백제의 도읍지를 세웠다는 말들이 맞을 것 같고, 결국은 신라 문화는 변의 문화, 백제 문화는 함의 문화고 고구려의 문화는 끝의 문화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잠실 이게 전부 다 들어거든요. 저 김제쪽이나 이쪽에 가면 늘 문화거든요.

○ 사회자 한춘섭 역사쪽으로 깊어집니다. 이 문제 하나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군요. 다른 보충말씀 하시겠습니까?

○ 전보삼 위원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김창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을 중심으로 하는 송파에 그런 시장이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산성이 전부 「백 그라운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산성에는 온왕청이 백년전까지도 있었던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온왕묘가 있었다구요.

온왕청이 있었고, 온왕의 묘까지도 만났어서 그 동안에 꼭 그것을 우리가 논리를 해 왔었는데 갑오경장 시기에 모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역시, 먼저 말한 백제 500년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대되고 이 땅에서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측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나 신라의 문화가 또 여기와서 새로운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서울이 갖지 못한 정도 600년의 한계를 이쪽에서 배워준다면 아주 좋은 문화의 토양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 사회자 한춘섭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주로 능경문화권 즉, 시제 이전 과거의 역사들을 말씀 하신 겁니다. 이제 근접된 남한산성 역사에 초점을 두어 의견개진이 됐으면 좋겠군요.

○ 박삼규 위원 산성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성의 성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고구려의 지명에만 붙는 거거든요. 성은, 그래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흠이라고 했어요. 백제사람들은 모두가 기라고 했어요. 일본어에서도 성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산성을 붙일 때에는 제가 붙 때에는, 조선시대에 명명된 것 같아요.

○ 전보삼 위원 그렇죠. 백제의 도성이 처음 있었고, 두번째엔 동성으로 되었다가 조선조에 와서 완전히 석성으로 만들었지요. 둘로 성을 쌓은 인조때 모든 것을 갖춘 남한산성이 현재 모습이 된겁니다.

○ 박상규 위원 산성은 아마 조선조에 붙여졌고, 그 이전에는 다른 이름이 붙여졌을 거예요. 백제사람들의 지방을 보면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 전보삼 위원 축성사업이 인조때와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완성했으나 그 이전 「백 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돌성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갑자기 된 것은 절대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8개의 사찰이 각 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규명해 볼려고 하는데 현재도 안 되어 있지만 하여튼 분명히 8개의 사찰을 만들고 성을 축성시킬 때에 인력을 동원하고 성을 수성할 때에도 전 우리 국토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오기 위해

서 8개 사찰을 성외곽에다 배치해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여기가 정말 모여서 하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성남시내엔 각 지방 향우회가 제일 많은 곳이 아닌가 합니다. 예로서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어야 할 모임 같아요. 이제는 전부 성남 향우회로 화통이 되어 가야 되지. 자꾸 동향인끼리 의 객체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성남의 뿌리를 찾아보면 역시 이제는 「모여서 하나되는」 '하나다'하는 것을 좀 강하게 거론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박상규 위원 남한산성 둘레에서 어디가 앞쪽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붙었다는 말은 다 알이거든요. 우리가 남산은 경복궁을 봐서 앞쪽이라는 소리고, 대구에 가면 남산을 앞산이라고 그러는데 앞자와 '남'자가 붙은 건 전부다 어디 궁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있었거나 아니면 어느나라 계통의 마을이죠? 이 백제계통에서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은 곶이라고 했고, 신라사람들은 마자리라고해서 마을이라고 그

려죠. 이 백제계통의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가 남쪽이 될텐데 분명히 앞쪽을 의미하므로 어디의 앞쪽인가는 지금 좀 궁금해요. 이 '앞' '남'자를 붙였을 때는 분명히 어디를 향해 있다는 얘긴데 맞습니다.

○ 이형구 위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백제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북이 되든 남이 되든 지금의 잠실별쪽 또는, 중곡동으로 그 쪽이나 이 쪽에 둘을 다 생각해 본다면 이 남한산성하고 북한산성하고 조선조 때도 마찬가지로 조선 정도에서 한양을 중심위치로 하며 북쪽에는 북한산이요, 남쪽에는 남한산성일겁니다. 기록으로 보면 남한산성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이미 백제시대에도 산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남한산성이라는 것은 역시 이 곳을 말하는데 백제때도 북한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남한산성이라는 것은 백제의 수도가 이 산성의 뒤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사회자 한준섭 그러면 또 다른 역사고증을 밝혀 주시지요.

○ 이형구 위원 오늘날 서울시 구역

안에 편제된 잠실·암사동도 광주교 서초동도 광주땅이었으니까 넓은 돌인 겁니다.

○ 사회자 한준섭 이제 지명과 연관된 역사이야기는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남이 도시가 되기 위해 각 김성춘의 문중내 선조묘들이 많이 이장 되었습니다. 현재 대평동과 시청 이 부분이 옛날에 평판대작 무덤이 많았는데 저도 그것의 목격을 60년대 초에 했습니다라는 상당히 여러 기가 있었어요. 시 개발이 되면서 전부 이장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이 장군의 묘소도 여기 있었다가 옮겨지게 되었고, 저희 문중인 청주 한씨 선대 묘도 여러분 전장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그 묘소 중에 몇 기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고찰을 하셨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청계산 쪽에 관계된 것은 무어 없을까 궁금합니다. 그 산세가 평활하므로 역사적인 의미 부여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과담을 나누

고 싶군요. 현재 성남시로 커가는 일
장에서는 남한성성이란 지 산 이름들
인 일장산이니 주장산이니 하는 술한
산줄기와 정면 마주하고 있는 청계산
이야말로 성남시에서는 병풍 둘러친
듯한 시 전체의 희망 담긴 요람지로
보아 청계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남달란 가치가 뭐가 있었는가... 상
당히 궁금합니다.

○ 이형구 위원 청계산은 고려와 관
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
산의 지명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청계
사라든가, 국운봉이라든가, 국사봉이라
든가 등등이...

○ 사회자 한춘섭 명칭, 지명이나 산
이름을 볼 때는 남한산성은 하나의 호
국적인 면에서 많은 가치가 있지만 일
반인들이나 선비들이 살았던 마을은
오히려 그쪽 청계산 둘레에 더 많은
지식층 조상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추
측해 하거든요.

○ 이형구 위원 지금은 산을 가로지
른 도로가 뚫렸습니다마는 정신문화연
구원 들어 가는 계곡예요. 거기는 근
래까지도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
고계가, 안양으로 넘어가는 고계인데

아주 험준기가 많하기 어려울 정도지
요.

왜냐하면 저희가 16년전에 연구원이
설립되어 제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당
시는 비포장도로였거든요. 전용버스들
이 안 다녔습니다. 연구원까지만 왔지
요. 지금은 산업도로가 되었는데 거기
가 비포장도로였다면 그 전에는 거기
가 막힌 길이 었거든요. 나무꾼이나
지나다니고 마차길 정도였는데.

거기가 뭐가 많으나 하면 내가 앞으로
조사해야 될 테마중의 하나인 발굴
조사 연구가 제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며 많이 파괴되
고 있는데 그 쪽 계곡엔 사기그릇 예
전 것들이 많아요. 사기 구었던 데가
운중동 한 군데가 아니예요. 아주 많
은 편입니다. 저수지 근방으로 해서
여러 곳에 그런 현장이 조사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사회자 한춘섭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기 굽는데가 카톨릭 사제적의 신부
들이나 신자가 티 짧은 거 아닐까요?

○ 이형구 위원 그것은 그 후입니다.
지금 카톨릭 유적지도 거기 있습니다
만 카톨릭 신자와 성직자가 구었다는

전설같은 얘기도 있지만 카톨릭은 200여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 사기같은 훨씬 이전의 거예요.

○ 김임평 사무국장 성남에 사기 굶는 유래가 관련된 곳이 분당이라는 이름도 거기서 붙여지기 시작했는데 청계산 줄기인 관교동이 되겠지요. 관교동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려말에 조운이라고 하는 선비가 거기에서 은거를 했던 것이고, 청계산은 이조중업 우리 향토문화 유적 제1호인 강정일당 묘소가 거기 있음과 동시에 그 곳 현지에 가 보면 감나무도 적어도 500년 정도 거목으로 여러 그루 있는 것으로 자연림이 아니고 인간이 심었던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연구 조사의 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 사기 조작 출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탑동 등에 아주 오래된 백제때의 토기가 나왔어요. 빗살무늬 신석기 시대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고려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청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이 오히려 광주 이전에도 거기가 사람이 살았다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구석기 시대와 지석묘가 성남에서는 분당 일대에서 출토되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말하자면 봉촌도성 둘레와 그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 왕래와 문물 교류는 있었을 텐데 성남시 주변의 문화재 발굴과 조사연구는 장기 계획에 따라 실천 연구 되어져야 할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 사회자 한춘섭 예, 제가 청계산을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연구소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문제를 한 번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 제1의안 '성남의 문화권 회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짓게합니다.

다음으로 제2의안인 '우리 성남의 문화 현주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살펴주세요. 물론, 제3의안인 '성남상 창출'에서도 나올 이야기지만 우리 고장 뿌리 찾기와 관련해서 문화재를 조사한다든가 정신문화 계도 사업에 잘못이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가 말씀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여

기 계신 연구위원님께서도 이 지역 실상을 상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무국장님이 이 지역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고 비지정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야기 진행하기가 좋겠습니다.

○ 김임평 사무국장 현재 성남시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유물 내지 유종의 문화재는 드물고 대부분이 근래에 와서 성남시가 태동되고 난 후에 찾아내어 지정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못 된 것이지요. 지방문화재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101호인 봉국사 대광명전, 102호인 팽정암 마애불좌상, 그 외의 이수 선생, 이경석 선생, 한산 이씨 묘역, 또 전주 이씨 대안군파 묘역, 서원군파는 없어졌습니다라는 분당시가 생기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문화재 현황 유인물이 전부지요. 대부분 묘역입니다. 최근 들어 지정된 것이 향토문화유적 제2호가 올해 새로 지정되었습니다라는 향토문화유적 1, 2호가 모두 묘역입니다.

강정일당 묘와 둔촌 이길 선생 묘가 제2호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만, 명필로 보여지는 소위 신도비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업이 여기 계신 연구위원님께서 열의있게 조사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있는데 이경석 공 사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물로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 소장품이 되었으며, 우리 지역엔 묘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안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의 문화재라고는,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협조와 관련인과 연계하여 하루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구 위원 그 사례장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 김임평 위원 경기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물 930호로 지정이 되어 서울 문화재 관리국에서 가져갔을 거예요.

○ 사회자 한준섭 참고로 또 말씀 안하신 것을 제가 보충합니다.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강정일당의 묘소가 창계산 길숙히 있습니다. 제1호로 지정은 되었으나 관리면에서 후

손촉과 시 당국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남시민의 날이 7월 1일인데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강정일당 으뜸 시어머니상〉, 〈강정일당 며느리상〉을 2회째 시상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각각 1명씩 상을 드리는 것으로 됩니다만 그분의 묘소 현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분의 문집 저술이 남겨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훌륭한 조상의 묘역 주인공에 관한 사상과 본받을 만한 공신 신도비를 통해서라도 기타 실록, 또는 저술을 연구하여 성남의 정신에 보탬이 되는 책을 창출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 김임평 사무국장 성남에 문화제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성남시민이 13도에서 모여드는 현실에 있어 밀착감이 느껴지진다고 봅니다. 시민 화합을 시키고 애향심 고취를 할 수 있는 일에 있어 전통사당을 우리가 재 창출하여 계승시켜야 되겠습니다. 소위 불천위 사상을 만들어내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서로 화합하는 마음이 생기면 애향심이 고취가 스스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불천위 사상을 자주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오래전부터 행사 중에 강조해왔지요.

○ 사회자 한춘섭 이 문제에 대해서 장삼현 위원께서 성남의 현장을 살피고 답사하시면서 「성남의 뿌리」라는 저서를 몇 년 전에 만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삼현 위원 제가 양평 사람으로서 양평군의 향토유적하고 성남 향토유적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 지역에서 강정일당 어류 문인이 제1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정일당 이상 가는 행적을 많이 찾을 것 같아 연구와 발굴조사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 사회자 한춘섭 예, 그렇습니다.

○ 장삼현 위원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자주 발굴해야 되고 올해 이 둔촌선생 유적이 2호로 지정되었는데 둔촌선생 말고도 성남에는 많으니까 요소요소 다 돌아 다니면서 그분들 하나하나 그 정신을 몇 분에 국한할 것

이 아니라 앞으로의 향토문화 연구소의 사업으로 삼아 그분들의 사상을 고양시키는 사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도식개발하고 전통문화화하고는 할상 상충을 합니다. 꼭 걸림돌이 되는 것인데요. 개발하고 전통문화 수호하고는 함께 가치성을 인정할 일입니다. 현재 분당구를 보면 당국에서 한심스러운 것이 너무 기막힙니다. 어떻게, 벽을 쌓아 빌딩속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게 하면서 자연을 전부 훼손해 버립니까? 훌륭한 유적들을 다 밀어 제치고 문히게 하면서 오직 신도시만 만들기만 맘을 홀리는지... 지금부터라도 남은 향토유적, 경관보존은 되도록 살려가면서 도식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촌이라지만 그 옆에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이라든지 훌륭한 분의 무덤이라든지 그런 데를 전체 국민들이 찾아와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선도시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훌륭한 조상의 묘역이 전부 이장되어 버리고... 특히 금토동에 가면 안동 권씨네는 뿌리가 오래입니다. 청계산 밑에서 권 반, 권 람

이 분들의 사당이 조선조 초니까 500년이 거의 다 된 것이 있었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 그 사당이 모두 헐렸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별장으로 문갑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하루속히 후손측 또는 성남시 차원에서 별장을 헐어 버리고 그 분들의 훌륭한 정신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그 자리를 사서 사당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적인 차원이지만 앞으로 문화생활이 점점 윤택해지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어디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문화공간이 필요할때 아까 신도시 아파트촌 건립과 관련이 된 얘기지만 성남시내에 소위 학수라고 그러는데 이 오염안된 물을 잘 보존해서 성남시민들의 건강 식수로서 후대손까지 이용할 수 있게 자연수를 잘 좀 보호시켜야 할 일이 큰 사업이 되고 행정상 중점관리되어야 합니다.

○ 어순영 위원 제가 말하겠어요. 제목을 보니까 '21세기를 바라보는' 논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농경문

화권, 도시산업 문화권 등 역사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사회자의 말씀대로 역사적 고찰로 얘기하긴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지역문화에 관해 느낌을 간단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남에 몰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성남 인구의 거의 반 인구 이상이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이곳이 좋은 삶든 간에 같이 숨쉬고 사는게 아녜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성도시가 여기고, 현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처지 같은 시민이 상당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 성남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할 사업은 우리가 먼저 성남의 색깔을 찾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그 열악한,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성남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 정도의 거대한 성남시가 이뤄지기까지는 우리 성남시민 모두의 투지와 헌대력 그런 것으로 해서 오늘날의 성남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이 고생

하고 오늘날 성남시민 모두가 단합을 해서 이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연구과제라할까, 우리가 할 일은 '성남의 색깔'을 찾아가지고 비전있는 도시로 100만 인구에 걸맞는 거대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창열 소장님의 사업도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중심 센터가 될 기관이 설립돼야 할거예요. 그 기관이 들어서면 지역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시켜야지요. 하지 말래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서울 동숭동에 마로니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청소년 문화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담당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해라!"하기 전에 우리 시대가 그동안 성남을 일으키는 개혁의 시대였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성남의 맥을 이을 분위기 조성의 세대로서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해줄때 비로서 우리 성남은 그 2세대한테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좋은 의견들이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 사회자 한춘섭 다음 차례로 리제법 교장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연구소에서 해야 할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다 하는 제시를 좀 해주시지요.

○ 리제법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만, 원래도 문화권 말씀이 아까도 제쳤는데 풍주군 시절에도 저 산너머 쪽을 동풍주 그리고 여기를 서풍주 그랬어요. 이 지역은 서풍주로 동풍주보다는 조금 문화권이 앞선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송파, 천호동, 석촌동 일대 전부 벽제문화권의 중심지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동풍주쪽에는 그만큼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서풍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인위적인 가운데 오늘날 이만큼 커온 거지요.

그래서 이 지역이 형성될 때 저는 우리 성남시는 복 받은 땅이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복 받은 땅이다. “세일꾼 기다리던 복 받은 땅에”하고 제가 시민의 노래를 작사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지리적 여건으로 서울 발달과 무관하지 않은 관계

가 있기 때문에 복 받은 땅이라고 봅니다. 우린 앞으로 무궁무진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 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여기 시가 형성될 그 당시만 해도 8도에서 다 모여 들어 왔는데 그 때는 참 이미지도 나빴고, 다 그냥 왔던 사람들 또다시 가버렸습니다. 다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것이고, 원주민이 아주 드물게 됐어요. 그러므로 도시개발 이후에 들어온 시민이 원주민이라해도 무방할 거예요. 기존의 원주민은 극히 세가 약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내고향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으로 살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사업 연구하는 과제도 남한산성이 풍주에 붙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연구가 안되는 것이고, 다 우리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송파별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 과정에서부터 다 흡수를 해 들여야 될 것입니다. 결국, 정신문화를 되살리는 특색있는 운동이 펼쳐져야 합니다.

○ 고재희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문화의 역사적

고찰이나 이런 것은 교수님들께서, 언급했으니까 저는 문화원 식구로서 또 향토문화 연구소 일원으로서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시민 정신을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견이 사업내용 선정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남시 근대현대사적으로 볼때 의식개혁이 다른 지방보다도 빨리 변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봅니다.

성남시민의 정신에 변화가 타지역에 앞서 획기적으로 개혁되는 방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아까 어순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서개혁이 참 시급합니다. 의식개혁이 넓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정서개혁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정서 개혁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개혁 사업이 빨리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획기적으로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자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성남 시민들의 의식이 준

개조가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나온 얘기가 성남에 장미꽃이 참 잘자라는 곳이고 대추나무가 잘 크는 토양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꽃은 되는 게 없어요. 철쭉인데도 철쭉이 안 자라거든요. 대추나무와 장미는 엄청나게 잘 됩니다. 시멘트 문화의 상징인 아파트만 짓고 복개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마당 한쪽 구석에 단 몇 평 씩이라도 흙을 노출시켜가지고 대추나무를 곳곳에 심어 수목의 도시환경에 투자가 되면 참 좋겠거든요. 총 예산 2억 정도면 각 가정에 12그루씩 분배가 될 수 있겠어요.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집안에 대추나무 한 그루, 여름서부터 초가을까지 장미가 일석을 이루는 도시로 가꿔 줄 정서를 변화시키면서 시민 정신적인 계도 활동을 펴나가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연구 해서 사업 측면을 발행하는 가운데 다른 고을에 뒤지지 않게 과거 역사 고찰을 하면서 훌륭한 성남의 뿌리를 찾는데 집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 사회자 한춘섭 지금까지 두 가지

의안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셨다가 3의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 사회자 한춘섭 그러면, 후반부 세 번째의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연구소가 할 사업과 성남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 성남의 뿌리 찾기 사업,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좌담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겠습니다.

○ 이창렬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성남문화원이 생긴 이래 그리고, 문화소 개소식 후 우리 성남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갖게 된데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연구위원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기 전공을 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각 대학에서, 그리고 원주민 원로로서 항상 지역발전을 걱정해 주시는 입장인데 오늘 이처럼 좌담회를 갖게 되어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외세의 침입과 국권상실로 인해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된 역사 속에 가난이 무려 100여년 동안 지속해온 중에 문화를 잊어버리고 살아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시민문화가 뭔지 잊어 버릴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이 20년의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졸속발전이었거든요 정신없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을 수용할 거대도시지만 문화적으로는 졸속 도시지반을 이루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헤바르고 또 안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가 없는 도시, 초원이 없는 사막처럼 삭막한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이요 서로가 질투, 부조화 속에 문화가 메마른 도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원 가족은 물론이고 행정당국에서도 100만 시민의 문화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관심이 결집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이 좌담석에 도시신문과 우리 신문 등 신문사에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더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의 언론사가 문화사업 전개를 도와주시면 더 한층 결실이 늘어날 겁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있음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원장 취임 이래 제일 시급한 과제가 우리 100만을 내다보는 성남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의 시급성, 그래서 문화회관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언론사에도 또 행정당국에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급선무한 게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연구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성남에 깊숙히 묻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조사하시어 연구해 주시고, 또 현재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십시오.

○ 사회자 한춘섭 「문화재 조사 발굴」과 「정신문화 사업 정리보존」 주제가 달린 사업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각 부분에서 이미 말씀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에 장단기

일을 구분지어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문화 사업을 정리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성남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문제가 큼니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에게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 우리 성남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우리 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번에도 우리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남이라면 속된 표현으로 과거 60년대~70년대의 이야기를 아직도 머리속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문화도시 발전상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것을 전국에 배포를 하고 우리 성남을 알리는 방향

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중의 하나가 〈성남지리지〉같은 것을 발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지리지라고 한다면 최근에도 성남 시사가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해서 우리 성남이 걸어 왔던 역사적 관점, 예를 들면 아까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삼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 성남이 문화가 발전되어 왔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다음에 성남의 어떤 지리적인 현상, 예를 들어서 도시 세력권이 어디이며, 우리 성남의 지형이 어떻게 기후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다음에 문화유적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것을 하나의 책자 속에서 담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남시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동국여지승람〉이나 〈세종실록 지리지〉같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 지리지〉가 발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보살 위원 그걸 좀 보완해서 말이죠. 제가 〈서울의 문화지도〉라는 것을 3년전에 만들었어요. 12개 항목에서 1,100군데 가를만한 곳, 또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도에 수록시켰습니다.

전통문화, 생활문화 자료, 서점, 도서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거고, 생활문화와 전통문화를 넣어서 문화지도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성남에도 사실은 문화지도 같은 게 하나 있으므로 그 속에 전통문화와 문화지리를 속에 포함시켜 주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이어령 장관 시절에 아주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샘플로 서울을 했던 거예요. 했다가 장관이 바뀌니까 멈추어 더 이상 추진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리지 또는 문화지도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시안의, 각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총

체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남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사실은 그런 문화지도 같은 것이 만들어 질수 있다면 참 좋지요. 사실 이 땅을 아무리 우리가 발로 해서 어떻다고 해도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지도에 표시해 주니까 가장 빨라요. 여기는 어떤 역사와 어떤 사람의 흔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여기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여기에만 길에 그 주변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가꾸는 작업으로써는 그런 지리지가 되면 문화지도가 되면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일이지요.

○ 사회자 한춘섭 전제 연구 위원회 논문집이 연초 중에 창간호가 나와야 되니까 이번 논문집 뒷면쪽에 급한대로 “무록” 형식이거나 성남시 문화지도를 절가를 시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창환 위원 단기간에는 힘들지요.

○ 사회자 한춘섭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책발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

고, 시일을 두고 할 장기사업이군요.

○ 전보삼 위원 각 시마다 다투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인천도 지금 이걸 착수 예정이며, 강릉은 상당히 진척되었어요. 각 시별로 가장 빨리 알아 주는 것은 서울문화 지도가 하나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델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지도제작이라고 하는 게 힘든 작업이죠. 우리 성남도 그런 것을 하나 해 놓으면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창렬 위원 전보삼 위원께서 책임지고, 모든 지원책은 저희가 하겠으니 꼭 실행착수 해주세요.

○ 사회자 한춘섭 전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성남지리지〉 발간과 〈문화지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은 일종의 1년이상 시간이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사업이군요.

○ 전보삼 위원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간개념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시간개념을 한번 짚어 넣어보자 해서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다 짚어 넣어 봤어요.

그렇게 하프로서 밭을 정갈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옛말을 되살리자, 그냥 금수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개가 살았고, 아무개가 여기 와서 시를 썼고, 이걸 보고 시를 썼고, 이걸 보고 그림을 그렸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 문화지도의 개념인데 그렇게 해주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성남에도 제가 파악하건대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 사회자 현준섭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중장기 사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상규 위원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연구소가 해야 할 사업중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문화 연구소가, 성남의 각 대학과 서로 연계관계를 좀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는 도서관이 있고, 특수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들로 하여금, 필요한 행사와 사업, 연구 추진의 협조를 받음이 좋겠습니다.

어떤 문화축제를 할 때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듯이 성남 시내의 전문대학과 대학의 특별반이 우리 사업에 협조해 오도록 연결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경원대학 예를 들면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름방학 때 무료진료도 우리가 문화원에서 주려해서 할 수도 있고 각 도서관을 개방해서 성남시민의 자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이 주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향토문화연구소가 자발해서 대학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그런것도 능동적으로 나서면 좋겠습니다. 이까 성남시사가 금년에 나온 것을 제가 살펴 보았습니다. 거의가 행정위주지 다른 분야는 미흡합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 지명유래, 민속지, 종교문화, 향토지도 등을 취급하여 다양성을 담고 있는데 반해 이책은 그렇지 못하군요. 이제 성남시지가 못하는 거라면 향토문화연구소가 주체가 되어서 지명 유래지를 만들어 질 때 지도와 민속지를

망라해야 되겠어요.

그게 두꺼워야 좋은 〈성남 향토문화지〉에는 하나의 큰 테마속에서 제1부는 지명유래지, 2부는 민속, 3부는 가령 묘가 많으니까 그 쪽에 관계되는 문화유적을 망라하여 계속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책이 나와져야 시민은 물론이요, 외부 사람들까지 성남시가 말로만 듣던 천막촌이 아니었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증거로 보여 줘야지요.

타지역 국민들이 성남에 와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인구가 100만이라도 “천막촌이지”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요. 성남에는 이런 인물들도 있으며, 이것 만들 수 있는 학자도 있다는 거 말합니다. 부여 같은 조그만 도시, 인구 10만도 안되는데도 가보면 별별 일을 다 만들고 수집 정리시켜 향토성 부각에 인상이 깊습니다. 그곳 예를 들자면 부여 사람 출신 중에 서울에 온 사람들을 전부 문화사업 추진에 동참시켜요. 우리 성남은 인구가 100만을 눈앞에 두었는데 〈성남시지〉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거짓말 안 보태고

니무 빈약하지요. 적어도 인구가 100만이 살아갈 도시 홍보지로는 빈약하고 거의 90%가 행정위주니 성남 뿌리로서는 부족합니다. 성남시지에 수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었을 텐데 아쉽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령, 금산 같으면 「인삼제」가 있다가 하여 다른 도시마다 특징이 있는데, 성남은 특징이 없지요. 이에 〈성남광도제〉라는 명칭의 문화행사를 만들어 본다는가….

8도반이 다양하게 모여 있지만 나중엔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간다는 어떤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단 일화될 수 있는 오늘의 성남이 내일의 힘찬 성남으로 변질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좋겠어요. 그 행사 중에 굿, 씨름, 풍물 놀이 등을 넣어서 가장 눈에 들어올 그런 모델들이 성남시에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 비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신문사 사람들도 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다 더, 좀 더 후원 홍보 해주고 여기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므로써 과거에

있었던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명나는 현실의 화합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미국의 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하다 못해 인디언이 가서 밭을 췌던 곳도 문화제로 만든다는 건데, 그 어떤 것도 문화제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없다면, 수백년 수천년 이어갈 성남을 위해서라면 지금 만들면 이게 다 후일엔 문화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없다면 과거에 있었던 문화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도시 개발에 있어서 여러가지 지장이 많다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해서 우리가 해야지 과거의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 사회자 한춘섭 그러면 문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문화제도나 지리지같은 책을 발간을 해보자 하는 말씀들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어떤 놀이라운가 모든 연구사업을 위촉해서 함께 공동적인 면의 일을 해 나가자는 것, 그리고 시민문화 행사 같은 것을 팔도제라고 명칭을 붙여서 해보자 등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남시사〉 언

급이 있으셨는데 다른 지방에서 향토의 뿌리를 꾸미는 사업은 대개 문화원에 위촉시켜 일을 하는게 상례지요. 앞으로 우리 성남도 '뿌리 찾기 사업', '시사편찬'은 당연히 이곳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형구 위원 제가 한번 더 추가를 드린다면요. 결론은 아직 안 하실텐니까 사업하는 결정은 나중에 지으실 거고 지금 세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것이지만 이 곳에 아주 특징 있는 문화 거리가 없지 않아요.

성남시면 뿐만아니라 서울의 송파, 잠실, 천호동 쪽 시민들도 즐겨 찾는 「모란 시장」의 문제 특성을 육성하는 일에 착안을 해 봅시다. 모란 시장의 동물지리 같은 건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여기에서 성남의 좋은 문화제가 지속시킬만 한 곳으로 압니다. 지방의 토속적인 거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 내는 토속적인 산물들, 아주 비근한 말로는 이걸 예지만 저는 음식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신탕 참 좋아 합니다. 서울가도 여기서 가져온 것을 제일로 쳐요. 운중동의 보신탕집은 발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잡는 방법도 예전 방식으로 처리하여 그 음식을 전국 최고의 맛을 내는 곳을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중에 각종 문화의 향토성을 모아 며칠간 행사를 이끌어 가면 이게 다 문화입니다.

그런 중에 한편에선 예전 모습의 물건도 팔고 노래경연, 학생예를 같은 볼거리가 이뤄진다면 대단한 진흥정의 '성남 모란제'(가칭)는 일류급 향토문화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하기 좋은 것, 더군다나 신문사 같은 데서 함께 손잡아 기사화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더 참여하고 연구해주면 가능할 것입니다. 배쪽고 율놀이 하고 참기름 짜내며 우리 일상생활의 옛 모습들을 그 중에 어울리도록 하여 전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거리를 모란에서 찾으면 싶어요.

이런 사업은 많은 분야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기사도 특집으로 내 보내면서 최후에는 책으로 엮는 일을 우리들이 해 나갈만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같은 사업에 있어 예산만 뒷받침만 된다면 시작해 볼 일이며, 김 교수님의 지리학과 전 교수님의 문화지도 제작 경력에 한 시인의 창작력, 박교수님의 민속학 그 애정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업입니다.

덧붙여 얘기합니다만 남한산성 문제인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남한산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분당 개발전에 예비 조사할 때 남한산성이 성곽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저희가 중장기든 장기든 간에 성남시를 연구 한다면 모태가 남한산성이라는 건 다 여기서 찬동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은 여기에 오래 계셨던 리 교장선생님께서 중대성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 각자는, 각자대로의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의 모태가 되는 남한산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각 전문분야에 계신 언어, 지명, 지리, 민속, 문학, 풍속에서 그 다음에 성곽의 구조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것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제반 영역이 모두 검증하고 연구의 애정을 지

니면 충분히 지속해 볼 사업입니다.

○ 박상규 위원 책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한산성 파로, 모란당 개척사 파로 말입니다.

○ 이형구 위원 그렇지요. 콤팩트북 한 분이 원고 50~100매씩 연구 집필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토목 문제라든가 측량 문제는 시나 우리가 관계분야의 기사를 인용해서라도 실측을 하면서 종합적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몇 사람이 했는데 그게 성남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 기회에 제일 중요한 성남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남한산성 연구는 시의 예산적 지원아래 진행시킬 가치가 있습니다.

○ 사회자 한춘섭 우리의 첫 단기사업은 향토문화 논문집 창간입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문화지도나 저리지 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모란 풍물의 문화제와 남한산성 종합연구는 중장기 사업이지요.

○ 이형구 위원 한 선생님! 제가 보충할 것은 신문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문화원 사업으로 해도 좋고, 제일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성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으로 특징있는 몇 정취어린 사업을 뜻하지요. 큰 돈 안들고도 가능하거든요.

서울 시민들이 「사우나」하러 모란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모란시장 몇 모습 보기 위해서 딱 하나 더 먹고 가고 그 재미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란시장의 풍물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제안한겁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 연구비 지원이 되따라야 하는 문제지만, 종래까지 해오고 있는 각종 시 전체의 문화행사 주최자와도 논의해 나갈 일입니다.

○ 김일평 사무국장 그것은 추진방법에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사항이고 오늘 주제는 방향제시만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차후 따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고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곤란합니다.

○ 사회자 한춘섭 그러면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집 창간호 출판하는 문제가 제일먼저 나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되어 나갈 일이 문화지도, 모란시장 풍물지, 남한산성 연구, 그리고 성남 저리지 이런 책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발간하는

일 등의 장단기 문화사업입니다.

○ 이형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담으로 의견만 제시하고 결정은 소장님께 넘겨야 합니다. 다만 1차 사업 한두 가지는 전 위원들이 설정해야 되겠지요. 또 문제가 청소년들 사업도 있습니다. 의식개혁이 잘 중요합니다. 성남의 차세대들에게 성남의 뿌리를 전하는 문화교육은 중요합니다.

○ 김임평 사무국장 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하나씩 제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적인 시민이 나왔을 때 그에게 시민상도 수여하고 여행시를 잘 지은 시민의 시비라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팔도 문화가 다 모인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통문화를 성남시에서 집약하여 원주민 문화와 같이 전체 시민의 관심있는 쪽으로 찾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전통혼례식이다 이런 것은 여행심 발로써 합쓰는 겁니다. 아까 청소년 사물놀이때, 의식개혁 교육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간이 늘 고면커라 입니다. 문화공간적인 측면에서 전통문화를 되찾을 수 있는 합지마당 같은 것.

은 것. 세움도 할 수 있고 농악 발표도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 박삼규 위원 문화회관이 지어져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임평 사무국장 그것도 있지만 곳곳에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공간문화가 된다면, 아까 문화제 얘기를 하셨는데 팔도 문화제다 산성 문화제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는 명칭 그런 것을 만들기 전에 문화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축제화 시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보급화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작 보급시켜서 외국 같으면 「홀리데이」 같은 것 말이지요. 그런 문화 축제를 시켜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 시가지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지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성남의 장미의 꽃 거리가 크게 부각되었으면 해요. 골목마다 걸집바다 대추나무, 그다음에 거리의 가로수는 산수유 같은 것을 심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피고 제일 늦게 썩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대추나 산수유

같은 것을 육성시켰으면 합니다.

○ 박상규 위원 지금 장미 얘기가 나왔는데 왜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영국의 국화인 장미를 갖다 집어 넣느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여론에서 나옵니다. 가능한 한 우리 나라에서 자생되거나 연원이 깊은 꽃 종류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라일락 꽃 또는, 장미다 이런 것으로 만들면 이곳이 무슨 「센트란시스코」나 하는 여론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대추나무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나무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 없겠네요.

○ 이형구 위원 아니, 박교수님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정신빠진 놈이라고해서 우리 연구원 육박이니까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미가 서양 꽃이니까 안 된다고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도시도 분당구 전체가 24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저런 「아파트」 촌에는 역시 장미예요. 「아파트」는 완전히 서양건물인데 그러면 우리 초가집 지어놓고 철쭉심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생활주변의 꽃들이 전부 서양 꽃인데 뭐 어떻습니까? 지도 문화인류학에서 학생들한테 꽃의 어원을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코스모스가 언제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산의 코스모스가 미젠 우리 꽃이 되었어요. 포플러도 우리 나무가 되었어요. 아카시아도 우리 나무가 되었고요. 저도 뭐 우리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전국토에 외래적인 나무들이나 화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고, 여론에 무슨 논란이 크겠어요. (웃음)

○ 고재혁 위원 그런 것들을 염려하셔서 안되지요. 우리 연구소에서 그 같은 비관론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를 먼저 펴주셔야 합니다.

○ 박상규 위원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연구소다, 문화원이다 하면 자생적인 것을 발굴하지 뭐, 하느냐는 견해가 첫시작부터 대두되기거든요.

○ 고재혁 위원 전체의 빛꽃, 예를 봐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예요.

○ 김임평 사무국장 문제는 지금의

시조인 까지도 말이예요. 우리나라 새가 아니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일본새라는 설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 시조가 까치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화도, 그렇고요.

○ 고재혁 위원 지금 장미거리가 성남에 몇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심었는데 개량종으로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 “좋다” 그렇게들 감상합니다. 지나가며 “저건 영국 꽃인데 꽤 세기가 심어”하며 침을 뱉고 말으며 외면하진 않거든요.

○ 박상규 위원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몇 곳은 가능한데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 같습니다.

○ 어순영 위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에 맞는 의견이시네요. 앞으로 각 시군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맞는 특성을 다양한 쪽으로 전개할 것을 예견해보면 연구소에서 성남시민에게 미래에 초점을 둔 지방화시대에 맞는 「비전」이라고 할까,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구하여 제시해 주면 우리 시는 행정당국과 연구소의 제안이 하나로 발걸음을 맞추어 내적으로

외양면으로 큰 발전이 있어질 테지요.

제가 그동안 공예회관을 설립코자 정성을 다해 나름대로 열심히 다해 왔는데 우리 지방신문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많은 도움을 받음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면서 오늘의 논제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에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론이야말로 현대정보문화시대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그 과급효과는 크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협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우리시도 이젠 자존있는 성남문화의 전통이 정립돼 시민 문화의식과 세로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쁘게 말하면 팔도의 단점이 강점으로 재창조 됐을때 신흥도시로의 젊음과 패기가 오히려 새로운 문화진흥 도시로서 역할 또한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이지만 청소년 문제는 몇년전만 해도 문화공간이라는 말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맥을 이어가는데 그제 고마울 뿐입니다. 작은 바람이지만 우선

관내의 기업인들부터도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가질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줬을 때의 격려와 배려는 비로서 활기 넘기는 매력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계획의 시대에서 가슴속에 고향을 심을 수 있는 궁지의 도시, 다음 세대가 함으로 우리 고장 성남에 진실하게 애착을 갖고 정성을 다 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하며 인정하는 문화시민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환경 개량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보며 또 그것이 거대 성남을 바라보는 희망이자 의지라 보면서 앞으로 본 연구소가 생각해 볼 과제라 봅니다만...

○ 사회자 한준섭 사업종류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들으셨으니 소장님이 어떤 것이 장기 계획이 되어야 하겠고, 단기 계획이 되겠고, 중기 계획이 되겠다는 것을 평가 융하여 실천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까지 문화회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리 문화 사업

과 문화회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제1안에서 5안까지 부지선정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중 1안은 남한산성 밑에 금광동인데 장소가 외져있어 결정이 못한 현실입니다. 성남은 분당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곳과의 중심지에 문화권을 형성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의회라든가 또 행정 기관장님이라든가 모든 문화 가족들이 계속 당사하며 고심중입니다.

두번째 안이 여수동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안에 함께 건립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되어서 시당국에선 계속 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지으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건물을 지어보고 싶은 것이 욕심이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수동이 제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뒤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별로 없어서 문제입니다만 여수동이 불가능하다면 하대원 실내체육관 있는 데를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실현되도록 힘

써 볼 작정입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문화공간으로써 여러 가지 「이벤트(Abend)」설계가 사전 연구검토되어야지요. 아까 사무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흙지마당이라는지 전통혼례식이라든지 또 모든 문화 활동에 젊은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이용되는 문화 거리와 건물공간이 형성해야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사회자 한준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논의되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열 위원 그리고 성남문화연구회 발간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화지로서 그동안 사실상 중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월간 제제의 문화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논문, 예술활동에 대한 문화홍보 그리고 성남의 뿌리를 살려나가는 기사가 담긴 글을 모아 문화 홍보지를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문화가 빨리 보급, 확산되면서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한준섭 더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이 무소장에서 잘 말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이형구 위원 지금 할 일 중에서 각자 말씀이 더 있으실텐데요. 여러 위원에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반기에서 휴식전에 하신 말씀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청소년 문제와 꼭 발간일, 이 보다 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전 시민들의 의식개혁같은 문제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관 짓는 것 이전에 문화연구소는 우리 본연의 역할만 해야 되겠어요. 회관을 짓는 건 사실 성남시 당국의 장기 투자에 의한 일이며, 우리 연구위원은 그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사안을 보다 좋게 이끌 의견 제시인거지요. 시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문화회관은 짓는 것이 아닐니까? 문화회관 짓기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술활동 면에서 그리고 의식개혁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8도 문물을 많이 얘기했지만 성남시가 「베드타운」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산업도시도 아니고 산

업할래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앞으로는 전부 소비도시로서의 성남인데 소비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질서있고 선진 시민의 문화도시래야 하지 않겠어요.

○ 박상규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일단 놀이마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이형구 위원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빠졌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으로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추진할 항목을 요약 정리하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된 연구지 발간 외에 원장님한테 위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청소년 제도 같은 일인데 돈 안들이고도 질서 문제와 미화 문제, 장미보급 문제는 가능하지요. 장미거리 조성이 결정된다면 업자들이 한다면 각자 가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돈 안들이고 될 것입니다. 청소년 제도와 교육 문제는 박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화제'를 열어 준다든가, 도서 구입으로 전 교육기관이 개방되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학생들이 하여금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이야 큰 돈 안들이고 면제

시키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전보삼 위원 그런 것을 좀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학교 같은 것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 각종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좋은 일인대요.

○ 이창열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앞으로의 재임중의 사업계획 중에서 청소년 선도교육이라든가 주부 문화대학을 꼭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양 교육이라든가 주부 문화교육을 보급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장소가 성남시 현실로서는 마땅치 않아요. 금년에 한 차례 충효교육을 해보니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서 공부기가 많아 그 시기가 좀더군요.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협의하에 좀더 교재와 교육내용·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치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양 교육, 선도 교육을 맡아서 해볼려고 합니다.

○ 전보삼 위원 소장님, 그건 1년에

한두 번 하는 계획이고, 청소년 문화 학교 같은 건 매주 주말에 연다든지 할 수 있지요.

○ 이철렬 위원 그런데 장소때문에 걱정입니다.

○ 박상규 위원 대학의 강의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은 전부 다 뵙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금, 토요일은 거의 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강의실에서 뛰합니까?

그리고 공주와 부여에 가 보니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문화원에서 강습시킵니다. 여름, 겨울방학때 몇 시간 집중적으로 향토문화 학교라고 운영하더군요. 그 강습 이수 교사에게는 전급하는데 점수가 들어간 대요. 그렇게 연관을 교육청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문화원 내에 강당이 있더라고요. 부여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 김임형 사무국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향토문화 학교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받게 해주고 있어요. 성남문화원에서도 지난 번에 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주무대학을 비롯해서 문화학교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건의 신청해 보려고 했더니 자체 장소가 없다 해서 인가를 안 해줍니다. 사실상 그 인가를 안 해줍니다. 사실상 그 인가를 받으면 운영자금까지 매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울러 거기에 수반되는 자금 사정이 또한 뒤따라지를 못한다는 생각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을 소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연구소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빠른 기일내에 세해 추진사업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한춘섭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산 관계는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제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것도 있으면, 더 말씀하십시오.

○ 고재혁 위원 사무국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문화 학교를 개설하면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예산이 되고 하면, 부녀들은 혹시, 가능할런지 모르지요. 국악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아까 소장님 말씀같이 졸업예정 중의 고등학교 3학년생 시험이 끝나고나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남시민들이 의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도 뭔가 한 군데로 끌고 갈 리더가 없고, 획기적인 시민운동 목표가 고갈되어서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새롭고 미래와 어울리는 뭔가 하나를, 표출시켰으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 호응될 하나의 시민 운동에 붙어 붙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여러가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회가 문화원 부설인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소장님이 올리는 대로 사업계획도 승인해 주고 예산도 승인해 주면서 오히려 그 일에 적다 더 많이 해줘라. 이치란 되도록 머리를 맞대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올리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제 자신도 하도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고갈되었기 때문에 어서 빨리 개화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깨고 싶고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서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소비도시인데 청소년들이 뭔가 발분이고 못된 것 하기 좋은 소비도시의 그런 음침한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도시분위기를 일신시킬 시민운동 방법 몇 가지를 골라 봅시다. 우리가 문화사업의 정신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행동으로 옮겨서 시민운동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줘야 돼요.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싶네요. 이거, 여러분이 많은 연구 해주셔야 돼요.

○ 박상규 위원 단 기간에는 그게 어려울 거예요. 다변화적으로 해야 되겠고, 예산없이 그 어떤 일이 되겠어요.

○ 이형구 위원 부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개혁하기는 참 어렵다고 봐요.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통감하는 말씀들인데 그 문제만을 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때, 성남만 이렇고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하셨지만 타지방도 다 좋은 건 아니지요. 저는 어른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가 제가 창원에서 12월 17일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창원까지 가서 말하고 오려면 1박 2일입니다. 거기 갔다 올려면... 강의 두 시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정이 소요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행기타고 가기도 하고 기차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바로 주부대학, 문화대학, 박물관 대학이에요. 1년에 내가 많이 갈 때는 3번가고 적게 갈 때는 봄·가을로 두 번 가는데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부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자기는 과거에 6·25때 공부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읽을 책도 옆에 놓고 남편한테 한문나오면 물어도 보고 하니까 애들이 내 행동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2년에 하는데요. 자신의 성과는 아무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얻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공부하는 자세가 되니까 남편도 도와 주고 애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하다가도 제 엄마가 하면 저희들도 따라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좀 긴 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당장은 건 아니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장소와 여산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향토문화도 좋고 주부대학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박물관 대학도 좋고 문화 대학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성남이 문화 도시로 변화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이쪽 구도시 보다는 신도시에서 그걸 더 느끼는데 신도시에는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정년퇴직하고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다 지식층들입니다. 어느 관공서에 있었다든가 학교에 있었다든가, 어떤 이는 58세, 은행에 있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흡수해야 합니다. 노인대학 같은 것도 사실 절실합니다. 청소년 학교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문제도 큰 일이지요. 그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앞으로 문화계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학생들 모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사회자 한춘섭 청소년 대상의 일 같은 것은 아까 말씀처럼 계절을 따니다.

○ 전보삼 위원 부위원장님은 그 문제를 어렵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느냐. 그런 프로그램만 좋으면 성남이라고 절대 안 될 것 없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학교가 되었던 향토학교가 되었던 이런 걸 문화원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주부, 청소년 다 가능해요. 뿌리의식은 기성인들보다도 청소년, 여기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남의 주인 공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성남은 청소년 문화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다는 이야기입

니다. 다음에 주부들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라든가, 공간 이런 건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같은 건 머리만 조금 쓰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산성에서 내년 여름방학에 (청소년 만해 학교)를 합니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우리 수용한계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만해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설악산에 다녀왔거든요. 3박 4일 코스로... 그런데 지원자가 너무 넘쳐서 문제였어요.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향토학교가 되었던, 문화학교가 되었던 그래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문화원이 있다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잘 만하면 문화원의 수익입니다. 문화원의 지출이 아니라 주부들

상대로 한다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하면 일단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강료를 가지고 머리를 잘 써서 운영하면 오히려 수입이 되지, 지출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화원 활동은 아니지만 성남시 승격되고서 그때는 문화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 시민들 정서에 대해서 정신문화의 계도 역할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향우회 없애는 운동, 세번째 차제를 성남으로 옮기는 운동 등이 획기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일이에요.

○ 이창렬 위원 제가 향토문화연구소 이전에 문화원장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장장 3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광역하고 힘들고 한 것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지금까지 긍정적인 면만 선정하여 재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평가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 보자하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자리를 바쁘게 가지고 과담회를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운영 방향에 적극 참조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끝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형구 위원 결론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결론보다는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 중 중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부연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제는 이 많은 우리가 제출한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었으나 하는 것은 연구소보다는 문화원 쪽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 정취하는 것인데 아까 전교수님은 소프트웨어만 되면 된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제 직장이 종합연구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외부 학자들, 외부 연구자들 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십수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라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그래요. 일본 사회도 보니까 절대적으로 예산 뒷받침이예요. 회계에서 예산을 회피하실라고 하는 느낌을 들었는데 이것을 얘기하곤 말이에요. 드러내서 얼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보다는 예산 뒷받침이다 이게요. 우리 여기 다 걱정 가지고 있고 항상 바쁜 사람들입니다. 저희한테 대접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시간중에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번 얘기르, 또는 신문 거리로 끝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중한 얘기들이니까 이것을 실현해 옮기려면 앞으로 5년, 10년 걸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데 절대적으로 예산 뒷받침입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소 소장단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임원전에서 적극 해결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임원전에서 이것을 어디 무슨

공장에서 기쁨을 받아오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얻는다든가 이것은 방법론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논문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외유적으로 조사 검토하려면 거기에는 막대한 조사비가 들어가고 또 인쇄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단 하나만 해결하더라도 저는 참 지금 같은 현실에서 가능하게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뒷받침은 없고, 그래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성남 문화가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오히려 성남은 현재 보다도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었던 것은 참 성남 근세역사, 현대역사 20년 중에서도 만시지탄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지금 우리 서로가 이제와서 얘기하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라는 상당

히 지금이라도 나온 여러 좋은 얘기들이 어디보다도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다고 믿습니다. 시기적절한 논제를 설계하여 오신 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주변에 신흥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남도 있고 군포도 있고 많습시다마는, 그런 도시 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제 정보망에 의해서는 빠르다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창원같은 데는 공업단지가 있었으니까 막대한 시세산으로 충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기도내 성남시에 오늘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저는 아이디어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사회적 경험에 걸드려 역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만이 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첫번째 항목에서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건 성남의 20년 최고 문제는 대개 아시다시피, 결론이라기보다는, 모아지는 것은 역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남, 남한산성을 모태로 한 성남, 거기에서 성남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성남의

미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2안으로서 성남문화의 현주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변전에 봉착했던 문제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정신, 청소년 문제로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남의 현실에 제일 문제는 뭔가는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듣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번 리바이벌 시켜드렸는데 좋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심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식개혁이라든가 시민정신이라든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시민 각 계층의 교육 문제 이 문제가 성남의 가장 어려운 현실이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두번째 의안의 현실 진단이 아주 훌륭했던 일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에 봉착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집약적으로 의식개혁

문제, 또 말하자면 시민 문제, 청소년 문제 등의 이런 현실 직시하에서 우리가 토론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3의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는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신적인 문제이지요. 지금 현실 진단에서 말씀 나누었던 의식개혁 문제, 정서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주부 문제, 이게 다 정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선 제일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시적으로 지리지를 만든다든가 풍물지를 만든다든가 종합 연구 그런 한다든가 문화지도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는 조목 조목 본다면 성남 지리지, 성남문화지도, 모란시장 풍물지, 남한산성 종합조사 연구, 이 5개 테마로 집약되는데 역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뒷받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것으로 일임하고, 저희는 예산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문화지도와 성남지리지나 풍물지, 모란시장 풍물지 등 하기 쉽고, 돈이 덜

들어가는 것부터 한다면 가능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래에 성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산성 종합연구 같은 것은 대형, 한 5년 계획으로 추진할 일입니다.

《성남문화연구》논문집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금년사업으로 내년에 출간되는 것이니까, 내년 사업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도 그런 바당에서 무엇인가 집합체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회관이 필요하고 문화회관을 만든다면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향토 문화연구소에서 생산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디어」도 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제안들이 나올 수도 있고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종합해 보면 문제는 임원진에서 어떻게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느냐? 그래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느냐,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와도 뒷받침없이 안 됩니다. 말로는 사상누각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성남에 사시면서 연구원의 부침을 꼭 보실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이요 남의

연구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의 부침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막강한 권력자, 정권이 바뀔때 누가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의해서 부침이 있습니다. 자기 학교라면 자기 하나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창설자와 제2세가 또 다릅니다.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정신문화 연구원이라는 곳도 역시 정신적인 것, 성남의 아니라 그것은 한국의 정신을 개발하자는 곳인데 뒷받침이 없을때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협조를 안 해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지 제가 미국도 예를 조사해본 결과 역시 어느 종합기관이었을 때 자기 개인이나 계단법인 문제가 아니나 종합적인 여러 두뇌를 모아서 일을 할 때는 뒷바침입니다. 그래야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내가 그것을 15년이상 해왔는데요. 특히 성남시의 분당과 구시가지 사이에 갈등도 빛을 조절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전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 사회자 한춘섭 대강 결말에 해당

되는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여타 사항 하실 말씀은 식당에 가서 다시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달 모임에 나오실때는 오늘 말씀하신 것 다시 생각하시면서 생산적인 실천 사업을 들고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려 3시간 넘게 예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城南文化研究 (창간호)

제1호

인 쇄 : 1994년 5월 10일

발 행 : 1994년 5월 20일

발행인 : 이 창 열

편집인 : 한 춘 성

주 관 : 김 창 환

발행처 : 향토문화연구소

(사단법인, 성남문화원 부설)

주 소 : 우)461-192 성남시 수정구 대평2동 3309-425

전 화 : (042)753-1020 750-2348, FAX : (042)756-5245

※ 이 연구집 발간은 성남시 향토문화연구소 시범 지원금
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